하늘의 기적의 기도

여는 100가지 기도문

데이빗 리

홀리타임즈

이 책을 통해 당신의 삶이 변화될 겁니다.

- 성령의 불이 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 하늘의 기적이 주어질 것입니다.

목차

CONTENTS

1. 초청기도 ... 7
2. 채움기도 ... 17
3. 전쟁기도 ... 26
4. 대적기도 ... 36
5. 방어기도 ... 46
6. 차단기도 ... 56
7. 무장기도 ... 66
8. 방패기도 ... 76
9. 보호기도 ... 86
10. 정결기도 ... 96
11. 회개기도 ... 105
12. 금지기도 ... 114
13. 성품기도 ... 122
14. 겸손기도 ... 131
15. 사랑기도 ... 139
16. 용서기도 ... 148
17. 결단기도 ... 158
18. 순종기도 ... 167
19. 충성기도 ... 175
20. 소망기도 ... 183
21. 기쁨기도 ... 193
22. 인내기도 ... 203
23. 자비기도 ... 214
24. 평화기도 ... 224
25. 이해기도 ... 234
26. 진리기도 ... 244
27. 신뢰기도 ... 253
28. 정직기도 ... 262
29. 감사기도 ... 271
30. 축복기도 ... 281
31. 지혜기도 ... 290
32. 격려기도 ... 299
33. 나눔기도 ... 308
34. 베품기도 ... 316
35. 헌신기도 ... 324
36. 친절기도 ... 333
37. 자유기도 ... 341
38. 안전기도 ... 350
39. 온유기도 ... 359
40. 경건기도 ... 368
41. 성숙기도 ... 376
42. 열매기도 ... 385
43. 충만기도 ... 395
44. 회복기도 ... 404
45. 성화기도 ... 413
46. 조화기도 ... 422

47. 신앙기도 … 432
48. 기적기도 … 441
49. 부흥기도 … 450
50. 교제기도 … 459
51. 동행기도 … 468
52. 안식기도 … 477
53. 성찰기도 … 487
54. 공감기도 … 496
55. 인도기도 … 506
56. 승리기도 … 516
57. 강건기도 … 526
58. 치유기도 … 536
59. 의뢰기도 … 546
60. 재정기도 … 556
61. 열정기도 … 566
62. 용기기도 … 575
63. 수호기도 … 584
64. 결혼기도 … 594
65. 긍정기도 … 603
66. 대속기도 … 612
67. 동역기도 … 621
68. 전도기도 … 630
69. 언약기도 … 639
70. 간구기도 … 648
71. 구원기도 … 656
72. 희망기도 … 665
73. 화합기도 … 674
74. 민족기도 … 684
75. 분별기도 … 696
76. 중보기도 … 706
77. 언어기도 … 716
78. 침묵기도 … 726
79. 가정기도 … 736
80. 부모기도 … 746
81. 자녀기도 … 756
82. 사역기도 … 766
83. 인터넷기도 … 775
84. 직장기도 … 785
85. 공부기도 … 794
86. 선택기도 … 803
87. 감정기도 … 812
88. 문화기도 … 823
89. 연합기도 … 834
90. 은혜기도 … 844
91. 절제기도 … 854
92. 간증기도 … 864
93. 공동체기도 … 874
94. 세대기도 …884
95. 희생기도 … 894
96. 부르심기도 … 904
97. 고백기도 … 913
98. 성전기도 … 923
99. 자족기도 … 932
100. 열방기도 … 941

들어가는 말

하늘문을 여는 사람들

나는 기도를 가르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기도를 연구하는 신학자도 아닙니다.
나는 단지… 기도하지 않으면 살아낼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인생의 골짜기에서, 절망의 밤에서, 눈물로 베개를 적시며 울부짖던 그날에도
하나님은 들으셨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외면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이 책은 그렇게 절박함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 외치고, 울고, 기다리고, 순종하며 살아온 시간 속에서

작은 기도의 씨앗들이 하나둘씩 심어졌고
그 씨앗들이 열매 되어 누군가의 심령에 심기우길 바라는 마음으로 펜을 들었습니다.

누군가는 이 책을 펴들며 말할 것입니다.
"나는 기도가 너무 어렵습니다."
또 누군가는 속삭일 것입니다.
"기도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사랑하는 이여, 기억하십시오.
하늘문은 우리의 소리가 크기 때문에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문은 '믿음'으로 두드리는 자에게,
포기하지 않고 '신뢰'로 기다리는 자에게 열립니다.

기도는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풀어내는 신비로운 연결 통로입니다.
기도는 불가능을 향해 외치는 절망의 소리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응답을 향해 여는 열쇠입니다.

이 책에 담긴 100가지 기도는
각기 다른 주제 속에서, 당신의 삶을 구체적으로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쓰였습니다.
삶의 문제 앞에서 말이 막힐 때,
눈물로만 기도할 때,
말문이 닫힌 이들에게 작은 길잡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책의 제목처럼
당신의 기도가 하늘을 여는 통로가 되기를,
그리고 그 열린 하늘에서
응답과 치유, 회복과 기적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다시 기도의 무릎을 꿇는 그 순간부터
기적은 시작됩니다.
이 책을 통해,
당신의 삶에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자 데이빗리 목사 드림

ㅈ

1
초청기도

성령님을 초청하는 기도

1. 성령님, 오셔서 나를 채워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의 마음을 열고 당신의 임재를 간절히 초청합니다.
내 마음을 여시고, 당신의 능력으로 저를 완전히 채워 주소서.
내 안에 여전히 빈 공간이 있다면, 나는 그 빈 공간을 채운 모든 헛된 것들을 파쇄하노라!
오셔서 그 자리를 당신의 성령으로 가득 채우시고,
내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세상 속에서 겪는 모든 불안과 걱정이 내 마음을 차지할 수 없도록,
나는 모든 불안과 걱정을 파쇄하노라!
당신의 평화로 내 영혼을 가득 채워 주소서.
제가 매일 살아가는 이 땅에서, 당신의 능력과 사랑으로 내 마음을 지키시고,
제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를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 내 마음 속에 잠시도 자리를 차지할 수 없는

모든 어둠과 두려움을 몰아내시고,
나는 모든 어둠과 두려움을 파쇄하노라!
당신의 거룩한 불로 내 마음을 뜨겁게 해 주소서.
제가 마주하는 모든 상황에서 당신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소서.
성령님, 저를 온전히 채우셔서 당신의 충만한 임재로
내 삶을 변화시키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성령의 충만함이 내 삶에 임할 것을 선포하노라!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을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 성령님, 나의 마음에 임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는 내 마음을 여오니,
오셔서 내 안에 거하시고, 당신의 사랑과 능력으로 저를 채워 주소서.
내 속에 있는 모든 어두움을 비추시고, 당신의 평화가 내 삶 속에 넘쳐나게 하옵소서.

내 마음 속에 있는 모든 죄악과 미움, 그리고 상처를 치유하시고,
나는 모든 죄악과 미움과 상처를 파쇄하노라!
당신의 사랑으로 내 안에 평화를 가득 채워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 주님의 뜻을 따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삶을 인도하여 주소서.
제가 매일의 삶 속에서 당신의 음성을 분명히 듣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저의 삶에 온전히 임하시어, 내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도와주소서.
내 삶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 속에 주님의 사랑과 능력이 가득 차게 하셔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소서.
제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이 당신의 사랑으로 변화되도록 제가 하

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옵소서.
내 마음에 성령님의 임재가 충만히 임할 것을 선포하노라!
내가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것을 선포하노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가 될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 성령님, 나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소서.
내 안의 모든 죄악과 연약함을 씻어주시고,
나는 모든 죄악과 연약함을 파쇄하노라!
주님의 뜻에 맞게 저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어 주소서.
제가 세상에서 살아가며 마주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의 모든 부분에서 주님의 능력이 역사하게 하시

고,
제가 예수님의 본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성령님, 내 영혼을 채우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강한 믿음을 주시고,
매일매일 주님의 길을 따르며 살게 하옵소서.
제가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이 당신의 사랑으로 변화되도록 제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거하셔서, 내 마음의 모든 어둠을 제거하시고,
나는 내 마음의 모든 어둠을 파쇄하노라!
그 자리에 당신의 빛을 비추셔서, 제가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성령님, 제가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당신의 능력으로 내 안에 새로움을 주셔서,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해 주소서.
내 삶이 주님의 뜻에 맞게 새롭게 될 것을 선포하노라!
내가 예수님을 닮아갈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 성령님, 나의 삶에 충만히 임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 내 삶에 충만히 임하셔서, 내 마음과 영혼을 온전히 채워 주소서.
당신의 임재로 내 삶이 가득 찬다면,
제가 마주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어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성령님, 제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도와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속한 모든 곳에서 당신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도 빛과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 제가 할 모든 일에서 당신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시고,
제가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당신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이 없음을 믿습니다.
나는 불가능의 영을 파쇄하노라!
내 모든 생각과 말, 행동 속에서 당신의 뜻이 이루어

지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 제가 당신의 기름 부음을 받을 때,
그 능력으로 내 삶이 변화되고,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셔서 내 삶에 충만히 임하시고, 내 영혼을 새롭게 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이 내 삶에 임할 것을 선포하노라!
내가 주님의 사명을 이루어갈 것을 선포하노라!
주님의 능력이 내 삶에서 드러날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 성령님, 나의 가슴을 뜨겁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 저의 가슴을 뜨겁게 해 주셔서,
내 삶 속에서 당신의 사랑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당신의 불타는 사랑으로 내 마음이 뜨겁게 타오르며,
매일매일 주님의 뜻을 따르며 살게 하옵소서.
성령님, 내 안의 모든 차가운 마음과 의심을 제거하

시고,
나는 모든 차가운 마음과 의심을 파쇄하노라!
오직 당신의 사랑으로 내 삶을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마주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당신의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닫고,
그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당신의 불꽃 같은 사랑으로 내 마음이 뜨겁게 타오르고,
그 사랑이 저의 모든 행동에 영향을 미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도와주소서.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르며 살 수 있도록
성령님, 내 가슴 속에 더 깊이 임하셔서 저의 사랑을 완전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당신께 맡기며,
나는 모든 무거운 짐을 파쇄하노라!
당신의 사랑과 능력으로 내 삶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게 해 주소서.
매일매일 당신의 성령의 불로 내 가슴을 뜨겁게 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령의 불이 내 가슴을 뜨겁게 할 것을 선포하노라!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할 것을 선포하노라!
내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

채움기도

성령으로 채우게 해달라는 기도

1. 성령님, 나를 완전히 채워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의 마음을 열고 당신의 임재를 간절히 초청하오니,
내 마음을 여시고, 당신의 능력으로 저를 완전히 채워 주소서.
내 안에 여전히 빈 공간이 있다면, 나는 그 빈 공간을 채운 모든 헛된 것들을 파쇄하노라!
오셔서 그 자리를 당신의 성령으로 가득 채우시고,
내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세상 속에서 겪는 모든 불안과 걱정이 내 마음을 차지할 수 없도록,
나는 모든 불안과 걱정을 파쇄하노라!
당신의 평화로 내 영혼을 가득 채워 주소서.
제가 매일 살아가는 이 땅에서, 당신의 능력과 사랑으로 내 마음을 지키시고,
제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를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 속에 잠시도 자리를 차지할 수 없는 모든 어

둠과 두려움을 몰아내시고,
나는 모든 어둠과 두려움을 파쇄하노라!
당신의 거룩한 불로 내 마음을 뜨겁게 해 주소서.
제가 마주하는 모든 상황에서 당신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소서.
저를 온전히 채우셔서 당신의 충만한 임재로 내 삶을 변화시키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성령의 충만함이 내 삶을 완전히 채울 것을 선포하노라!
내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 성령님, 나를 가득 채워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당신 앞에 나아가오니,
내 마음을 열고 당신의 충만한 임재로 저를 가득 채워 주소서.
제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마다 당신의 능력과 사랑으

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우시고,
제가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를 수 있도록 그 힘과 능력을 부어 주소서.
나는 세상의 유혹과 고난을 파쇄하노라!
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당신의 평화와 기쁨으로 내 영혼을 채워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겪는 고통과 갈등이 내 영혼을 움켜잡지 않게 하시고,
나는 모든 고통과 갈등을 파쇄하노라!
그 자리에 오직 당신의 사랑이 채워지게 하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악된 성향과 불순물을 당신의 성령으로 정결하게 해 주소서.
내 마음의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제거하시고,
당신의 임재로 내 마음을 채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도와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삶 속에서 모든 일이 당신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루어지도록,
당신의 충만한 능력으로 저를 이끌어 주소서.
제가 가는 길마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함이 내 모든 순간을 채울 것을 선포하노라!

내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것을 선포하노라!

주님의 영광이 내 삶에 드러날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 성령님, 내 영혼을 채워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이 갈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셔서 내 영혼을 채워 주소서.

내 마음 속 깊은 곳까지 들어와 당신의 거룩한 성령으로 내 안을 가득 채워 주옵소서.

나는 세상의 유혹과 갈등을 파쇄하노라!

제가 마음을 흔들지 않게 하시고, 그 자리를 오직 당신의 평화와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느끼는 고통과 외로움이 당신의 임재 안에서 사라지게 하시고,

나는 모든 고통과 외로움을 파쇄하노라!

내 영혼이 온전히 주님의 뜻을 따르며 살아갈 수 있

도록 도와주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두운 부분을 비추시고,
나는 모든 어둠을 파쇄하노라!
당신의 빛으로 내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당신의 능력으로 저를 온전히 채워 주옵소서.
제가 주님의 길을 따르며 살아갈 때,
내 마음과 영혼이 당신의 사랑으로 가득 차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해 주소서.
내 영혼이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질 것을 선포하노라!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것을 선포하노라!
주님의 빛이 내 영혼을 밝힐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 성령님, 나를 충만히 채워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의 삶을 온전히 당신께 드립니다.
내 마음과 영혼을 가득 채우시고, 당신의 능력으로
저를 새롭게 하여 주소서.

제가 걸어가는 모든 길에서 당신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도록 저를 충만히 채워 주옵소서.
제가 마주하는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 주님의 평화와 기쁨으로 내 마음을 채우시고,
나는 모든 어려움과 시련을 파쇄하노라!
당신의 능력으로 내 삶을 이끌어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의 갈증을 채워주시고,
내 영혼이 평안하게 안식할 수 있도록 당신의 사랑으로 저를 가득 채워 주소서.
당신의 기름 부음으로 내 삶을 변화시키시고,
매일매일 주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는 영혼의 갈증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저의 삶이 온전히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매 순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도록
당신의 충만함으로 저를 이끌어 주소서.
제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함이 내 삶을 가득 채울 것을 선포하노라!
내가 매 순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것을 선포하노라!
주님의 영광이 내 삶에 드러날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 성령님, 나의 가슴을 뜨겁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가슴을 뜨겁게 해 주셔서, 내 삶 속에서 당신의 사랑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당신의 불타는 사랑으로 내 마음이 뜨겁게 타오르며,
매일매일 주님의 뜻을 따르며 살게 하옵소서.
나는 내 안의 모든 차가운 마음과 의심을 파쇄하노라!
오직 당신의 사랑으로 내 삶을 채워 주옵소서.
당신의 성령의 불로 내 영혼이 뜨겁게 타오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
그 뜻을 세상에 전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소서.
내 삶의 모든 순간에 당신의 임재가 함께하셔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제가 주님의 뜻을 따르며 살 때,
당신의 성령이 내 마음과 영혼을 뜨겁게 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삶 속에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내 가슴을
뜨겁게 해 주소서.
나는 냉랭함과 무기력함을 파쇄하노라!
성령의 불이 내 가슴을 뜨겁게 태울 것을 선포하노
라!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 그 사랑을 세상에 전
할 것을 선포하노라!
주님의 영광이 내 삶 가운데 드러날 것을 선포하노
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
전쟁기도

마귀와 영적으로 전쟁하는 기도

1. 마귀의 세력을 대적하는 기도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저의 모든 연약함과 죄악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려 놓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만을 의지하며 이 기도를 드립니다.
이 땅에서 마귀와의 싸움이 계속되고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권세와 능력을 믿고,
마귀와 그 모든 악한 세력을 대적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주님의 권세와 능력을 믿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의 모든 계획과 속임수를 파쇄하노라!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이 땅에 있는 모든 악한 영들이
내 삶과 내 가정, 교회에서 떠나가게 하옵소서.
마귀는 우리를 속이려고 온갖 거짓말과 유혹을 퍼붓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믿고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우리를 승리하게 하셨고,
우리는 그 승리 안에서 마귀의 세력에 맞서 싸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으로 저를 채우시고,
제가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내 마음을 지켜주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로 저를 보호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악한 영들이 내 삶에서 떠나게 하소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 담고,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를 믿으며 마귀의 모든 세력을 대적하노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사탄의 계획을 물리칠 것을 선포하노라!
내 삶에서 마귀의 세력이 완전히 떠날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 마귀의 속임수와 유혹을 대적하는 기도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마귀의 속임수와 유혹에 맞서 싸워야 할 때가 왔음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저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을 의지합니다.
마귀는 저를 넘어뜨리려 시도하고,
세상의 모든 죄악을 미화하여 저를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권세로,
나는 마귀의 모든 유혹과 속임수를 파쇄하노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땅의 모든 악한 영들과 그 속임수를 파쇄하노라!
마귀는 제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을 막을 수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으로 저는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 아버지의 길을 따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순간 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마귀가 던지는 모든 거짓과 유혹을 분별하게 하소서.
저의 마음이 흔들리거나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당신의 능력으로 내 마음을 지켜주소서.
저는 주님의 권세 아래 있으며,
이 세상의 모든 악한 영과 싸워 이길 수 있음을 확신
합니다.
나는 마귀의 모든 세력이 이미 패배했음을 선포하노
라!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승리 안에서 살아갈 것을 선포
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 마귀의 공격을 물리치는 기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권세로, 저는 이 순간 마귀의 공격을
대적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속여서 하나님의 뜻
을 따르는 길을 방해하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나는 주님의 권세로 마귀의 모든 공격을 파쇄하노라!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의 모든 계획과 공격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유혹과 두려움 속에서 저는 두려워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만을 의지합니다.
내 삶과 내 가정에 있는 모든 악한 영들을 떠나게 하시고,
제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평화와 승리가 넘치게 하옵소서.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으로 저를 가득 채워 주시고,
마귀의 공격을 물리칠 수 있는 담대함과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능력으로 모든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빛이 내 삶 속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나는 마귀의 모든 공격이 물러갈 것을 선포하노라!
내 삶과 가정에 하나님 아버지의 평화와 승리가 임할 것을 선포하노라!
하나님의 빛이 내 삶을 가득 채울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 마귀의 속임수를 분별하는 기도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임수를 퍼뜨리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과 성령님을 의지하여
마귀의 모든 속임수를 분별하고 대적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제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마귀가 보내는 유혹과 속임수를 잘 분별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마귀는 저를 미혹하려고, 세상의 모든 죄악을 미화하여 제게 접근합니다.
나는 그 모든 거짓을 파쇄하노라!
나는 하나님의 진리만을 따라갈 것을 선포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의 진리가 저의 마음을 확고하게 세우게 하시고,
마귀의 모든 거짓과 유혹을 물리치게 도와주소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악한 세력과 속임수를 파쇄하노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 것을 선포하노라!
마귀의 속임수를 분별하는 능력이 제게 임할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는 기도

하나님 아버지,
저는 지금 이 순간, 주님의 이름으로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악한 세력을 물리칩니다.
마귀는 저를 넘어뜨리려고 끊임없이 공격하지만,
주님, 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로 승리할 것입니다.

나는 마귀의 모든 권세를 파쇄하노라!
마귀의 모든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하며,
하나님의 권세만이 저의 삶을 지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권세로 저는 마귀의 모든 세력을 물리칩니다.
세상의 모든 악한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서 그 권세를 잃고 물러가야 합니다.
내 삶 속에서 마귀의 권세는 이미 깨졌으며,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만이 내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제가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과 시험 속에서도
하나님의 권세는 저를 보호하시며, 마귀는 내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삶 속에서 마귀가 던지는 모든 거짓과 유혹은
하나님의 진리와 능력 앞에서 물러갑니다.
나는 세상에서 겪는 모든 고난과 유혹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힘과 능력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모든 악한 영과 싸워 나아가노라!

내가 마귀의 모든 권세를 깨뜨릴 것을 선포하노라!
하나님의 권세로 내가 승리하는 삶을 살 것을 선포하노라!
내 삶에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

대적기도

귀신의 영향을 대적하는 기도

1. 귀신의 영향과 속임수를 대적하는 기도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순간, 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모든 악한 영과 귀신의 세력을 대적하며 기도합니다.
마귀는 언제나 저를 속이고, 내 마음과 생각을 흔들어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대적하노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악한 영들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저는 당신의 능력과 권세를 믿고 의지합니다.
귀신은 저의 삶과 마음을 점령하려 하지만,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로 그들이 미치는 영향을 파쇄하노라!
제가 세상에서 겪는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화와 기쁨이 내 삶에 충만하게 하소서.
이 시간 제가 마주하는 모든 유혹과 시련 속에서
마귀의 속임수와 거짓을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로 저를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충만히 임하셔서 내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으로 보호해 주소서.
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 땅에서 모든 악한
영과 싸워 승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제가 가는 길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도록 하소서.
나는 귀신의 모든 속임수와 유혹을 파쇄하노라!
내 삶에 오직 하나님의 진리만이 가득 찰 것을 선포
하노라!
내가 마귀의 모든 공격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 귀신의 유혹을 대적하는 기도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의 삶과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립
니다.
마귀와 귀신은 끊임없이 저를 유혹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을 막으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
로 그들을 대적하노라!

나는 귀신의 모든 유혹과 속임수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마귀는 제게 두려움과 불안을 주며,
세상의 유혹을 통해 저를 끌어내려 합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 아래 있으며,
그 어떠한 유혹도 저를 넘어뜨릴 수 없음을 믿습니다.
나는 모든 두려움과 불안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지키시고,
제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충만히 임하셔서 귀신의 유혹을 분별하게 하시고,
당신의 진리로 저를 이끌어 주옵소서.
제가 마주하는 모든 시험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담대함과 믿음을 주시옵소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어둠을 파쇄하노라!

하나님의 빛만이 내 삶 속에 가득 찰 것을 선포하노라!
내가 귀신의 모든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 귀신의 속임수를 분별하는 기도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귀신의 모든 속임수와 거짓을 대적하고자 합니다.
귀신은 저를 미혹하고, 저의 마음과 생각을 어지럽히려 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속임수를 파쇄하노라!
나는 귀신의 속임수에서 완전히 벗어날 것을 선포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이 순간 내 마음을 지혜와 분별력으로 채워 주소서.
귀신의 모든 거짓과 유혹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진리만을 따를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해 주소

서.
제가 마주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을 수 있도록
내 귀를 열어 주소서.
귀신의 유혹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날 때,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고,
내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길을 밝히시고,
나는 마귀의 속임수를 파쇄하노라!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악한 세력을 대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만이 저의 보호자이며,
귀신의 속임수는 더 이상 저를 지배할 수 없음을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진리만을 의지하고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내가 귀신의 속임수를 분별하는 능력을 받을 것을 선포하노라!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만을 따를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 귀신의 공격을 물리치는 기도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는 귀신의 모든 공격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파쇄하노라!
마귀는 저를 괴롭히고, 내 삶을 어지럽히려 하지만,
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믿고, 나는 그들의 세력을 파쇄하노라!
귀신의 공격은 더 이상 내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며,
하나님께서 이미 제게 주신 승리로 모든 공격을 물리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순간, 내 영혼을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내 마음과 삶을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으로 지켜 주소서.
나는 귀신의 모든 세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파쇄하노라!
제가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과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화와 기쁨이 내 삶에 넘치게 하소서.
제가 마주하는 모든 공격은 이미 패배한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로 저를 지켜 주시고,
제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마귀와 그의 하수들이 저를 공격하는 이 시간,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으로 그들을 대적하노라!
당신의 권세로 내 삶을 보호하시고,
나는 귀신의 모든 공격을 파쇄하노라!
하나님의 평화가 내 마음을 지킬 것을 선포하노라!
내가 모든 공격을 물리치고 승리할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 귀신의 권세를 깨뜨리는 기도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의 권세를 파쇄하노라!
마귀와 그 하수들은 끊임없이 저를 공격하고,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려 하지만,
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를 믿고, 나는 그들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으로 귀신의 권세는 더 이상 내

삶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마주하는 모든 고난과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권세로 저는 승리할 수 있음
을 믿습니다.
나는 귀신의 권세를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의 삶을 온전히 지켜 주심을 확
신합니다.
내 마음을 보호하시고,
모든 악한 영들이 내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지
켜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겪고 있는 모든 유혹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권세가 내 삶을 지배하게 하시고,
귀신의 모든 세력은 저를 공격할 수 없음을 믿습니
다.
저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합니다.
제가 겪고 있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으로 저는 승리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권세로 귀신의 모든 속임수와 유혹을
파쇄하노라!
내 삶에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질 것을 선포하노라!

내가 모든 악한 영의 세력을 물리칠 것을 선포하노라!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에 드러날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
방어기도

악한 영의 세력을 방어하는 기도

1.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으로 악한 영의 세력을 방어하는 기도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과 권세로 악한 영의 세력을 대적하며 기도합니다.
마귀와 그 하수들은 언제나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어지럽히려고 하지만,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권세로 그들을 파쇄하노라!
우리는 이 땅에서 끊임없는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음을 압니다.
마귀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흔들어,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려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나는 마귀의 모든 공격과 속임수를 파쇄하노라!
이 순간, 내 마음과 영혼을 지켜 주소서.
제가 마주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귀신의 유혹과 공격이 내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내 마음을 보호해 주소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의 모든 세력을

대적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으로 저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는 당신의 권세 아래 있으며,
그 어떤 악한 영도 내 삶에서 저를 해칠 수 없음을 믿습니다.
제가 겪고 있는 모든 유혹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의 보호자 되시며,
어떤 영적 공격도 저를 넘어뜨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모든 악한 영의 세력을 파쇄하노라!
내 삶에서 악한 영들이 완전히 물러갈 것을 선포하노라!
하나님의 영광만이 내 삶을 지배할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하심으로 악한 영의 공격을 물리치는 기도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며,
악한 영의 모든 공격을 물리치기 위해 기도합니다.
마귀는 저를 괴롭히고, 내 영혼을 유혹하려 하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모든 공격을 파쇄하노라!
하노라!
저는 당신의 권세 아래 있으며, 귀신은 저를 해칠 수 없습니다.
모든 악한 영들은 예수님의 이름 앞에서 물러가야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순간, 저는 하나님 아버지만을 의지하여 귀신의 세력에 맞서 싸워 나아갑니다.
제가 겪는 모든 어려움과 유혹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평화와 기쁨이 내 삶에 넘쳐나게 하옵소서.
내 마음 속에 떠오르는 모든 두려움과 걱정을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로 채우시고,
나는 모든 두려움과 걱정을 파쇄하노라!
내 영혼을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신은 저의 마음과 영혼을 유혹하려 하지만,
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를 물리칩니다.
나는 마귀가 던지는 모든 거짓과 유혹을 파쇄하노라!
오직 하나님의 진리만을 따를 수 있도록 제 마음을 지켜 주소서.
저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모든 악한 영의 세력을 물리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 안에서 승리할 것을 선포하노라!
모든 악한 영의 공격이 내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으로 악한 영의 영향력을 차단하는 기도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며,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와 능력으로 악한 영들의 영향력을 차단합니다.

마귀와 그 하수들은 끊임없이 저를 공격하고,
내 마음과 영혼을 흔들려 하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을 파쇄하노라!
이 땅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려 하고,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능력으로 저는 그들을 물리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과 영혼을 보호해 주시고,
나는 모든 악한 영들의 영향을 파쇄하노라!
제가 겪는 모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내 삶에 넘쳐 흐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게 하시고,
나는 귀신의 속임수와 거짓을 파쇄하노라!
제가 마주하는 모든 시험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과 권세가 저의 방패가 되어
악한 영들의 공격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는 모든 두려움과 걱정을 파쇄하노라!

하나님의 평화만이 내 마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저는 안전하게 지켜지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내 삶 속에서 악한 영들이 저를 미혹할 수 없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권세로 저는 그들을 물리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내가 악한 영들의 영향력을 완전히 차단할 것을 선포하노라!
하나님의 권세가 내 삶을 온전히 지배할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으로 악한 영의 공격을 방어하는 기도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과 권세로
악한 영의 모든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기도합니다.
마귀와 그의 하수들이 저를 넘어뜨리려 하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과 보호하심을 믿으며,
내 삶 속에서 그 어떤 악한 영도 저를 해칠 수 없음을

확신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이 땅에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음을 압니다.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의 생각을 흔들며,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주님의 이름과 권세를
의지하여,
나는 마귀의 모든 공격과 속임수를 파쇄하노라!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저는 아무런 두려움 없이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의 능력으로 내 마음을 충만히 채워 주소서.
제가 마주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귀신의 유혹과 공격이 내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내 마음을 보호해 주소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의 모든 세력을
대적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으로 저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게 하소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방패 안에서 안전할 것을 선포
하노라!
모든 악한 영의 공격을 물리칠 것을 선포하노라!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에 드러날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로 악한 영의 모든 공격을 물리치는 기도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악한 영의 공격을 파쇄하노라!
마귀와 그의 모든 세력은 이미 패배했음을 믿고,
하나님의 권세로 그 모든 공격을 물리칩니다.
이 시간, 저는 오직 주님의 이름을 믿고,
악한 영의 모든 세력을 대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권세로 저는 마귀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겪고 있는 모든 유혹과 시험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의지합니다.
모든 악한 영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서 무릎을 꿇고 물러가야 합니다.
저는 주님의 권세 아래 있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를 지키시고,
모든 악한 영은 저를 해칠 수 없음을 믿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내 마음을 충만히 채워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마주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나는 귀신의 유혹과 공격을 파쇄하노라!
제가 마주하는 모든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삶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보호를 믿고 의지합니다.
나는 마귀가 던지는 모든 불화살을 파쇄하노라!
내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안전하게 지켜질 것을 선포하노라!
내가 모든 악한 영의 공격을 물리치고 승리할 것을 선포하노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6
차단기도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차단하는 기도

1. 가계의 저주를 차단하는 기도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 가정을 위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저희 가정에 흐르고 있는 모든 악한 세력과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파쇄하노라!
저희 가정에서 흘러오는 모든 죄악과 불순종으로 인한 저주가
이제 완전히 끊어지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저주가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가 가득 차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는 저희 가정에서 흘러온 질병, 가난, 고통, 갈등의 모든 근원을 파쇄하노라!
이 모든 문제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졌음을 믿습니다.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저희 가정이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희 가정에서 모든 불행과 갈등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으로 채워지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저희 가정에 흐르는 모든 불행과 갈등의 고리를 파쇄하노라!
하나님의 축복이 저희 가정에 넘쳐흐르기를 기도합니다.
나는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져 온 모든 고통과 유전적인 저주를 파쇄하노라!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떠나가기를 기도합니다.
저희 가정이 온전히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정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저희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변화될 것을 선포하노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될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 가계의 악한 세력을 차단하는 기도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 가문을 위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저희 가문에 흐르고 있는 모든 악한 세력과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파쇄하노라!
나는 이 땅에서 오는 모든 유혹과 고난, 그리고 악한 영의 공격을 파쇄하노라!
이제 완전히 물러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는 저희 가정에 있는 모든 질병과 고통의 고리를 파쇄하노라!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손길로 저희 가정이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나는 가계의 모든 불행과 갈등을 파쇄하노라!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히 넘쳐흐르게 하옵소서.
저희 가정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주님의 평화가 가득히 채워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가정에 흐르는 저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졌음을 믿고,
하나님의 축복이 저희 가정에 넘쳐흐르도록 도와주소서.
모든 세대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소서.
저희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서로를 사랑하고 도와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우리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정이 될 것을 선포하노라!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흐를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 가계의 속박을 차단하는 기도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시고 권세 있으신 하나님께 간구드립니다.
나는 저의 가정과 가문에 대대로 흘러온 모든 속박과 사슬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파쇄하노라!
나는 우리 가정에 영향을 미쳐 온 어둠의 유산들-불신앙, 우상숭배, 음란, 미움, 분열, 분노, 중독, 질병-이 모든 것들을 파쇄하노라!
이제 하나님의 권능으로 완전히 무너지고 사라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속박들은 우리가 자초한 것도 있고,
알지 못한 조상들의 죄로 인해 흘러온 것들도 있사오니,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고 그 대가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덮어 주옵소서.
어떤 인간적인 노력으로도 끊을 수 없는 이 사슬들을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으로 끊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속박은 우리 삶의 영역을 제한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게 하는 장벽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속박을 파쇄하노라!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움과 수치심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속한 자유와 담대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가문이 주님 앞에 온전히 회복되어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자유함을 누리게 하소서.
나는 모든 속박의 고리를 파쇄하노라!
우리 가정이 자유함을 누릴 것을 선포하노라!

믿음과 은혜의 유산이 흐를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 가계의 고통을 차단하는 기도

하나님 아버지,
고통 받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나는 저희 가정에 대대로 흐르고 있는 고통과 눈물의 줄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파쇄하노라!
나는 우리 가정의 조상들로부터 흘러온 마음의 상처,
형제 간의 불화,
부부 간의 분열, 자녀들과의 단절, 경제적 어려움,
설명할 수 없는 반복되는 실패와 낙담들을 파쇄하노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긍휼 안에서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반복되는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나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 가정의 깊은 고통의 뿌리에까지 스며들어
모든 상처와 한(恨)을 풀어주시고 진정한 자유와 화해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드리운 어두운 그림자가 더 이상 자녀들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막아 주시고, 이제부터는 축복의 세대, 생명의 세대로 이어지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는 모든 질병과 불행, 사고와 불안을 파쇄하노라!
하나님의 평안과 보호가 우리 가족의 삶을 덮게 하옵소서.
우리가 겪었던 모든 고통이 이제 간증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받은 위로로 다른 가정을 위로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나는 고통의 역사를 파쇄하노라!
우리 삶에 은혜의 기념비가 세워질 것을 선포하노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 가계의 저주를 완전히 차단하는 기도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지금 이 시간, 나는 저희 가정과 가문에 흘러온 모든 형태의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파쇄하노라!
나는 알게 모르게 저질렀던 조상의 죄악,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숭배했던 영적 흐름들,
불순종과 불의가 자리를 잡았던 과거의 실수들로 인해
저희 가정이 겪어온 여러 가지 반복되는 어려움과 고통들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가 모든 저주의 끝임을 믿습니다.
그 보혈이 저희 가정의 영적 계보 위에 부어져
더 이상 저주가 세대를 이어 흐르지 않게 하시고,
생명과 복이 흐르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나는 이 시간 우리 가문을 덮고 있는 영적 어두움, 반복되는 실패,
중독, 관계의 파괴, 사업의 좌절, 자녀들의 방황을 파쇄하노라!
빛 되신 하나님의 은혜가 새롭게 임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저주가 아닌 축복의 언약이 우리 가정에 새롭게 선포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이 은혜의 흐름 안에서 자라나며,
미래 세대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소서.
나는 가계에 흐르던 사망과 정죄의 영을 파쇄하노라!
하나님의 생명과 회복의 영이 저희 가정에 충만하게 임할 것을 선포하노라!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나라의 통로로 사용될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7

무장기도

전신갑주를 입고서 담대히 살아가게 하는 기도

1. 진리로 허리띠를 띠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혼탁한 시대에 살아가는 저에게
진리의 허리띠로 저를 강하게 무장시켜 주옵소서.
오늘도 수많은 거짓과 왜곡된 가치관이
제 귀와 눈, 마음과 생각을 흔들어 놓으려 합니다.
나는 세상의 모든 거짓과 왜곡을 파쇄하노라!
그러나 저는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 위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나를 속이려는 세상의 이론과 유혹, 감정과 분위기를
파쇄하노라!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허리에 매게 하소서.
진리가 저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삶의 모든 판단과 선택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분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의 내면에 진리의 말씀을 새기게 하시고,
진리가 저를 인도하며, 자유케 하며,
모든 혼란을 이기게 하는 방패가 되게 하소서.

진리를 떠나지 않게 하시고,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거짓을 꿰뚫는 눈을 갖게 하옵소서.
제가 흔들릴 때마다 "주의 말씀은 진리입니다"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어떤 말이나 유혹보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붙드는 자가 되게 하소서.
내가 진리로 단단히 무장될 것을 선포하노라!
내가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릴 것을 선포하노라!
내가 매일의 싸움 가운데 흔들림 없이 설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 의의 흉배로 마음을 지켜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의 내면 깊은 곳까지 아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
저의 중심을 드리며 간구합니다.
의의 흉배로 저의 심장을, 저의 마음과 감정을 보호해 주소서.
마귀는 제 과거를 들추어내며 정죄와 열등감,

무가치함과 수치심으로 저를 무너뜨리려 하지만
나는 모든 정죄와 열등감, 무가치함과 수치심을 파쇄하노라!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덧입은 자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스스로는 의롭지 않으나,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의가 저를 보호함을 믿습니다.
의의 흉배로 저의 감정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사람의 평가보다 하나님께서 품으시고 칭하신 의로
운 자로 살아가게 하소서.
비난과 비판의 화살이 날아올 때
그것이 저를 찌르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흉배가 단단
히 제 앞을 가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제 심장 안에 두신 소망이 꺼지지 않게 하시고,
의의 흉배로 보호하셔서 저의 중심이 항상 하나님을
향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나는 모든 죄책감을 파쇄하노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답게, 담대히 살아가
게 하소서.
이 흉배는 단순한 방어가 아니라,
제가 정직과 거룩으로 무장하는 적극적인 방편임을

알게 하시고,
의의 삶을 사는 것 자체가 가장 강력한 방어가 됨을
믿고 따르게 하옵소서.
내가 의의 흉배로 보호받을 것을 선포하노라!
내가 담대히 하나님의 의를 입은 자로 살아갈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 복음의 신을 신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제 발에 복음의 신을 신기시고
복음을 들고 달려가야 할 길 위에 담대히 서게 하옵
소서.
세상이 점점 더 복음을 거부하고 어둠이 짙어지며
진리를 말하는 것이 조롱받는 이 시대 속에서도
나는 복음을 거부하는 모든 영적 세력을 파쇄하노라!
저는 복음을 자랑하는 자로 주의 복된 소식을 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이 제 삶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복음이 저의 삶의 이유요 중심이 되게 하소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제 발걸음을 결정하게 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을 드러내며,
복음을 향한 열정이 제 삶을 이끌게 하옵소서.
나는 복음을 방해하는 모든 두려움과 수치심을 파쇄하노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복음을 나눌 때에 지혜와 담대함을 주시며,
그 복음 안에 있는 능력으로 상처 입은 영혼을 만지고,
절망에 빠진 자에게 생명의 길을 보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의 발이 복음을 따라 움직이게 하시고,
복음의 신을 신은 자로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내가 복음의 신을 신고 담대히 나아갈 것을 선포하노라!
내가 복음을 자랑하며 살아갈 것을 선포하노라!
내 발걸음이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될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 믿음의 방패로 불화살을 막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를 향해 날아드는 의심, 정죄, 비교, 분노, 음란, 낙심의 불화살을
믿음의 방패로 막아낼 수 있도록 굳건하게 붙잡아 주소서.
나는 모든 의심, 정죄, 비교, 분노, 음란, 낙심의 불화살을 파쇄하노라!
믿음이란 단지 긍정적인 감정이 아님을 압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는 능력이요,
현실보다 하나님을 더 크신 분으로 여기는 결단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믿음이 오늘도 단단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방패를 들고 마귀의 공격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마귀는 상황을 조작하여 저를 불안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다고 속이지만,
나는 믿음으로 그 모든 거짓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지금 당장 응답이 없고, 변화가 없어 보여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고 기다리게 하소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며,
믿음으로 고난을 견디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저의 방패가 찢기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 새롭게 무장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믿음을 키워 모든 불화살을 능히 막는 자가 되게 하소서.
내가 믿음의 방패로 모든 불화살을 막을 것을 선포하노라!
내가 믿음으로 승리할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 구원의 투구와 말씀의 검을 들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제 머리를 보호하실 구원의 투구를 제게 씌워 주소서.
나는 혼란스럽고 절망적인 생각들,
마귀가 속삭이는 정죄와 무가치함의 소리를 파쇄하

노라!
제 생각이 보호받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정체성과 구원의 확신으로 제 사고가 지켜지게 하옵소서.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자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된 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정체성을 단단히 붙들고
흔들림 없는 생각으로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말씀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소서.
이 시대는 진리 없는 칼날 없는 싸움터와 같습니다.
저에게 능력 있는 말씀을 주시고,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며, 필요한 때에 담대히 선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탄의 속임수 앞에, 예수께서 말씀으로 이기셨듯이
저도 말씀으로 맞서 이기게 하시고,
어떤 영적 전쟁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말씀의 검으로 정면 돌파하게 하옵소서.

나는 사탄의 모든 속임수를 말씀의 검으로 파쇄하노라!
이 전신갑주로 완전히 무장하게 하시고,
날마다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내가 구원의 투구와 말씀의 검으로 무장될 것을 선포하노라!
내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것을 선포하노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8
방패기도

마귀의 불화살을 막는 기도

1. 믿음의 방패로 염려와 두려움을 막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제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오늘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수없이 찾아오는 염려와 두려움의 불화살이 저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세상은 저에게 끊임없이 불안을 심고
내일에 대한 염려로 오늘의 평안을 앗아갑니다.
경제적 불안, 건강의 위협, 관계의 갈등, 미래에 대한 두려움…
나는 이 모든 염려와 두려움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저는 오늘 믿음의 방패를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는 진리이며,
하나님은 저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주께서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이 저의 방패가 되게 하소서.
제 생각이 두려움으로 가득 찰 때마다
말씀으로 저의 생각을 붙들어 주옵소서.
"나는 너와 함께하노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

리라" 하신 그 약속이
오늘 제 영혼의 방패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는 불안의 화살을 파쇄하노라!
그 위에 말씀을 덧씌워 불을 꺼버리게 하시고,
저의 내면 깊은 곳까지 믿음으로 채워
흔들리지 않는 평안과 담대함으로 살게 하소서.
믿음은 환경을 초월한 결단임을 다시 붙잡습니다.
응답이 없어도, 변화가 없어 보여도,
저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끝까지 신뢰합니다.
내가 믿음의 방패로 모든 염려와 두려움을 막을 것을 선포하노라!
내가 하나님의 평안 안에서 살아갈 것을 선포하노라!
악한 자의 불화살이 내 삶에 스며들 수 없음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 믿음의 방패로 정죄와 낙심을 막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비로우신 주님께 나아갑니다.

저는 때로 과거의 실수와 실패 앞에 무릎 꿇고,
스스로를 정죄하고 자책하며 낙심에 빠지곤 합니다.
마귀는 그 틈을 타,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정죄의 불화살을 쏘아댑니다.
"너는 자격이 없다. 하나님도 너를 실망하셨다."
나는 이러한 거짓의 속삭임을 파쇄하노라!
나는 죄책감과 무기력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저는 이제 믿음의 방패를 높이 듭니다.
저는 제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 보혈이 제 과거를 덮고, 미래를 밝히는 줄 믿습니다.
"의인은 일곱 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리라" 하신 말씀처럼,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제 마음이 정죄가 아니라 은혜로 채워지게 하시고,
낙심이 아닌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저의 방패가 되어,
나는 비난과 자책을 파쇄하노라!

다른 사람과의 비교가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저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가게 하소서.
믿음의 방패로 오늘도 견디고, 내일을 향해 다시 나아가는 용기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죄와 낙심을 이길 것을 선포하노라!
내가 은혜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갈 것을 선포하노라!
내가 다시 일어날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 믿음의 방패로 유혹과 음란을 막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는 음란과 유혹이 범람하는 시대입니다.
시선 하나, 클릭 하나, 말 한마디, 생각 하나조차
죄악의 불씨가 되기 쉬운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제 안에 정욕이 있고,
눈은 쉽게 유혹에 흔들리고, 마음은 순간의 쾌락을 좇고자 합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믿음의 방패를 들고
나는 모든 음란의 불화살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내 눈을 정결하게 하시고,
내 마음을 거룩함으로 가득 채우사,
죄의 틈이 생기지 않도록 방패를 세워 주소서.
음란은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영혼을 무너뜨리는 독이며,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로막는 사슬임을 압니다.
나는 그 사슬을 파쇄하노라!
제가 거룩한 기쁨을 회복하게 하소서.
내 영혼이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타오르게 하시고,
순결함이 세상 유혹보다 더 달콤하게 느껴지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도우심으로, 저의 시선과 행동, 생각까지 다스려 주시며,
죄의 문턱에서 뒤돌아설 수 있는 담대함을 주소서.
나는 정욕과 유혹을 파쇄하노라!
믿음의 방패를 매일 들게 하시고,
죄를 이기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소서.
내가 유혹과 음란을 이길 것을 선포하노라!
내가 거룩함 가운데 살아갈 것을 선포하노라!
내 영혼이 하나님을 사모할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 믿음의 방패로 비교와 시기의 화살을 막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제 마음 안에 자리한 비교와 시기의 불씨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마귀는 저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하며,
다른 이의 성공을 볼 때마다 내 안에 시기의 화살을 쏘아댑니다.
"너는 부족하다", "넌 뒤처졌다", "하나님은 저 사람만 축복하신다"는 생각들이
제 마음에 쌓여 분노와 열등감으로 바뀌게 만듭니다.
나는 모든 비교와 시기를 파쇄하노라!
나는 분노와 열등감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당신은 저를 나만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저를 향한 뜻과 시간이 따로 있음을 믿습니다.
믿음의 방패를 들고 고백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며, 세상의 기준으로 측정할 수 없는 고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빚어진 자이며, 하나님의 계획 안에

놓인 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의 것을 바라보다가 저의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나에게 주신 은혜를 기뻐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나는 비교의 화살을 파쇄하노라!
나는 시기의 불길을 파쇄하노라!
감사가 시기를 이기게 하시고, 사랑이 비교를 덮게 하소서.
믿음의 방패로 오늘도 저를 지켜 주소서.
내가 비교와 시기를 이길 것을 선포하노라!
내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갈 것을 선포하노라!
내가 감사와 사랑으로 충만할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 믿음의 방패로 절망과 자포자기를 막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끝이 보이지 않는 고난 앞에서 마음이 지치고 손이 떨리는 날들이 많습니다.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현실 앞에서
"포기하라"는 마귀의 유혹이 제 안에서 속삭입니다.
"이쯤에서 멈추라, 네겐 희망이 없다."
"하나님도 침묵하시니, 이 길은 아닌 것 같다."
나는 이런 생각들을 파쇄하노라!
나는 절망과 자포자기를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저는 믿음의 방패로 그 모든 불화살을 꺾어버리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며,
저를 고난 속에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심을 믿습니다.
응답이 더딜지라도, 침묵 같아도,
그 안에서 일하고 계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믿음은 기다리는 것이며, 믿음은 끝까지 붙드는 것임을 배우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절망이 몰려올수록 방패를 더 높이 들게 하시고,
말씀의 약속 위에 저를 굳건히 세워 주소서.
오늘도 한 걸음만 더 걷게 하시고,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그 걸음 끝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게 하소서.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주소서.

내가 절망과 자포자기를 이길 것을 선포하노라!
내가 끝까지 믿음으로 붙들 것을 선포하노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할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9
보호기도

악으로부터 보호받는 기도

1. 나의 출입을 지켜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제가 깨어 일어나 눈을 뜨는 이 순간부터
다시 눈을 감고 잠드는 마지막까지
제 모든 출입과 이동을 주님의 손에 의탁하오니,
저의 하루를 친히 지켜 주시고,
보이지 않는 모든 위험과 악한 세력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침에 일터를 향해 나설 때, 가족을 학교로 보내며 걱정할 때,
저는 사람의 시야나 장비로는 감당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해
주의 천사들이 저희 앞뒤 좌우를 감싸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사고, 폭력, 갑작스런 재해, 음모와 함정을 파쇄하노라!
제가 보호받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하루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해되는 말, 왜곡된 의도, 감정의 충돌 속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저를 지키게 하소서.
나의 출입을 눈동자 같이 살피시는 분,

내가 알지 못하는 악의 계획이 있더라도
주님께서 그 길을 미리 막으시고, 저를 넓은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길을 잃을 때 주의 음성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내가 지쳐 쓰러질 때 주의 팔로 안아 일으켜 주시며,
오늘도 하루를 평안하게 시작하고, 안전하게 마칠 수 있도록 도우소서.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 말씀이 저의 삶에 성취되게 하시고,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서 담대히 살게 하소서.
내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안전할 것을 선포하노라!
나의 모든 출입이 평안할 것을 선포하노라!
하나님의 천사들이 나를 보호할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 악한 자의 계획을 무너뜨려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당신은 숨겨진 것을 드러내시는 분이시며,

어둠의 덫을 걷어내시고, 의인의 길을 곧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는 제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악한 계획이 숨겨진 말 속에, 시선 속에, 제 뒤편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의 지혜로는 파악할 수 없는 모략과 모함, 영적으로 조작된 계획들 앞에서 저는 나약하고 무지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이미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인의 손에서 저를 건지시며,
불의한 말에서 저를 지키시고,
제가 결백함에도 누명을 쓸 상황이 오지 않도록 정의로 개입하여 주옵소서.
나는 원수가 던지는 독한 말들을 파쇄하노라!
나는 마귀가 속삭이는 거짓 판단을 파쇄하노라!
나는 사람들이 꾸미는 악의 함정을 파쇄하노라!
오직 당신의 영이 저를 인도하시고, 지혜의 영으로 대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름으로 모든 숨겨진 음모는 드러나게 하시고,
모든 해악은 선으로 바뀌게 하시며,
저를 향한 그들의 손이 거두어지고,
하나님의 손이 저를 높이 들게 하소서.
어떤 모욕 앞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어떤 공격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주의 오른팔이
저를 붙들게 하소서.
내가 악한 자의 계획에서 보호받을 것을 선포하노라!
모든 음모가 무너질 것을 선포하노라!
하나님의 정의가 나를 높이실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 마음과 생각을 보호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체의 공격보다 더 깊은 고통은 마음과 생각을 향한
악의 침투인 줄 압니다.
마귀는 저의 중심을 흔들기 위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부정적인 생각, 자책, 분노, 원망, 정죄, 의심의 화살
을 쏘아댑니다.
나는 모든 부정적인 생각을 파쇄하노라!
나는 자책, 분노, 원망, 정죄, 의심의 화살을 파쇄하노

라!
이 모든 공격에서 제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의 마음이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불안과 두려움에 매몰되지 않게 하시며,
세상의 소음보다 주님의 음성을 더 크게 듣게 하옵소서.
오늘도 수많은 미디어, 말, 뉴스, 상황이 저의 마음을 흔들려 할 때,
주의 평강이 저의 내면을 붙들게 하시고,
주의 진리가 저의 판단을 이끌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생각이 흔들리면 말이 흐려지고, 말이 흔들리면 행동이 무너지는 것을 압니다.
그 시작점인 생각을 거룩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날마다 재편성하게 하소서.
마음의 문을 닫되, 주님께는 활짝 열게 하시고,
나는 거짓된 것, 탐욕, 음란, 교만, 두려움을 파쇄하노라!
성령의 경계선으로 저를 에워싸 주소서.
내 마음과 생각이 보호받을 것을 선포하노라!
주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지킬 것을 선포하노라!

내 생각이 거룩하게 될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 질병과 사고로부터 보호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제 몸과 삶의 환경까지 지켜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이 시간 기도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질병 앞에 무너지고, 사고 앞에 속수무책이며,
한순간의 실수나 예상치 못한 위기로 인해 삶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주의 날개 아래 피하는 자는 안전하며,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자는 위험에서 건짐을 얻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신체의 이상, 사고의 위협,
기계의 오작동, 사람의 실수로부터 저와 제 가족, 동

행자들을 지켜 주시고,
우리가 가는 길마다 평탄함으로 인도하소서.
나는 모든 질병과 사고를 파쇄하노라!
병원에 가기 전 이미 고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골수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피를 정화하시며,
면역을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손이 지금도 제 육체 위에 놓여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운전할 때 사고가 없게 하시고,
기차, 비행기, 엘리베이터, 계단 하나까지도 주의 눈으로 살펴주시며,
나는 재난과 파손, 상해를 파쇄하노라!
우리를 피하게 하옵소서.
내가 질병과 사고로부터 보호받을 것을 선포하노라!
내 몸이 건강할 것을 선포하노라!
모든 위험에서 안전할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 악한 생각과 영적 공격으로부터 보호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는 보이지 않는 전쟁터에 서 있습니다.
이 전쟁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며, 혈과 육의 문제가 아니라,
정사와 권세,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의 싸움임을 압니다.
영적인 공격은 때로는 생각의 혼란으로, 때로는 감정의 침몰로,
때로는 밤의 억눌림으로 나타납니다.
저는 내 힘으로 이것을 감당할 수 없기에,
주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귀신의 영향을 파쇄하노라!
나는 거짓 예언, 이상한 꿈, 미혹하는 영, 죽음의 그림자, 공포의 그림자,
우울과 조급함, 압박의 영들을 파쇄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은 검이요, 믿음은 방패요, 의는 흉배이오니,
이 무장을 갖추게 하시고, 하루하루 깨어서 분별하며 살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문을 열지 않은 채로, 저도 모르게 틈타는 악의

접촉점이 있다면
성령께서 드러내시고 끊게 하시며,
내 마음에 작은 타협조차 없게 하소서.
기도의 능력을 부어 주시고, 영적 감각을 회복시켜 주셔서,
이 시대의 거짓 영들을 이기고,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거하는 보호된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내가 영적 공격에서 보호받을 것을 선포하노라!
내가 이 싸움에서 승리할 것을 선포하노라!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거할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0
정결기도

대인간의 관계에서 정결해지는 기도

1. 내 마음의 쓴 뿌리를 제거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제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니 여전히 미움과 원망, 서운함의 쓴 뿌리가 자라고 있음을 봅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로 상처를 받고, 그 감정이 내 속에 오래 머물러 하나님의 평안을 빼앗아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 사람은 잊었을지 몰라도 저는 여전히 기억하고, 마음 깊은 곳에서 씻기지 않은 감정을 품고 살아갑니다.
나는 모든 미움과 원망, 서운함의 쓴 뿌리를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그 쓴 뿌리를 주님의 은혜의 손으로 뽑아내어 주시옵소서.
내가 기억하고 있는 잘못, 내가 용서하지 못한 말들, 돌이켜보면 그것으로 인해 제가 더 메이고 얽매이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사람을 미워함으로 저도 병들었고, 용서하지 못한 마음 때문에 주님과의 교제도 막혔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용서하지 못한 마음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내려놓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을 정결하게 씻어 주소서.
예수님의 피로 내 안의 쓴 뿌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다시금 온유함과 사랑, 인내와 관용으로 내 마음을
채워 주옵소서.
다시는 그 기억에 흔들리지 않고 사람이 아니라 주님
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소서.
내 마음이 정결하게 될 것을 선포하노라! 내가 온유
함과 사랑으로 충만할 것을 선포하노라! 내가 자유로
워질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 판단과 정죄의 눈을 거두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는 자주 다른 사람을 판단합니다.
겉모습만 보고 그 사람의 속을 짐작하고, 상황만 보
고 그의 동기를 단정 지으며 제 기준으로 정죄해 왔
습니다.
그러나 주님, 제가 그러한 눈으로 남을 바라볼 때 이
미 제 마음은 교만해졌고, 그 판단의 기준은 결국 저

자신을 높이려는 것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모든 판단과 정죄의 눈을 파쇄하노라! 나는 교만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정결한 마음은 겸손에서 비롯됨을 깨닫습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정죄의 눈을 거두게 하시고, 오히려 그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이해하게 하시며,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의 시선으로 저도 타인을 바라보게 하소서.
판단 대신 기도를, 비난 대신 중보를 하게 하시고, 정죄 대신 긍휼을 품는 심령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정죄하는 자가 아니라 화목하게 하는 자, 깨뜨리는 자가 아니라 세우는 자 되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저 같은 죄인도 용납하시고 품으셨듯이, 저 또한 다른 이의 부족함을 덮어줄 수 있는 자로 변화되게 하소서.
나는 비난을 파쇄하노라! 내가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될 것을 선포하노라! 내가 긍휼을 품는 심령을 가질 것을 선포하노라! 내가 겸손으로 살아갈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 용서하지 못한 마음을 씻어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라 하신 그 말씀 앞에 저는 너무 자주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그 사람은 너무나 큰 잘못을 했습니다" "그렇게 쉽게 잊을 수 없습니다" 이런 말들로 제 마음을 정당화해 왔습니다.
그러나 주님, 진정한 정결은 용서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이제는 깨닫게 됩니다.
용서하지 않음은 결국 저 자신을 묶는 족쇄요, 악한 자에게 틈을 주는 문이었습니다.
나는 용서하지 못한 마음을 파쇄하노라! 나는 모든 변명과 정당화를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람을 용서하기로 결단하오니 제 안에 남아 있는 응어리를 풀어주소서.
억울했던 감정, 분노의 잔재, 말로 다 표현 못했던 상처까지도 주님의 손에 다 올려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용서는 그 사람이 마땅히 받을 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을 주님께 맡기는 것임을 믿습니다.
주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모든 것을 바르게 판단하시는 분이시기에 이제 그 사람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억울함과 분노를 파쇄하노라!
용서를 통해 내 마음이 가벼워지고, 깨끗해지며, 다시 사랑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게 하소서.
내가 용서할 것을 선포하노라! 내 마음이 자유로워질 것을 선포하노라! 내가 다시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 관계 속에 있는 위선을 제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는 종종 사람 앞에서 가면을 씁니다.
속으로는 불편한 감정을 품고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웃고, 칭찬하고,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 모습이 평화를 위한 지혜라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것이 위선이었음을, 주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한 태도였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모든 가면과 위선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진실함이 없는 관계는 오래 갈 수 없고, 정결하지 않은 마음은 결국 관계를 병들게 한다는 것을 배웁니다.
내 마음의 상태를 솔직하게 돌아보게 하시고, 겉과 속이 다르지 않게 하시며, 진심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사과할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불편함을 외면하지 말게 하시고, 갈등을 피하지 말게 하시며, 오히려 그것을 주님 앞에서 해결할 수 있는 기회로 삼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는 가식과 외식을 파쇄하노라!
정결한 관계를 허락하소서.
가식이 아닌 진실로, 외식이 아닌 은혜로, 주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관계를 맺게 하옵소서.
내가 정직할 것을 선포하노라! 내가 진실한 관계를 맺을 것을 선포하노라! 주님의 거룩함이 내 관계에 드러날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 사랑으로 관계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모든 관계는 불완전하고, 서로의 부족함 속에서 많은 오해와 갈등이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당신은 사랑으로 모든 것을 덮고 회복시키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사랑이 식어진 관계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서로의 말이 상처가 되었고, 침묵이 더 깊은 벽이 되었으며, 가까웠던 사람이 낯설어지는 상황들 속에서
저는 자주 외면하고 숨었습니다.
나는 모든 오해와 갈등을 파쇄하노라! 나는 냉랭함과 무관심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사랑으로 그 벽을 무너뜨리기를 원합니다.
먼저 손을 내밀게 하시고, 먼저 말을 걸게 하시고, 먼저 용서하고 품게 하옵소서.
관계는 노력 없이 유지되지 않음을 압니다.
사랑은 결단이요, 헌신임을 고백하오니 제가 먼저 움

직이게 하시고, 상대를 이해하고 세워주는 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히 임하게 하시고, 그 사랑이 말로, 눈빛으로, 행동으로 흘러나가게 하옵소서.
정결한 사랑이 모든 상처를 덮고, 새로운 회복을 이루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먼저 사랑할 것을 선포하노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할 것을 선포하노라! 모든 관계가 회복될 것을 선포하노라! 내가 은혜의 통로가 될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1
회개기도

죄를 회개하는 기도

1. 숨겨진 죄를 드러내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고 지냈지만,
주님 앞에서는 감출 수 없는 죄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숨기려 했고, 모른 척 하려 했고, 때로는 저도 잊은 척 하며 외면했던 죄들이 이 시간 제 영혼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음을 압니다.
그 죄는 말보다 먼저 떠오르고, 생각보다 깊게 자리하며, 기도할 때마다 마음을 가로막습니다.
나는 숨기려 했던 모든 죄를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제는 더 이상 숨기지 않겠습니다.
제 안에 있는 탐욕, 음란, 분노, 거짓, 교만,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모든 어둠을 당신 앞에 낱낱이 드러내오니,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나는 탐욕과 음란을 파쇄하노라! 나는 분노와 거짓과 교만을 파쇄하노라!
진실한 회개 없이는 참된 변화도 없음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돌이키겠습니다.

그 자리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죄를 핑계 삼지 않게 하시고, 사소하다고 무시하지 않게 하옵소서.
저의 죄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사실 앞에 가볍게 웃지 않게 하시고, 통곡과 단절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소서.
내가 진실하게 회개할 것을 선포하노라! 내가 죄에서 돌이킬 것을 선포하노라! 내가 거룩하게 될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 반복되는 죄를 끊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는 또 넘어졌습니다.
같은 죄, 같은 유혹 앞에서 수없이 다짐하고도 다시 무너졌습니다.
주님,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죄를 짓는 저의 연약함이 주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이제는 뼈저리게 느껴집니다.
스스로 실망스럽고,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포기하지 않고 다시 나아오니

받아 주옵소서.
나는 반복되는 죄의 사슬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인자하심이 없었다면 저는 벌써 멸망했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진짜 회개하길 원합니다.
그 죄를 미워하게 하시고, 죄의 쾌락보다 주님의 얼굴을 더 사모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저를 붙잡아 주시고, 죄의 근원을 말씀으로 끊게 하시며, 유혹의 자리에서 도망칠 지혜와 용기를 주옵소서.
나는 죄의 근원을 파쇄하노라! 나는 모든 유혹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반복의 사슬이 끊어지게 하시고, 이전의 저와는 다른 삶, 다시는 옛 습관으로 돌아가지 않는 삶을 살게 하소서.
나는 옛 습관을 파쇄하노라!
내가 반복의 사슬에서 자유로워질 것을 선포하노라!
내가 새로운 삶을 살아갈 것을 선포하노라! 내가 주님의 얼굴을 사모할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 말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제가 무심코 내뱉은 말 속에 얼마나 많은 죄가 있었는지 돌아보니 마음이 무너집니다.
남을 험담했던 말, 상처 주는 말, 과장된 말, 거짓 섞인 말, 그리고 침묵해야 했을 때 말한 말들까지…
제 입술에서 나온 그 모든 말이 사람의 영혼을 찌르고, 관계를 깨뜨리고,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였음을 회개합니다.
나는 험담과 상처 주는 말을 파쇄하노라! 나는 과장과 거짓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제 입술을 거룩하게 하소서.
내 말 한 마디가 생명의 말이 되게 하시고, 사람을 살리는 말, 진실한 말, 겸손한 말, 주님의 마음을 닮은 말이 되게 하소서.
입술은 마음의 열매임을 압니다.
입술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변화시켜야 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제 안에 있는 미움, 교만, 분노를 회개하오니 씻어주시고, 그 위에 주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소서.
나는 미움과 교만과 분노를 파쇄하노라!
내 입술이 거룩하게 될 것을 선포하노라! 내 말이 생명의 말이 될 것을 선포하노라!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닮아갈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야 정신이 들어 기도하려고 주님 앞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루, 아니 수많은 날들 속에서 주님을 잊고 살았던 시간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기도도, 말씀도 뒷전이었고, 결정할 때 주님의 뜻은 묻지도 않고, 저의 생각, 저의 방식, 저의 욕심대로 살아왔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모든 시간을 파쇄하노라!
나는 나의 욕심과 방식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서도 저는 주님의 자녀라고 말했고, 예배도 드렸고, 사람들에게 믿음이 있는 척 포장해 왔습니다.
저의 이 위선을 회개합니다.
당신을 이용했지,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모든 위선을 파쇄하노라!
회개는 단지 죄를 말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 주님께로 다시 나아가는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부터 다시 주님을 우선으로 삼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중심에 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곧 저의 방향이 되게 하소서.
내가 주님을 우선으로 삼을 것을 선포하노라! 내가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것을 선포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될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 공동체 안에서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주님의 교회 안에서도 서로를 품지 못했고, 비난했고, 비교했고, 자기 의로 판단했던 죄인이었습니다.
말은 사랑을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시기와 경쟁, 질투와 분노, 배제와 외면으로 서로를 찌르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모든 시기와 경쟁을 파쇄하노라! 나는 질투와 분노, 배제와 외면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 하셨건만 저는 그 몸을 아프게 했습니다.
형제 자매를 섬기지 못하고, 도우려는 척하며 무관심했으며, 함께 울기보다는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이 죄를 용서해 주소서.
공동체는 주님의 마음으로 세우는 것이지, 내 기분과 기준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소서.
나는 무관심과 자기 의를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진정으로 회개하오니, 제가 먼저 손 내밀게 하시고, 제가 먼저 안아주게 하시며, 서로의 아픔을 껴안는 주님의 도구로 쓰임 받게 하옵소서.

주님 안에서 하나 된 교회를 회복하게 하시고, 저도 그 회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내가 먼저 손 내밀 것을 선포하노라! 내가 회복의 통로가 될 것을 선포하노라! 교회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될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2
금지기도

악한 행실을 금지하는 기도

1. 마음의 악한 생각을 금지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제 마음의 깊은 곳을 주님의 빛으로 비춰 주옵소서.
밖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제 안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시기, 질투, 정욕, 교만, 비판과 분노의 생각이 주님의 거룩하심을 가리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모든 시기와 질투를 파쇄하노라! 나는 정욕과 교만을 파쇄하노라! 나는 비판과 분노의 생각을 파쇄하노라!
사람은 중심을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살피시는 분이시기에 저는 감출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마음을 다스려 주소서.
악한 생각이 틈타기 전에 성령으로 막아주시고, 정결한 묵상이 마음의 습관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의 생각이 바르게 정돈되게 하옵소서.
주님, 죄는 행위보다 먼저 생각으로부터 시작됨을 알기에 이 첫 문을 굳게 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지 않을 때, 말씀이 약해질 때 더 쉽게 악한 생

각들이 들어옴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마음을 채워 악한 생각이 머무를 틈을 주지 않게 하소서.
나는 악한 생각이 들어올 모든 틈을 파쇄하노라!
내 마음이 정결하게 될 것을 선포하노라!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돈될 것을 선포하노라! 악한 생각이 내 마음에 머물지 못할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 입술의 죄를 금지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의 입술을 정결하게 하시고, 죄 짓는 말, 헛된 말, 상처 주는 말들을 더 이상 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루 동안 얼마나 많은 말을 했는지, 그 말들 속에 진심보다 감정이 있었고, 사랑보다 분노가 있었으며, 축복보다 비난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모든 죄 짓는 말과 헛된 말을 파쇄하노라! 나는 상처 주는 말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저의 혀는 불과 같아서 스스로 통제할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이제는 말씀의 굴레로 저를 제어해 주옵소서.
악한 말은 제 입에 오르지 않게 하시고, 불필요한 말로 죄 짓지 않게 하소서.
특별히 뒷말, 거짓, 과장, 음담, 조롱과 비난, 심지어 신앙적 가장 속에서 나오는 위선의 말까지 주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막아 주소서.
나는 뒷말과 거짓과 과장을 파쇄하노라! 나는 음담과 조롱과 비난을 파쇄하노라! 나는 위선의 말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제 입이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며, 위로하며, 사람을 살리는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소서.
내 입술이 정결하게 될 것을 선포하노라! 내 입이 주님의 영광을 찬양할 것을 선포하노라! 내 말이 사람을 살리는 통로가 될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 손과 발의 죄를 금지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의 손과 발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이 시간 말씀의 거울 앞에서 정직하게 돌아봅니다.
제가 향한 자리, 만진 물건, 저지른 행동들 가운데 주님의 뜻과 무관하거나 거슬렸던 것들이 있었다면 이 시간 모두 끊어내기를 결단합니다.

나는 주님의 뜻과 거스르는 모든 행동을 파쇄하노라!
불의한 일에 협력하지 않게 하시고, 악한 길에 발을 들이지 않게 하시며, 부정한 곳을 탐하지 않도록 저를 완전히 돌이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는 내 손과 발의 모든 죄를 파쇄하노라!
내 손이 남을 때리지 않게 하시고, 남의 것을 탐하지 않게 하시며, 내 발이 사람을 피하지 않게 하시고, 악을 따르지 않게 하소서.

오늘부터는 내 손으로 남을 섬기게 하시고, 내 발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며, 내 시간과 몸을 거룩한 일에 드릴 수 있도록 저의 삶을 정결하게 구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손이 남을 섬길 것을 선포하노라! 내 발이 복음을 전할 것을 선포하노라! 내 몸이 거룩한 일에 쓰임받을 것을 선포하노라! 내 삶이 주님께 구별될 것을 선

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 음란과 탐욕의 유혹을 금지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끊임없이 저를 자극합니다.
눈으로 들어오는 수많은 이미지, 귀로 들리는 음란한 이야기, 욕망을 부추기는 광고와 소셜미디어 속 끊임없는 비교와 탐심이 제 안의 죄성을 건드립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작은 자극에도 쉽게 무너지고, 순간의 쾌락 앞에 영혼을 팔아넘기려 했던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는 모든 음란과 탐욕을 파쇄하노라! 나는 비교와 탐심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눈을 돌리겠습니다.
마음을 돌이키겠습니다.
몸을 멀리하겠습니다.
나는 음란의 영을 파쇄하노라! 나는 탐욕의 뿌리를 파쇄하노라!

음란의 영을 멀리하게 하시고, 탐욕의 뿌리를 끊게 하시며, 욕망이 아닌 말씀과 기도로 채워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제 눈을 맑게 하시고, 제 욕망을 다스릴 절제의 능력을 부어 주소서.
육체를 위한 삶이 아니라 영혼을 위한 삶, 주님의 뜻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 눈이 맑아질 것을 선포하노라! 내가 절제의 능력을 받을 것을 선포하노라! 내가 영혼을 위한 삶을 살 것을 선포하노라! 내가 주님의 뜻을 위해 살아갈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 타협과 위선을 금지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는 죄를 죄라 말하지 못하게 하고, 진리를 침묵하게 만들며, 위선을 덮어 '지혜'라 부르게 합니다.
저는 얼마나 자주 진실 대신 침묵을 택했고, 거룩 대신 무난함을 선택했으며, 진리보다는 다수의 의견에

타협했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편해서, 안전해서, 유익해서 타협을 택했던 저의 마음을 회개합니다.
나는 모든 타협을 파쇄하노라! 나는 모든 위선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서는 정직한 척, 사람들 앞에서는 믿음 있는 척한 위선을 용서하여 주소서.
이제는 분명히 구분짓게 하옵소서.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거룩함인지, 말씀 안에서 바르게 분별하게 하시고, 진리 위에 굳게 서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고통을 감수하고라도 죄와 타협하지 않게 하시며, 작은 위선에도 예민한 심령을 주소서.
나는 침묵과 무난함을 파쇄하노라!
내가 진리 위에 굳게 설 것을 선포하노라! 내가 죄와 타협하지 않을 것을 선포하노라! 내가 거룩함을 추구할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3
성품기도

주님의 성품을 닮게 해달라는 기도

1. 예수님의 온유함을 닮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조롱과 핍박 앞에서도 침묵하시고, 자신을 거절하는 자들을 향해 끝까지 품으셨던 참된 온유의 본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쉽게 상처받고, 감정에 휘둘려 내 안의 분노를 쏟아내며, 사랑보다 내 감정을 먼저 반응한 날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나는 모든 분노와 감정적 반응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저는 온유함이 약함이라 여겼고, 순종이 억울함이라 오해했으며, 자기 주장 없는 태도가 손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가장 강하신 분이셨고, 그 강함을 인내로, 침묵으로, 사랑으로 나타내셨습니다.
이제는 저도 예수님의 그 온유를 배우고 싶습니다.
사람 앞에서 화내지 않고, 억울한 순간에도 참고 기다리며, 다른 이의 허물을 감싸줄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을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는 모든 화와 짜증을 파쇄하노라!
저의 말투를 부드럽게 하시고, 내 표정을 따뜻하게 하시며, 내 마음을 넓혀서 누구든 포용할 수 있는 그릇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처럼 온유하되 진리 위에 서게 하시고, 불의에는 단호하지만, 사람에겐 너그러울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온유는 강한 자의 선택임을 알기에, 오늘도 그 길을 따르게 하시고, 그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내가 예수님의 온유함을 닮아갈 것을 선포하노라! 내가 온유하되 강한 믿음을 가질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 예수님의 겸손을 닮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모든 하늘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가장 낮은 곳에 계신 이들과 함께 하셨고, 발을 씻기시며 종이 되어 섬기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종종 내 위치를 주장하고 싶었고, 저의

수고를 알아달라고 했으며, 남들보다 조금 더 앞서 있을 때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나는 모든 교만과 자랑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제가 쌓은 지식, 내가 경험한 일들, 사람들에게 인정받은 모든 것이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하옵소서.
저의 우월함이 아니라, 저의 무능함을 자랑하게 하시고, 저의 자격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만 드러내는 자가 되게 하소서.
겸손은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것임을 믿습니다.
나는 모든 우월감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제가 중심에 서려고 했던 자리를 비우고,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게 하소서.
남을 내 위에 두고, 말하지 않고도 섬기며, 눈에 띄지 않아도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주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항상 주님 앞에서 낮아지고, 그 겸손 속에서 주님의 능력을 더욱 풍성히 누리게 하옵소서.
내가 예수님의 겸손을 닮아갈 것을 선포하노라! 내가

주님 앞에서 낮아질 것을 선포하노라! 내가 겸손 속에서 은혜를 누릴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 예수님의 진실함을 닮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말씀과 삶이 같으셨고, 행동과 태도, 속과 겉이 일치하셨습니다.
진리를 말하셨고, 진리대로 사셨으며, 그 진실함으로 수많은 영혼을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겉으로는 경건한 척 하면서 속으로는 미움을 품고 있었고, 사람들 앞에서는 웃으며 인사했지만, 돌아서서는 판단하며 험담하던 위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모든 위선과 거짓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진실은 말보다 삶에서 드러난다는 사실을 알게 하소서.
제가 드러내고 싶은 모습이 아니라, 주님이 보시는 참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내 삶이 곧 하나의

복음이 되게 하소서.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삶, 사람에게 잘 보이려 하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살아가려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나는 모든 가식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거짓을 감추지 않게 하시고, 실수와 허물은 고백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며,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고 진실함으로 설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저를 이끌어 주소서.
주님, 세상은 진실한 자를 주목하고, 하나님은 진실한 자를 사용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진실함을 배우고, 따르고, 삶으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내가 예수님의 진실함을 닮아갈 것을 선포하노라! 내 삶이 복음이 될 것을 선포하노라! 내가 정직하게 살아갈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 예수님의 인내를 닮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조롱을 당하셔도 참고, 제자들이 떠나가도 기다리시며, 십자가 앞에서도 한 걸음 물러서지 않으셨습니다.
그 인내가 없었다면 십자가의 길은 완성되지 않았고, 그 사랑은 우리에게 닿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사소한 오해에도 흥분하고, 기도응답이 늦어지면 낙심하며, 사람과의 갈등 앞에서 너무 쉽게 돌아섰습니다.
나는 모든 조급함과 낙심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인내는 고통을 견디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믿고 기다리는 것임을 알게 하소서.
시험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고난 중에도 포기하지 않게 하시며,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고, 말씀을 부여잡고 버티는 힘을 주소서.
사람 앞에서 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제어하는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 말보다 믿음으로 반응하며, 눈물보다 감사로 기다릴 수 있는 깊은 신앙의 뿌리를 내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는 모든 원망을 파쇄하노라!

주님의 인내는 저를 향한 사랑이었듯, 저의 인내도 누군가에게 사랑이 되게 하소서.
내가 예수님의 인내를 닮아갈 것을 선포하노라! 내가 하나님의 때를 믿고 기다릴 것을 선포하노라! 내 인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이 될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 예수님의 사랑을 닮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원수도 사랑하셨고, 자신을 팔아넘긴 유다를 향해도 떡을 나누셨으며, 십자가 위에서도 자기를 조롱하는 자들을 위해 용서를 구하셨습니다.
그 사랑은 계산된 사랑이 아니었고, 조건부 사랑도 아니었으며, 절대적이고 희생적이며, 생명을 내어주는 전적인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용서하지 못했고,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실망했고,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 외면했습니다.
나는 모든 조건부 사랑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작은 사랑으로 사람을 평가하며 살아왔던 저를 용서하여 주소서.
이제는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고 싶습니다.
참고, 덮고, 기다리며, 받으려 하지 않고 주는 사랑, 지키려 하지 않고 나누는 사랑, 계산하지 않는 사랑을 배우게 하옵소서.
나는 모든 계산하는 마음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가까운 사람부터, 가장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까지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그 사랑이 내 말에, 표정에, 행동에 스며들게 하소서.
주님이 제게 보여주신 그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도 흘러가게 하시고, 사랑이 곧 신앙임을 믿고 오늘도 그 길을 걷게 하옵소서.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갈 것을 선포하노라! 내가 무조건적으로 사랑할 것을 선포하노라! 주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 흘러갈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14

겸손기도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살기 위한 기도

1. 내 안의 교만을 깨뜨려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는 종종 제 생각과 판단이 옳다고 여기며, 다른 이의 의견을 무시하고, 스스로를 높이는 교만한 마음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쌓은 지식과 성취, 사람들의 인정에 기대어 주님의 은혜를 잊고,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착각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나는 모든 교만과 자만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교만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깨뜨리며, 저를 외로운 자리에 세웁니다.
이제는 그 교만한 마음을 깨뜨려 주시고, 주님 앞에서 낮아지는 법을 배우게 하소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뜻에 순복하는 겸손한 마음을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는 모든 자기 중심적 욕망을 파쇄하노라!
내가 스스로 높아지려는 모든 시도를 내려놓고, 주님을 높이는 삶을 살게 하소서.
내가 주님 앞에서 낮아질 것을 선포하노라! 내가 주

님의 은혜를 의지할 것을 선포하노라! 내 삶이 주님을 높일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종종 비교하며, 경쟁하며, 내 위치를 지키려는 마음으로 살아왔습니다.
다른 이의 성공을 시기하고, 그들의 약점을 비판하며, 내 부족함을 감추려 했던 저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나는 모든 시기와 비판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것이 약함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길임을 깨닫게 하소서.
다른 이의 장점을 축복하고, 그들의 약점을 품으며, 주님의 시선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겸손한 마음을 주소서.
내가 섬기는 자리에서 기뻐하고, 주목받지 않아도 감

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는 모든 비교와 경쟁심을 파쇄하노라!
내가 남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들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내가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길 것을 선포하노라! 내가 섬기는 자리에서 기뻐할 것을 선포하노라!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품을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 섬기는 마음을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섬김보다 인정받기를 원했고, 낮은 자리보다 높은 자리를 탐했던 죄인입니다.
내가 섬기는 척하며 내 유익을 구했던 위선을 고백합니다.
나는 모든 위선과 자기 중심적 욕망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섬김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임을 알게 하소서.
내가 주목받지 않는 자리에서도 기뻐하며,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섬기는 자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섬김을 본받아, 내 이웃을 진심으로 섬기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는 모든 인정받고자 하는 욕심을 파쇄하노라!
내가 주님의 종으로서 낮은 자리에 서게 하시고, 섬김의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내가 진심으로 섬길 것을 선포하노라!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 것을 선포하노라! 내 삶이 섬김의 본이 될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겸손을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는 종종 주님의 뜻보다 내 계획을 앞세우고, 주님

의 인도하심을 따르기보다 내 판단을 믿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불평하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한 저의 교만을 고백합니다.
나는 모든 불평과 자기 의를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겸손은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소서.
내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맡기는 믿음을 주소서.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주님의 길을 따르는 것이 진정한 자유임을 알게 하시고, 그 순종 속에서 주님의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는 모든 내 뜻을 주장하는 마음을 파쇄하노라!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내가 주님의 뜻에 순종할 것을 선포하노라! 내가 주님의 때를 기다릴 것을 선포하노라! 내가 순종 속에서 평안을 누릴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 겸손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겸손은 마음으로 결단하는 데서 시작하지만, 그 열매는 삶으로 맺혀야 함을 고백합니다.
저는 겉으로는 겸손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과 교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칭찬을 기대하고, 내 노력을 드러내려 했던 저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소서.
나는 모든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과 교만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겸손의 열매가 내 말과 행동, 태도와 관계 속에서 나타나게 하소서.
내가 낮은 자리에서 기뻐하고, 남을 높이며,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 겸손이 내 주변에 사랑과 화합을 가져오게 하옵소서.
주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셨사오니, 그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는 모든 자기 과시를 파쇄하노라!
내 삶이 겸손의 열매로 가득 차고, 주님의 사랑과 은

혜가 흘러넘치게 하소서.
내가 겸손의 열매를 맺을 것을 선포하노라! 내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것을 선포하노라! 내 삶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5
사랑기도

원수라도 사랑하겠다는 기도

1.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지만, 저는 그 말씀을 쉽게 지나쳤고, 실제로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나약한 자였습니다.
제게 상처 준 사람을 떠올리면 분노가 솟구치고,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곱씹으며 내 안에 증오가 자라나던 순간들이 제 마음 깊은 곳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나는 모든 분노와 증오를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그 감정을 내려놓고 싶습니다.
제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겠습니다.
제가 할 수 없어도, 주님의 사랑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도 자기를 못 박는 자들을 향해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하셨듯이, 저도 그 길을 따라가게 하소서.
미워하는 감정보다 사랑하려는 결단이 더 강하게 하시고, 응징보다 중보가 먼저 떠오르게 하시며, 저 사람의 죄보다 제 안의 교만을 먼저 보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존재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을 믿으며, 제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나는 제 안의 모든 미움의 뿌리를 파쇄하노라!
그 자리를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소서.
주님께 받은 그 넓은 용서와 자비가 다른 이들에게도 흘러가게 하시고, 그를 위한 축복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소서.
내가 원수를 사랑할 것을 선포하노라! 내가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할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 오해한 자를 사랑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고, 누구나 오해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지만, 저는 누군가의 오해와 판단을 마음에 품고 미움과 거리낌으로 대했던 자였습니다.
제가 한 말의 의도를 몰라주고, 내 진심을 왜곡했던

그 사람을 떠올릴 때마다 서운함과 억울함이 차올랐고, 결국 그 감정은 멀어짐과 냉담함으로 변해갔습니다.
나는 모든 서운함과 억울함을 파쇄하노라! 나는 멀어짐과 냉담함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 허물을 드러내고 곱씹는 자였습니다.
이제는 그 억울함을 주님께 맡기고, 그 사람을 용납하며 품는 자가 되게 하소서.
주님도 수많은 오해와 조롱 속에서도 침묵하시고 참으셨듯이, 저도 조용히 인내하며, 더 넓은 사랑으로 그를 이해하고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람을 향한 내 시선을 바꿔 주소서.
내 눈이 아니라, 주님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그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사랑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가 내 삶에 보내어진 이유를 알게 하시고, 그와의 관계 속에서 제가 배워야 할 사랑과 인내의 훈련을 감사함으로 받게 하소서.
내가 오해한 자를 용납하고 품을 것을 선포하노라!

내가 그를 주님의 눈으로 볼 것을 선포하노라! 내가 사랑과 인내를 배울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 반복해서 아프게 하는 자를 사랑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두 번이 아니라, 반복해서 상처를 주는 사람, 내 진심을 짓밟고, 내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며,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기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는 오늘 그 사람을 품는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으며, 사랑은 끝까지 믿고 바라본다고 하셨사오니, 그 말씀을 제 삶에 적용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의 분노와 상처를 먼저 치유해 주소서.
나는 사랑할 수 없다는 말 뒤에 숨은 저의 두려움과 자존심, 피해의식과 억울함을 파쇄하노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결단이며, 그 결단은 은혜로 가능함을 고백합니다.
그 사람을 향한 저의 기대를 주님께 옮기게 하시고, 그의 변화보다 내 속사람의 변화를 먼저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할 수 없는 이를 품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은 오직 주님의 사랑에서 나옴을 믿습니다.
그 사랑을 오늘 제게 다시 부어 주옵소서.
내가 반복해서 아프게 하는 자를 품을 것을 선포하노라! 내가 사랑의 결단을 할 것을 선포하노라! 주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 흘러갈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 경쟁자와 라이벌을 사랑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누군가와 비교되고, 경쟁자처럼 느껴지는 사람 앞에 설 때면 마음 깊은 곳에서 시기와 질투, 분노가 올라왔습니다.
그의 성공이 저의 실패처럼 느껴지고, 그의 칭찬이

저를 깎아내리는 소리로 들렸던 저를 용서하소서.
나는 모든 시기와 질투와 분노를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제가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직장과 사역의 자리에서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사랑보다 경쟁을 먼저 배웠던 저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저를 높이시는 분도, 내 자리를 정하시는 분도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고,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그저 주님 안에서 평안하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나는 모든 비교와 경쟁심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람을 향해 내 마음을 열게 하시고, 그의 장점을 축복하게 하시며, 그의 승리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주소서.
주님, 제가 진짜 사랑을 한다면 그 사람의 부족함도, 뛰어남도 받아들일 수 있음을 믿습니다.
내가 경쟁자를 사랑할 것을 선포하노라! 내가 그의 승리를 기뻐할 것을 선포하노라! 내가 주님 안에서 평안할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 내가 사랑하기 어려운 자를 위해 기도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기 쉬운 사람만 사랑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하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와 맞지 않는 사람, 생각이 다르고, 태도가 불편하고, 저를 자꾸 시험에 들게 하는 사람을 피하고 싶었고, 멀리하고 싶었습니다.
나는 모든 불편함과 거부감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람조차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존재이며, 그가 내 삶에 있게 하신 주님의 이유가 있음을 오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제게 부족한 성품을 훈련시키시기 위해, 내 기도의 깊이를 더하시기 위해, 내 안에 남은 교만과 분노를 다루시기 위해 그를 내 곁에 허락하셨다면, 이제는 원망보다 감사로 그를 대하게 하소서.
나는 모든 원망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사랑은 선택이 아니라 사명임을 믿고, 감정이 아니라

순종으로 사랑하게 하시며, 그를 위한 기도를 쉬지 않게 하소서.
내 안에 사랑이 메마르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그 사람을 위해 중보하며,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사랑하기 어려운 자를 위해 기도할 것을 선포하노라! 내가 순종으로 사랑할 것을 선포하노라! 내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6
용서기도

나에게 죄지은 자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

1. 진심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는 입술로는 용서한다고 말했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아팠고, 상처는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했던 말, 행동, 표정 하나하나가 지금도 기억나고, 마음을 무겁게 짓눌러 옵니다.
그를 떠올릴 때마다 다시 화가 나고, 그를 축복하기보다 외면하고 싶어집니다.
나는 모든 화와 외면하는 마음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이런 제 마음을 정직하게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저는 아직도 용서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용서하고 싶습니다.
제 안에 남은 분노와 아픔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나는 모든 분노와 아픔을 파쇄하노라!
예수님, 저의 죄를 조건 없이 용서하셨듯이, 저도 그를 조건 없이 용서하기 원합니다.
용서는 망각이 아니라,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람의 잘못을 잊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을 기억하되, 더 이상 그것에 매이지 않는 자유를 누리게 하소서.
그를 용서하는 것이 곧 저를 위한 치유의 길임을 믿습니다.

그를 용서함으로, 저의 마음이 자유해지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소서.
용서를 선택하는 순간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제 안의 억울함이 해소되지 않아도, 믿음으로 그를 축복할 수 있는 담대함을 주소서.

내가 진심으로 용서할 것을 선포하노라! 내 마음이 자유로워질 것을 선포하노라! 내가 그를 축복할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 반복해서 용서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번 용서한 후 다시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랐지만, 그 사람은 또 다시 저를 아프게 했고, 저는 또다시 마음속에서 분노와 실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용서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음을 압니다.

예수님께서 일곱 번씩 일흔 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셨사오니, 저는 지금 그 말씀 앞에 다시 무릎을 꿇습니다.
나는 모든 분노와 실망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반복되는 상처와 억울함 앞에서, 제가 주님처럼 다시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소서.
저의 자존심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붙잡게 하소서.
나는 저의 자존심을 파쇄하노라!
그를 용서할 수 없는 이유들을 하나씩 내려놓고, 용서해야만 하는 이유를 주님의 말씀에서 찾게 하소서.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한, 저 또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번뿐 아니라 계속해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소서.
용서가 반복될수록, 저의 영혼이 더욱 단단해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소서.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는 자를 향한 저의 마음이 메말라갈 때에도,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며 다시 일어나게 하소서.

그가 제게 준 아픔보다, 제가 주님께 드린 슬픔이 더 크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소서.
내가 반복해서 용서할 것을 선포하노라! 내 영혼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것을 선포하노라! 용서가 나의 능력이 될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 상처의 뿌리까지 용서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람이 제게 남긴 상처는 단지 말 한 마디나 행동 하나가 아니라, 제 존재를 부정하고, 제 가치를 훼손하는 깊은 고통이었습니다.
그 상처는 잊힌 줄 알았지만, 문득문득 되살아나고, 다른 관계 속에서도 그 상처가 저를 지배하고 있었음을 깨닫습니다.
이제 저는 그 상처의 뿌리까지도 주님의 은혜로 치유받기 원합니다.
나는 모든 상처의 뿌리를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겉으로는 용서한다고 말했지만, 속마음 깊은 곳에서

는 여전히 아물지 않은 상처가 내 말과 표정과 태도를 통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오르고, 그 말 한마디, 그 눈빛 하나가 지금까지도 내 가슴 속에서 무너지는 울림처럼 남아 있을 때, 그 기억마저도 주님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나는 모든 아픈 기억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상처 위에 또 상처가 더해져 내 마음은 굳어졌고, 벽이 세워졌으며, 그 사람뿐 아니라 모든 사람을 향해 의심과 경계의 눈길을 보내며 살아왔던 저의 모습이 너무도 연약했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모든 의심과 경계를 파쇄하노라!
이제는 그 기억을 움켜쥔 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기억을 주님께 드림으로 자유해지고 싶습니다.
그가 제게 준 고통보다, 그 고통 속에서 역사하신 주님의 위로가 더 크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내 마음 깊은 뿌리까지 치유될 것을 선포하노라! 내가 상처의 기억에서 자유로워질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 용서할 수 없는 자도 용서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그 사람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은 제게 지울 수 없는 충격을 주었고, 그 후로 오랫동안 제 내면은 두려움과 슬픔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저 역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모든 두려움과 슬픔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제가 행한 불순종과 교만, 위선과 욕심이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를 기억합니다.
그런 저를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시고, 묵묵히 기다려 주셨습니다.
심지어 제가 회개하기도 전에, 용서를 베풀어 주셨고, 그 용서로 인해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제가 받은 그 큰 용서를 기억하며, 저 또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믿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정으로는 도저히 되지 않지만, 주님의 마음을 힘입어 그 길을 걷게 하옵소서.
그 사람을 떠올리면 여전히 마음이 불편하지만, 이제는 그 감정을 따라가려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불편한 감정을 파쇄하노라!
그 사람의 죄에 매이지 않고, 그 죄를 넘어선 주님의 긍휼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용서가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위한 자유의 시작임을 깨닫고, 그 자유를 날마다 선택하게 하소서.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자도 용서할 것을 선포하노라!
내 영혼이 자유로워질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 용서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용서는 마음으로 결단하는 데서 시작하지만, 그 열매는 삶으로 맺혀야 함을 고백합니다.
저는 입술로 용서한다고 말했지만, 그 사람을 대할 때면, 내 안의 거절감과 냉소가 먼저 나타났습니다.
축복보다는 무시, 기도보다는 외면이 앞섰고, 진정한

용서의 삶을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모든 거절감과 냉소를 파쇄하노라! 나는 무시와 외면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진짜 열매를 맺고 싶습니다.
용서가 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언어, 태도, 표정, 기도 속에서 생생히 살아 움직이게 하소서.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진심으로 축복할 수 있게 하시고, 그가 행복해지길 바라는 마음이 진심으로 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용서의 열매가 화해로 이어지게 하시고, 제가 먼저 다가가고, 먼저 웃고, 먼저 손 내밀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 사람을 품을 때, 내 안에 주님의 성품이 자리잡고 있음을 느끼게 하시고, 용서의 열매가 내 주변에도 영향을 미쳐, 내 가정, 공동체, 교회에까지 평화와 은혜의 열매로 흘러가게 하옵소서.
내가 용서의 열매를 맺을 것을 선포하노라! 내가 먼

저 다가갈 것을 선포하노라! 용서의 열매가 평화와 은혜로 흘러갈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7
결단기도

작심한 것이 이뤄지도록 결단하는 기도

1.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결단을 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다시 한 번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수많은 번복과 흔들림 속에서, 주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고자 결심했으나 결심이 하루를 넘기지 못했던 제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저는 작심한 것을 이루기 전에 지치고, 결심한 것을 실천하기 전에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나는 모든 번복과 흔들림을 파쇄하노라! 나는 두려움을 파쇄하노라!
하지만 주님, 이제는 변명보다 순종, 망설임보다 담대함으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결단은 감정이 아니라 믿음의 시작임을 믿습니다.
오늘 이 결단이 흔들림 없는 순종으로 자라나게 하시고, 제게 주신 사명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게 하소서.
사람의 시선보다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세상의 유혹보다 주님의 약속을 더욱 단단히 붙들게 하소서.
나는 모든 변명과 망설임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결단이 제 안에 굳게 자리 잡게 하시고, 그 결단이 말씀과 기도로 단련되어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저의 작은 결심이 주님의 큰 계획 속에서 열매 맺게 하시고, 이 결단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결단을 할 것을 선포하노라! 내가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을 선포하노라! 내 결단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 유혹을 이기는 결단을 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매일 저를 시험합니다.
작은 욕심, 순간의 쾌락, 편안함을 약속하는 거짓된 소리가 제 귀를 유혹하고, 제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 유혹 앞에서 저는 너무나 쉽게 넘어졌고, 말씀을 알면서도 죄의 길로 발을 내디뎠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나는 모든 욕심과 쾌락의 유혹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유혹 앞에서 단호히 서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방패 삼아 악한 자의 화살을 막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제 발걸음을 인도해 주소서.
유혹은 달콤하지만 그 끝은 쓰디씀을 알게 하시고, 순간의 기쁨보다 영원한 기쁨을 선택하는 결단을 하게 하소서.
나는 모든 거짓된 소리를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유혹의 자리에 가지 않게 하시고, 죄의 문 앞에 서지 않게 하시며, 주님의 말씀으로 제 마음을 굳게 붙들어 주소서.
결단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싸움 속에서 단련됨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고, 유혹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유혹을 이길 것을 선포하노라! 내가 말씀으로 굳게 설 것을 선포하노라! 내가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 말씀에 순종하는 결단을 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은 생명의 길이요, 저를 자유케 하는 진리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씀을 읽고도 따르지 않았고, 들었어도 실천하지 않았으며, 알면서도 외면했던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말씀 앞에서 제 뜻을 고집하고, 제 생각을 앞세웠던 교만을 회개합니다.
나는 모든 불순종과 교만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말씀을 읽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소서.
말씀이 제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제 마음과 행동이 정돈되게 하옵소서.
순종은 결단에서 시작되며, 그 결단은 주님의 은혜로 가능함을 믿습니다.
나는 말씀을 외면했던 모든 순간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평안과 능력을 오늘도 경험하게 하소서.
말씀을 묵상하며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용기를 주옵소서.
제 삶이 말씀의 열매로 가득 차게 하시고, 순종의 결단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내가 말씀에 순종할 것을 선포하노라! 내 삶이 말씀의 열매를 맺을 것을 선포하노라! 내 순종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 끝까지 나아가는 결단을 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는 시작은 거창했으나 끝까지 가지 못했던 날들이 많았습니다.
열정으로 시작했으나 지쳤고, 믿음으로 나아갔으나 낙심했으며, 약속을 붙들었으나 의심했던 제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길은 좁고 험난하지만, 그 끝에는 영광이 있음을 믿습니다.
나는 모든 낙심과 의심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끝까지 나아가겠습니다.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며,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달려가게 하소서.
주님의 은혜가 저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능력이 저를 새롭게 하여, 결단의 여정이 끝까지 이어지게 하옵소서.
나는 중도 포기를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제게 주신 사명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매일 결단하며 나아가게 하소서.
끝까지 인내하는 자에게 주시는 면류관을 바라보며, 오늘도 한 걸음 내딛겠습니다.
내가 끝까지 나아갈 것을 선포하노라! 내가 주님의 사명을 이룰 것을 선포하노라! 내가 인내의 면류관을 받을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 믿음으로 결단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결단은 보이는 것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주님의 약속을 믿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저는 종종 눈에 보이는 어려움 앞에서 주저했고,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믿음보다 두려움을 선택했던 순간들을 회개합니다.
나는 모든 주저함과 두려움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믿음은 말씀에서 비롯되고, 말씀은 결단으로 완성됨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담대히 결단하게 하시고, 그 결단이 주님의 뜻과 하나 되게 하소서.
믿음으로 결단할 때,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약속을 붙들게 하옵소서.
나는 세상의 소리를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믿음으로 결단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작은 일에서부터 큰일까지,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믿음의 결단이 제 삶을 변화시키는 기적이 되게 하소서.
내가 믿음으로 결단할 것을 선포하노라! 내 결단이

주님의 뜻과 하나 될 것을 선포하노라! 내 삶이 주님의 기적으로 변화될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8

순종기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기도

1.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은 저의 길을 비추는 등불이요, 생명의 길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씀을 알면서도 제 뜻대로 행했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도 제 생각을 앞세웠던 연약한 자였음을 고백합니다.
순종하지 않은 저의 교만과 완고함을 회개합니다.
나는 모든 교만과 완고함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말씀을 읽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용기를 주옵소서.
순종은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가져오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임을 믿습니다.
나는 제 뜻을 앞세웠던 모든 순간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오늘도 경험하게 하소서.
제 마음이 주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시고,
순종의 열매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내가 말씀에 순종할 것을 선포하노라! 내 마음이 주님의 음성에 민감해질 것을 선포하노라! 내 순종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순종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때는 완전하시고, 주님의 계획은 선하시며, 주님의 길은 의로우심을 믿습니다.
하지만 저는 주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제 계획을 앞세우며, 조급함으로 주님의 뜻을 거스른 적이 많았습니다.
나는 모든 조급함과 제멋대로의 계획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주님의 때를 신뢰하며 기다리게 하소서.
기도의 응답이 늦어져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기다림은 순종의 연습이요, 믿음의 성장이니, 그 기다림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게 하소서.
나는 낙심과 불신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를 오늘도 누리게 하소서.
제 삶이 주님의 완전한 때에 맞춰지게 하시고, 순종의 길이 기쁨의 길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주님의 때를 기다릴 것을 선포하노라! 내가 순종으로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될 것을 선포하노라! 내 삶이 주님의 때에 맞춰질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저를 부르시고, 저를 위해 길을 예비하셨으며, 제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부르심 앞에서 두려워했고, 제 연약함을 핑계 삼아 머뭇거렸으며,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주님의 음성을 외면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나는 모든 두려움과 머뭇거림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붙들게 하시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담대히 나아가게 하소서.
순종은 주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것이며, 그 신뢰는 주님의 능력으로 가능함을 믿습니다.
나는 세상의 소리를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이 제게 기쁨이 되게 하시고, 그 순종을 통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저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고, 순종의 결단이 열매로 나타나게 하소서.
내가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것을 선포하노라! 내가 주님의 도구로 쓰임 받을 것을 선포하노라! 내 순종이 열매를 맺을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 작은 일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큰일을 맡기신

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큰 사명만 바라보고, 작은 순종을 소홀히 여겼으며, 일상의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따르지 못했던 때가 많았습니다.
나는 모든 소홀함과 게으름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작은 일부터 순종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사소한 결단에도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게 하소서.
작은 순종이 큰 순종의 씨앗이 됨을 믿습니다.
나는 큰 것만 바라보던 마음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일상의 순간마다 주님의 뜻을 구하며, 작은 일에도 성실히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그 순종이 제 삶을 변화시키고, 주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작은 일에 순종할 것을 선포하노라! 내 삶이 변화될 것을 선포하노라! 내 순종이 주님의 계획을 이룰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 끝까지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순종은 한 번의 결심이 아니라, 끝까지 가는 길임을 고백합니다.
저는 시작은 열심이었으나, 시간이 지나며 지쳤고, 어려움 앞에서 주저하며, 순종의 길에서 멈춰 섰던 연약함을 회개합니다.
나는 모든 지침과 주저함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끝까지 순종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에 전적으로 헌신하며, 어떤 고난과 시험 속에서도 주님의 길을 따르게 하소서.
순종의 끝에는 주님의 기쁨이 있음을 믿습니다.
나는 모든 낙심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끝까지 달려가게 하시고, 순종의 길이 제게 참된 자유와 기쁨이 되게 하소서.
제 삶이 주님께 드려진 예배가 되며, 끝까지 순종하는 자로 주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내가 끝까지 순종할 것을 선포하노라! 내 삶이 주님

께 드려진 예배가 될 것을 선포하노라!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될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9

충성기도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겠다는 기도

1. 하루하루 충성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큰일을 맡기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종종 큰 사명을 꿈꾸며, 오늘 내게 맡겨진 작은 일들을 소홀히 여겼습니다.
일상의 자리에서,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충성하지 못했던 제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나는 모든 소홀함과 게으름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하루하루 충성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오늘의 시간, 오늘의 만남, 오늘의 사명을 귀히 여기며,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게 하소서.
충성은 큰일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순종 속에서 쌓이는 것임을 믿습니다.
나는 큰 것만 바라보던 마음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충성의 씨앗을 심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씨앗이 주님의 나라를 위한 열매로 자라나게 하소서.
제 삶이 주님께 드려진 충성의 제물이 되게 하옵소

서.
내가 하루하루 충성할 것을 선포하노라! 내 삶이 주님께 드려진 제물이 될 것을 선포하노라! 내 충성이 열매를 맺을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 주님의 부르심에 충성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를 부르시고, 제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은 때로는 크고, 때로는 작으며,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섬김의 자리일지라도, 주님께서 주신 것임을 믿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부르심을 소홀히 여기고, 제 뜻을 앞세우며, 세상의 보상과 인정을 더 귀히 여겼던 때가 있었습니다.
나는 모든 소홀함과 세상적인 욕심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주님의 부르심에 충성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그 사명을 통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충성은 주님의 뜻에 헌신하는 것이며, 그 헌신은 주님의 은혜로 가능함을 믿습니다.
나는 세상의 인정을 구하던 마음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부르심에 충성하는 삶이 제게 기쁨이 되게 하시고, 그 충성이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제 삶이 주님께 드려진 충성의 예배가 되게 하소서.
내가 주님의 부르심에 충성할 것을 선포하노라! 내 삶이 주님의 나라를 위한 도구가 될 것을 선포하노라! 내 충성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 말씀에 충성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은 저의 삶의 기준이요, 길을 비추는 빛입니다.
하지만 저는 말씀을 읽어도 실천하지 않았고, 말씀을 들어도 묵상하지 않았으며, 말씀을 알면서도 제 뜻을

떠났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나는 모든 불순종과 무관심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말씀에 충성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게 하소서.
말씀에 충성하는 자에게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오늘도 경험하게 하시고, 말씀의 씨앗이 제 삶에 깊이 뿌리내리게 하옵소서.
나는 말씀을 외면했던 모든 순간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 제 마음이 새로워지고, 제 삶이 변화되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제 입술이 말씀을 전하고, 제 손이 말씀을 실천하며, 제 발걸음이 말씀의 길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내가 말씀에 충성할 것을 선포하노라! 내 삶이 말씀으로 새로워질 것을 선포하노라! 내가 말씀의 증인이 될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 사랑에 충성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헌신이며, 선택이며, 충성임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저는 사랑이 어려울 때 외면했고, 사랑이 힘들 때 포기했으며, 사랑이 손해인 줄 알았던 순간들을 회개합니다.
나는 모든 외면과 포기를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사랑에 충성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조건 없이 사랑하고, 희생적으로 섬기며, 끝까지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사랑은 주님의 마음을 닮는 것이며, 그 사랑은 주님의 은혜로 가능함을 믿습니다.
나는 사랑을 손해로 여겼던 마음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이 제 안에 충만히 임하게 하시고, 그 사랑이 제 주변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하옵소서.
사랑에 충성하는 삶이 제 신앙의 증거가 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내가 사랑에 충성할 것을 선포하노라!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할 것을 선포하노라! 내 사랑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 끝까지 충성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충성은 한 번의 결심이 아니라, 끝까지 가는 여정임을 고백합니다.
저는 시작은 열정적이었으나, 시간이 지나며 지쳤고, 어려움 앞에서 흔들리며, 충성의 길에서 멈춰 섰던 연약함을 회개합니다.
나는 모든 지침과 흔들림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끝까지 충성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에 전적으로 헌신하며, 어떤 시험과 고난 속에서도 주님께 드려진 삶을 살게 하소서.
충성의 끝에는 주님의 기쁨과 상급이 있음을 믿습니다.
나는 모든 낙심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끝까지 달려가게 하시고, 충성의 삶이 제게 참된 기쁨과 자유가 되게 하소서.
제 삶이 주님께 드려진 충성의 제물이 되며, 끝까지 충성하는 자로 주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내가 끝까지 충성할 것을 선포하노라! 내 삶이 주님께 드려진 제물이 될 것을 선포하노라!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될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
소망기도

기도한 것이 이뤄질 것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기도

1. 기다림 속에 소망을 심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간절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저의 마음을 들여다보시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기도의 제목들 속에서 낙심하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소서.
저는 오늘도 간절히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현실의 벽은 높고, 응답은 더디지만, 주님, 이 기다림 조차도 주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나는 모든 조급함과 불안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응답이 더딘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속에서 주님은 저를 훈련시키고 계신 줄 압니다.
저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내면의 깊이를 더하시며, 인내와 순종을 배워가게 하시려는 주님의 손길을 느낍니다.
저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주시고, 말씀 속에서 소망의 뿌리를 내리게 하시며, 하늘의 때에 반드시 응답하시리라는 확신으로 기도의 불꽃을 꺼뜨리지 않게 하옵소서.
나는 모든 낙담과 의심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기다림은 고통이기도 하지만, 믿음을 시험하는 복이기도 함을 깨닫게 하시고, 저의 시선이 문제에서 주님께로 옮겨지게 하소서.
오늘도 한 걸음, 믿음의 발걸음을 떼게 하시고, 낙심의 음성보다 말씀의 진리를 붙들게 하소서.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신뢰하며, 기도의 열매를 기쁨으로 수확하는 그날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나는 기다림 속에 소망을 심는 자로 변화될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주님의 약속을 붙드는 자로 세워질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 절망 속에서도 소망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모든 길이 막힌 듯 보이고, 기도의 응답은 멀게만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주님의 빛을 소망하게 하시고, 눈물

속에서도 웃게 하실 주님의 손길을 기대하게 하소서.
사람의 말보다 주님의 약속에 더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절망의 목소리보다 소망의 말씀을 붙들게 하소서.
나는 모든 절망과 무기력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늘 문이 닫힌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신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 저의 고백이 절망이 아닌 소망이 되게 하시고, 이 기도가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응답되도록 인도하소서.
오늘도 제 영혼을 붙드시고, 제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절망이 마음을 누르고, 어둠이 길을 막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계시다는 믿음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나는 모든 부정과 불신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저의 삶의 계절이 겨울처럼 메말라 있을지라도, 주님의 봄은 반드시 오며, 그 손길은 새 생명을 싹틔우실 줄 믿습니다.
제가 낙심할 때마다, 소망의 씨앗을 품고 있는 당신

의 말씀으로 저를 일으켜 주소서.
주님의 신실하심이 나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약속이 나의 기준이 되게 하셔서, 절망 속에서도 찬양하게 하시고, 기다림 속에서도 감사하게 하소서.
나는 절망을 뚫고 소망하는 자로 변화될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봄의 회복을 경험할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 믿음으로 소망을 선포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의 입술을 열어, 믿음으로 소망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세상은 현실을 말하고, 가능성을 계산하지만, 저는 믿음으로 불가능을 향해 소망을 외치겠습니다.
"주님께서 하실 수 있다" 이 한마디가 저의 삶의 선포가 되게 하시고, 절망의 무게보다 소망의 진리가 더 크다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나는 모든 두려움과 의심의 말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하셨으니, 제가 선포하는 말마다 주님의 약속 위에 서게 하시고, 그 말이 천군천사와 함께 하늘에 상달되게 하소서.
저의 가정, 자녀, 일터, 교회, 나라 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이 일어날 것을 믿고,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감사하며 노래하게 하소서.
소망은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님을 압니다.
삶의 태도, 생각, 관계 속에서 믿음으로 그 소망을 살아내게 하시고, 그 소망이 또 다른 생명을 살리는 열쇠가 되게 하소서.
나는 모든 거짓 선포를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작고 미약할지라도, 주님 손에 들려질 때, 그 모든 것이 거룩한 역전의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 위에 서서, 오늘도 담대히 선포하게 하소서.
제 입술이 두려움을 담지 않게 하시고, 염려를 말하지 않게 하시며, 소망의 언어, 믿음의 언어를 말하게 하소서.
하늘을 여는 언어, 절망을 무너뜨리는 선언, 어둠 속에서도 빛을 향한 기대의 외침이 제 입에서 끊임없이 터져 나오게 하시고, 그 선포가 제 삶의 현실로 이뤄지게 하옵소서.
나는 믿음의 말을 선포하는 자로 세워질 것을 선포하

노라! 나는 선포한 모든 말이 이뤄질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 소망으로 눈물의 씨앗을 심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눈물로 드리는 기도 속에 소망의 씨앗이 심어지게 하소서.
삶의 고단함과 시험의 무게 앞에 무릎 꿇을 때, 그 무릎이 포기의 자리가 아니라 소망을 심는 기도의 밭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저의 마음은 연약하여 쉽게 낙심하고 좌절하지만, 주님께서 주신 약속은 결코 무너지지 않음을 믿습니다.
눈물로 드리는 기도는 주님의 병에 담긴다고 하셨사오니, 그 기도가 주님의 시간에 응답되어 기쁨의 곡식단이 되게 하소서.
나는 모든 절망과 포기를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슬픔의 땅에서도 희망의 씨를 뿌리게 하시고, 황폐한

자리에서도 생명의 싹이 돋아나게 하소서.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그 믿음과 인내가 쌓여서 결국에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주님, 제 입술은 떨리지만, 그 속에서 감사가 터지게 하시고, 제 발걸음은 무겁지만, 그 길 끝에 주님의 영광이 서게 하소서.
사람들이 모를지라도, 주님은 다 아시고 기억하시며, 그 눈물을 가장 귀히 여기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나는 모든 무의미함과 허무함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한 방울의 눈물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고통 속에 흘린 그 눈물이 장차 나타날 영광의 전조가 되게 하소서.
제 기도가 깊은 한숨으로 이어질 때에도, 주님은 그 안에 말씀을 심으시고,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 믿음의 열매, 소망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눈물 속에서 탄생한 찬양이, 가장 깊고 진실된 고백임을 알게 하시고, 그 고백이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향기로 하늘에 올려지게 하소서.
나는 눈물로 소망을 심는 자로 변화될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기쁨의 추수자가 될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 소망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는 수없이 넘어졌고, 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제게 소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실패와 절망의 자리에서 끝이라고 말하는 세상의 목소리보다 다시 시작하자고 속삭이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소서.
제 손은 비어 있지만, 주님의 말씀은 생명이며, 그 말씀이 저를 다시 걷게 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이 저를 영광으로 이끄심을 믿습니다.
나는 모든 실패와 좌절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소서.
그 힘은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으로부터 오며, 그 능력으로 저는 오늘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소망은 내 감정의 문제나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믿는 믿음에서 비롯됨을 고백합니다.

그러니 주님, 이 믿음 위에 다시 서게 하시고, 이 믿음 위에 다시 나아가게 하소서.
실패는 끝이 아니며, 지연은 포기가 아니며, 주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무너지지 않음을 믿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 주님을 따르게 하소서.
나는 모든 낙담과 절망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일어서는 그 발걸음에 담긴 소망이 단지 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 나라를 위한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 되게 하소서.
과거의 실패는 제 정체성이 아니고, 상처는 사명으로 전환될 수 있으며, 낙심은 새로운 비전의 자리가 될 수 있음을 믿게 하옵소서.
소망으로 다시 걷게 하시고, 소망으로 다시 말하게 하시며, 소망으로 다시 사랑하게 하소서.
나는 소망으로 다시 일어나는 자로 변화될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새로운 시작을 경험할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1

기쁨기도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게 해달라는 기도

1.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가득 찬 무거운 짐과 속 깊은 슬픔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저의 눈물과 탄식을 들으시고, 주님의 은혜로 그것들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소서.
지금 제 안에는 회한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어제의 상처가 오늘의 눈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눈물 속에서 주님과의 거리를 느끼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주님의 임재를 더욱 사모하게 하옵소서.
나는 모든 슬픔과 절망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고통의 밤이 지나고 기쁨의 아침이 올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지만, 주님의 손이 저를 붙드시며 소망의 언덕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슬픔이 제 삶을 삼키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저의 마음을 일으켜 세우게 하소서.
어두운 감정에 사로잡히기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며 감사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나는 모든 회한과 자책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의 입술에서 찬양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기쁨의 노래가 슬픔을 대신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기쁨의 옷으로 애통의 옷을 갈아입히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슬픔이 깊을수록 주님의 위로도 깊다는 약속을 붙잡고, 그 위로가 제 영혼에 생명수처럼 흘러들어 마음의 메마름을 채우게 하소서.
슬픔의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그 자리를 기쁨의 터로 변화시키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나는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키는 자로 세워질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기쁨의 옷을 입은 종이 될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 마음의 어두움을 거두어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의 마음 깊은 곳에 드리운 어두운 그림자를 주님의 밝은 빛으로 환히 드러내어 주소서.
우울과 무기력으로 무너져 내릴 때마다 주의 온전하신 평강이 저를 감싸 안으시고 새 힘으로 제 영혼을

일으켜 주소서.
삶의 무게가 제 어깨를 짓누를 때 주님의 위로의 손길이 제 영혼을 어루만지사 깊은 상처마저 사랑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나는 모든 우울과 절망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눈물로 적신 땅 위에 주님의 기쁨의 씨를 심으시고 그 씨앗이 자라 열매 맺어 제 입술에 감사의 찬양이 피어나게 하소서.
때로는 밤이 너무 길어 주님이 멀게 느껴지지만, 그 밤조차도 주님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어둠 속에서 더 선명히 비치는 별빛처럼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저의 믿음을 더욱 단단히 세워 주소서.
나는 모든 외로움과 고독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제 안에 남은 두려움과 절망을 걷어내시고 그 빈자리에 주님이 주시는 소망과 기쁨을 채워 주소서.
외로움이 몰려올 때에도 주님의 음성을 확신하며 기뻐 뛰게 하시고 어둠이 짙을수록 주님의 빛이 더욱 눈부시게 하소서.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묵상할 때 제 눈물은

주님께서 닦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제 마음이 가볍게 들리고 다시 찬양으로 일어나 주님을 높이게 하소서.
나는 어두움 속에서도 빛을 보는 자로 변화될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주님의 빛으로 밝아질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 눈물의 계절을 지나 기쁨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는 오랫동안 눈물로 기도해 왔습니다.
고단함과 싸우며 흘린 그 눈물이 주님의 은혜와 만남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눈물로 축복의 밭을 적시는 동안에도 주님의 약속이 제 마음의 뿌리가 되어 결코 말라 버리지 않음을 믿습니다.
그 눈물이 마침내 기쁨의 열매로 맺혀 제 삶과 주변에 생명의 향기를 퍼뜨리게 하소서.
나는 모든 낙담과 무의미함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지나간 슬픔을 주님의 보혈로 덮으시고 그 위에 감사의 씨앗을 뿌려 주소서.
아픔을 기억의 자리에 남겨 두되 주님의 자비로 덧입혀져 찬송이 되게 하소서.
어둠의 계절이 끝나면 찬란한 빛의 계절이 오듯이 제 삶에도 기쁨의 봄이 찾아오리라 믿습니다.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도 눈물을 뿌리며 주님께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나는 모든 회한과 비통함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이 눈물의 계절이 단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알게 하시고 눈물로 뿌린 기도가 믿음과 소망의 뿌리가 되어 결국 풍성한 기쁨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아픔이 있었기에 더욱 깊은 감사를 알게 되고, 눈물을 흘렸기에 더욱 간절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소서.
그 모든 것이 주님의 능력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로 변화되어 제 생명이 되게 하옵소서.
나는 눈물의 계절을 넘어 기쁨의 자로 변화될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풍성한 기쁨의 열매를 맺을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 주님 안에서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을 오직 주님 안에서 누리게 하여 주소서.
형편과 감정에 좌우되지 않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묵상할 때 마음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기쁨을 경험하게 하소서.
이 기쁨이 제 삶의 동력이 되어 어떤 시련도 이겨 내는 힘이 되게 하옵소서.
나는 모든 세상의 거짓 기쁨과 허사를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마다 제 영혼이 새롭게 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마다 찬양이 멈추지 않게 하소서.
뜻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감사와 기쁨을 선택하며 걸어가게 하옵소서.
참된 기쁨은 주님과 동행할 때 완성됨을 믿습니다.
오늘의 발걸음을 주님과 함께하며 그 기쁨이 제 하루를 가득 채우게 하소서.
나는 모든 분노와 불만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제 말과 행동이 주님 안에서 흘러나오는 기쁨의 표현이 되게 하시고 제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주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나오는 기쁨이 점점 더 깊어져 어떤 환난도 흔들 수 없는 기쁨이 되게 하소서.
그 기쁨이 제 안에 샘이 되어 항상 솟아나며, 주변 모든 이에게 생명수가 되게 하옵소서.
나는 주님 안에서 진정한 기쁨의 종이 될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항상 기뻐하는 자로 변화될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 오늘 하루도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이라는 선물을 감사함으로 열고 매 순간 주님의 기쁨으로 채워 주소서.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염려에 사로잡히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 주신 은혜를 누리며 기쁨으로 발걸음 내딛

게 하소서.
작은 일상 속에서도 주님의 선하심을 발견하게 하시고 사소한 순간마다 감사의 노래를 부르게 하옵소서.
나는 모든 후회와 염려를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불평 대신 감사, 근심 대신 소망, 무력함 대신 기쁨을 택하는 삶이 제 삶의 선택이 되게 하소서.
주님의 사랑이 제 하루를 감싸 안고 제 마음이 쉬는 안식처가 되게 하시며 그 안에서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하루의 모든 만남과 상황 속에서 제가 주님의 기쁨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제 삶이 주님의 웃음소리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나는 모든 불평과 불만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제가 마주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기쁨이 흘러가게 하시고, 그 기쁨이 연쇄적으로 퍼져나가 더 많은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오늘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반영하는 거울이 되게 하시고, 제 마음 밭에 심어진 기쁨의 씨앗이 내일의 감사와 찬양으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제 안에 있는 모든 무거운 감정과 숨겨진 근

심을 주님께 내어 맡기며, 그 자리에 주님의 빛과 기쁨을 부어주소서.
어두웠던 마음 구석구석까지 비추어 주시고, 새로운 소망의 불꽃이 타오르게 하소서.
나는 모든 무거움과 근심을 파쇄하노라!
나는 기쁨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마감하는 자로 변화될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주님의 기쁨으로 가득한 삶을 살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2

인내기도

기도가 이뤄질 때까지 인내하는 기도

1. 기도응답의 시간을 기다리며 인내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는 지금 기도한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기도를 드립니다.
하지만 그 응답의 시간이 언제 올지 모를 때, 제 마음은 자주 흔들리고, 기다림 속에서 인내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약속하신 시간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라는 믿음 속에서 그 기다림을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나는 모든 조급함과 불안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저의 마음을 너무 조급하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제 삶 속에서 가장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기다리는 법을 배우게 하소서.
제 인내의 시간이 단순한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가 응답되기를 기다리는 이 시간이 오히려 제 영혼이 성장하는 훈련이 되게 하시고, 제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게 하소서.
나는 모든 의심과 불신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제가 기다리며 인내할 때, 그 기다림 속에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든 상황을 바라볼 수 있게 하옵소서.
때로는 기다림이 힘들고 괴로울 수 있지만, 그 속에서 주님의 은혜와 인도를 경험하게 하시고, 제가 기다리는 동안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게 도와주소서.
제가 주님의 시간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루하루 기도의 불을 끄지 않고, 더욱 뜨겁게 피워내게 하옵소서.
나는 기도응답의 시간을 인내하는 자로 변화될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할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 인내하는 마음을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제 마음은 기도의 응답을 간절히 기다리며, 그 때가 언제 올지 몰라 답답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

니다.
하나님, 제게 인내하는 마음을 주세요.
믿음으로 기다리며, 주님의 때에 맞춰 응답이 올 것을 확신하게 하소서.
세상의 모든 것들이 빨리 이루어지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주님께서는 때를 따라 일하시며, 기다림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단단하게 만드시며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의지하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나는 모든 조급함과 답답함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저의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리게 하시고,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제 속에서 일어나는 조급함과 불안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 저를 다듬고, 연단하시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준비되게 하소서.
주님의 때가 가장 완전한 시간임을 믿사오니, 그때까지 조용히 엎드려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나는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응답이 보이지 않아도, 주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게 하시고, 내가 원치 않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신뢰하게 하소서.
주님의 타이밍은 나의 생각보다 더 지혜롭고, 그분의 응답은 언제나 가장 선하다는 사실로 위로받게 하소서.

그 기다림의 시간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그 안에서 성숙한 믿음을 소유하게 하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우고, 말씀 안에서 위로와 확신을 얻으며, 날마다 인내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나는 인내하는 마음의 종이 될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주님을 믿고 기다리는 자로 세워질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 기다리는 동안에도 감사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는 주님 앞에 나아와 제 마음을 쏟아놓습니다.
저는 지금 기도의 응답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제 마음은 때로 흔들리고,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초조함이 밀려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나는 모든 두려움과 초조함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이 기다림이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저의 신앙이 뿌리내리는 시간임을 알게 하소서.
당장의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시간을 통해 제가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되는 것임을 깨닫게 하소서.
응답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세상은 속도와 결과를 중요하게 여기지만, 하나님께서는 과정을 보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응답이 더딜지라도, 그 속에 담긴 주님의 섭리와 뜻이 반드시 있음을 믿습니다.
나는 모든 불감사와 원망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기다리는 시간이 지루하고 고통스럽게 느껴질 때, 제 안에 숨겨진 교만과 조급함을 보게 하시고, 그것을

회개함으로 주 앞에 겸손히 나아가게 하소서.
감사할 수 없는 순간에도 감사하게 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님의 손길을 느끼며 기쁨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소서.
저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실하심 위에 제 믿음을 세우게 하시고, 기다림 속에서 더욱 주님을 닮아가게 하소서.
이 시간을 통해 영적으로 성장하고, 주님의 뜻을 더욱 민감하게 분별하게 하소서.
나는 기다림 속에서 감사하는 자로 변화될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하나님의 계획에 기쁨으로 동의하는 자로 세워질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는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와 저의 연약한 마음을 고백합니다.
기도는 했지만, 아직 응답이 오지 않은 그 상황 속에서 저의 마음은 흔들리고, 믿음이 약해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소서.
나는 모든 의심과 약한 믿음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가?", "정말 응답하실 의지가 있으신가?" 하는 의심이 피어오릅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을 붙들게 하소서.
주님은 침묵하시는 듯 보여도, 결코 저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믿음이란 보이지 않아도 신뢰하는 것이고,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도 소망하는 것임을 다시 배우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약속을 믿고 기다렸던 것처럼, 저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묵묵히 걸어가게 하소서.
나는 모든 의심과 거짓 신앙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기다림은 곧 순종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제가 그 기다림 속에서 더욱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을 따르며 살게 하소서.
주님께서 응답하실 그 날까지, 제가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기도와 찬양으로 그 시간을 채우게 하소서.

이 시간을 통해 저의 믿음을 연단하시고, 더 단단하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소서.
누구도 흔들 수 없는 확고한 믿음, 환경에 따라 요동하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주소서.
나는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로 변화될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갖춘 자로 세워질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 인내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와 제 마음을 고백합니다.
기도는 드렸지만, 아직 응답되지 않은 상황 앞에서 제 안에는 조급함과 답답함이 솟구치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런 시간 속에서 제가 인내를 배울 수 있게 하소서.
기다리는 시간이 괴롭고 끝이 보이지 않을 때, 저는 쉽게 낙심하고,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지려는 유혹에 빠집니다.
나는 모든 낙심과 유혹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하지만 하나님, 그럴수록 더욱 저를 깨워주시고 인내의 마음을 회복하게 하소서.
성경 속 믿음의 사람들도 오랜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았습니다.
요셉이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했고, 다윗이 광야에서 수년을 기다렸으며, 아브라함이 오랜 세월을 통해 약속의 자녀를 받았던 것처럼 저도 그 믿음의 계보를 따라 살게 하소서.
나는 모든 절망과 포기를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이 기다림이 저를 정금처럼 단련시키는 용광로가 되게 하소서.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하셨으니 그 말씀대로 제 안에 인내의 깊은 뿌리가 내리게 하소서.
감정이 아닌, 진리 위에 선 인내가 되게 하소서.
저의 인내가 단지 수동적인 참음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동하며 기다리는 살아 있는 인내가 되게 하시고,
그 기다림 속에서 사랑을 배우고, 겸손을 배우고, 무릎 꿇는 기도를 배우게 하소서.
나는 모든 비관과 허무함을 파쇄하노라!
나는 인내의 열매를 맺는 자로 변화될 것을 선포하노

래!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도구가 될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3

자비기도

악인을 불쌍히 여기게 해달라는 기도

1. 악인조차도 긍휼히 보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이 시간 무릎 꿇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너무나 많은 악함과 불의함이 보이고, 제 마음은 그들을 향해 분노하고 정죄하며 멀어지고 싶을 뿐입니다.
하지만 주님, 저의 좁은 마음을 깨뜨려 주시고, 악인이라 불리는 자들조차도 긍휼히 볼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제게 부어주소서.
나는 모든 정죄와 미움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조롱하고 못 박은 자들을 향해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라고 기도하셨던 그 자비를 제 안에 심어 주소서.
악인도 결국은 사탄의 미혹 속에 갇힌 불쌍한 영혼이며, 그들의 악함 뒤에는 깨지지 않은 상처와 치유되지 않은 어둠이 있음을 보게 하소서.
나는 모든 냉정함과 무관심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저도 예전에는 주님을 알지 못했으며, 죄 가운데 살았고,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그런 저를 자비로 품으시고 회복시키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그 동일한 자비가 지금도 죄악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도 흘러가길 원합니다.
제가 그들을 미워하는 대신, 그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중보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주님, 세상은 보복을 외치고 심판을 갈망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자비와 용서를 기초로 세워졌음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는 악인을 긍휼히 보는 자로 변화될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주님의 자비를 전하는 중보자가 될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 죄인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제게도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제 마음을 열어 드립니다.
세상에는 죄와 악으로 가득한 자들이 많고, 그들의 행위를 보면 분노와 실망이 솟구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자비하심을 기억하게 하소서.

하나님, 주님은 죄인을 미워하지 않으시고, 죄에서 돌이키기를 간절히 기다리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 사랑이 너무 커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피로 모든 죄인을 구속하셨습니다.
나는 모든 증오와 분노를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악한 자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느끼게 하시고, 저 역시 그들을 단순히 정죄하고 외면하지 않고, 기도의 눈물로 그들을 끌어안는 자가 되게 하소서.
그들이 지금은 하나님을 모른 채 방황하고 있지만, 주님의 자비가 그들을 찾아가기를, 주님의 빛이 어둠 속에서도 비추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저도 그들처럼 연약했고, 그들처럼 주님을 무시하며 살았던 시간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모든 거짓 우월감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하지만 주님은 저를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찾아오셨습니다.
그 자비가 오늘도 유효하며, 지금도 또 한 사람의 죄인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인내를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도 누군가의 죄악을 보며 정죄하는 대신, "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 하늘 문이 열리며 그들에게도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나는 죄인을 향한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자가 될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자비의 사역자로 쓰임받을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 악인의 회복을 위한 중보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제가 기도의 자리에서 한 영혼을 위해 부르짖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세상은 악인을 혐오하고 저주하며, 그들이 받는 심판을 즐거워하려 합니다.
하지만 주님, 저는 그들과는 다른 시선으로 악인을 바라보게 하소서.
악인은 그저 미움의 대상이 아니라, 주님의 시선 안에서 보면 여전히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할 잃어버린 자입니다.
그들을 향해 분노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 울게 하시고, 그들을 품고 기도하게 하소서.

나는 모든 혐오와 저주의 말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는 그들이 변하지 않을 것 같고, 돌이키지 않을 것 같다는 절망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단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을 위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주시고, 끝까지 기다리고,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중보자가 되게 하소서.
그들이 행하는 악행을 미워하되, 그들의 존재를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그들에게도 여전히 소망이 있음을 선포하게 하소서.
나는 모든 절망과 포기를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게 하시고, 그 영혼을 향한 주님의 애끓는 마음에 제 심장이 동참하게 하소서.
기도하는 이 한 사람을 통해 어둠 속에 있는 한 영혼이 돌아오게 하시고, 그가 회복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게 하소서.
오늘의 중보가 내일의 역사가 되고, 그 역사가 영원한 승리가 되게 하소서.

나는 악인의 회복을 위한 중보자로 서는 자가 될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 영혼을 살리는 자로 변화될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 악인을 향한 분노를 자비로 바꾸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제 안에 있는 분노와 미움의 감정을 주님 앞에 내려 놓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을 보면 제 안의 의로움이 격동하고, 그들을 심판해달라고 외치고 싶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제 분노를 자비로 바꿔주소서.
내 안의 의로움이 하나님의 긍휼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정죄보다 중보가 먼저 나오게 하소서.
나는 모든 인간적인 분노를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공의는 완전하며, 그분의 심판은 지혜롭고 온전하심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저는 인간적인 분노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살기 원합니다.
주님, 악을 미워하되 사람은 사랑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그 죄에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을 제게 주시고, 그들이 회개하기 전이라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소서.
나는 모든 복수심과 맹렬한 정욕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어두움 뒤에 감춰진 사연을 이해하게 하시고,
그들이 왜 그 길을 걸었는지 주님의 시선으로 들여다보게 하소서.
그리고 그들을 비난하는 대신 그들을 위해 손을 들어 기도하게 하소서.
그 기도가 열쇠가 되어 그들의 묶인 사슬이 끊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자비가 그들을 새롭게 빚으시는 도구가 되게 하소서.
나는 악인을 향한 분노를 자비로 바꾸는 자가 될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주님의 공의와 자비를 반영하는 자로 변화될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 저의 마음을 넓혀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사람들을 바라보는 제 마음이 너무나 좁고, 자주 닫
혀 있음을 고백합니다.
특히 저를 아프게 하거나, 악한 행동을 일삼는 자들
을 보면 그들을 불쌍히 여기기보다는 밀어내고 싶고,
분리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의 마음을 넓혀주소서.
나는 모든 폐쇄성과 배타성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고, 가장 악한
자들조차도 찾아가셨습니다.
그들을 품어주시고, 그들에게 회개의 길을 열어주셨
습니다.
그 사랑이 오늘도 제 안에서 살아 역사하게 하소서.
악인을 향해 마음을 닫지 않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
마음을 여는 용기를 주소서.
그들이 변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믿고, 그 가능성
하나만으로도 기도하게 하소서.
나는 모든 냉담함과 거리감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고, 사람들의 마음은 냉혹해지지만, 그럴수록 하나님의 자비가 더욱 필요한 시대임을 믿습니다.
그 자비의 통로로 제가 쓰임받게 하소서.
오늘도 악인을 위한 기도 속에 주님의 사랑이 흐르게 하시고, 그 기도가 하늘을 울리고, 마침내 회개의 역사를 이루게 하소서.
제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져서,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게 하소서.
나는 넓은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품는 자가 될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주님의 자비를 몸으로 보여주는 자로 변화될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4

평화기도

다른 사람과 평화롭게 지내게 해 달라는 기도

1. 제 안에 먼저 평화를 심어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제 마음을 주님 앞에 엽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며, 말로, 표정으로, 때로는 침묵으로 갈등을 만들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내길 바라면서도 제 마음에는 분노와 오해, 자존심이 자리 잡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 안에 먼저 평화를 심어주소서.
나는 모든 분노와 고집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열매 중 하나인 '화평'이 저의 생각과 말, 행동 가운데 풍성히 열리게 하소서.
평화를 바라지만 실천하지 못하는 제 안의 두려움과 완고함을 깨뜨려 주시고, 그 자리에 주님의 온유와 자비로 채워주소서.
주님, 평화는 단지 갈등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사랑으로 이어진 깊은 화목임을 알게 하소서.
다른 사람의 단점과 상처를 품고도 함께 갈 수 있는 넉넉함과 성숙함을 저에게 허락하소서.
나는 모든 경직됨과 자기중심성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저를 먼저 변화시켜 주십시오.
관계를 어렵게 하는 상황에서도 주님의 평화의 사람으로 살게 하소서.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평화를 이루기 위해 한 걸음 물러서고 기다릴 줄 아는 지혜를 주소서.
오늘도 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제가 평화를 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 제게도 주님의 은혜가 흘러오게 하소서.
나는 제 안에 평화를 심는 자로 변화될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주님의 평화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 갈등을 넘어 화해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제 안에는 풀리지 않은 갈등과 마음의 골이 깊어진 관계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생각하면 마음이 답답하고,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도 가물가물할 정도로 멀어졌음을 느낍니다.

그러나 주님, 그 관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제 힘으로는 도저히 화해할 수 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시기에 이 깨어진 관계에도 평화의 씨앗이 심어지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나는 모든 막힘과 냉정함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제가 먼저 다가갈 용기를 주소서.
제 자존심을 내려놓고, 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마음을 허락하소서.
용서를 구할 부분이 있다면 진심으로 구하게 하시고, 상처를 준 것에 대해 외면하지 않고 책임지게 하소서.
하나님, 화해는 나약함이 아니라 사랑의 강함임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셨듯이 저 또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게 하소서.
나는 모든 관성과 두려움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은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예물을 드리기 전, 형제와 화목하라."

주님,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제가 먼저 평화를 위한 걸음을 내딛게 하소서.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멀어진 마음이 다시 가까워지며, 그 안에 주님의 평화가 자리 잡게 하옵소서.
나는 갈등을 넘어 화해로 인도하는 자가 될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깨어진 관계의 중보자로 쓰임받을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 나와 다름을 품을 수 있는 사랑을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하며, 그만큼 다양한 성격과 생각,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때로 그 다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비판하거나 거리 두려는 마음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주님, 제 안에 나와 '다름'을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주소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을 미워하거나 무시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말 속에서도 진심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를 열어주소서.
나는 모든 편견과 거절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사람은 모두가 불완전합니다.
그 불완전함 속에서 주님의 은혜가 역사하듯, 저도 다른 이들의 연약함을 품을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갖게 하소서.
하나님, 제 고집과 독선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다른 사람들의 입장을 들어주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논쟁보다 공감이 앞서고, 판단보다 이해가 앞서는 태도를 갖게 하소서.
나는 모든 자기의를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저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 가족, 친구, 심지어 저와 의견이 부딪히는 이들조차도 저를 통해 주님의 평화와 따뜻함을 느끼게 하소서.
주님의 사랑이 제 안에서 흘러넘쳐 어떤 관계도 포기하지 않고 품게 하소서.
나는 나와 다름을 포용하는 넓은 마음의 자가 될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모든 사람의 다름을 존중하며 사랑하는 자로 변화될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 용서와 화해의 다리를 놓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삶을 살다 보면 원치 않는 오해와 다툼이 생기고, 그로 인해 멀어지는 관계가 생깁니다.
그 사람이 저에게 한 말이나 행동이 아직도 제 가슴에 남아 아픔이 됩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 저는 그 상처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그 아픔을 그냥 안고 사는 것이 아니라, 치유받고, 회복되며, 그 위에 용서와 화해의 다리를 놓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모든 상처와 원한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를 용서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소서.
주님의 사랑이 제게 그렇게 무한하다면, 저 또한 그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용서는 쉽지 않습니다. 감정은 여전히 살아 있고, 상처는 아직 덜 아물었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선택하는 믿음을 주소서.
나는 모든 응어리와 맺힘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그 용서가 상대방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저 자신의 자유와 회복을 위한 것임을 깨닫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을 닮아 화를 푸는 자, 손을 내미는 자, 먼저 사과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오늘 제가 놓는 이 다리를 통해 깨어진 관계에 주님의 빛이 비추고, 마음의 담장이 허물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용서와 화해의 다리를 놓는 자가 될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자로 변화될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 제가 평화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 이름 아래 모든 분열과 다툼이 화해와 일치로 바뀌게 하셨습니다.
저도 그 주님의 제자로서 평화를 만드는 사람으로 살

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있는 곳마다 말 한 마디, 행동 하나, 눈빛 하나로 분열이 아닌 화합을 이루게 하소서.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진정으로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고,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나는 모든 분열과 대립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제가 평화의 향기를 흘리게 하소서.
작은 다툼이 있을 때, 중립적이고 사랑의 시선으로 중재할 수 있게 하시고, 누군가가 억울함을 느낄 때는 그를 이해하고 끌어안는 따뜻한 품이 되게 하소서.
사람들은 갈등을 두려워하고 피하려 하지만, 저는 주님의 은혜로 그 한가운데 서게 하소서.
나는 모든 피함과 중립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평화는 누군가의 헌신과 중보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며, 기꺼이 그 역할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소서.
오늘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주님, 이 말씀이 제 삶의 고백이 되게 하소서.

제가 있는 모든 자리에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주님의 평화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소서.

나는 평화의 통로가 될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분열을 화해로, 갈등을 화합으로 바꾸는 자로 변화될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5

이해기도

다른 사람의 행동을 이해하게 해 달라는 기도

1. 이해할 수 없는 행동 앞에서 마음을 넓혀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제 마음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의 말과 행동이 제 마음을 찌르고 지나갑니다.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말했는지, 왜 그런 표정을 지었는지, 왜 그런 방식으로 행동했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행동이 내게 상처를 주고, 오해를 남겼고, 이해되지 않는 감정들이 제 안에 쌓여 분노로 바뀌려 합니다.
나는 모든 오해와 성급함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순간에 제가 입술을 다물고, 오히려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 안의 좁은 마음과 기준을 내려놓고 주님의 시선으로 다시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주소서.
혹시 그 사람도 지쳐 있었는지, 마음에 말하지 못한 상처가 있었는지, 주님은 다 아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보지 못한 그 사람의 내면을 주님의 눈으로 보게 하소서.
나는 모든 편견과 독선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저는 때때로 자신만 옳다고 생각하며 타인의 모든 말과 행동에 의미를 부여하며 상처를 키웁니다.
주님, 제 안의 오해와 편견을 벗겨 주시고, 그 사람의 삶에도 아픔이 있음을, 그 역시 주님의 긍휼을 입어야 할 자임을 기억하게 하소서.
제 마음을 넓혀 주시고, 그의 행동 하나하나를 설명받지 않아도 그를 온전히 이해하지 않아도 주님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넉넉한 그릇이 되게 하소서.
나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 앞에서도 마음 넓은 자가 될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주님의 눈으로 모든 사람을 보는 자로 변화될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 오해 속에서도 진심을 분별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는 지금 누군가의 말과 행동에 상처받고 혼란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 사람의 말이 너무 날카로워서, 그 행동이 너무 무심해서, 저는 그 사람의 진심을 보지 못하고 외면하

고 싶어졌습니다.
하지만 주님, 혹시 그 안에 숨겨진 진심이 있다면, 제 마음이 닫히기 전에 그 뜻을 깨닫게 하소서.
나는 모든 즉단과 판단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누군가를 이해한다는 것은 그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님을 압니다.
감정의 순간을 지나, 기도와 묵상의 시간을 통해 그 사람의 내면까지 다다를 수 있게 하소서.
사람은 각자의 상처와 방식대로 행동합니다.
그의 말이 거칠었다면, 그 안에는 두려움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반응이 냉정했다면, 그만큼 살아오며 많은 방어벽을 쌓아야 했는지도 모릅니다.
주님, 제가 그 진심에 다가가게 하소서.
나는 모든 불신과 거부를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다툼은 마음을 닫게 하지만, 이해는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주님, 오해가 불신으로, 불신이 분열로 가지 않도록 제게 민감한 분별력을 허락하셔서 사람을 사람으로, 영혼으로 바라보게 하소서.

그리고 혹 제가 먼저 오해했고, 그를 향해 편견으로 다가갔다면 그것을 깨닫고 낮추는 용기도 주소서.
주님, 평화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부터 이해의 기도를 드릴 수 있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나는 오해 속에서도 진심을 분별하는 자가 될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마음의 문을 여는 이해의 자로 변화될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 나도 이해받고 싶듯 남도 이해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는 언제나 이해받기를 원합니다.
내 사정, 내 말, 내 감정이 정당하다고 여겨지기를, 상대가 내 입장을 알아주고 헤아려주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정작 누군가를 향해서는 그만큼 이해하려 하지 못하는 제 이기적인 모습을 봅니다.
나는 모든 이기심과 불일치를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도 누군가에게는 이해되지 않는 말과 행동을

했던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런 저를 주님은 책망보다 인내로 대해주셨고, 사랑으로 품으셨습니다.
그 은혜를 입은 제가 왜 타인을 쉽게 정죄하고, 그 사람의 행동을 성급하게 판단하려 했는지 돌아보게 하소서.
이해는 느리고 복잡한 과정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기꺼이 감당하는 것이 사랑의 본질임을 저는 이제 압니다.
나는 모든 성급함과 판단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상대방을 이해한다는 건 그가 옳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을 살피고 헤아려주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 저를 어렵게 하는 사람을 만날 때 속으로 이렇게 기도하게 하소서.
"하나님, 저 사람의 상황을 제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십니다. 제가 그 사람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해도 주님의 사랑으로 대할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 이해받는 삶보다 이해하는 삶을 먼저 살아가게 하소서.
나는 남을 이해하는 자로 변화될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타인의 입장을 헤아리는 자로 세워질 것을 선포

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 상처 준 사람도 주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마음속에 품고 있는 사람 하나가 있습니다.
그의 행동은 내게 상처를 주었고, 그 이후로 그 사람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단정 지었고, 마음을 닫았고, 멀어지려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 사람도 주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임을 이제야 다시 생각합니다.
그의 행동은 잘못되었을지 모르지만, 그 존재까지 부정하지 않게 하소서.
나는 모든 낙인과 정죄를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저를 향한 주님의 자비를 생각합니다.
수없이 잘못하고, 반복해서 넘어졌던 저를 주님은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랑이 지금도 제게 유효하다면, 그 사람에게도

동일하다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그를 향한 제 시선이 바뀌게 하시고, 그를 판단하는 대신 그를 위해 기도하게 하소서.
상처 준 사람도 치유가 필요하다는 것을 제 마음 깊이 깨닫게 하시고, 이해가 용서를 향한 첫걸음이 되게 하소서.
나는 모든 원망과 미움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감정의 회복은 느릴 수 있지만, 오늘 드리는 이 기도 하나로 그 사람과의 거리가 조금 더 가까워지게 하소서.
주님의 사랑 안에 모두가 있음을 믿으며,
나는 상처 준 사람도 주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이해하는 자가 될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모든 사람을 주님의 눈으로 보고 사랑하는 자로 변화될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 이해가 되지 않아도 사랑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때로는 그 사람의 동기도, 그가 선택한 말도, 그가 한 행동도 도무지 납득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기도는 이해하기 위한 노력이 아닌, 이해가 되지 않아도 사랑하게 해달라는 간구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이해하지 않아도 기꺼이 품을 수 있는 능력임을 믿습니다.
나는 모든 이해 없는 거부를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도 제자들의 부족함을 모두 아셨지만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제 안에 흐르게 하소서.
오해와 혼란 속에서도 사랑은 멈추지 않게 하소서.
감정이 앞설 때에도, 주님의 은혜로 평정심을 잃지 않게 하시고, 상대를 감정으로 다루지 않고 기도로 품을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나는 모든 감정적 반응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결국, 이해보다 더 위대한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모든 허물을 덮고, 사랑으로 관계를 다시 세우는 은혜를 제 삶에서 경험하게 하소서.
오늘 이 기도가 저의 삶의 방향이 되기를, 사랑의 결

단으로 마무리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이해 없이도 사랑하는 자가 될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사랑으로 모든 관계를 아우르는 자로 변화될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6

진리기도

진리되신 예수님만 의지하며 바라는 기도

1. 진리의 길이신 예수님을 따르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너무나 많은 길을 제시합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길이 옳다고 말하고, 세상의 문화는 끊임없이 다른 기준을 주입하려 합니다.
그러나 주님, 저는 오늘도 다시 고백합니다.
"예수님, 주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주님, 이 세상에 수많은 정보와 지식이 있지만, 그 어떤 것도 제 영혼을 온전히 살릴 수 없습니다.
나는 모든 세상의 거짓된 길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말은 바뀌고, 시대의 기준은 흔들리지만 주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임을 믿습니다.
제가 가는 길이 좁을지라도, 주님의 길이라면 기꺼이 따르게 하소서.
사람들이 조롱해도, 주님의 길을 걷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게 하소서.
제 눈에 보기엔 멀고 힘들어 보여도, 그 길 끝에 주님이 계시기에, 저는 오늘도 그 길을 선택합니다.
나는 모든 세상의 조롱과 유혹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저의 판단과 이성을 뛰어넘는 진리의 빛으로 제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 빛 따라 오늘도 한 걸음씩 걷게 하소서.
진리이신 주님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소서.
세상의 기준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유일한 기준으로 삼게 하옵소서.
나는 진리의 길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될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주님의 길을 자랑스럽게 걷는 자로 변화될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 세상의 소리보다 진리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제 마음과 귀에는 세상의 말들이 빗발치듯 쏟아집니다.
미디어의 소리, 사람들의 평가, 심지어 제 내면의 불안한 속삭임까지 제게 무엇이 진리인지 혼란을 줍니다.
그러나 주님, 그 모든 소리 위에 하나님의 진리의 음성이 선명하게 들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가 천 개의 말보다 더 깊은 확

신이 되게 하소서.
나는 모든 세상의 소음과 미혹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제 안에 진리의 분별력을 주소서.
거짓이 진실처럼 포장되어 다가오는 세상 속에서 눈에 보이는 것에 흔들리지 않고, 진리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게 하소서.
진리는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인격이시며 생명이십니다.
그 진리 되신 주님 안에서 제 사고가 정화되고, 제 감정이 치유되고, 제 삶이 곧아지게 하소서.
나는 모든 거짓 정보와 인간의 소리를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오직 진리 되신 주님을 신뢰하며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보다 성령님의 속삭임에 순종하는 믿음을 주소서.
제 귀가 주님의 음성에만 민감하게 반응하고, 제 마음이 진리의 말씀으로만 채워지게 하소서.
나는 세상의 소리를 분별하는 자로 변화될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진리의 음성만을 듣는 자로 세워질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 진리 위에 세워진 삶을 살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모든 기초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건강도, 관계도, 재정도, 미래도 순식간에 흔들릴 수 있는 것들임을 저는 경험을 통해 배웠습니다.
그러나 주님, 진리만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진리 위에 제 삶을 세우게 하소서.
세상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삶을 권하지만, 저는 오늘 반석 위에 인생을 짓기로 결단합니다.
나는 모든 흔들리는 기초와 거짓된 안정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당신의 말씀은 생명이며 그 말씀 위에 서 있는 사람은 폭풍이 몰아쳐도 넘어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주님, 제가 말로만 진리를 믿는 자가 아니라 삶으로 진리를 따르는 자가 되게 하소서.
작은 선택 하나하나가 진리의 기초 위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진리의 길을 갈 때 손해를 보더라도 그 길을

놓지 않게 하소서.
나는 모든 타협과 편의주의를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진리 위에 선 자는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음을 믿습니다.
그 확신으로 오늘도 굳건히 서게 하소서.
제 인생의 모든 기초가 예수님의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그 위에 세워진 삶이 진정한 부요와 풍성함이 되게 하옵소서.
나는 진리 위에 견고하게 세워진 자가 될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사는 자로 변화될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 거짓의 시대 속에 진리를 붙들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는 진리를 비웃고, 거짓을 아름답게 꾸며 말하며 악을 선이라 하고, 선을 악이라 하는 날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는 진리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화려함보다, 사람들의 인정보다, 오직 예수님의 진리만을 선택하겠습니다.
나는 모든 거짓된 가치관과 세상의 기준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기준이 나를 향해 '뒤처졌다'고 말해도, 진리의 길은 가장 빠른 길임을 믿습니다.
그 길은 좁고 협착할지라도 그 끝에는 생명이 있고, 그 길 위에는 주님의 발자국이 있습니다.
주님, 제 안에 두 마음을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게 하소서.
내게 유익한 것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택하는 믿음을 주소서.
나는 모든 이중성과 불순함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는 기도합니다.
"진리의 허리띠로 내 허리를 동이게 하소서."
내 생각을 진리로 조이고, 내 감정을 진리로 다스리고, 내 인생을 진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짓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저는 흔들리지 않고 진리를 붙드는 자가 되겠습니다.
나는 거짓의 시대 속에서도 진리를 붙드는 자가 될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진리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설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 진리로 나를 지키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끊임없이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눈에 보이는 이익과 사람의 칭찬과 안정이라는 이름의 함정 속에서 저를 무너지게 하려 합니다.
하지만 주님, 진리가 저의 방패가 되게 하소서.
진리로 무장된 영혼은 그 어떤 거짓에도 흔들리지 않음을 믿습니다.
나는 모든 유혹과 미혹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제가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만이 진리입니다"라는 고백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그 고백 하나로 모든 싸움을 이겨내게 하소서.
진리는 저의 무기이며, 저의 방어이며, 저를 자유롭게 하는 유일한 길임을 믿습니다.
예수님, 세상의 모든 견고한 진이 주님의 진리 앞에

무너질 줄 믿습니다.
나는 모든 두려움과 불안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그 진리를 붙들며 살게 하시고, 그 진리 안에서 평안과 담대함을 누리게 하소서.
오늘도 오직 예수님만을 믿고 의지합니다.
진리 되신 그분만이 제 인생의 소망이십니다.
모든 거짓된 위로와 세상의 약속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굳게 붙들게 하옵소서.
나는 진리로 무장된 자가 될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진리 안에서 자유롭고 담대한 자로 변화될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7

신뢰기도

불신하지 않고 신뢰케 해 달라는 기도

1. 의심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신뢰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제 마음속 깊은 곳에는 말하지 못한 두려움과 하나님을 향한 의심이 고요히 숨어 있습니다.
기도하면서도 과연 하나님께서 들으시는지, 응답하실 의지가 있으신지 확신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제는 그런 의심의 장벽을 무너뜨리기를 원합니다.
제 안의 불신을 제거하시고, 주님의 신실하심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주소서.
나는 모든 의심과 불신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은 저를 떠나지 않으셨고, 한 순간도 눈을 떼지 않으신 분이심을 다시 믿게 하소서.
하나님, 제가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주님의 뜻은 완전하며, 주님의 시간은 가장 정확하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소서.
불안으로 가득 찬 생각 대신 신뢰로 가득한 고백을 하게 하소서.
"하나님은 나를 결코 놓지 않으신다" 이 믿음 하나로 오늘 하루를 살게 하소서.

나는 모든 의심의 소리를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제 마음이 불안정할 때에도, 주님의 신실하심은 변하지 않으심을 기억하게 하소서.
과거의 모든 순간들을 돌아볼 때, 주님은 항상 제 편에 계셨고, 함께하셨음을 재확인하게 하옵소서.
나는 의심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신뢰하는 자가 될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주님의 신실하심 위에 굳게 서는 자로 변화될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 보이지 않을 때에도 주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신뢰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용기임을 압니다.
하지만 때로 저는 눈에 보이는 현실에 더 마음을 빼앗기고, 주님의 손길을 의심합니다.
기도했지만 상황이 변하지 않을 때, 약속은 들었지만 아무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 제 믿음은 쉽게 흔들리고 결국 불신의 그림자에 사로잡힙니다.
나는 모든 현실주의적 불신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믿음은 보는 것이 아니요, 신뢰는 결과가 아니라 관계임을 알게 하소서.
저는 응답보다 주님을 원합니다. 축복보다 주님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님,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제가 여전히 주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나는 모든 감정적 불신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그 신뢰가 오늘도 제 삶의 중심에 서게 하시고, 주님의 성실하심에 기대어 기쁨으로 걸어가게 하소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믿고, 느껴지지 않는 것도 신뢰하며, 증명되지 않은 것도 고백하는 큰 믿음을 주옵소서.
나는 보이지 않을 때에도 주님을 신뢰하는 자가 될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관계 속에서 주님을 신뢰하는 자로 변화될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 불안한 미래 앞에서도 신뢰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미래는 늘 불확실하고, 앞날을 알 수 없기에 저는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를 때 제 마음은 조급하고 불안해집니다.
하지만 주님, 제 미래를 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선하시며, 저를 위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나는 모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믿음을 다시 세우고 싶습니다.
불확실한 현실보다 확실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보장되지 않은 내 계획보다 완전하신 주님의 인도를 신뢰하게 하소서.
미래를 미리 알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 미래를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나는 모든 불안과 조급함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내일을 알지 못해도 주님을 아는 것이 나에게 충분하게 하소서.
제 계획이 무너져도, 예상이 빗나가도 주님의 뜻 속에서 평안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나는 불안한 미래 앞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는 자가 될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확실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변화될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 실패의 기억에서 벗어나 다시 신뢰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삶을 살며 경험한 많은 실패와 상처들이 제 마음속에 깊은 불신의 씨앗을 남겼습니다.
사람에게 상처받았고, 기대했던 일이 무너졌으며, 기도했지만 응답받지 못했던 기억들이 저를 더욱 조심스럽고 폐쇄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신뢰를 회복하길 원합니다.
나는 모든 과거의 상처와 불신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과거의 상처가 주님의 신실하심을 가리는 장벽이 되지 않게 하소서.
주님은 변하지 않으시고, 실망시키지 않으시며, 언제나 저를 향해 선하신 뜻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저의 경험이 아닌, 주님의 말씀 위에 믿게 하소서.
실패로 인한 불신이 아니라, 회복을 향한 신뢰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나는 모든 절망과 닫힌 마음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예전에 무너진 기억들이 있어도, 오늘은 주님을 다시 신뢰하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과거의 실패 위에 현재의 신뢰를 쌓게 하시고, 그 신뢰가 미래의 기대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나는 실패의 기억에서 벗어나 다시 신뢰하는 자가 될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회복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로 변화될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을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신뢰는 하루 이틀의 감정이 아니라 매일의 결단이며, 평생의 고백임을 압니다.
좋을 때만이 아니라 힘들 때, 외로울 때, 실망할 때도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주소서.
마치 아브라함처럼, 보이지 않는 땅을 향해 떠날 수 있는 믿음을, 마치 욥처럼, 모든 것을 잃고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신뢰를, 마치 예수님처럼, 십자가 앞에서도 아버지를 의지하는 믿음을 제게 허락하소서.
나는 모든 약한 믿음과 흔들리는 신뢰를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신뢰는 계산이 아니라 순종이고, 논리가 아니라 사랑임을 알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신뢰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오늘도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하소서.
끝까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나는 모든 타협과 동요하는 신뢰를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는 오늘도 신뢰합니다.
내일도, 모레도, 남은 인생 전체를 주님께 맡기고 신뢰하며 살겠습니다.

그 신뢰가 나의 정체성이 되고, 내 삶의 근거가 되게 하소서.
나는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는 자가 될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평생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자로 변화될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8
정직기도

정직하게 살게 해 달라는 기도

1. 제 마음의 중심을 정직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는 사람 앞에서는 나름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려 애쓰지만, 주님 앞에서는 그 모든 껍질이 벗겨지고 제 마음의 중심이 그대로 드러남을 압니다.
주님, 저는 생각보다 더 이기적이고, 남들이 모르게 속이려 하며, 정직한 척하지만 속은 부패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그 모든 위선과 가식을 내려놓습니다.
나는 모든 위선과 거짓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제 마음 깊은 곳을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정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소서.
사람을 속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그 사실이 두렵기보다 감사가 되게 하소서.
주님은 제 마음을 아시면서도 버리지 않으시고, 그 안에 새 마음을 주시기 위해 다가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모든 자기기만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정직한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셨으니 저의 중심을 정직함으로 세우시고, 숨김없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과 순결함을 주소서.
제 마음이 투명하게 되고, 주님과의 관계가 숨김없이 되며, 정직한 중심으로 모든 일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나는 마음의 중심을 정직하게 하는 자가 될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서는 자로 변화될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정직한 삶을 살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제 말과 행동이 다를 때가 많습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찬양하지만, 생활 속에서는 타협하고 거짓된 길을 걸을 때가 있습니다.
제 입술로는 진리를 말하면서도 때로는 유익을 위해 진실을 왜곡한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중적인 모습에서 벗어나 말과 삶이 일치하는 정직한 자가 되게 하소서.

나는 모든 이중성과 모순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누구보다도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말한 것이 나의 삶으로 증명되게 하시고, 내가 믿는 바를 실천함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정직은 때로 손해처럼 느껴지지만, 주님 안에서는 결코 잃는 것이 아님을 믿습니다.
거짓은 일시적인 편안함을 줄 수 있으나 정직은 영원한 평안을 준다는 진리를 잊지 않게 하소서.
나는 모든 타협과 기만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제 입술을 정직하게 하시고, 제 눈과 손과 발이 진실된 행동으로 이어지게 하소서.
정직한 인생을 살아가는 기쁨을 맛보게 하소서.
제 말이 신뢰받게 되고, 제 행동이 증거가 되며, 전체 삶이 하나의 일관된 증거가 되게 하옵소서.
나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자가 될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일관되고 신뢰할 수 있는 자로 변화될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 유혹 속에서도 정직함을 지키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삶은 언제나 유혹으로 가득합니다.
조금만 눈 감으면 편해지고, 조금만 속이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순간들이 많습니다.
그때마다 제 안의 욕심이 꿈틀거리며 정직을 무너뜨리려 합니다.
주님, 그런 유혹 앞에서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으로 견디고 정직을 지켜내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나는 모든 유혹과 욕심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모두가 타협할 때, 저는 주님의 눈을 의식하게 하시고, 세상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시선 앞에 살게 하소서.
다니엘이 바벨론 궁중에서도 자신을 더럽히지 않으려 결단했던 것처럼, 저도 유혹의 한가운데서 정직하게 살겠다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나는 모든 세상의 압력과 타협의 유혹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정직이 손해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정직이 저를 가장 안전한 길로 이끄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주님의 은혜가 저의 선택과 결단을 지키도록 오늘도 도와주소서.
나는 유혹 속에서도 정직함을 지키는 자가 될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믿음으로 견디고 정직을 지켜내는 자로 변화될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도 정직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이 보지 않는 자리에서 저는 얼마나 자주 긴장을 풀고 자기중심적이고 게으른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저의 신앙과 인격의 진짜 모습이 드러납니다.
주님, 진정한 정직은 사람의 시선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 앞에서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나는 모든 위장과 외식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숨겨진 공간에서도 정직하게 하소서.
혼자 있는 자리에서도 부끄럽지 않은 행동을 하게 하소서.
양심을 속이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음성 앞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시며, 내가 누구인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늘 기억하게 하소서.
나는 모든 기만과 자기기만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숨어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언제나 보고 계시고, 제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앞에서 떳떳하게 살아가는 사람, 그 정직한 영혼이 되게 하소서.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의 정직함이 제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하게 하옵소서.
나는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도 정직하게 하는 자가 될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주님 앞에서 투명하게 사는 자로 변화될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 정직함을 유산으로 남기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살아가는 삶이 단지 오늘 하루만의 선택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이어질 본보기가 됨을 기억하게 하소서.
정직은 유산입니다.
제가 살아온 방식이 제 자녀에게, 후배에게, 제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배워질 수 있음을 잊지 않게 하소서.
사람들은 지식과 물질만을 남기려 하지만, 주님, 저는 정직함을 남기고 싶습니다.
나는 모든 공허한 유산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그 어떤 말보다 더 강력한 영향력은 정직하게 살아가는 한 사람의 모습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거짓으로 덮지 않게 하시고, 실패를 고백할 수 있는 정직함도 주소서.
정직은 완벽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숨기지 않는 태도임을 믿습니다.
나는 모든 허세와 자존심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제 삶이 진실하고 투명하게 빛나게 하시고, 정직함이 저의 가정과 사역, 일터에서 하나님의 복으로 나타나게 하소서.
제 자녀들이 저를 통해 정직의 가치를 배우고, 제 주변 사람들이 정직한 삶의 보상을 보게 하옵소서.
나는 정직함을 유산으로 남기는 자가 될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다음 세대에게 정직의 본을 보이는 자로 변화될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9

감사기도

불평하지 않고 현재 처한 상태에서 감사하는 기도

1. 지금 이 자리에서 감사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는 주님 앞에 나아와 저의 마음을 온전히 드립니다.
지금 이 자리에 주님 앞에 있을 수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잊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제 삶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풀리지 않은 문제들도 있고, 기다려야 할 일들도 많으며, 가슴속에 담아둔 소원들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주님, 제가 오늘 감사하기를 선택합니다.
나는 모든 불평과 불만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 주님이 저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꾸 더 좋은 것을 기대하고, 지금보다는 나중을 생각하며, 현실보다 미래에 더 많은 기대를 겁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더 나은 환경, 더 많은 축복, 더 풍성한 형편을 기대하며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기쁨을 놓칠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저의 마음을 바꿔주소서.
나는 모든 욕심과 탐욕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저의 눈을 열어주소서.
지금 내 앞에 놓인 것들이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은혜로운지를 깨닫게 하소서.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손길이었음을 잊지 않게 하소서.
매일 아침 눈을 뜨게 하시는 것도, 따뜻한 물로 씻을 수 있는 것도, 따뜻한 밥을 먹고, 누군가와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자주 그것들을 지나치고 '왜 더 없지?'라는 생각으로 불평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서 감사하게 하소서.
나는 지금 이 자리에서 감사하는 자가 될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은혜를 보고 감사하는 자로 변화될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 작은 것에도 깊이 감사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는 큰 일이 일어났을 때만 드리는 것이 아님을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진정한 감사는 작고 평범한 일상 속에서 주님의 손길을 발견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을 배우고 또 배우는 중입니다.
하나님, 저는 때때로 큰 기적, 특별한 응답, 눈에 띄는 변화가 있어야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놓여 있는 수많은 작은 일들은 감사를 모르고 스쳐 지나간 은혜들이었습니다.
나는 모든 무감각과 둔함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침에 눈을 떴고, 숨을 쉬고, 물을 마시고, 빛을 봅니다.
이 평범해 보이는 일이 어떤 이에게는 간절한 소망이었음을 생각할 때 저는 오늘도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제가 더 이상 무뎌지지 않게 하소서.
감사의 감각이 사라지지 않게 하시고, 늘 깨어 있는 심령으로 작은 일에 진심으로 감동하는 그런 마음을 주소서.
나는 모든 감각의 마비를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누군가의 미소, 따뜻한 한 마디 말, 따뜻한 햇살, 한 끼의 식사, 이 모두가 기적임을 고백하게 하소서.
감사는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제가 눈앞의 현실을 뛰어넘어 주님의 섬세한 손길을 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모든 순간이 주님과 함께 걷는 여정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소서.
오늘도 작고 소박한 은혜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작은 것에 감사하는 자가 될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일상 속 기적을 발견하는 자로 변화될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 불평이 아닌 감사로 입술을 채우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이 오늘도 하늘에 닿기를 원합니다.
그 말들이 불평이 아닌 감사가 되게 하시고, 원망이 아닌 찬양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저의 입술은 때때로 너무나 성급하고 상황을

먼저 말해버립니다.
답답하다고, 어렵다고, 왜 이런 일이 생기냐고 불만을 늘어놓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런 말들이 저의 영혼을 어둡게 하고, 감사를 잃게 한다는 것을 오늘 다시 깨닫습니다.
나는 모든 불평과 원망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불평은 영혼을 병들게 하지만 감사는 마음을 밝히는 기름과도 같습니다.
감사를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저의 생각이 정리되고, 문제가 작아지며, 하나님의 사랑이 더 선명해지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의식적으로 감사를 고백하게 하소서.
아직 마음이 준비되지 않아도, 감사할 이유가 느껴지지 않아도 믿음으로 감사를 선택하게 하소서.
나는 모든 부정과 의심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내가 감사할 때 하늘문이 열린다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믿고 저의 하루를 감사의 고백으로 가득 채우겠습니다.
제 입술이 감사의 노래로 가득 차고, 그 노래가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하옵소서.

나는 감사로 입술을 채우는 자가 될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감사의 입술로 하늘 문을 여는 자로 변화될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믿음을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는 좋은 일이 있을 때만 드리는 것이 아님을 조금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감사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영혼의 고백임을 이제야 배웁니다.
삶이 쉽지 않고, 문제들은 여전하며, 기다림은 길어지고, 상처는 아물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모든 절망과 원망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고난이 저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더 절실하게 경험하게 해주는 도구임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 지금 이해되지 않아도 감사하게 하소서.
지금은 납득되지 않아도 신뢰하게 하소서.
결과가 좋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 선하다는 것을 고백하게 하소서.
나는 모든 불신과 의심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그 사람 되게 하소서.
어떤 환경도 제 감사를 빼앗지 못하게 하시고, 모든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옵소서.
나는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자가 될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어떤 상황도 극복하는 감사의 사람으로 변화될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 오늘 하루를 감사로 시작하고 마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그날의 모든 색깔을 바꾼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불평으로 시작하면 모든 것이 불편해지고, 감사로 시작하면 모든 것이 아름다워 보입니다.
오늘 하루의 첫 시간,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눈을 떠서 햇빛을 볼 수 있음에, 일어날 수 있음에, 말할 수 있음에, 무릎 꿇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나는 모든 부정과 태만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하루를 감사로 채우게 하소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만남 가운데 감사의 향기가 퍼지게 하소서.
불편한 상황을 만났을 때에도 감사할 이유를 먼저 찾게 하시고, 불완전한 날임에도 불구하고 완전하신 하나님께 기댈 수 있음을 감사하게 하소서.
나는 모든 원망과 투덜거림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밤이 되었을 때, 하루를 돌아보며 수고한 자신에게 위로를 건네고, 함께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고백자가 되게 하소서.
오늘도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마무리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는 자가 될 것을 선포하노

래! 나는 감사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자로 변화될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0
축복기도

축복을 선포하면 그대로 이뤄지게 해달라는 기도

1. 제 입술의 축복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의 입술에 생명의 권세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에는 능력이 있고, 그 능력은 파괴할 수도, 살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주님, 저는 오늘도 기도하며 축복을 선포합니다.
"나와 내 가정은 여호와를 섬기리라."
"우리의 자녀는 여호와께서 세우신 영광의 기업이다."
"오늘도 나의 삶 위에 하나님의 평안이 머무를 것이다."
나는 모든 저주와 부정의 말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축복의 말이 단지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 보좌 앞에 상달되고, 현실 속에 실제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저는 헛된 긍정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한 믿음의 선포를 드립니다.
말씀 위에 선 기도,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는 축복이 하늘의 문을 열고 이 땅에 실현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모든 회의와 불신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저의 입술을 거룩하게 하시고 불평과 저주, 원망의 말은 닫게 하시며 오직 축복과 격려, 생명의 언어로 가득 채워주소서.
그리고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선포되어 실제로 삶에서 꽃피고 열매 맺게 하소서.
나는 제 입술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자가 될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생명의 언어로 축복하는 자로 변화될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 축복의 통로로 살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제게 축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축복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그 축복을 이 땅에 전달하는 도구로 저를 사용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격합니다.
주님, 제가 가는 곳마다 축복이 머물게 하소서.
제가 말하는 모든 자리마다 하늘의 평강이 임하게 하

소서.
나는 모든 이기심과 말의 무책임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 안에서, 제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복을 선포하고, 희망을 전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사람으로 살게 하소서.
축복은 기도이자 선포입니다.
저는 오늘도 믿음으로 말합니다.
"주께서 나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실 것이다."
"주님께서 내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셨으니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나의 자녀는 하나님께 속한 기업이며, 주의 손에 쓰임 받을 것이다."
나는 모든 의심의 중얼거림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이 선포가 하늘에 닿아 하나님의 말씀과 합하여 실현되게 하소서.
그리고 그 증거를 삶 가운데 보게 하소서.
제가 다른 사람들을 축복할 때 그 축복이 열매 맺고 다시 제 삶에도 흐르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법칙 안에서 더 풍성해지는 삶을 경험하게 하소서.

나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는 자로 변화될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 축복의 권세를 회복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는 너무도 자주 말의 힘을 잊고 살아왔습니다.
축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판하고, 실망을 말하며 오히려 저주처럼 살아가는 날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은 권세를 다시 회복하길 원합니다.
나는 모든 비판과 부정의 말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창세기에서 아버지 야곱이 아들들에게 축복을 선언했을 때 그 선언은 그들의 인생 전체를 방향 짓는 힘이 되었음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고 하셨을 때 그 평안은 실제가 되었습니다.
주님, 그런 믿음의 선언, 하늘의 질서를 따르는 축복의 권세를 저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모든 나약함과 불능함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단순한 격려가 아닌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영적 선포가 제 입술에서 나오게 하시고, 그 말이 하늘에 닿아 능력 있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저의 자녀를 위해 축복하고, 교회를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믿음으로 축복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군대가 움직이고, 천사들이 명령을 따라 일하게 하소서.
제 안에 묻혀 있던 말의 권세를 다시 성령 안에서 깨우게 하소서.
나는 축복의 권세를 회복하는 자가 될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하늘의 질서를 따르는 영적 선포자로 변화될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 믿음으로 선포한 축복이 현실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선포한 축복의 말들이 헛된 메아리로 끝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현

실이 되게 하소서.
주님, 저는 오늘도 말씀 위에 믿음을 세우며 선포합니다.
"나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며, 그 손은 나를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나의 자녀는 여호와께 배운 자가 될 것이며, 크게 평강을 누릴 것이다."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채우시되, 영광 가운데 풍성히 공급하실 것이다."
나는 모든 의심과 부정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고백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저의 눈에 보이기 전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미 심겨지는 씨앗이 되게 하소서.
그리고 그 씨앗이 자라 열매 맺는 과정을 감사함으로 인내하며 바라보게 하소서.
나는 모든 조급함과 초조함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말은 흔들리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저는 그 약속 위에 축복을 선포하며 오늘도 담대히 걸어가겠습니다.

제 선포가 하나님의 뜻과 합하여 이 땅 가운데 현실화되게 하시고, 그 성취의 증거들을 삶 속에서 보게 하옵소서.
나는 믿음으로 선포한 축복이 현실이 되는 자가 될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는 자로 변화될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 축복을 심고 거두는 삶을 살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축복은 나누고 심을수록 더 크게 열매 맺는 하나님의 법칙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제가 누군가를 축복할 때 그 말이 하늘 창고를 열고, 그 사람의 삶에 실제로 일어나게 하소서.
주님, 제가 있는 자리에서 축복을 아끼지 않고 심게 하소서.
나는 모든 인색함과 두려움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지친 이에게 "당신은 회복될 것입니다"라고 말하게 하시고, 낙심한 이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을 붙

들고 계십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소서.
그리고 그 말이 그 사람의 심령 안에 뿌리내려 소망이 되고 빛이 되게 하소서.
나는 모든 침묵과 외면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축복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열매를 맺는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도 축복을 심습니다.
저의 가정에, 자녀에게, 교회에, 이 민족 위에 주님의 회복과 평안과 기름부음을 선포합니다.
그 선포가 하늘에서 이루어질 뿐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실현되게 하소서.
나는 축복을 심고 풍성한 결과를 거두는 자가 될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축복의 법칙 안에서 번영하는 자로 변화될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1

지혜기도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

1. 하늘의 지혜를 제게 부어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는 살아가면서 얼마나 자주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지 모릅니다.
눈앞의 상황만 보고 판단하고, 감정에 휘둘려 말하고 행동하며, 때로는 말 한마디, 결정 하나로 관계를 망치고 후회할 일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제 생각과 제 방법이 옳다고 고집하다가 더 큰 문제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나는 내 안에 있는 모든 교만과 어리석음을 파쇄하노라! 나는 세상의 거짓된 지혜와 헛된 지식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저는 지혜를 원합니다.
단순히 똑똑하고 계산적인 판단이 아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정결하고 온유하며 긍휼과 열매가 가득한 참된 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솔로몬이 어린아이와 같다고 고백하며 백성을 올바르게 재판할 지혜를 구했을 때 기뻐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합니다.
그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저도 주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제게 맡겨진 가정, 일터, 사역, 모든 삶의 자리에 바른 분별력과 판단력을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지식은 많아지고 정보는 넘쳐나지만, 진짜 지혜는 점점 사라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저는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혼란과 미혹의 영을 파쇄하노라! 나는 저를 흔드는 모든 거짓과 혼돈을 파쇄하노라!
하늘의 지혜가 내 삶의 모든 영역을 채울 것을 선포하노라! 내가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지혜롭게 살아갈 것을 선포하노라! 주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내 삶을 다스릴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 말에 지혜가 담기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의 말이 누군가를 살릴 수도 있고, 반대로 깊은 상처를 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수많은 경험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한 번 내뱉은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고, 그 말로

인한 상처는 오래도록 남는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저는 오늘도 말의 지혜를 구합니다.
나는 무분별한 말, 경솔한 말, 상처 주는 말의 영을 파쇄하노라!
분노할 때 침묵할 수 있는 지혜, 조언할 때 말의 무게를 생각하는 지혜, 위로할 때 진심이 전달되도록 하는 지혜, 침묵해야 할 때 침묵하는 지혜를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이 많다고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때를 따라 적절하게 상대의 입장을 고려하며 말하는 사람이 진정한 지혜자임을 배웁니다.
저의 입술을 다스려 주소서.
나는 비방과 험담, 거짓의 영을 파쇄하노라! 나는 판단하고 정죄하는 말의 영을 파쇄하노라!
오늘 제가 누구와 대화하든지 그 대화 속에 주님의 마음이 흐르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하는 말이 하늘의 지혜로부터 나온 것처럼 사람들의 마음에 위로와 분별과 기쁨을 주게 하소서.
말에는 생명과 죽음의 권세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의 무게를 잊지 않고, 늘 신중하게 입을 열게 하소서.

내 입술에서 생명의 말이 흘러나올 것을 선포하노라!
내가 지혜로운 입술로 오늘을 살아갈 것을 선포하노라! 내 말이 사람들에게 은혜가 될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 결정의 순간마다 지혜롭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삶은 늘 선택과 결정의 연속입니다.
크고 작은 수많은 갈림길 앞에서 저는 자주 망설이고, 때로는 충동적으로 결정하며 실수하고 후회합니다.
어떤 때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결정하고, 어떤 때는 제 욕심을 따라 선택하기도 했습니다.
두려움과 조급함, 혼란의 영은 파쇄될지어다!
저는 이제 결정의 순간마다 주님의 지혜를 의지하고자 합니다.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잠잠히 기다릴 줄 알게 하시며, 성령님의 음성을 분별하여 따르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의 말보다 주의 말씀에 먼저 귀를 기울이게 하

시고, 급한 마음보다 평안한 마음으로 올바른 길을 선택하게 하소서.
제가 어떤 결정을 하든 그 결정이 저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합하여 있기를 원합니다.
그 길이 넓든 좁든, 편하든 어렵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기꺼이 따르겠습니다.
인간적인 계산과 두려움은 파쇄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지혜는 계산하고 이익을 따지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지혜는 겸손과 순종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소서.
오늘도 중요한 선택 앞에서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결정의 순간마다 먼저 기도할 것을 선포하노라!
내 모든 결정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합하여질 것을 선포하노라!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바른 길을 선택할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 갈등과 문제를 지혜롭게 풀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람과 함께 살아가다 보면 갈등과 오해, 충돌은 피할 수 없음을 압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진짜 믿음의 척도이고 지혜의 시험대임을 알게 하소서.
제 방식대로, 제 감정대로 반응하면 문제는 더 커지고 관계는 깊이 상하게 됩니다.
분쟁과 미움, 오해를 일으키는 모든 어둠의 세력은 파쇄될지어다!
문제를 피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정직하게 마주하면서도 지혜롭고 온유하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마음을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상대방을 이기려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화목의 마음을 갖게 하소서.
누군가와의 갈등을 사랑으로 감싸 안고 중재하며 평화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소서.
지혜로운 자는 불을 키우지 않고 끄며, 분노를 부추기지 않고 진정시키는 자임을 기억하게 하소서.
복수하려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은 파쇄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통해 공동체에 화평이 흐르게 하시고, 저를 통해 갈등이 풀어지고 오해가 회복되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소서.
나를 통해 화평이 흐를 것을 선포하노라! 나를 통해 갈등이 해결될 것을 선포하노라! 나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드러날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는 오늘도 결단합니다.
지혜는 지식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며,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는 자만이 참된 지혜를 소유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저를 지혜롭게 빚어주소서.
그 지혜는 나이와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함에서 나오는 것임을 믿습니다.
어리석음과 교만, 자기 의로움은 파쇄될지어다! 세상을 따라 사는 어리석은 삶의 방식은 파쇄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말씀 안에 거하고, 기도 안에 거하며, 주님과 동행함으로 지혜로 가득한 인생을 살아가게 하소서.
지혜로운 자는 말이 다르고, 눈빛이 다르고, 선택이 다르고, 결과가 다릅니다.
제가 그런 사람 되게 하소서.
제가 높아지려 하지 않고, 다른 이들을 세워주며, 진리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자가 진짜 지혜자임을 잊지 않게 하소서.
세상의 인정과 칭찬을 구하는 마음은 파쇄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서 영원히 남을 것은 지혜로 행한 사랑과 순종임을 기억하게 하소서.
오늘도 주의 지혜로 하루를 채우며 살아있는 예배로 주께 나아갑니다.
내가 날마다 말씀과 기도 안에 거할 것을 선포하노라! 내가 지혜로 가득한 인생을 살아갈 것을 선포하노라! 주의 지혜로 내 하루가 채워질 것을 선포하노라!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2
격려기도

낙담과 절망에 빠진 형제를 격려하는 기도

1. 무너진 마음을 일으켜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제 앞에 있는 이 형제는 너무 지쳐 있습니다.
무거운 짐이 그의 어깨를 짓누르고, 길이 보이지 않
는 어둠 속에서 주저앉아 있습니다.
하나님, 그의 낙담한 심령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저는 오늘 이 기도 가운데 이 형제를 대신하여
울고 싶습니다.
나는 모든 절망과 무력함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말로는 다 위로할 수 없는 그 마음을, 눈물로도 다 말
할 수 없는 그 고통을 주님은 다 아시기에, 지금 주님
의 팔로 안아 주시길 간절히 구합니다.
그가 지금 느끼는 무력감과 외로움 속에 주님의 위로
가 찾아가게 하소서.
"내가 너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겠다" 하신 그 말씀
처럼 이 순간에도 주님이 함께하신다는 사실이 그의
가슴에 새겨지게 하소서.
나는 모든 외로움과 단절감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가 회복될 수 있도록 작은 숨결 하나에도 생

명을 불어넣어 주소서.
쓰러진 자를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손이 지금 이 기도를 통해 그에게 닿게 하소서.
다시 걷게 하소서. 다시 웃게 하소서. 다시 소망을 품게 하소서.
나는 무너진 마음을 일으키는 중보자가 될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이 형제의 회복을 위한 도구로 쓰임받을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 낙심한 영혼에 소망을 말씀으로 심어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형제의 마음은 너무 오래 무너져 있었습니다.
실패와 후회, 사람들의 말, 그리고 자기 자신을 향한 실망이 그의 마음을 무겁게 붙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말씀에는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은 절망의 무덤에서도 살아 움직인다는 것을 믿습니다.
나는 모든 절망과 죽음의 영향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형제를 위한 기도 가운데 주의 말씀이 역사

하게 하소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낙심하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이 말씀들이 살아서 그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심기게 하소서.

그 말씀이 곧 능력입니다.

사람의 말은 흩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무너지지 않는 반석임을 믿습니다.

나는 모든 부정의 말과 인간의 판단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기도를 통해 그의 눈이 다시 하늘을 향하게 하시고, 그가 주님의 음성을 다시 듣게 하소서.

그리고 그 속에서 소망이라는 이름의 싹이 자라나게 하소서.

나는 말씀의 능력으로 소망을 심는 자가 될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절망에서 소망으로 인도하는 중보자로 변화될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 이 형제의 눈물을 위로로 닦아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형제는 아무도 모르게 울고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웃는 척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주저앉아 눈물 흘리는 그 모습이 주님의 눈에는 얼마나 귀한지요.
그의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을 주님의 손바닥에 담아 주시고, 그 눈물이 아깝지 않도록 회복의 기름으로 부어주소서.
나는 모든 숨겨진 고통과 외로움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형제는 지치고 연약합니다.
하지만 그는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주님이 지으셨고, 주님이 부르셨으며, 주님이 지금도 붙들고 계시는 존재입니다.
이제는 다시 울기보다 웃기를, 다시 주저앉기보다 일어서기를 주님, 그가 다시 한 번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오늘 이 기도에 응답하여 주소서.
나는 모든 비통함과 체념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그의 눈물 뒤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결코 실패나 좌절로 끝나지 않음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이심을 깊이 깨닫게 하소서.
나는 눈물을 위로로 바꾸는 자가 될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고통 속에서 소망을 발견하게 하는 자로 변화될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 절망이 기회로 바뀌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형제의 삶에 찾아온 고난은 너무나 벅차고 뜻밖이었으며, 그 마음을 한순간에 무너뜨려 놓았습니다.
하지만 주님, 당신은 절망 속에서도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막힌 길을 열고, 깨어진 것을 고치시며, 끝이라 여긴 자리에서 새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나는 모든 절망과 막힘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형제가 "더는 안 되겠다" 말하는 이 자리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시작을 보게 하소서.
이 고난이 그를 망치지 않고, 그를 빚는 도구가 되게

하소서.
절망은 끝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절망은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빛나는 자리임을 이 형제가 체험하게 하소서.
나는 모든 종말론적 생각과 비관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기도가 도달하길 원합니다.
그의 마음 깊은 곳까지 닿아 생기를 불어넣고, 불씨를 살리며, 그의 눈빛에 다시 빛을 주게 하소서.
나는 절망을 기회로 바꾸는 중보자가 될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을 보게 하는 자로 변화될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 이 형제가 다시 걷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형제는 지금 멈춰 서 있습니다.
무너진 일 앞에서, 끊어진 관계 앞에서, 상처투성이가 된 마음으로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는 다시 걷게 하소서.

두 다리에 힘을 주시고, 무너진 심령에 믿음을 부어 주시며, 그의 마음에 다시금 "할 수 있다"는 하늘의 확신을 심어주소서.
나는 모든 마비와 고착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도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셨고, 십자가 뒤에는 부활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형제의 상황 속에도 하나님의 부활이 시작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의 과거가 어떠하든 그를 다시 세우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나는 모든 죄책감과 자포자기를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 주님, 다시 걷게 하소서.
지나간 실패를 딛고, 새로운 은혜의 땅으로 발걸음을 내딛게 하소서.
오늘 이 기도가 그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격려의 음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나는 다시 걷게 하는 중보자가 될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이 형제가 회복의 발걸음을 내딛도록 도움을 주는 자로 변화될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3

나눔기도

나의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게 해 달라는 기도

1. 나의 소유가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보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는 때때로 제 것이 너무 소중해서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이 두렵고 어렵습니다.
주님께 받은 축복임을 알면서도 내가 쌓은 수고와 땀이라 여겨 쉽게 움켜쥐고 내려놓지 못하는 모습을 고백합니다.
나는 모든 소유욕과 집착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하지만 주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고, 제가 가진 모든 것은 잠시 위임받은 것임을 다시 깨닫게 하소서.
제 계좌에 있는 돈도, 손에 들린 시간도, 삶의 자리도, 모두 주님이 허락하신 은혜의 선물임을 인정합니다.
나는 모든 자기중심적 생각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제 눈을 열어 제 삶을 '받은 자'의 관점이 아닌 '흘려보내는 자'의 시선으로 보게 하소서.
제가 가진 것이 적다고 느껴질 때도 그 적음 안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감사함으로 나눌 수 있는 담대한 마음을 주소서.
나눌 때 잃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풍성해지고 하나

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비밀을 체험하게 하소서.
나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자가 될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기꺼이 나누는 자로 변화될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 물질을 나눌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는 물질 앞에서 연약합니다.
필요 이상으로 쌓아두고 싶고, 불안하기에 여유가 있어야만 나누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주님, 진짜 나눔은 넉넉함에서가 아니라 믿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오늘 다시 배웁니다.
나는 모든 불안과 욕심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내게 남은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것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소서.
두렵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기쁘게 드릴 수 있도록 제 안의 생각을 바꾸어 주소서.
사르밧 과부가 마지막 밀가루 한 움큼과 기름 한 방

울을 드렸을 때, 기적은 그 작은 나눔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주님, 저도 그런 믿음을 갖게 하소서.
나는 모든 의심과 두려움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제가 오늘 나누는 이 물질이 누군가에게는 한 줄기 소망이 되고, 지친 삶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제가 드리는 것이 헛되지 않도록 그 나눔이 생명을 살리고, 진리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그리고 저에게는 더 깊은 감사와 자유가 찾아오게 하소서.
나는 담대하게 물질을 나누는 자가 될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신앙으로 나누는 자로 변화될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 시간을 나누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바쁘고, 저도 바쁘다는 이유로 사람들과 마음

을 나누지 못한 채 흘려보낸 시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시간은 사랑의 또 다른 표현임을 깨닫게 하소서.
누군가를 위해 시간을 낸다는 것은 그 사람을 귀히 여긴다는 것이며, 사랑을 실제로 살아내는 길임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는 모든 바쁨과 무관심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 바쁨에 쫓겨 정작 중요한 관계와 영혼들을 뒤로 밀어놓지 않게 하소서.
하루 중 단 10분이라도,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마음을 주소서.
시간을 들여 함께 울고, 시간을 들여 함께 웃고, 시간을 들여 함께 기도하게 하소서.
나는 모든 자기중심성과 게으름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제가 나누는 시간은 단지 일정 조정이 아니라 하늘의 씨앗을 심는 거룩한 순간임을 믿습니다.
시간을 나눌수록 하나님의 사랑은 더 분명해지고, 내 삶의 목적도 더 선명해질 것입니다.
나는 시간을 나누는 자가 될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자로 변화될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 마음을 나누는 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는 마음을 나누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벽을 치고, 혼자 괜찮은 척하지만 실은 누구에게도 속마음을 열지 못하는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저를 주님은 다 아십니다.
나는 모든 겉치레와 방어벽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주님, 오늘은 제 마음을 나누는 기도를 드립니다.
진심을 담아 누군가의 아픔을 공감하고, 누군가의 고민을 함께 짊어지고, 누군가의 기쁨을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제 안에 부어주소서.
사람들은 마음을 숨기지만 하나님은 마음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모든 폐쇄성과 경직됨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저도 닫힌 마음이 아니라 열린 마음, 나누는 마음, 사랑이 흐르는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나눔이 삶을 치유하고, 공동체를 세우며, 하나님의 위로가 흐르게 하는 길임을 믿습니다.
오늘 제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하소서.
나는 마음을 나누는 자가 될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따뜻한 공감과 진정한 소통의 자로 변화될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 나눔이 습관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만 나누고 끝나는 나눔이 아니라 삶의 습관으로, 신앙의 방식으로 나눔이 제 안에 자리 잡기를 원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저의 삶의 방향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실제가 되게 하소서.
나는 모든 이기주의와 인색함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나눔이 제 정체성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며 살게 하시고, 나눔이 당연한 듯 자연스럽게 제 언어와 삶에서 나타나게 하소서.
나눔은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심는 자에게 더 거두게 하시며, 드리는 자에게 더 부어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나는 모든 의심과 불신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나눔을 반복하게 하시고 그 반복이 쌓여 사람들을 살리고, 세상을 밝히며 하나님의 향기를 퍼뜨리는 삶이 되게 하소서.
제 인생의 전체가 나눔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그 나눔이 다음 세대에도 이어지게 하옵소서.
나는 나눔이 삶의 습관이 되는 자가 될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나눔의 축복을 누리는 자로 변화될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4

베품기도

나의 것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

1. 받은 은혜를 아낌없이 베풀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는 지금까지 셀 수 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생명, 가족, 믿음, 기회, 용서, 사랑… 그 모든 것들은
제가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런데도 저는 받은 것을 당연히 여기고, 자꾸만 움
켜쥐며 더 가지려는 마음으로 살 때가 많았습니다.
나는 모든 탐욕과 인색함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제 마음을 깨뜨려 주소서.
은혜는 흘러야 의미가 있고, 받은 것은 나눌 때 진짜
복이 된다는 것을 삶으로 배우게 하소서.
주님께서 값없이 제게 주신 것처럼 저도 아낌없이 나
눌 수 있도록 믿음과 용기를 주소서.
나는 모든 미련한 집착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감사하지 않아도, 오직
하나님께 보이듯 베푸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작은 물질이라도, 짧은 시간이더라도, 말 한마디라도
진심으로 베풀게 하시고, 그 베풂 속에서 하늘의 기

쁨을 경험하게 하소서.
나는 받은 은혜를 아낌없이 베푸는 자가 될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기꺼이 베푸는 자로 변화될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 손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넉넉한 마음을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는 베푸는 일 앞에서 언제나 손익을 계산합니다.
돌아올 것인가, 아깝지는 않은가, 내가 이만큼 줘도 괜찮을까 수없이 머릿속으로 재면서 베품을 미루고, 제한합니다.
하지만 주님,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다 주고도 아까워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모든 계산과 조건부적 사랑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 앞에 저는 오늘 다시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주님, 손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넉넉한 마음을 주소서.

베푸는 것은 잃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는 것임을 믿게 하소서.
사람에게 준 듯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께 드린 것임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는 모든 두려움과 의심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인정을 구하지 않고, 하늘의 기쁨을 좇는 복된 베풂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베풀며 살아가는 동안 제 안의 탐욕은 사라지고, 예수님의 마음은 자라나게 하소서.
나는 손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넉넉한 자가 될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하늘에 쌓는 자로 변화될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베풀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는 좋은 말과 따뜻한 위로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정작 행동으로는 베푸는 삶을 망설이고 말뿐인 위로로 만족할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오늘은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나는 모든 위선과 게으름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말로만 베풀지 않게 하시고 삶 전체로 베푸는 자가 되게 하소서.
때로는 손으로, 때로는 발걸음으로, 때로는 돈으로, 때로는 시간으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소서.
베풀기 위해 삶을 단순하게 하게 하시고, 베풀기 위해 욕심을 줄이며 살게 하시고, 베풀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게 하소서.
나는 모든 말의 위선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누군가가 필요로 할 때 제가 응답이 되게 하시고, 누군가가 외로울 때 제가 친구가 되게 하시고, 누군가가 배고플 때 제가 떡이 되게 하소서.
베품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며 사랑의 진짜 모습임을 제 삶을 통해 드러내게 하소서.
나는 말로만이 아닌 행동으로 베푸는 자가 될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삶 전체로 사랑을 실천하는 자로 변화될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 작은 것이라도 기쁨으로 베풀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는 때로 '크게' 베풀지 못하면 '아예' 베풀지 않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하지만 주님, 베풀음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의 진심과 사랑이 중요함을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모든 완벽주의와 우월감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과부의 두 렙돈을 가장 귀한 헌금으로 칭찬하셨고, 작은 아기 도시락 하나로 오천 명을 먹이셨습니다.
주님, 저도 그렇게 작은 것을 드려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작은 물질, 작은 도움, 작은 말 한마디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게 하시고, 기쁨으로 베풀게 하소서.
나는 모든 소심함과 자격지심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억지로가 아니라 즐거이, 감사하며, 마치 특권을 누

리듯 베푸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진 것 중 남는 것이 아니라 귀하게 여기는 것이라도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나는 작은 것을 귀하게 여기는 자가 될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기쁨으로 베푸는 자로 변화될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 베풀수록 더 풍성해지는 복을 누리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자꾸 더 쌓으라 말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베풀 때 풍성해짐을 가르쳐주십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 주리라" 이 말씀은 약속이며 실제인 줄 믿습니다.
나는 모든 인색한 영혼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는 베풂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줄 때 비로소 보이는 감사, 나눌 때 비로소 느껴지는

기쁨, 내려놓을 때 비로소 알게 되는 자유 그 모든 것을 누리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베풀수록 더 넉넉해지고, 나눌수록 더 깊어지는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게 하소서.
나는 모든 불안과 의심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저의 삶이 단지 채우는 인생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제 손이 열릴 때 하늘 창고도 함께 열리는 것을 보게 하소서.
그리고 그 베풀음의 여정에서 예수님을 더 많이 닮아가게 하소서.
나는 베풀수록 더 풍성해지는 복을 누리는 자가 될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흘려보내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자로 변화될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5
헌신기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헌신하게
해 달라는 기도

1. 나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삶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는 다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저의 삶 전체를 주님께 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아옵니다.
단지 마음의 고백으로 끝나는 헌신이 아니라, 삶 전체가 예배가 되고, 숨결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모든 자기중심성과 나만의 삶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는 너무 자주 나 자신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결정할 때도, 계획할 때도, 먼저 나의 안위, 유익, 명예를 앞세우며 하나님의 뜻은 뒤로 미룬 적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도 헌신했다고 말했던 제 모습을 오늘 부끄러이 주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모든 위선과 불충성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것들을 내려놓고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달려갈 수 있다면 기꺼이 제 인생의 방향

을 전환하겠습니다.
제 몸을 산 제사로 드리오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물로 날마다 주님 앞에 올려지게 하소서.
오늘부터의 시간, 재능, 관계,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향한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나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자가 될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평생 주님께만 헌신하는 자로 변화될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헌신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헌신은 순종 없이는 이룰 수 없는 줄 압니다.
제가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저 나의 열심일 뿐임을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그 뜻을 깨달았을 때 머뭇거리지 않고 즉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소서.
나는 모든 불순종과 자기주장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순종은 때로 내 계획을 내려놓는 것이고, 나의 안전 지대를 벗어나는 것이며, 나의 뜻과 반대되는 길을 택하는 용기임을 압니다.
그러나 그 길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저는 그 길을 따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드리는 순종,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부르심을 받은 순종,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서 보여주신 순종처럼 제 삶도 온전히 주님의 인도에 맡기기를 원합니다.
나는 모든 거부와 저항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나의 자아를 못 박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순종의 헌신, 그 길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주의 통치가 드러나게 하소서.
나는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는 자가 될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주님의 인도에 기꺼이 따르는 자로 변화될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제 시간을 드리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 마음의 시간을 열어 하나님의 시간과 맞추고자 합니다.
제가 가진 하루 24시간이 진정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소서.
세상에 쏟아붓는 시간은 많지만, 정작 하나님 나라를 위한 시간은 언제나 부족하다고 말하며 미루어버린 제 게으름을 용서하소서.
나는 모든 시간 낭비와 우선순위 오류를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의 시간을 주님께 드립니다.
기도의 시간, 말씀의 시간, 섬김과 사명의 시간을 먼저 두게 하시고, 남은 시간으로 나를 채우는 삶이 아니라 먼저 주님께 드리는 삶을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헌신하는 삶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신 부르심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마땅히 걸어야 할 제자의 길임을 믿습니다.
나는 모든 핑계와 미루는 습관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 길을 제가 걷게 하소서.

비록 작은 시간이더라도 그 시간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 귀한 열매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저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흐르도록 기꺼이 헌신하게 하소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시간을 드리는 자가 될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시간을 우선순위에 맞춰 헌신하는 자로 변화될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제 재능을 드리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사는 단지 저를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도구임을 믿습니다.
주님, 제가 가진 재능이 사람의 칭찬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지친 영혼을 살리고, 주의 교회를 세우는 도구가 되게 하소서.
나는 모든 자기영광과 칭찬욕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말하는 재능, 글 쓰는 재능, 노래하는 재능, 계획하는

재능… 작고 커 보이는 것들을 막론하고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맡겨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넓히는 데 사용되게 하소서.
내가 잘하는 것이라 여기던 것도 주님 앞에 드릴 때 비로소 의미를 가집니다.
나는 모든 자기기만과 세상의 인정욕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없이 사용하는 재능은 오히려 나를 높이는 교만이 될 수 있음을 경계하게 하소서.
오늘도 나의 재능 위에 주의 능력을 더하시고, 주의 뜻에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 위해 저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재능을 드리는 자가 될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자로 변화될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 주님의 부르심 앞에 평생 헌신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복음을 듣게 하셨고, 말씀을 알게 하셨으며,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 부르심은 단지 구원의 기쁨을 누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도구로 쓰시기 위한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나는 모든 소명 외면과 도피의 유혹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제가 평생 헌신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오랜 인내와 충성을 담아 주님 앞에 신실히 나아가게 하소서.
주님의 부르심은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그 부르심은 나의 모든 것을 요구하십니다.
나는 모든 타협과 중도 포기의 생각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도 오늘 그 요구 앞에 두 손을 들고 "예"라고 백합니다.
주님이 원하신다면, 어디든 가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주님이 침묵하셔도,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 결단이 시험 앞에서도, 외로움 속에서도, 현실의

유혹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도록 성령님, 도와주소서.
주님을 위해, 주의 나라를 위해 오늘도 저를 헌신의
제단 위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주님의 부르심에 평생 응답하는 자가 될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끝까지 헌신하는 신실한 자로 변화
될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6
친절기도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게 해 달라는 기도

1. 친절이 저의 본성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제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갈수록 차가워지고,
무례함이 일상이 되어갑니다.
사람들은 바쁘다는 이유로 무뚝뚝하게 대하고, 상처
받은 이들은 또 다른 상처를 만들며 살아갑니다.
그 속에서 저도 무뎌지고, 더 이상 친절을 잃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지 않게 된 자신을 돌아봅니다.
나는 모든 냉감과 무뎌짐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친절은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통로임을 다시 깨닫게 하
소서.
내 성격이 원래 그렇다는 말 뒤에 숨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인격을 담기 위해 의식적으로 친절을 선택
하는 믿음을 주소서.
나는 모든 자기기만과 변명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람에게, 심지어 내게 불친절한 사람에게도 말
한마디, 눈빛 하나, 손길 하나가 하나님의 따뜻함을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하소서.

친절이 저의 본성이 되게 하시고, 억지스러운 노력이 아닌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사랑의 실천이 되게 하소서.
나는 친절이 저의 본성이 되는 자가 될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성령의 열매로 친절을 드러내는 자로 변화될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 말 한마디에 친절이 담기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는 오늘도 수많은 말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제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이 과연 얼마나 다른 사람을 세우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솔직히 돌아봅니다.
주님, 제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 말로 위로할 수도 있고, 그 말로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나는 모든 거친 말과 상처주는 말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말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 말에 얼마나 친절이 담겼는가가 중요함을 이제는 알게 하소서.

부드러운 말 한마디가 마음을 녹이고, 용기를 주고, 지친 사람에게 새 힘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매일의 삶에서 경험하게 하소서.
가족에게, 친구에게, 교우에게, 심지어 낯선 사람에게도 제 말 속에 따뜻함이 깃들게 하시고, 그 말을 통해 예수님의 향기가 전달되게 하소서.
나는 모든 무분별한 말과 자기중심적인 표현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불쑥 나오는 짜증과 비난의 말을 삼키게 하시고, 기도한 말, 다듬어진 말, 사랑이 담긴 말을 선택하게 하소서.
오늘도 말의 온도를 성령께 맡깁니다.
나는 친절한 말을 선택하는 자가 될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따뜻함이 담긴 말의 사람으로 변화될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 불편한 사람에게도 친절하게 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다 보면 제게 상처 준 사람, 자꾸만 오해하게 되는 사람,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과도 마주해야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은 굳어지고 그들을 향해 친절하게 대하고 싶지 않다는 거짓된 의로움이 피어오릅니다.
나는 모든 자기정당화와 선별적 친절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하지만 주님, 진짜 친절은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에게가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도 기꺼이 베푸는 사랑임을 배웁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발도 씻기셨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들을 위해 용서를 구하셨습니다.
그 친절이 저의 기준이 되게 하소서.
나는 모든 원망과 거부의 마음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제가 누군가에게 거리를 두고 싶어질 때 오히려 다가가서 손을 내밀게 하시고, 무시당할 때에도 고개를 들어 웃으며 축복할 수 있는 성령의 힘을 주소서.
친절은 내가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는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자가 될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어려운 관계 속에서도 사랑을 베푸는 자로 변화될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 친절이 관계를 회복하는 열쇠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깨진 관계들 사이에 불편한 공기가 흐르고, 말 한마디 없이 멀어지는 사람들과의 감정의 골짜기를 지날 때 제 마음도 조용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주님, 저는 오늘 그 모든 관계 속에 친절이라는 하늘의 열쇠를 들고 가고 싶습니다.
나는 모든 단절과 포기하려는 마음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먼저 안부를 묻는 용기, 부드럽게 말 거는 한마디, 따뜻하게 배려하는 몸짓 하나가 얼어붙은 사이를 녹이고, 다시 소통의 문을 열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관계는 포기하지 않고 지켜내야 할 선물입니다.
서로 다르고, 때로 상처를 주더라도 십자가의 사랑이 친절을 통해 다시 흐르게 하소서.

나는 모든 원망과 절망적 생각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저를 통해 누군가가 "살만하다" 느끼고, 다시 한번 사람을 신뢰하게 되며, 무너졌던 관계가 회복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나는 친절로 관계를 회복하는 자가 될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깨진 관계의 중보자로 쓰임받을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 일상의 작은 자리에서 친절을 실천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친절은 거창한 행동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자리에 숨겨진 거룩한 실천임을 믿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먼저 인사하는 것, 무거운 문을 대신 열어주는 것, 웃으며 인사를 건네는 그 순간조차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나는 모든 거창함의 핑계와 작은 것을 무시함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제가 친절을 거창한 사역으로 생각하지 않고 삶 전체에서 드러나는 인격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 안에서, 가장 가까운 이들에게 가장 따뜻한 마음으로 대하게 하시고, 친절함이 저의 표정과 몸짓에 배어 누구든지 저를 만났을 때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소서.
나는 모든 피로함과 무성의를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특히 바쁠 때, 피곤할 때, 여유 없을 때 더욱 친절을 선택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그것이 진정한 제자의 모습임을 믿고 묵묵히 실천하겠습니다.
나는 일상 속에서 친절을 실천하는 자가 될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모든 순간을 친절로 채우는 자로 변화될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7
자유기도

억압과 압제 속에서 자유함을 갖게 해 달라는 기도

1. 영혼의 억압에서 자유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는 지금 무거운 영적 억압 아래에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인가에 눌려 있는 듯하고, 생각과 마음이 자꾸만 갇혀서 자유롭게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마음을 풀어주소서.
알 수 없는 두려움, 설명할 수 없는 불안, 마음 깊은 곳에 뿌리박힌 수치심과 죄책감이 저를 끊임없이 눌러옵니다.
그 억압의 실체는 보이지 않지만, 그 무게는 너무나 무겁습니다.
나는 모든 영적 억압과 속박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 당신은 자유의 주이시고, 우리를 억눌림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십자가의 대가를 치르신 분이십니다.
이제는 그 자유를 실제로 누리게 하소서.
단지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까지 스며드는 해방의 역사로 경험하게 하소서.
성령님, 오셔서 저의 내면을 자유롭게 하소서.
기도가 막히고, 예배가 무거울 때 그 모든 장벽이 무

너지게 하소서.
나는 모든 영적 장벽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억눌림은 떠나가고,
주의 빛과 평안이 저를 사로잡게 하소서.
이제는 더 이상 눌리지 않고, 자유로운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저는 영혼의 억압에서 완전히 자유할 것을 선포하노라! 저의 내면은 주님의 평안으로 충만할 것을 선포하노라! 저는 주님의 자유 안에서 담대하게 설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 사람의 시선과 평가에서 자유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는 사람의 시선과 평가 속에 갇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 나를 바라보는 눈빛 하나에 마음이 뒤흔들리고, 자존감이 무너지고, 결국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하며 억눌린 인생을 살아갑니다.

주님, 이제는 그 굴레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게 살고 싶습니다.
나는 사람의 평가와 시선에 대한 모든 두려움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제가 누구의 인정도 받지 못하더라도 주님께서 나를 알고,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면 충분하다는 믿음을 주소서.
사람들의 기준에 맞추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만 맞추는 담대한 영혼이 되게 하소서.
칭찬과 비난에 휘둘리지 않고, 평가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자유로운 영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소서.
나는 사람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을 것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는 비굴함이 아니라 담대함이며, 포기가 아니라 승리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제 마음에 새기게 하소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저는 주님의 평가만을 따를 것을 선포하노라! 저는 사람의 시선에서 완전히 자유할 것을 선포하노라! 저

는 하나님 앞에서만 담대할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 죄의 사슬에서 완전히 자유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의 습관과 반복 속에 자유를 빼앗긴 채 살아갑니다.
이미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그 죄의 기억과 습관이 다시 저를 붙잡고 무너뜨릴 때가 많습니다.
주님, 이제는 그 사슬을 끊고 싶습니다.
더 이상 그 유혹에 지지 않고, 죄책감 속에 자신을 정죄하지 않으며 십자가의 능력으로 진짜 자유를 누리고 싶습니다.
나는 죄의 습관과 반복의 모든 사슬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는 혼자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능력으로는 가능합니다.
죄의 유혹 앞에서 즉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죄의 매력 앞에 말씀의 검으로 맞설 수 있도록 영적인

무장을 허락하소서.
이전의 실패가 다시 반복되지 않게 하시고, 자유 안에 거하는 기쁨이 제 영혼을 사로잡게 하소서.
나는 죄의 유혹에 모두 승리할 것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죄에 지배당하는 자가 아니라 의에 순종하는 자로, 자유를 남용하지 않고 사랑으로 섬기는 자로 서게 하소서.
저는 죄의 사슬에서 완전히 자유할 것을 선포하노라!
저는 의에 순종하는 자가 될 것을 선포하노라! 저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모든 죄를 이길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 억압적인 환경과 관계에서 자유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속한 환경이, 제가 맺고 있는 몇몇 관계가 점점 저를 무너뜨리고 지치게 합니다.
말은 못 하지만 마음이 눌리고, 벗어나고 싶어도 떠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제 숨이 점점 가빠지는 듯합니다.

주님, 그 억압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자유를 경험하게 하소서.
외부의 조건은 바뀌지 않아도 내면의 시선과 태도가 바뀌어 그 속에서도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자유를 주소서.
나는 억압적인 환경과 관계의 모든 무거움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이 사자의 굴 속에서도 자유를 누렸듯, 요셉이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손을 보았듯, 억압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임재가 저를 자유롭게 하소서.
그리고 필요하다면, 그 환경에서 떠날 수 있는 지혜와 길도 열어주소서.
억압적인 관계에서 올무에 걸리지 않도록 주님의 날개로 저를 보호하시고, 저를 멸시하는 자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긍휼과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나는 억압적 환경 속에서의 모든 흔들림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내가 처한 환경이 어떻든 주님의 손 안에서 자유로울 것을 선포하노라!
내가 그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것

을 선포하노라!
내 영혼은 어떤 환경도 눌러 담을 수 없을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 두려움에서 자유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제 안에 뿌리 깊은 두려움이 하나님의 역사보다 더 크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 사람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공포, 거절당할까 봐 움츠리는 마음, 이 모든 것이 저를 속박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마저 흐리게 만듭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은 두려움의 영을 주신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사랑과 능력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기에 오늘 이 두려움의 사슬을 끊고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소서.
나는 모든 두려움과 불안의 영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을 믿음으로 대적하게 하시고, 주님의 약속을 붙들어 위기의 순간에도 평안하게 하소서.
제가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오늘도 평안 가운데 살아가게 하소서.
나는 미래에 대한 모든 두려움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이 자유는 감정이 아니라 믿음의 선택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담대하게 선언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주님의 자유 안에 거하는 자입니다."

저는 두려움에서 완전히 자유할 것을 선포하노라! 저는 믿음으로 모든 상황을 이길 것을 선포하노라! 저는 주님 안에서 담대하게 설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8
안전기도

사건과 사고로부터 안전하게 해 달라는 기도

1. 오늘 하루를 사고 없이 지켜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며 가정과 직장, 학교, 길 위에서 살아갈 모든 순간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예상하지 못한 사고와 위협들이 순식간에 우리를 덮을 수 있음을 압니다.
하지만 주님, 그보다 크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기에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는 모든 두려움과 불안감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차를 몰고 나갈 때도, 지하철을 탈 때도,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때도 보이지 않는 위험 속에 주님의 눈이 함께하시고 주님의 손이 저희를 덮어주소서.
사람이 조심한다고 모든 것을 막을 수 없음을 알기에 저희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보호 아래 숨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이 말씀이 오늘도 제 가정과 공동체 위에 실제가 되게 하시고, 모든 발걸음을 주의 천사들로 감싸주소서.
나는 모든 조심함의 한계를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교통사고, 낙상, 화재, 강도, 실족, 그 어떤 사건과 사고도 주의 이름 앞에 무력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안이 하루 종일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소서.
저는 주님의 보호 아래 모든 위험으로부터 안전할 것을 선포하노라! 저는 오늘 하루를 사고 없이 완성할 것을 선포하노라! 주님의 천사들이 나를 지킬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 가정을 안전하게 보호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가정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 가족이 눈에 보이지 않는 위협 속에서도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안전히 거하게 하소서.
어린 자녀들이 등굣길에서 안전하도록, 배우자가 출근길에서 지켜지도록, 집 안에서 혹은 밖에서 불의의 사고나 질병, 갑작스런 위험으로부터 완전하게 보호해주소서.
나는 가정을 위협하는 모든 악의를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점점 불안정해지고 있습니다.
폭우, 지진, 전염병, 사회 불안, 무엇 하나도 완전히 예측하거나 대비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우리의 피난처이신 주님께 피하오니 가정 전체가 주님의 성벽 안에 거하게 하소서.
주님, 이 집안에 성령의 평강이 흐르게 하시고 사소한 충돌이나 갈등도 크게 번지지 않도록 막아주시며, 삶의 중심이 주님께 닿아 있는 영적 안전지대가 되게 하소서.
나는 가정의 평화를 방해하는 모든 불안감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불안한 세상 속에서도 주님이 지키시는 가정은 무너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 위에 오늘도 평안을 누리게 하소서.
저의 가정은 주님의 성벽 안에 안전할 것을 선포하노라! 저의 가정은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것을 선포하노라! 저의 가정에 평강과 안전이 영원히 깃들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자녀들을 주님께 맡기며 기도합니다.
순수하고 연약한 이 아이들이 험한 세상 속에서 다치지 않도록 주의 손으로 덮어주시고, 주의 천사들로 지켜주소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친구들과 뛰어놀 때, 건널목을 건널 때, 모르는 사람을 마주할 때, 그 어떤 사고와 유혹으로부터도 지혜롭게 보호되게 하소서.
나는 아이들을 해치려는 모든 악한 의도를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아이들의 눈과 귀를 지켜주시고, 위험을 분별할 수 있는 감각을 갖게 하시며, 사람의 손길보다 더 따뜻하고 강한 하나님의 손길이 아이들의 걸음을 인도하게 하소서.
아이들이 혼자 있는 시간에도 두려움 없이 평안함을 누리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이 방패처럼 항상 그들과 함께하도록 믿음의 씨앗을 심게 하소서.
나는 아이들의 마음을 괴롭히는 모든 두려움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자녀들은 주님의 것입니다.
저희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지키심을 믿고 오늘도 전심으로 맡겨드립니다.
저의 자녀들은 주님의 천사들로 보호받을 것을 선포하노라! 저의 자녀들은 모든 위험과 유혹으로부터 안전할 것을 선포하노라! 저의 자녀들은 주님의 평안 속에 성장할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 직장과 일터에서 안전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일하며 수고하고 있습니다.
그 노동의 현장 속에 예기치 못한 사고와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에 주님께 간구합니다.
작업장과 공장, 사무실과 거리, 운전대 앞에서, 기계 앞에서, 건설 현장, 병원, 교육 현장, 식당, 연구실, 어디에 있든지 그 일터가 주님의 보호 아래 있게 하소서.

나는 직장의 모든 위험과 재해를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무심코 넘어져 다치는 사고, 기계 오작동, 누전, 가스 누출, 낙상, 폭력, 실화, 이 모든 것들이 주의 이름 앞에 무력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예민함으로 예방되게 하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정신적, 감정적 폭력과 과도한 스트레스로부터 직장인들의 마음도 보호해주소서.
성실하게 살아가려는 모든 이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그들이 안전하게 퇴근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나는 직장의 모든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일터도 하나님의 성소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 지키시면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제 일터는 주님의 보호 아래 안전할 것을 선포하노라! 제 일터의 모든 사람들은 안전하게 지켜질 것을 선포하노라! 저는 주님의 손 안에서 안전하게 일할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 전쟁과 재난, 범죄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습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전쟁 위협, 도시 곳곳에서 벌어지는 범죄와 테러, 예고 없이 닥치는 지진, 홍수, 폭설, 산불, 그 모든 것 앞에서 인간은 너무나 연약하고 제 아무리 기술과 법으로 대비해도 완벽하게 막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모든 절망과 무기력함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공포와 불안 속에 갇히지 않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이 지키시는 한 사람, 한 가족, 한 도시, 한 민족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 이 땅의 모든 생명체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늘의 평안으로 보호해주소서.
나는 이 땅의 모든 공포와 두려움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전쟁이 아닌 평화의 바람을 불게 하시고, 재난이 아니라 회복의 강물이 흐르게 하시며, 범죄가 줄어들고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하소서. 이 기도를 통해 한 민족이 깨어나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굳게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나라는 주님의 보호 아래 평안할 것을 선포하노라! 모든 재난과 위협은 물리쳐질 것을 선포하노라! 이 땅에 주님의 평강이 충만할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9
온유기도

화내지 않고 온유하게 해 달라는 기도

1. 격한 마음을 잠잠케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의 마음 안에는 작은 일에도 쉽게 격해지고, 상대의 말 한마디에도 상처를 받아 속에서 불쑥 불쑥 화가 올라옵니다.
분명 말씀으로는 "화를 내지 말라", "온유하라" 하셨는데, 감정은 그것을 따르지 못하고 내 안에서 폭풍처럼 몰아칩니다.
주님, 그런 저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분노의 순간마다 말을 뱉기 전에 멈추게 하시고,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소서.
나는 모든 격한 감정과 분노를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화는 한순간이지만, 그것이 남기는 상처는 오래 갑니다.
저의 무분별한 말 한마디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깊은 고통이 되지 않도록 성령님, 저를 붙들어주소서.
그 분노의 자리에 온유한 주님의 마음을 채우게 하소서.
화를 낼 이유보다 이해할 이유를 먼저 떠올리게 하시고, 내가 먼저 참고 손을 내밀게 하소서.
나는 모든 감정의 폭주를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조롱당하실 때도 입을 열지 않으셨던 것처럼, 저도 억울한 일을 당해도 말로 대꾸하기보다 기도로 반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격한 마음에서 완전히 자유할 것을 선포하노라!
저는 상황 속에서 온유함을 지킬 것을 선포하노라!
저는 주님의 평안 안에서 반응할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 말의 온유함을 제게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말은 불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작은 불이 산을 태우듯, 말 한마디가 가정을, 교회를, 관계를 태워버리기도 합니다.
주님, 저의 말에 온유함을 담게 하소서.
화를 억누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내뱉을 때 그 안에 사랑과 절제가 스며들게 하소서.
나는 모든 거친 말과 비난의 언어를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말은 나의 내면을 드러내는 거울입니다.
온유한 말이 나오게 하시려면 제 마음이 먼저 온유해져야 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제 마음을 다듬어주시고, 급하고 거친 감정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소서.
가족과 친구, 동료들과 나누는 말 속에 비난보다 격려가 많게 하시고, 지적보다 포용이 깃들게 하소서.
나는 모든 냉정함과 거절의 말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말을 삼키고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품어서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말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온유한 말은 분노를 쉬게 하고, 화평을 만들어낸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제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그 말씀의 성취가 되게 하소서.
저는 온유한 말의 사람이 될 것을 선포하노라! 저는 격려와 포용의 말을 할 것을 선포하노라! 저는 평화를 만드는 말을 선택할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 온유한 인격으로 살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유는 단지 성격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임을 오늘 다시 깨닫습니다.
내 성격이 급하다는 이유로, 나는 원래 그렇다는 핑계로 거칠고 강한 태도를 당연시해온 저를 용서하소서.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라고 말씀하셨듯, 저도 그리스도의 온유를 닮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나는 모든 자기합리화와 거만함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불의를 보고 분노해야 할 때도 있지만, 그 분노조차 온유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분별의 지혜를 주시고 사람을 품는 마음을 가르쳐주소서.
온유는 약함이 아니라, 강함을 절제하는 능력임을 믿습니다.
주님의 통제를 받은 성품만이 진정한 온유를 보여줄 수 있기에 제 자아를 주님께 맡깁니다.
나는 모든 자기중심적 태도를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부드러움 속에 단단함이 있는 사람, 함께 있는 사람에게 편안함을 주는 사람,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늘 주님의 평안 안에 거하는 사람, 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오늘도 내 인격을 빚어주소서.
저는 온유한 인격으로 변화될 것을 선포하노라! 저는 예수님을 닮은 온유함을 가질 것을 선포하노라! 저는 모든 사람에게 평안함을 주는 사람이 될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 가정 안에서 먼저 온유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은 사랑을 배우는 가장 가까운 공간이자 가장 쉽게 화를 내게 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밖에서는 참고 온유한 척했지만, 집에 돌아오면 짜증을 쏟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저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그 어떤 관계보다 가정 안에서 먼저 온유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나는 가정에서의 모든 짜증과 감정 폭발을 파쇄하노

라!

하나님 아버지,
배우자에게 말할 때, 자녀를 훈계할 때, 부모님과 대화할 때 감정이 앞서지 않고, 기도한 마음으로, 성령의 온유함으로 반응하게 하소서.
소리를 낮추게 하시고, 말을 부드럽게 하시며, 상대의 입장도 듣게 하소서.
나는 가정에서의 모든 거친 태도를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할 때, 가정 안에 사랑이 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작은 공간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먼저 가정에서 훈련된 온유함이 세상 속에서도 빛을 발하게 하소서.
저의 가정에 온유함이 넘칠 것을 선포하노라! 저는 가정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낼 것을 선포하노라!
저의 가정은 주님의 평안으로 충만할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 불의를 마주해도 온유하게 대응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도 있고, 억울한 상황에 놓일 때도 있습니다.
그때 저는 쉽게 화가 나고, 그 분노로 나 자신을 지키려 합니다.
하지만 주님, 그 순간에도 온유함을 잃지 않게 하소서.
나는 모든 분노와 복수심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불의에 침묵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불의에 대한 저항조차 주님의 방식으로 하게 하소서.
분노의 방식이 아니라, 사랑의 방식으로, 보복이 아닌 용서로, 억압이 아닌 진리로 응답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은 채찍질당하시며도 저주하지 않으셨고, 십자가 위에서도 온유로 사랑을 이루셨습니다.
나는 모든 피해의식과 원망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을 본받아 저도 오늘, 그 어떤 억울함 속에서도 주님의 품격을 잃지 않게 하소서.

진정한 승리는 말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온유함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임을 제 삶으로 고백하게 하소서.

저는 불의 앞에서도 온유함을 지킬 것을 선포하노라! 저는 주님의 방식으로 대응할 것을 선포하노라! 저는 용서로 승리할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0
경건기도

세상의 정욕에 빠져 살지 않고 살아가게
해 달라는 기도

1. 정욕이 아닌 경건함으로 채워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끊임없이 저를 유혹합니다.
눈에 보이는 화려함, 귀에 들리는 달콤한 말들, 마음 깊은 곳을 자극하는 정욕의 불씨들이 하루에도 수십 번 제 안에서 타오릅니다.
그러나 주님, 그 길의 끝은 공허함이며, 결국 하나님과의 거리를 벌리는 멸망의 길임을 제가 알고 있기에 오늘도 주 앞에 엎드립니다.
나는 모든 세상의 정욕과 유혹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를 도와주소서.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저를 지키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 내면을 채워주신다면 저는 다시 정욕의 자리를 떠나 경건의 길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경건은 단지 겉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며 작은 것 하나에도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임을 제 삶으로 배우게 하소서.
나는 모든 거짓과 속임의 영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제 욕망이 아닌 주의 뜻을 따라 살기를 선택합니다.
저는 경건함으로 채워질 것을 선포하노라! 저는 세상의 유혹을 이길 것을 선포하노라! 저는 주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갈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 유혹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삶은 유혹의 연속입니다.
눈에 보이는 쾌락, 누릴 수 있는 성공, 누군가와 비교하며 갖고 싶어지는 욕심이 끊임없이 제 신앙을 흔듭니다.
특히 혼자 있는 시간,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저는 너무나 쉽게 무너지고 맙니다.
나는 모든 숨겨진 유혹과 몰래의 죄를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주님, 경건은 혼자 있을 때 드러나는 것임을 믿습니다.
제가 아무도 보지 않아도, 오직 하나님 앞에 선 것처

럼 깨끗하고 정결한 생각을 품게 하시고, 정욕적인 상상을 단호히 끊고 말씀으로 내 마음을 다스리게 하소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유혹이 찾아올 때 그 자리를 피할 수 있는 담대함과 지혜를 주소서.
그 길의 끝에 주님의 평안과 기쁨이 있음을 삶으로 경험하게 하소서.
나는 모든 미혹의 속임수를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경건을 선택합니다.
저는 혼자일 때도 거룩할 것을 선포하노라! 저는 숨은 것도 주님 앞에 깨끗할 것을 선포하노라! 저는 유혹 앞에서 담대히 설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지키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의 몸은 성령의 전이라 하셨고, 마음은 주님께서 임하시는 성소라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얼마나 자주 이 몸과 마음을 더러운 생각과 습관에 내어주었는지요.
주님, 회개합니다.
눈을 정결하게 지키지 못했고, 손과 발을 경건하게 쓰지 못했으며, 생각을 삼가지 못한 채 세속적인 자극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모든 부정과 더러움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그 습관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드린 몸을 다시 정욕의 종으로 내어주지 않게 하시고, 이 마음과 시선을 거룩함으로 다스리게 하소서.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몸과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게 하소서.
경건은 단지 금욕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삶임을 알게 하소서.
나는 모든 타락한 습관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저의 몸과 마음이 거룩한 성소가 될 것을 선포하노라! 저는 깨끗한 눈과 마음으로 살아갈 것을 선포하노라! 저는 경건함으로 내 몸을 다스릴 것을 선포하

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 세상의 기준보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더 가져야 한다, 더 즐겨야 한다, 더 높아져야 한다."
그 속에서 저도 모르게 그 기준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고 살았습니다.
나는 세상의 기준과 헛된 욕심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주님,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방식과 다릅니다.
경건한 자가 복이 있고,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임을 받고, 섬기는 자가 참된 위대함을 누린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주님, 세상의 박수에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게 하소서.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삶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하게 하시고, 오늘도 단순하고 정결하게,

경건하게 살아가게 하소서.
나는 모든 허영과 자만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제 눈과 귀, 마음과 손을 깨끗이 하소서.
저는 하나님의 기준으로만 살아갈 것을 선포하노라!
저는 세상의 유혹을 거절할 것을 선포하노라! 저는
경건과 거룩함으로 살아갈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 경건을 훈련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경건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 줄 압니다.
경건은 훈련이며, 말씀과 기도와 순종을 반복하며 쌓
아가는 영혼의 근력임을 배워갑니다.
주님, 매일의 시간을 말씀 앞에 두게 하소서.
바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고 마무리
하는 경건의 시간을 지키게 하소서.
나는 모든 게으름과 나태를 파쇄하노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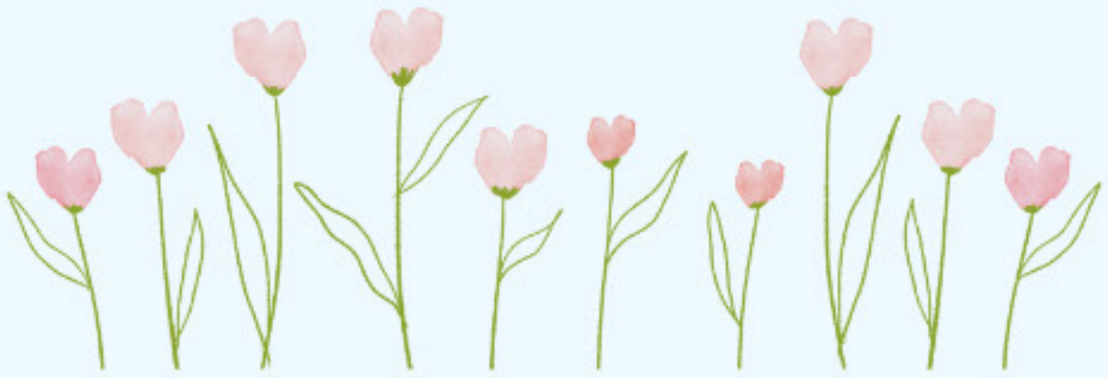
하나님 아버지,
기도로 마음을 열고, 말씀으로 마음을 지키며, 사랑으로 이웃을 대하는 경건한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경건은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인격의 향기임을 믿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통해 말이 아닌 삶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느끼게 하소서.
나는 모든 형식과 외식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 끝까지 이 길을 걷게 하시고, 경건한 자에게 예비하신 상급과 기쁨을 하늘에서 누릴 수 있도록 이끌어주소서.
저는 경건함을 생활화할 것을 선포하노라! 저는 매일 말씀과 기도로 훈련받을 것을 선포하노라! 저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낼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1
성숙기도

예수님처럼 성숙하게 해 달라는 기도



1. 유년의 믿음에서 자라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신앙생활을 해온 시간이 제법 되었지만,
돌이켜보면 여전히 유치한 감정과 유년기의 믿음에
머무르고 있음을 봅니다.
작은 일에도 시험에 들고,
마음에 안 맞으면 불평하고,
자주 낙심하고,
조금만 인정받지 못해도 삐치고 서운해하며
성숙과는 거리가 먼 반응을 할 때가 많았습니다.
나는 모든 유치함과 미성숙함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제는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모양만 성도인 것이 아니라
생각과 말, 행동, 결정, 반응이
예수님의 향기를 닮은 진짜 성숙한 사람으로 빚어지
게 하소서.
말씀을 지식으로만 쌓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살아내며 내 인격 속에 뿌리내리는
성숙한 신앙이 되게 하소서.
나는 모든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것들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나를 훈련하시고 단련하셔서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사람 앞에서 흔들려도 하나님 앞에서는 무너지지 않는
강하고 온유한 그릇으로 자라가게 하소서.
저는 진정한 영적 성숙을 이룰 것을 선포하노라!
저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을 것을 선포하노라!
저는 믿음의 어른으로 자라날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 감정을 다스리는 성숙함을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람은 감정의 존재이지만
감정에 지배당할 때 그 인격은 쉽게 무너집니다.
저도 자주 그 감정 앞에서
기도도 말씀도 무력해지는 경험을 합니다.
억울할 때 쉽게 분노하고,
실망할 때 금세 포기하고,
인정받지 못하면 감정이 식어
사명조차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나는 모든 감정의 폭주와 절제 없는 반응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런 저를 성숙하게 만들어주소서.
감정을 없애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절제의 능력을 주시고,
감정이 아닌 믿음으로 반응하는
성숙한 영혼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도 슬퍼하셨고, 분노하셨고, 눈물 흘리셨지만
그 감정의 끝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모든 감정의 노예 상태를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감정의 높낮이로 흔들리지 않고,
주님 앞에서 항상 평정을 유지하는
성숙한 마음을 갖게 하소서.
저는 감정을 통제할 것을 선포하노라!
저는 믿음으로 반응할 것을 선포하노라!
저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를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성숙을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숙은 결국 관계 속에서 증명된다는 것을 압니다.
혼자 있을 때는 괜찮은 것 같다가도
사람들과 함께할 때 저의 미성숙함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나는 모든 비판과 판단의 영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사람은 모두 다릅니다.
성격도, 생각도, 속도도, 기준도 다릅니다.
그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쉽게 판단하고, 비난하고,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른 제자들을 품으셨고,
심지어 자신을 배신한 유다도 마지막까지 발을 씻기셨습니다.
주님, 저도 그런 넉넉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모든 미움과 거절의 마음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생각이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불편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고,
지금은 부족해 보이는 이들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중보하고 축복할 수 있는
넉넉한 영혼이 되게 하소서.
사람을 품는 그릇이 넓어질수록
저의 성숙도도 자라는 줄 믿습니다.
저는 사람을 품는 마음으로 자라날 것을 선포하노라!
저는 포용과 이해의 사람이 될 것을 선포하노라!
저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모두를 품을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 주어진 일을 끝까지 감당하는 성숙함을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많은 이들이 시작은 잘하지만 끝까지 가지 못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엔 불타오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흐려지고,
작은 어려움 앞에서 포기하거나
방향을 바꾸며 자신의 길을 합리화하곤 합니다.
나는 모든 변덕과 포기의 영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으셨습니다.
도망가지 않으셨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셨으며,
사람들의 태도에 따라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성숙한 순종의 본을 따라
저도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인내와 충성의 성품을 부어주소서.
나는 모든 부정과 낙심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감정이 아니라 사명으로 살아가는 사람,
반응이 아니라 결정으로 움직이는 사람,
오늘 하루도 진중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성숙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지치고 흔들릴 때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온전한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저는 끝까지 충성할 것을 선포하노라!
저는 사명을 완수할 것을 선포하노라!
저는 성숙한 순종의 사람이 될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 위로가 아닌 훈련을 견디는 성숙을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람은 누구나 위로를 원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힘들 때마다 위로만 찾았고,
삶이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따뜻함만을 구했습니다.
나는 모든 약함과 자기연민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성숙은 위로보다 훈련을 통해 자란다는 것을
이제는 깨닫게 됩니다.
주님, 지금 제가 겪는 어려움이
저를 성숙하게 빚는 도구임을 믿습니다.
훈련은 아프지만,
그 아픔 속에서 제가 주님의 형상을 더 닮아간다면
그 길을 기꺼이 걷겠습니다.
나는 모든 도피와 회피의 마음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실패도 경험하게 하시고,
거절도 겪게 하시고,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내면이 깊어지고 단단해지게 하소서.
성숙은 고난을 이겨낸 자만이 얻는 열매입니다.
그 열매를 맺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묵묵히 견디는 믿음을 주소서.
오늘의 고통이 내일의 견고함이 되게 하소서.
저는 훈련을 견디겠을 것을 선포하노라!
저는 고난 속에서도 성장할 것을 선포하노라!
저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2

열매기도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해 달라는 기도

1. 성령의 열매가 일상의 삶에서 맺어지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열매는 단지 성경 속에 머무는 단어가 아니라
오늘 제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삶의 증거로 맺어져야 함을 믿습니다.
주님, 저는 기도는 많이 하지만
그 기도가 내 성품으로 드러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말씀은 읽지만,
그 말씀이 나의 말과 행동으로 살아나지 못할 때
부끄럽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나는 모든 거짓된 신앙과 위선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제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당신의 열매를 오늘도 제 안에 풍성히 맺어주소서.
사랑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사랑하게 하시고,
기쁨이 사라진 현실 속에서도
하늘의 희락이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솟아나게 하소서.
갈등 속에서도 화평을 이루며,
상대가 지치게 해도 오래 참으며,
부당한 일을 당해도 자비와 양선으로 반응하게 하시

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충성되며,
감정이 격할 때에도 온유하고 절제하는
성령의 사람으로 저를 빚어주소서.
나는 모든 거짓과 위선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열매는 하루아침에 맺히지 않음을 압니다.
성령님의 다스리심을 따라
순종으로 한 걸음씩 걸으며
매일의 삶에서 그 열매를 맺게 하소서.
저는 성령의 열매로 가득 찰 것을 선포하노라!
저는 삶으로 믿음을 증거할 것을 선포하노라!
저는 일상에서 영적 열매를 맺을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 사랑의 열매가 내 삶의 본질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첫 번째 열매는 사랑이라 하셨습니다.
그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며,
감정이 아니라 결단임을 이제는 조금씩 배워갑니다.

주님, 내 삶에서 진짜 사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나는 모든 거짓된 사랑과 위장된 친절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말로만 위로하고 겉으로만 친절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이해하고,
불편한 자리도 기꺼이 감당하며,
사랑이 필요한 이들을 향해 다가갈 수 있는
온전한 사랑의 열매가 내 안에 맺히게 하소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다고 하셨는데,
그 사랑의 내용을 제 삶 속에서 하나씩 살아내게 하소서.
나는 모든 이기주의와 무관심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상처 주는 사람을 품는 사랑,
자신보다 남을 낫게 여기는 사랑,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듯 그대로 용서하는 사랑이
제 안에서 자라나게 하소서.
사랑은 성령의 모든 열매의 뿌리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사랑으로 뿌리내리고,
그 사랑으로 모든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게 하소서.

저는 참된 사랑의 사람이 될 것을 선포하노라!
저는 주님의 사랑을 나타낼 것을 선포하노라!
저는 모든 사람을 사랑할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 기쁨과 평화의 열매가 고난 가운데서도 자라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쁨과 평화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며,
오직 성령께서 심령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늘의 선물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는 종종 환경이 어려워지면
기쁨도 평안도 쉽게 사라지고
불안과 염려로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나는 모든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늘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쁨을 주시는 성령님,
외적인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끊어지지 않는

하늘의 희락을 경험하게 하소서.
환난 중에도 기뻐했던 바울처럼,
고난 속에서도 평강을 노래했던 다윗처럼
저도 그 기쁨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나는 모든 절망과 무망감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하나님과 화목한 자는
사람들과도 평화를 이루는 자임을 믿습니다.
내 안에 평화가 흐르면
그것은 반드시 이웃에게 흘러갑니다.
오늘도 제 안에 성령의 평화를 충만하게 부어주소서.
그 평화가 갈등을 해소하고,
다툼을 멈추며,
관계의 회복을 이끄는 은혜가 되게 하소서.
나는 모든 다툼과 갈등의 영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기쁨과 평화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오늘도 그 나라가 제 삶에서 시작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으로 살 것을 선포하노라!
저는 주님의 평안을 누릴 것을 선포하노라!
저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평화를 증거할 것을 선포

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 인내와 절제의 열매가 내 삶을 붙잡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열매 가운데 가장 힘들고 어렵게 느껴지는 열매가
'오래 참음'과 '절제'입니다.
저는 조급합니다.
기도 응답이 더디면 낙심하고,
사람이 느리면 답답해하며,
상황이 기대와 다르면 분노합니다.
그리고 욕망과 감정에 쉽게 무너져
절제 없이 말하고 행동하며
죄에 가까워질 때가 많습니다.
나는 모든 조급함과 무절제를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두 열매가 제 삶을 붙들어 주소서.
인내는 수동적 참고 기다림이 아니라,
믿음으로 견디며 소망을 지키는 것임을

삶 속에서 배우게 하소서.
절제는 욕망을 억누르는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자신을 복종시키는
믿음의 고백임을 알게 하소서.
나는 모든 욕망의 폭주와 절제 없는 반응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 이 두 열매가
내 감정을 지키고, 관계를 보호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경계선이 되게 하소서.
오늘도 인내하게 하시고,
욕망이 아니라 말씀으로 움직이게 하소서.
저는 오래 참을 것을 선포하노라!
저는 욕망을 절제할 것을 선포하노라!
저는 인내 안에서 소망을 지킬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 양선과 충성의 열매로 세상에 복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는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제 삶이 그저 자기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양선(善함)과 충성(忠實함)은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을 드러내는
열매임을 믿습니다.
나는 모든 이기심과 불성실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제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손해 보더라도 바르게 말하고,
힘들어도 웃으며 섬기고,
내가 먼저 다가가서 도우며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게 하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종이 되게 하소서.
나는 모든 불의와 위선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남들이 보든 안 보든,
칭찬이 있든 없든,
맡겨진 일을 끝까지 감당하며
변함없는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충성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성령의 열매는 말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열매로 세상에 복이 되게 하소서.
저는 양선의 사람이 될 것을 선포하노라!
저는 충성된 종이 될 것을 선포하노라!
저는 세상에 하나님의 복이 되는 사람이 될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3

충만기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기름이 충만하게
해 달라는 기도

1. 메마른 심령 위에 은혜의 비를 부어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는 오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마음은 너무 쉽게 메말라가고,
삶의 자리마다 지치고 상한 마음이 쌓여갑니다.
주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한 순간도 이 길을 걸을 수 없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감동이 없고,
기도를 해도 하늘이 닫힌 것 같고,
말씀을 읽어도 살아 움직이지 않을 때
제 심령이 얼마나 메말랐는지를 깨닫습니다.
나는 모든 메마름과 절망감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의 비를 내려주소서.
성령의 단비가 이 마른 심령에 쏟아지게 하소서.
무뎌진 마음이 다시 살아나고,
무너진 기도의 무릎이 다시 꿇려지며,
잠자던 영혼이 다시 불타오르게 하소서.
주의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지만
그 가치는 영원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구합니다.
나는 모든 영적 메마름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서, 기도 중에, 찬양 속에
하늘 문이 열리고
주님의 손이 제 삶을 덮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은혜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충만히 살아가게 하소서.
저는 은혜로 충만할 것을 선포하노라!
저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것을 선포하노라!
저는 영혼이 소생할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 성령의 기름으로 제 삶을 적셔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기름부으심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너무나 작고,
제 능력과 지혜로는 감당할 수 없는
사명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기름이 부족하면 등불은 꺼지고,
기름이 메마르면 성령의 역사는 멈춰버립니다.
나는 모든 무능함과 무기력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소서.
제 안에 눌려 있던 담대함이 살아나게 하시고,
기도가 다시 불처럼 타오르게 하시며,
말씀을 선포할 때 능력이 따르게 하소서.
기름은 성령의 임재요, 하나님의 권능이며,
하늘의 인도하심입니다.
나는 모든 비사역적 태도를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의 삶 위에 하늘에서 기름을 부어주시고,
생명의 향기와 은혜의 열매가
저를 통해 흘러가게 하소서.
성령님, 제 마음을 주의 성전 삼으시고
그 안에 항상 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름을 채워주소서.
저는 성령의 기름으로 충만할 것을 선포하노라!
저는 사명 속에서 능력을 나타낼 것을 선포하노라!
저는 생명의 사역자가 될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 은혜와 기름으로 매일을 시작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루의 시작은 늘 분주하고 정신없습니다.
일어나자마자 해야 할 일들이 몰려오고,
마음은 이미 바깥일로 분산되어
주님의 얼굴을 구할 틈조차 없어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 은혜 없이 시작된 하루는
바람 없는 배처럼 방향도 없고 힘도 없습니다.
나는 모든 분산과 무질서를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의 은혜로 숨 쉬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으로 걸음을 적셔주소서.
출근길에도 기름을 부으시고,
사소한 결정에도 은혜를 더하시며,
사람들과의 대화 가운데
주님의 향기가 배어나게 하소서.
매일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일상의 사소함 속에서도
은혜의 파도가 몰려오게 하소서.
나는 모든 일상의 영적 타성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먼저 구할 때
모든 것이 채워지는 그 은혜의 질서를 다시 세워주소서.
저는 매일 주님의 은혜로 시작할 것을 선포하노라!
저는 기름 부음의 사람이 될 것을 선포하노라!
저는 하루하루를 영적 충만함으로 살아갈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 사역 위에 기름을 부으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일을 감당할수록
제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절감합니다.
말을 전해도 감동이 없고,
기도를 인도해도 마음이 열리지 않고,
열심히는 하는데 하늘의 기름이 빠져 있다면
모든 사역은 껍데기일 뿐입니다.
나는 모든 형식적 사역과 영적 공허함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사역 위에 기름을 부어주소서.
말씀에 기름을 부으시고,
기도 위에 기름을 부으시고,
모든 예배와 섬김 위에
하늘의 기름부으심이 넘치게 하소서.
하나님, 기름이 있을 때
작은 돌멩이도 하나님의 무기가 되고,
보잘것없는 손길도 생명을 살리는 통로가 됩니다.
하지만 기름이 없다면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거기엔 생명도 감동도 없습니다.
나는 모든 영적 허전함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의 사역을 사람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감당하게 하소서.
기름부음을 받은 자답게,
두려움 없이, 타협 없이,
순종으로 끝까지 서게 하소서.
저는 기름 부음의 사역자가 될 것을 선포하노라!
저는 능력과 권능으로 사역할 것을 선포하노라!
저는 생명을 낳는 사역을 감당할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 충만함이 흘러넘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충만함은 그저 가득 채우는 것을 넘어서
넘쳐흘러 다른 이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하나님의 풍성함입니다.
오늘 제 영혼이 그 충만함으로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생각이 주의 뜻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감정이 성령의 평강으로 채워지게 하시며,
입술에는 감사가, 행동에는 사랑이 흘러넘치게 하소서.
나는 모든 공허함과 채움의 부족함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는 막힘없이 흐르는 강과 같고,
성령의 기름은 마르지 않는 샘과 같습니다.
그 강이 오늘 제 심령을 적시고,
그 샘이 제 안에서 흘러넘쳐
누구든 나를 만나는 이가 주님의 냄새를 맡게 하소서.
은혜 충만, 기름 충만, 사랑 충만, 진리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 하늘의 모든 충만이
제 삶의 골짜기를 채우게 하소서.
나는 모든 비충만함을 파쇄하노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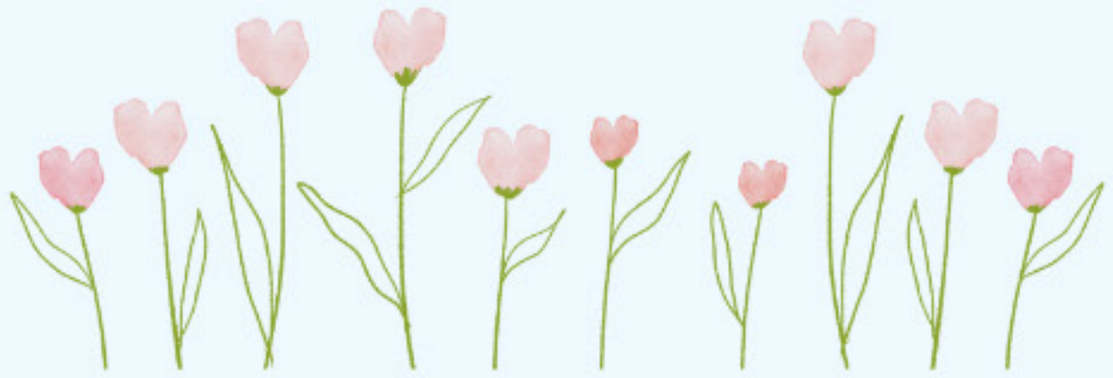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오늘도 메마른 세상 속에서
하늘의 단비로 살아가게 하소서.
저는 충만함으로 넘칠 것을 선포하노라!
저는 흘러넘치는 은혜의 통로가 될 것을 선포하노라!
저는 세상에 축복의 향기를 풍길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4

회복기도

하나님과의 서원한 관계가 다시 회복되게
해 달라는 기도



1. 무너진 서원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과거에 주님 앞에 드렸던 서원이 있습니다.
고난 중에 눈물로 약속드렸고,
간절함 속에 삶을 바지겠노라 고백했던
그 서원의 자리를 주님은 기억하고 계시지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마음은 식어가고,
현실에 지쳐 그 서원을 외면하며 살아왔습니다.
나는 모든 식어버린 헌신과 잊혀진 약속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고 싶습니다.
무너졌던 다짐을 다시 붙들고,
식어버린 헌신에 다시 불을 붙이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신실하셨지만 저는 그렇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여전히 저를 부르십니다.
사랑으로 기다리시며 그 서원의 자리로 초청하십니다.
나는 모든 변절과 배반의 마음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다시 무릎 꿇습니다.
저의 마음을 회복하시고,
저의 약속을 기억 속에서 다시 살려주소서.
주님께서 주셨던 그 소명과 사명을
다시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와 용기를 부어주소서.
저는 서원의 자리로 돌아올 것을 선포하노라!
저는 무너진 약속을 다시 세울 것을 선포하노라!
저는 헌신의 불을 다시 붙일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 주님과의 첫 사랑을 회복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세상이 다르게 보였고,
말씀이 살아 움직였고,
기도만 해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주님, 지금은 너무도 멀어졌습니다.
신앙은 일상이 되었고,
예배는 습관이 되었고,
서원했던 약속들은 잊혀진 채

세상 속에 휩쓸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모든 영적 냉담과 신앙의 일상화를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토록 차가워진 제 마음을 다시 불러주십시오.
첫사랑의 자리를 회복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만 불러도 설레던 그 감격이 되살아나게 하시고,
말씀 앞에서 두려워 떨던 경외함이 되살아나게 하소서.
저의 삶의 방향이 다시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서원했던 기도의 자리로 다시 나아가게 하소서.
나는 모든 영적 태만과 무감각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변함 없으신데 제가 너무 많이 식어버렸습니다.
오늘 그 첫사랑의 감격이 다시 저를 흔들고 깨우게 하소서.
저는 첫사랑을 회복할 것을 선포하노라!
저는 예수님을 새롭게 사랑할 것을 선포하노라!
저는 열정과 경외로 주님을 따를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 잊었던 서원을 기억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큰 고비를 넘길 때마다
저는 주님께 약속을 드렸습니다.
회복되면, 치유되면, 기회를 주시면
주님만을 위해 살겠노라고,
주님의 길을 따르겠노라고 말했습니다.
그때는 진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다시 평안해지자
그 서원은 먼 기억 속으로 밀려나버렸습니다.
나는 모든 기억상실과 약속의 망각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제가 잊은 그 서원을
오늘 이 기도를 통해 다시 기억나게 하소서.
그때의 감격과 눈물, 믿음의 결단과 소원이
단순한 감정이 아닌 성령의 역사였음을 깨닫게 하소서.
그리고 주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음을 믿습니다.
주님은 기다리시고, 회복시키시며,

기억나게 하셔서 다시 불러주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모든 지난 날의 불성실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 말합니다.
다시 서원합니다. 다시 드립니다. 다시 따르겠습니다.
저는 잊은 약속을 기억할 것을 선포하노라!
저는 과거의 서원을 오늘 부활시킬 것을 선포하노라!
저는 다시 헌신할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 다시 주님께 전심으로 돌아가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는 많은 것들을 하고 있지만
마음 중심이 주님께 있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봉사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듣고 있지만
진심은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었고,
주님과의 관계는 점점 형식적으로 변해갔습니다.
나는 모든 외식과 위선과 이중성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늘 다시 전심으로 주께 돌아오길 원합니다.
주님은 마음을 원하시는데 저는 행동만 드렸습니다.
주님은 사랑을 원하시는데 저는 의무만 지켰습니다.
그렇게 서원했던 약속들을 진심 없이 흘려보내며
살았던 저를 용서하여 주소서.
나는 모든 냉정한 헌신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다시 정결한 마음과 뜨거운 영으로
주님의 얼굴을 구하겠습니다.
서원이 단지 과거의 일이 아니라
오늘의 삶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소서.
다시 전심으로 주님을 따르고,
다시 뜨거운 마음으로 예배하며,
다시 순종의 길을 걷게 하소서.
저는 전심으로 돌아올 것을 선포하노라!
저는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것을 선포하노라!
저는 전신으로 주님께 헌신할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 무너진 약속 위에 새 은혜를 쏟아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주님께 약속했습니다.
삶 전체를 드리겠노라고,
주님 뜻대로 살겠노라고,
세상보다 주님을 사랑하겠노라고.
그러나 그 약속은 무너졌고,
주님보다 세상을 따랐으며,
내 욕심을 위해 살아온 날들이 많았습니다.
나는 모든 약속의 파괴와 불순종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 무너진 약속 위에 다시 은혜를 쏟아주소서.
회개하며 무릎 꿇은 이 심령에
다시 은혜의 비를 부으시고,
이 허물 많은 심령도 주님은 여전히 쓰실 수 있다는
소망을 심어주소서.
그 약속은 제 힘으로는 지킬 수 없지만
성령님이 도우시면 끝까지 지켜낼 수 있습니다.
나는 모든 절망과 자포자기를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는 실패했지만 앞으로는 은혜로 승리하겠
습니다.

주님, 다시 시작하게 하소서.
다시 걷게 하소서.
다시 쓰임 받게 하소서.
저는 새 은혜로 회복될 것을 선포하노라!
저는 다시 약속을 세울 것을 선포하노라!
저는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할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5
성화기도

주님처럼 닮아가게 해 달라는 기도

1. 오늘도 한 걸음 주님을 닮아가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믿고 따르며 살겠다고 결단한 지
꽤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제 삶의 모퉁이마다
예수님의 모습보다는 세상의 모습,
내 자아의 흔적들이 남아 있음을 봅니다.
나는 모든 자아의 흔적과 세상의 영향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성화의 길은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지만
날마다 조금씩,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말할 때 예수님처럼 부드럽게,
행동할 때 예수님처럼 자비롭게,
생각할 때 예수님처럼 순결하게,
결정할 때 예수님처럼 순종하며
한 걸음씩 주님의 형상을 따라가게 하소서.
나는 모든 자기중심과 영적 침체를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성령님, 제 안에서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저를 훈련하시며

기도 가운데 정결하게 빚어주셔서
예수님의 성품이 제 안에 새겨지게 하소서.
성화를 향한 오늘의 발걸음이
결국 영광 가운데 주님을 닮은 완전함으로
이끌어질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저는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될 것을 선포하노라!
저는 날마다 성화되어 갈 것을 선포하노라!
저는 예수님을 닮을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 제 안의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화는 과거의 나를 벗고
예수님의 옷으로 새롭게 입는 과정임을 압니다.
그런데도 저는 여전히 옛 자아의 옷을 껴안고 살아가
고 있습니다.
분노, 시기, 질투, 교만, 정욕, 무관심,
이런 모든 육체의 잔재들을
오늘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성령의 옷으로, 예수님의 성품으로
새롭게 입혀주소서.

나는 모든 육체의 욕심과 옛 자아를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살게 하소서.
주님을 닮는 삶은 단지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전적인 은혜 가운데 순종과 깨달음,
훈련과 고난을 통과하며 점점 새로워지는
삶인 줄 믿습니다.
나는 모든 자기의지와 영적 교만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제 안에서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살아나는 성화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소서.
저는 옛 자아에서 완전히 벗어날 것을 선포하노라!
저는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새로워질 것을 선포하노라!
저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 주님의 겸손과 온유함을 배우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은 자리에 서셨고,
침묵하셨으며, 섬기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만 무시를 당해도 분노하고,
조금만 인정받지 못해도 서운해하며,
내가 높아지고, 앞서려는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나는 모든 자존심과 교만과 피해의식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도 주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우고 싶습니다.
사람을 높이기보다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
자신을 낮추되 진리를 지키는 태도,
모든 사람에게 부드럽되 죄에는 단호하신
예수님의 성품을 닮기 원합니다.
온유함은 나약함이 아니라 절제된 힘이며,
겸손은 자기비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분명한 자기 인식임을
삶을 통해 알게 하소서.
나는 모든 거짓된 겸손과 영적 자만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저는 주님의 겸손을 배울 것을 선포하노라!
저는 온유한 성품으로 변화될 것을 선포하노라!
저는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 될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 고난 중에도 주님처럼 반응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닮는다는 것은 좋은 것만을 닮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주님처럼 반응하는 것을
의미함을 깨닫습니다.
예수님은 모욕을 당하셔도 욕하지 않으셨고,
채찍에 맞으시면서도 침묵하셨으며,
십자가 위에서도 용서를 외치셨습니다.
나는 모든 피해의식과 복수심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제가 고난을 당할 때

그 상황에 짓눌리지 않고 주님처럼 반응하게 하소서.
억울한 말을 들을 때,
불공평한 대우를 받을 때,
실패와 상실을 경험할 때
내 감정대로 행동하지 않고
말씀대로 반응하는 성화된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성숙은 고난 속에서 드러납니다.
고난은 나를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인격을 빚어내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믿게 하소서.
나는 모든 원망과 저항의 마음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어떤 상황에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화를 이루게 하소서.
저는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닮을 것을 선포하노라!
저는 시련 속에서도 감사할 것을 선포하노라!
저는 고통 속에서도 사랑을 증거할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 성령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성화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화의 길은 혼자의 힘으로는 갈 수 없습니다.
처음엔 열심히 따라가려 하지만
현실과 유혹, 나태함과 두려움이
곧 저를 주저앉게 만들곤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저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매일 말씀과 기도로 일으켜 세우시며
예수님을 닮도록 이끄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나는 모든 무기력과 포기의 마음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 오늘도 도와주소서.
지금보다 더 나은 내가 되기를 원하지 않고,
예수님을 닮은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도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제 내면이 깎이고 다듬어지게 하시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소서.
나는 모든 나태와 영적 정체를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성화는 하루하루의 선택입니다.

오늘도 성령께 순종하며
주님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살아있는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소서.
저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화될 것을 선포하노라!
저는 매일 주님을 더 닮아갈 것을 선포하노라!
저는 완전한 성화의 모습으로 나아갈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6
조화기도

모든 사람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게
해 달라는 기도

1. 다름 속에서 하나됨을 누리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당신께서 우리를 각기 다르게 지으셨지만
그 다름이 나뉨이 되지 않고
조화와 하나됨이 되기를 원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서로의 차이를 받아들이기보다
비난하고, 밀어내고,
나와 다른 것을 틀린 것으로 여겼습니다.
나는 모든 편견과 차별의 마음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다름은 풍성함의 시작임을 다시 깨닫게 하소서.
목소리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며,
표현도 다르고 방식도 다르지만,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의 몸을 이룬 지체임을 믿습니다.
[고전 12:20]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 공동체 안에, 가정 안에, 교회 안에
이 거룩한 다양성의 조화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나는 모든 거부와 배척의 영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다른 이를 내 기준에 맞추려 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존중하고 받아들이게 하시며,
그 다름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섭리를 보게 하소서.

조화를 위해 말하기보다 먼저 듣고,
주장하기보다 양보하며,
서로를 살리는 겸손한 태도를
내 삶에 깊이 새기게 하소서.
저는 모든 사람을 존중할 것을 선포하노라!
저는 조화의 사람이 될 것을 선포하노라!
저는 다름을 축복으로 받아들일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 관계의 갈등 대신 화해의 다리를 놓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관계는 축복이기도 하지만,
갈등의 가장 큰 통로이기도 합니다.
말 한 마디에 상처받고,
눈빛 하나에 오해하며,
다른 생각으로 인해 멀어지는 일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나는 모든 오해와 갈등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런 관계의 틈 사이에
화해의 다리를 놓는 자가 되게 하소서.
불편한 사람을 피하지 않게 하시고,
먼저 손 내밀 수 있는 용기를 주시며,
화해를 주도하는 지혜를 허락하소서.
[롬 12:18]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 말씀처럼,
내게 책임이 없다고 여겨지는 상황일지라도
먼저 화목을 택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나는 모든 원망과 계산적 태도를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내 안의 자존심과 억울함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이해하고, 품으며,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관계 안에서 다툼보다 화해를,
경쟁보다 협력을,
의심보다 신뢰를 선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평화의 통로가 되게 하소

서.
저는 화해의 사람이 될 것을 선포하노라!
저는 먼저 손 내밀 것을 선포하노라!
저는 조화를 이루는 자가 될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 서로의 장점을 인정하며 조화를 이루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자주 상대의 단점에 집중합니다.
실수 하나, 부족함 하나에 마음을 닫고
비난과 판단의 눈으로 상대를 바라봅니다.
나는 모든 비판과 판단의 영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 사람은 완벽하지 않지만
모두가 당신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임을
잊지 않게 하소서.
누구에게나 장점이 있고,
그 사람만의 빛이 있음을 보게 하시고,
서로의 다름을 비교가 아닌 조화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을 주소서.

[빌 2:3-4]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 말씀처럼,
자기중심에서 벗어나 타인을 귀히 여기는
시선을 갖게 하시며,
내가 못하는 것을 남이 잘할 수 있음을 인정하게 하소서.
나는 모든 자기중심과 질투를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조화는 비교가 아니라
서로의 차이를 축복으로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됨을
날마다 체험하게 하소서.
저는 타인의 장점을 인정할 것을 선포하노라!
저는 서로를 세우는 자가 될 것을 선포하노라!
저는 조화 속에서 하나됨을 누릴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 교회 안에 성령의 조화가 흐르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는 세상의 어느 조직보다도 거룩한 공동체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시는 집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서로를 질투하고,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논쟁하며
때로는 복음보다 내 의견을 앞세워
조화를 깨뜨렸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모든 분열과 당파심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교회 안에 성령의 조화가 흘러넘치게 하소서.
성령은 분열하지 않으시며,
사람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향해
모두를 이끄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엡 4:3]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말씀처럼,
내가 먼저 평화를 위해 일하고,
화합의 말을 하고,
다툼 대신 이해의 태도로 교회를 섬기게 하소서.

나는 모든 분쟁과 갈등의 영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조화는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깨달아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히 하나 되고
그 조화 안에 복음의 능력이 흘러가게 하소서.
저는 교회의 일치를 위해 일할 것을 선포하노라!
저는 성령의 조화를 추구할 것을 선포하노라!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가 될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 조화의 삶으로 세상에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끊임없이 나눕니다.
사상으로, 배경으로,
세대와 취향으로 갈라놓고
서로를 밀어내고 갈등하게 합니다.
나는 모든 나눔과 분열의 영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하지만 하나님, 당신은 나눔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됨의 하나님이시며, 조화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세상 가운데
그 조화의 성품을 담아 살아가게 하소서.
사람들과 어울릴 때, 의견이 다를 때,
다툼이 일어날 때 내가 먼저 평화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조화를 이루는 존재가 되게 하소서.
나는 모든 세상적 분열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마 5:9]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말씀하신 대로,
내 삶 전체가 조화로 하나님의 자녀 됨을 증거하게 하소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다툼보다 조화, 경쟁보다 연합,
갈등보다 이해의 길을 선택하게 하시고
내가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조화가 꽃피게 하소서.
저는 평화의 사람이 될 것을 선포하노라!

저는 조화의 아이콘이 될 것을 선포하노라!
저는 세상에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낼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7

신앙기도

올바른 신앙을 갖게 해 달라는 기도

1.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갖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믿음을 가진 지 오래되었어도
삶의 풍랑 앞에서는 여전히 흔들리고,
세상의 말과 사건들 앞에
갈대처럼 요동치는 나 자신을 봅니다.
나는 모든 불안정과 흔들림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진정한 믿음은
감정이나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것임을
다시 깨닫게 하소서.
[히 11:1]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 말씀처럼,
보이지 않아도 믿고,
이해되지 않아도 신뢰하며,
응답이 없어도 기다릴 수 있는
참된 신앙을 갖게 하소서.
나는 모든 의심과 불신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내 믿음이 주님께 닻을 내리게 하시고,
세상의 풍랑에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믿음으로 자라가게 하소서.
감정의 파도, 사람의 말, 실패와 두려움이
더 이상 내 믿음을 흔들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하나로 서는 견고한 신앙을 갖게 하소서.
저는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질 것을 선포하노라!
저는 반석 같은 신앙으로 서 있을 것을 선포하노라!
저는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 말씀 중심의 신앙을 살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신앙생활은 오래 했지만
그 중심이 말씀이 아닌 나일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말씀을 읽어도 내 뜻대로 해석하고,
상황에 따라 말씀을 이용하고,
감정에 따라 신앙을 조절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용서해 주소서.

나는 모든 자의적 해석과 말씀의 왜곡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중심에 두게 하소서.
말씀이 나의 기준이 되고,
말씀이 나의 판단이 되며,
말씀이 내 삶의 방향이 되게 하소서.
[시 119:105]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이 말씀처럼
어두운 현실 가운데서도 말씀을 따라 걷게 하소서.
나는 모든 주관적 신앙과 말씀의 유보를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감정보다 말씀이 앞서게 하시고,
경험보다 진리가 중심이 되게 하시며,
사람의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계시 위에
나의 신앙이 세워지게 하소서.
말씀으로 바로 서는 삶,
말씀대로 살아가는 신앙을
오늘도 훈련하게 하소서.
저는 말씀 중심으로 살 것을 선포하노라!
저는 진리 위에 설 것을 선포하노라!
저는 말씀의 사람이 될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 삶으로 드러나는 믿음을 갖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로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삶에서는 두려워하고,
선포는 크지만 행동은 뒤처지고,
믿음의 외침은 많지만 순종의 열매는 부족했던
제 모습을 회개합니다.
나는 모든 위선과 말과 행동의 불일치를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신앙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는 것임을 알게 하소서.
예배당 안에서만 신자가 아니라,
가정과 일터, 사람 사이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소서.
[약 2:17]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하신 말씀처럼
나의 신앙이 실제 삶에서 열매 맺게 하시고,

사람들이 나를 통해 주님을 보고, 느끼고,
알고 싶어지게 하소서.
나는 모든 영적 이중성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말과 행동이 다르지 않게 하시고,
고백과 선택이 일치하게 하시며,
신앙이 내 일상의 중심이 되는
진실한 믿음을 갖게 하소서.
저는 말씀대로 살 것을 선포하노라!
저는 삶으로 믿음을 증거할 것을 선포하노라!
저는 진정한 제자가 될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 위기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은 평안할 때보다
위기 가운데서 더 분명히 드러나는 것임을 압니다.
그러나 위기가 올 때마다
저는 불안해하고,
눈앞의 현실에 압도되어

주님의 얼굴을 잊어버릴 때가 많았습니다.
나는 모든 두려움과 공포의 영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위기의 순간에야말로
더 깊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문제가 아닌 주님을,
두려움이 아닌 약속을,
파도가 아닌 말씀을 바라보게 하소서.
[마 14:30-31]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 말씀처럼,
저도 주님을 바라보며 걷게 하시고,
넘어질 때마다 손 내밀어 붙드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붙잡게 하소서.
나는 모든 절망과 포기의 마음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시련이 믿음을 빼앗는 도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더 깊은 신뢰로 이끄는 통로가 되게 하소서.
저는 위기 속에서도 주님을 볼 것을 선포하노라!
저는 시련 속에서도 신뢰할 것을 선포하노라!
저는 고난 속에서도 담대할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신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처음 믿음을 가졌던 날의 감격은
시간이 지나면서 희미해지고,
세상과 타협하며 신앙의 순수함도
점점 옅어질 때가 많았습니다.
나는 모든 타협과 신앙의 퇴보를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시작보다 끝이 더 중요함을 믿습니다.
한때 뜨거웠던 신앙이 아니라
끝까지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소서.
[딤후 4:7]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고백이 저의 인생 마지막 날에도
입술에서 흘러나오게 하소서.
나는 모든 영적 냉담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환경이 변해도, 몸이 약해져도,
사람들이 떠나가도,
주님을 향한 믿음만은 지키게 하소서.
일시적인 열정이 아닌
평생을 드리는 신앙으로 살아가며,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의 얼굴을 뵈옵게 하소서.
저는 끝까지 믿음을 지킬 것을 선포하노라!
저는 영원히 주님을 따를 것을 선포하노라!
저는 믿음의 완주자가 될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8

기적기도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게 해 달라는 기도

1. 기적은 지금도 일어남을 믿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당신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며
성경 속 기적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도 일어나는 살아 있는 역사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저의 믿음은 자주 현실에 눌려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며,
불가능 앞에서 포기해 버리려 합니다.
나는 모든 의심과 불신의 영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눈을 다시 열게 하소서.
기적은 하나님의 능력에 의존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의 이성과 논리를 초월함을
믿게 하소서.
[막 9:23]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이 오늘 나의 삶에도 실제가 되게 하소서.
나는 모든 불가능의 선언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내가 손을 들고 포기하려 할 때

주께서 손 내밀어 다시 붙잡아 주시고,
무너진 마음 위에 기적의 기초를 다시 쌓아 주소서.
오늘도 주의 기적을 기대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작은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고백하는 믿음을 주소서.
저는 기적을 믿을 것을 선포하노라!
저는 기적을 경험할 것을 선포하노라!
저는 기적의 증인이 될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 인간의 한계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는 지금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앞에 서 있습니다.
내 능력으로도, 사람의 도움으로도,
풀 수 없는 문제들 속에서
무력감에 잠기고 절망의 문턱에 다다랐습니다.
나는 모든 절망과 무력감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바로 이 자리에서 기적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며,
모든 가능성이 닫힌 그곳에
하나님의 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출 14:13-14]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
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 말씀대로,
지금 내가 해야 할 것은 불안이 아니라 기다림이고,
포기가 아니라 믿음임을 고백하게 하소서.
나는 모든 두려움과 포기의 마음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기적은 상황의 변화보다
먼저 믿음의 전환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일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기적을 이루어주소서.
저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것을 선포하노라!
저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할 것을 선포하노라!
저는 기적의 증거자가 될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 기적을 기대하는 믿음을 회복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변하지 않는 현실 속에서
점점 기대를 접어두고
기도의 입술마저 무뎌져 버렸습니다.
나는 모든 영적 피로와 기대의 상실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 오늘 다시 믿음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기적은 간절히 기다리는 자에게 임하며,
믿음은 바라보는 자에게 살아난다는 것을
다시 가슴 깊이 새기게 하소서.
[히 11:6]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말씀처럼,

제가 믿음으로 다시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는 모든 의심의 영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기적을 강요하지 않고
기적을 조작하려 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며
그분의 뜻 안에서 기적을 기대하게 하소서.
나의 생각이 아닌 주님의 계획 안에서
더 완전하고, 더 깊은 역사가 이뤄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다시 믿음으로 기다리게 하소서.
저는 기적을 기대할 것을 선포하노라!
저는 주님의 뜻 안에서 기도할 것을 선포하노라!
저는 진정한 기적을 경험할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 삶 전체가 기적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적은 단지 한 순간의 극적인 변화만이 아니라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는 것입니다.

숨 쉬는 것도,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 것도,
말씀을 읽고 기도할 수 있는 것도
다 기적이며 은혜임을 깨닫게 하소서.
나는 모든 무감각과 은혜의 망각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제 삶 전체가 기적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손길이 전해지게 하시고,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기적을 증거하는 도구가 되게 하소서.
작은 친절 하나, 따뜻한 위로 한 마디,
진심 어린 기도가
누군가의 인생에 기적의 씨앗이 되게 하소서.
나는 모든 평범함 속의 무관심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의 일상이 주님의 기적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내가 지나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게 하소서.
저는 삶으로 기적을 증거할 것을 선포하노라!
저는 하나님의 통로가 될 것을 선포하노라!
저는 일상 속에서 기적을 경험할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 기적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적은 단지 응답받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그 기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이어져
야 함을 믿습니다.
너무 자주 저는 기적을 구하면서도
그 기적을 주신 하나님을 잊고
스스로 잘났다고 교만하거나
은혜를 당연시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모든 교만과 은혜의 망각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 기적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항상 기억하게 하소서.
기적을 통해 내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의 능력과 사랑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시 77:14] "주는 기사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주의 능력을 만민 중에 나타내셨나이다"

이 말씀처럼,
내 삶이 하나님의 기적을 선포하는 통로가 되게 하소서.
나는 모든 자기 중심적 태도를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적을 경험하며
그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며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내가 받은 기적을 세상에 증거하고,
그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참된 증인의 삶을 살게 하소서.
저는 기적의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선포하노라!
저는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릴 것을 선포하노라!
저는 기적의 증인으로 살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9

부흥기도

교회와 가정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달라는 기도

1. 메마른 심령에 부흥의 불을 붙여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제 영혼이 너무 메말랐습니다.
기도는 식어갔고, 말씀은 건조하게 들리며,
예배는 의무가 되어 버린 저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나는 모든 영적 메마름과 냉담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늘 제 심령에 부흥의 불을 붙여주소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이 메마른 심령을 다시 살리시고,
주님을 향한 뜨거운 갈망이
다시 불타오르게 하소서.
[시 85:6]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시겠
나이까
주의 백성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하소서"
이 말씀처럼,
제 영혼이 주님으로 인해 다시 기뻐하며
부흥의 불꽃이 타오르게 하소서.
나는 모든 영적 무기력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령의 불로 제 심령을 태우시고,

주님을 향한 열정이 다시 살아나게 하소서.
저는 부흥의 불이 타오를 것을 선포하노라!
저는 주님을 향한 갈망으로 채워질 것을 선포하노라!
저는 영적 소생을 경험할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 교회 안에 부흥의 바람이 불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는 주님의 몸이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교회는 때로 생기를 잃고,
열정이 식어 예배가 형식으로 변하며,
복음의 능력이 약해지는 때가 있습니다.
나는 모든 영적 침체와 형식주의를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교회 안에 부흥의 바람을 불게 하소서.
성령의 임재가 예배를 새롭게 하시고,
말씀 선포에 권능이 더해지며,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 되어
주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소서.

[행 2:1-2]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이 말씀처럼,
오늘도 교회 안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나는 모든 교회의 냉담함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다시 서게 하시고,
복음의 열정으로 가득 차
세상을 변화시키는 부흥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저는 교회의 부흥을 위해 기도할 것을 선포하노라!
저는 성령의 역사에 동참할 것을 선포하노라!
저는 부흥의 증인이 될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 세대와 세대를 이어 부흥이 이어지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흥은 한 세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져야 함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우리의 세대만 생각하고,
다음 세대가 주님을 알도록 준비시키지 못했습니다.
나는 모든 단절과 영적 이기심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어린이와 청소년, 청년과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가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게 하소서.
[욜 2:28]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리라"
이 말씀처럼,
모든 세대가 성령의 부으심을 받아
부흥의 비전을 공유하게 하소서.
나는 모든 세대의 단절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가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부흥의 세대가 되게 하소서.
저는 세대를 이어 부흥을 전할 것을 선포하노라!
저는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할 것을 선포하노라!
저는 부흥의 유산을 남길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 세상 가운데 부흥의 물결이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갈수록 어두워지고,
죄악과 혼란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런 때일수록
부흥의 물결이 세상을 덮을 줄 믿습니다.
나는 모든 세상의 어둠과 절망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땅 위에 부흥의 물결을 일으켜 주소서.
사람들의 마음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교회가 다시 복음의 등불로 빛나게 하시며,
세상 곳곳에서 회개와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합 3:2] "여호와여 내가 주의 소문을 듣고 두려워하

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말씀처럼,
오늘 이 시대에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소서.
나는 모든 세상의 죄악과 부패를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저를 부흥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내가 있는 곳마다 복음의 씨앗을 심으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통로가 되게 하소서.
저는 세상의 부흥을 위해 기도할 것을 선포하노라!
저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 것을 선포하노라!
저는 부흥의 물결에 동참할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 부흥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흥은 단순히 교회가 커지거나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분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나는 모든 자기 중심적 부흥의 동기를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부흥의 열매가
내 삶과 교회, 세상 가운데 풍성히 맺히게 하소서.
그 부흥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며,
죄악의 사슬이 끊어지게 하소서.
[사 44:23]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영광스럽게
행하셨으니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외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이 말씀처럼,
부흥의 모든 열매가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나는 모든 인간적 동기와 명예를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흥을 위해 기도하며,
그 부흥의 중심에 주님만 계시게 하소서.
저는 부흥의 열매를 맺을 것을 선포하노라!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것을 선포하노라!
저는 부흥의 통로가 될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0
교제기도

무시로 성령 안에서 주님과 교제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기도

1. 성도들 간의 참된 교제를 허락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는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거룩한 교제의 자리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서로를 외면하고,
겉으로만 인사하며,
진정한 마음의 교제를 나누지 못했습니다.
나는 모든 표면적 교제와 외식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성도들 간에 참된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기쁨을 함께하며,
믿음 안에서 서로를 세우는
진정한 공동체를 경험하게 하소서.
[행 2:42]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이 말씀처럼,
교회가 말씀과 기도, 사랑의 교제로
하나 되는 역사를 이루게 하소서.
나는 모든 무관심과 이기심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도들 간의 벽을 허물고,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는
진정한 교제의 자리를 허락하소서.
저는 참된 교제를 나눌 것을 선포하노라!
저는 성도들을 사랑할 것을 선포하노라!
저는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힘쓸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제를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과 섬김으로 드러나는 것임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 사랑을 말하면서도
서로를 판단하고, 오해하며,
진정한 사랑의 교제를 잃어버렸습니다.
나는 모든 판단과 오해의 영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교회 안에 사랑의 교제가 넘치게 하소서.
[요 13:35]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말씀처럼,
우리의 교제가 세상에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게 하소서.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서로를 섬기는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나는 모든 미움과 분열의 마음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내가 먼저 사랑을 실천하고,
먼저 손 내밀며,
먼저 용서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그 사랑이 교회 안에서 시작되어
세상으로 퍼져나가게 하소서.
저는 사랑으로 교제할 것을 선포하노라!
저는 섬김으로 하나 될 것을 선포하노라!
저는 주님의 사랑을 증거할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 서로를 세우는 교제를 허락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제는 단순히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믿음 안에서 세우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 말과 행동으로
서로를 무너뜨리고 상처를 주었습니다.
나는 모든 상처와 비판의 말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성도들 간의 교제가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며,
믿음을 북돋우는 자리가 되게 하소서.
[살전 5:11]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이 말씀처럼,
내가 하는 말이 생명을 주고,
내가 나누는 교제가 믿음을 키우며,
서로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는
교제가 되게 하소서.
나는 모든 파괴적 말과 태도를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도들과의 만남에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격려와 사랑으로 대화하며,
서로를 세우는 교제를 나누게 하소서.
저는 서로를 세우는 자가 될 것을 선포하노라!
저는 격려의 말을 전할 것을 선포하노라!
저는 믿음의 교제를 나눌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 약한 자를 품는 교제를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안에는 강한 자도 있지만
약한 자, 상처받은 자, 넘어진 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약한 자를 외면하거나
그들의 연약함을 비판하며
진정한 교제의 문을 닫아버린 적이 있습니다.
나는 모든 무관심과 판단의 영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예수님은 약한 자를 품으셨고,
병든 자를 고치시며,
낙심한 자를 위로하셨습니다.

저희도 그런 교제를 나누게 하소서.
[롬 15:1]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 기쁨을 구하지 아니할지니라"
이 말씀처럼,
약한 자를 위해 기도하고,
그들의 짐을 함께 지며,
사랑으로 품는 교제를 허락하소서.
나는 모든 배척과 외면의 마음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내가 먼저 약한 자에게 다가가고,
그들의 아픔을 듣고,
그들을 위해 중보하는
진정한 교제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저는 약한 자를 품을 것을 선포하노라!
저는 사랑으로 섬길 것을 선포하노라!
저는 교회 안에서 하나됨을 이룰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 세상 속에서 빛나는 교제를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교제는 교회 안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거룩한 증거가 되어야 함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 교회 밖에서는
세상과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나는 모든 세상적 태도와 위선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성도들의 교제가
세상 사람들에게도 감동을 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며,
그리스도의 제자 됨을 증거하는
빛나는 교제가 되게 하소서.
[마 5:16]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씀처럼,
우리의 교제가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
소서.
나는 모든 어둠과 세상적 동화를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도들과 함께 세상 속에서

사랑과 섬김, 화합과 연합의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게 하소서.
저는 세상에 빛나는 교제를 증거할 것을 선포하노라!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것을 선포하노라!
저는 영광의 통로가 될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1

동행기도

주님과 깊은 동행이 있게 해 달라는 기도

1.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언제나 저와 함께 계시지만
저는 종종 주님의 임재를 잊고
홀로 걷는 듯 살아갑니다.
바쁜 일상과 세상의 소음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놓치고,
내 뜻대로 길을 가려 했던 저를 용서하소서.
나는 모든 독립적 태도와 주님의 부재를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늘도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며 시작하게 하소서.
[시 23:4]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악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말씀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임재를 느끼며
그분의 손을 붙잡고 걷게 하소서.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밤에 잠드는 시간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나는 모든 세상적 분주함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하루하루가 주님과의 동행으로 채워지게 하소서.
저는 매일 주님과 동행할 것을 선포하노라!
저는 주님의 임재를 느낄 것을 선포하노라!
저는 주님의 손을 붙잡을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는 종종 내 생각과 계획을 앞세우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옳다고 여기는 길로 가려다
실패하고 넘어졌던 순간들을 고백합니다.
나는 모든 자기 중심적 계획과 불순종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잠 3:5-6]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처럼,
내 지혜와 판단이 아닌
주님의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하소서.
주님의 길이 나의 길보다 높고,
주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보다 완전함을 믿습니다.
나는 모든 자만과 불신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손을 붙잡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게 하소서.
내가 알지 못하는 길이라도
주님과 동행한다면 두려움 없이 걸을 수 있습니다.
저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것을 선포하노라!
저는 주님의 길을 신뢰할 것을 선포하노라!
저는 동행의 축복을 누릴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 동행의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단지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요 축복입니다.
그러나 저는 종종 그 기쁨을 잊고
동행을 부담으로 여기거나
주님의 임재를 당연시하며 살아왔습니다.
나는 모든 무감각과 영적 태만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시 16:11]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
니
주의 얼굴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 말씀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깊이 깨닫게 하소서.
주님의 임재가 내 영혼의 쉼이 되고,
주님의 음성이 내 마음의 위로가 되게 하소서.
나는 모든 불평과 무기력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그 기쁨을 마음 깊이 누리게 하소서.
일상의 모든 순간에서

주님의 동행을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저는 동행의 기쁨을 누릴 것을 선포하노라!
저는 주님의 임재를 찬양할 것을 선포하노라!
저는 매일의 삶에서 주님을 경험할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 고난 속에서도 동행을 잊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난과 시련의 순간에
주님의 동행을 잊고
홀로 외로워하며 절망했던 때가 많았습니다.
눈앞의 고통에 압도되어
주님의 손길을 느끼지 못한 저를 용서하소서.
나는 모든 절망과 두려움의 영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사 43:2]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
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처럼,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주님의 동행을 기억하게 하소서.
고난이 주님과의 거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주님을 붙잡는 기회가 되게 하소서.
나는 모든 고난의 두려움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어떤 시련이 와도
주님과 동행하며 담대히 걸어가게 하소서.
주님의 임재가 나의 힘이 되고,
주님의 손길이 나의 위로가 되게 하소서.
저는 고난 속에서도 동행할 것을 선포하노라!
저는 주님의 임재를 의지할 것을 선포하노라!
저는 시련 속에서도 승리할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 영원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의 삶은 잠시이지만,
주님과의 동행은 영원한 축복임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주님과 함께 걷는 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주님의 얼굴을 뵙게 될 줄 믿습니다.
나는 모든 세상적 유혹과 일시적 쾌락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요 14:3]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예비하거든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말씀처럼,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영원한 집에서도 주님과 함께할 소망을 품게 하소서.
오늘의 동행이 영원한 동행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충성된 삶을 살게 하소서.
나는 모든 영적 이탈과 방황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게 하소서.
내 삶의 모든 순간이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여정이 되게 하소서.
저는 영원히 주님과 동행할 것을 선포하노라!

저는 주님의 나라를 소망할 것을 선포하노라!
저는 충성된 동행자가 될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2

안식기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안식하게 해 달라는 기도

1. 고요한 평안을 제 안에 심어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 영혼은 지쳐 있습니다.
세상의 소음이 너무 크고,
사람들의 요구는 끝이 없으며,
제 마음도 제 몸도 쉼 없이 달려온 듯합니다.
주님, 저는 안식이 필요합니다.
바쁘지 않아도, 문제가 없어도, 일이 잘 되어도
마음이 쉬지 않으면 진정한 평안이 아님을 압니다.
나는 모든 영적 피로와 소음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제 안에 고요한 평안을 심어주소서.
그 어떤 말보다 주님의 한마디가 제 마음을 잠재우게 하시고,
그 어떤 자극보다 주님의 임재가 저를 이끄는 힘이 되게 하소서.
주님이 제 안에 계신다면 폭풍이 일어도 괜찮습니다.
사람들이 오해해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내일이 보이지 않아도 주님 한 분이면 안식할 수 있게 하소서.
나는 모든 불안과 외부 소음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제 삶의 중심이 주님과의 관계에 닿아 있을 때,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불안보다 평안이,
두려움보다 믿음이, 분주함보다 안식이
제 삶의 분위기가 되게 하소서.
성령님, 지금 이 순간 제 마음 한가운데 조용히 임하시고 말씀해 주세요.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그 음성 하나면 저는 다시 살아납니다.
저는 고요한 평안을 누릴 것을 선포하노라!
저는 주님의 임재 속에서 쉴 것을 선포하노라!
저는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할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 두려움 속에서도 쉬는 법을 배우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점점 예측할 수 없고 불안정한 일들로 가득합니다.
뉴스를 볼 때마다, 주변을 살필 때마다
제 마음속에 불안이 밀려옵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서 저는 쉬고 싶

습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결정해야 할 일들이 많아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앞에 있어도
주님 안에서 안식하는 법을 배우고 싶습니다.
나는 모든 불안과 예측 불가능함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식은 상황이 아니라 동행에서 시작되는 것임을 알게 하소서.
내가 주님과 함께한다는 확신 하나만으로
두려움의 파도가 잠잠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소서.
성령님, 제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요동치는 생각들을 잠재워 주시고,
불필요한 염려에서 자유케 하시며,
'지금 이 순간' 주님께 머무는 기쁨을 알게 하소서.
나는 모든 염려와 걱정의 영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저와 함께하신다는 믿음으로
불안해하지 않고 조용히 주님의 품 안에서 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평안은 외부의 조건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매일매일 배워가게 하소서.

오늘도 두려움 대신 주님을 선택하고,
불안 대신 안식을 선택합니다.
저는 주님 안에서 안식하게 될 것을 선포하노라!
저는 두려움을 이길 것을 선포하노라!
저는 평안의 사람이 될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 분주한 삶 속에서 멈출 수 있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저를 끊임없이 달리게 만듭니다.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 같고,
사람들의 기대와 책임이 저를 짓누릅니다.
하루를 마쳐도 온전한 쉼이 없고,
잠을 자도 피곤이 가시지 않으며,
마음에는 쉬지 못한 공허함이 남아 있습니다.
나는 모든 분주함과 끝없는 책임감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분주한 삶 가운데 멈출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잠시라도 걸음을 멈추고 주님의 품 안에 기대어

숨 쉴 수 있는 참된 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리듬이 아닌 주님의 리듬에 맞춰 살고 싶습니다.
주님의 시간표에 따라 쉬고, 일하고, 또 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호흡을 회복하게 하소서.
나는 모든 영적 무기력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일하는 중에도 마음의 쉼을 누리게 하시고,
사람을 만나는 중에도 영혼의 고요함을 잃지 않게 하소서.
바쁜 일상 속에서 주님의 말씀 한 줄을 음미할 수 있는
영적 여유가 회복되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에서 숨을 고를 수 있게 하소서.
주님, 쉼 없이 일하시지 않으셨던 하나님처럼
저도 주님을 닮아 의도적으로 멈추는 지혜를 배워가게 하소서.
저는 멈출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을 선포하노라!
저는 주님의 리듬을 따를 것을 선포하노라!
저는 영적 여유를 회복할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 관계의 갈등 속에서도 평안을 선택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마음이 상하고,
불편함이 쌓이고, 갈등의 고리가 생겨날 때
제 마음속의 평안이 자주 무너집니다.
나는 모든 관계의 상처와 갈등의 영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늘 이 기도를 드리며 결단합니다.
사람보다 평안을 택하겠습니다.
싸우기보다 내려놓겠습니다.
설명하기보다 이해하겠습니다.
증명하기보다 용서하겠습니다.
안식은 관계의 회복에서 시작된다는 걸 압니다.
사람과 화목하지 못하면 주님과도 교제가 막히는 걸
경험합니다.
나는 모든 원망과 저항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제 안에 얽히고 설킨 감정들을
주님 앞에 모두 풀어내게 하소서.

억울함도, 서운함도, 오해도, 분노도
모두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안식을 선택하게 하소서.
성령님, 말보다 기도를 선택하게 하시고
대립보다 중보를 선택하게 하시며
침묵 가운데 주님의 뜻을 구하는 지혜를 주소서.
주님과 화평하게 될 때 사람과도 화평해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저는 평안을 선택할 것을 선포하노라!
저는 관계를 회복할 것을 선포하노라!
저는 주님의 화평을 나눌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 죽음 앞에서도 안식하는 믿음을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삶은 유한하고 모든 존재는 언젠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죽음은 두려움의 상징이었고 늘 피하고 싶던 주제였
습니다.
나는 모든 죽음의 공포를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하지만 주님, 이제는 죽음조차 안식의 문이 되기를 원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닌 주님과의 영원한 시작임을 믿기에 담대하게 바라보게 하소서.
제 삶의 마지막 날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그날에도 저는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품 안에 들어가는 거룩한 안식으로 받아들이게 하소서.
나는 모든 죽음의 두려움과 절망을 파쇄하노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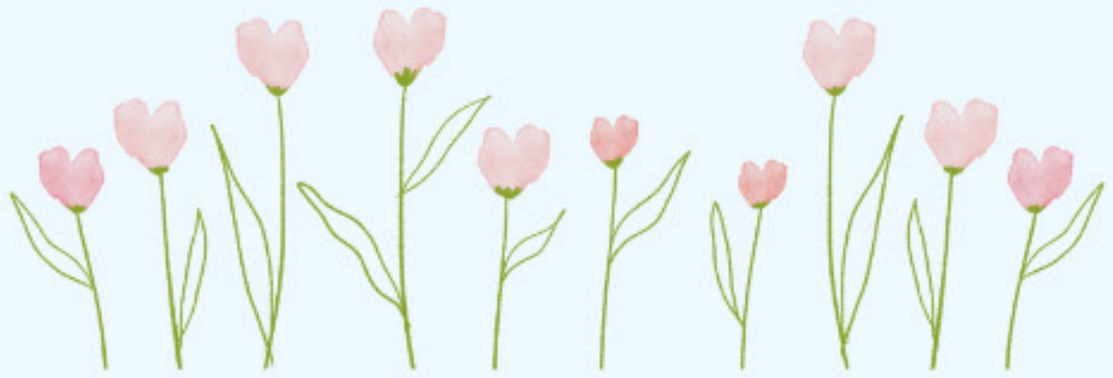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잠깐의 고난이 있어도
영원한 안식을 사모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죽음을 준비하는 삶이 곧 가장 온전한 평안을 누리는 삶임을 알게 하소서.
주님, 천국의 평안을 이 땅에서 미리 누리게 하시고
날마다 죽음을 준비하며 오늘을 감사와 평안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이 함께하신다면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생명보다 더 깊은 안식을 누리게 하소서.
저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선포하노라!
저는 영원한 안식을 소망할 것을 선포하노라!

저는 주님 안에서 평안으로 삶을 마칠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3
성찰기도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해 달라는 기도



1. 내 마음 깊은 곳을 비추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는 세상의 소리를 잠시 내려놓고
주님의 임재 안에서 제 마음을 조용히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주님, 제 눈은 바깥만을 보기에 익숙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안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오늘 다시금 깨닫게 하소서.
나는 모든 영적 맹목성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 제 마음 깊은 곳을 비추어 주시고
내가 모른 채 덮어두었던 죄와 상처,
숨기고 싶었던 생각과 감정까지도
주님의 빛 가운데 드러나게 하소서.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지만 사실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내 모습,
말씀을 따르는 척하지만 실상은 나 중심으로 살아온
날들,
주님, 그것들을 감추지 않겠습니다.
나는 모든 자기기만과 위선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제 마음을 정직하게 열어 드리오니
속사람이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되도록
오늘 이 기도가 회개의 첫걸음이 되게 하소서.
내 속에 있는 자만을 낮추시고
미움과 경쟁심을 씻어내시며
주님의 성품을 새기시는 거룩한 성찰의 시간이 되게 하소서.
저는 정직하게 성찰할 것을 선포하노라!
저는 마음을 다시 열 것을 선포하노라!
저는 회개의 삶을 살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 나의 말과 행동을 돌아보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오늘 하루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표정으로 사람을 대했는지
그 모든 순간들을 주님 앞에 가져옵니다.
하루를 바쁘게 살다 보면 무심코 던진 말이 누군가의 마음을 찌르고,
의도치 않게 했던 행동이 오해를 낳을 때가 있습니다.

나는 모든 무심함과 무감각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는 종종 제 자신을 합리화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내가 더 옳다고, 내 입장에서
는 충분했다고 말하며
다른 이의 아픔을 외면해 왔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은 그 모든 자기합리화를 내려놓고
주님의 눈으로 제 모습을 바라보게 하소서.
제 입술에 무슨 말이 올랐는지,
그 말이 생명을 살렸는지, 아니면 상처를 주었는지를
돌아보게 하소서.
나는 모든 자기합리화와 자기기만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작은 표정 하나, 무심한 한마디, 단순한 태도 속에서
도
주님의 사랑이 드러났는지 스스로를 성찰하게 하소
서.
성령님, 오늘도 제 삶이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드려
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말과 행동을 성찰할 것을 선포하노라!
저는 타인을 존중할 것을 선포하노라!
저는 주님의 사랑으로 행동할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 내 안의 동기를 살피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람은 외모를 보고 행위를 판단하지만
주님은 중심을 보시기에
오늘 저는 제 안의 '동기'를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내가 왜 이것을 하는가, 내가 왜 저 말을 하는가,
주님, 그 안에 숨겨진 의도를 살펴보게 하소서.
나는 모든 불순한 동기를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혹시 누군가의 인정을 받기 위해?
사람들의 박수를 기대하며?
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
주님, 겉으로는 신앙적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내가 영광을 받으려는 마음이
제 안에 자리잡고 있지는 않았는지 조용히 돌아보게
하소서.
하나님, 순수한 마음으로 섬기고
정직한 동기로 결단하며

오직 주님의 기쁨을 위한 선택을 날마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나는 모든 위선과 이기심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위선과 가식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모든 동기의 중심에 주님의 사랑과 진실이 있게 하소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오직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게 하소서.
저는 순수한 동기를 가질 것을 선포하노라!
저는 주님의 영광만을 구할 것을 선포하노라!
저는 정직함으로 살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 내 신앙의 현재 위치를 성찰하게 하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는 때때로 내가 어느 지점에 서 있는지도 모르고
그저 바쁘게 신앙생활을 이어가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멈춰서 주님 앞에
제 신앙의 '현재 위치'를 정직하게 성찰하고 싶습니

다.
나는 모든 영적 무감각을 파쇄하노라!

사랑의 하나님,
주님, 지금의 저는 믿음 안에 머물러 있습니까?
주님을 첫사랑처럼 여깁니까?
기도와 말씀 속에 진짜로 주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신앙의 연수가 길어질수록 신앙의 깊이는 더해져야 하는데
형식만 쌓이고 감격은 사라진 채 습관으로 예배를 드리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소서.
나는 모든 영적 매너리즘을 파쇄하노라!

사랑의 하나님,
주님, 제가 매너리즘에 빠져 있진 않습니까?
자만과 무감각, 안일함과 무기력 속에
신앙의 생명력을 잃은 채 살아있는 듯 죽어 있지는 않은지
성령님, 저를 깨워 주소서.
오늘 이 기도를 통해 영적으로 다시 깨어나게 하시고
주님과의 거리를 좁히는 회복의 발걸음을 내딛게 하소서.
저는 영적으로 깨어날 것을 선포하노라!

저는 주님을 새롭게 만날 것을 선포하노라!
저는 신앙의 깊이를 더할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 제 삶의 열매를 살펴보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믿은 지 오래되었고
기도도, 예배도, 말씀도 꾸준히 해왔다고 생각했지만
주님, 제 삶에 진짜 '열매'가 있는지를 돌아보고 싶습니다.
나는 모든 자기만족과 영적 자만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삶의 열매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시간이 아니라 영향력으로,
내 만족이 아니라 이웃의 유익으로 나타나야 함을 압니다.
제가 얼마나 사랑했는지, 얼마나 용서했는지,
얼마나 인내했고, 얼마나 기도하며 흘려보냈는지를
돌아보게 하소서.
주님, 제가 맺은 열매가 성령의 열매인지,

세상의 열매인지 분별하게 하시고
주님의 기준 앞에 제 삶을 비추게 하소서.
나는 모든 거짓 열매를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잘해왔다고 생각했던 자기만족에서 벗어나
늘 주님 앞에 겸손히 서게 하시고
열매 없는 가지로 남지 않도록
오늘도 주님 안에 거하게 하소서.
말씀 안에 뿌리내리게 하시고
기도로 자라게 하시며
사랑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소서.
저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것을 선포하노라!
저는 이웃의 유익을 추구할 것을 선포하노라!
저는 주님 앞에 겸손할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4

공감기도

가족과 이웃의 마음을 이해하고
서로 공감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기도

1. 내 안에 공감하는 마음을 심어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기적인 세상 가운데
다른 사람의 고통과 아픔을 함께 느끼는 일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 역시도 내 문제에만 집중하느라
가까운 가족의 마음조차 들여다보지 못한 채 살아왔
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그 마음을 내려놓고
제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들을 수 있는 귀와 마음을
열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는 모든 이기심과 무감각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 제가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게 하시고,
그들의 말보다 더 깊은 감정을 읽게 하시며,
말하지 않아도 느낄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을 주소
서.
아버지, 공감은 내가 옳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고통에 함께 눈물 흘리는 것이기에
그 자리에 기꺼이 앉을 수 있는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소서.

나는 모든 둔감함과 영적 무감각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가족 안에서 부모의 침묵을 이해하게 하시고,
배우자의 지친 마음을 알아차리게 하시며,
자녀의 외로운 눈빛을 느낄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웃 안에서도 겉으로 괜찮아 보이지만
속으로 울고 있는 이들을 아버지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소서.
저는 공감하는 사람이 될 것을 선포하노라!
저는 타인의 마음을 이해할 것을 선포하노라!
저는 사랑의 깊이를 더할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 판단 대신 이해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얼마나 쉽게 판단하고,
얼마나 느리게 이해하는 사람인지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와 부족함은 즉시 마음에 새기며

내 입장에서 해석하고, 내 기준으로 정죄했던 제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은 그 마음을 거두고
다른 이의 사정을 이해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주소서.
나는 모든 판단과 비난의 영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과 아픔을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말 한마디 뒤에 숨어 있는 상처와 불안을 느끼게 하소서.
성령님, 판단하는 대신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시고,
정죄하는 대신 손을 잡고 함께 울게 하소서.
아버지, 가족 안에서도 무심코 했던 말에 담긴 뜻을 이해하게 하시고,
지친 배우자의 말없는 요청을 알아채게 하시며,
자녀의 반항 속에 감춰진 외로움을 헤아릴 수 있게 하소서.
나는 모든 자기의로움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이해와 공감의 눈으로 다가가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저는 이해하는 사람이 될 것을 선포하노라!
저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할 것을 선포하노라!
저는 판단 대신 중보할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 가족을 더 깊이 이해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존재인 '가족'을 향해
제가 얼마나 무심하고, 당연하게 대했는지 회개합니다.
타인에게는 예의를 갖추고 친절하게 대하면서도
가족에게는 감정을 쉽게 쏟고
그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채 내 기분대로 말했던
날들이 많았습니다.
나는 모든 무심함과 자기중심성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이제는 가족 안에서부터 공감하게 하소서.
부모님의 잦은 말씀이 사실은 사랑과 염려였다는 것

을
늦기 전에 깨닫게 하시고,
배우자의 침묵이 지친 마음의 신호였다는 것을
무심히 넘기지 않게 하시며,
자녀의 짧은 대답 속에도 도움이 필요한 마음이 숨어
있음을
알아차릴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나는 모든 가족 간의 단절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가족은 말보다 표정과 눈빛으로 말할 때가 많기에
성령님, 저에게 민감한 영을 부어주시고
말하지 않아도 마음을 읽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제 감정을 강요하지 않고
가족의 마음을 먼저 들어주는 듣는 자, 품는 자,
함께 울 수 있는 공감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가정 안에서 서로 이해하고 공감하며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이루어가는 작은 교회가 되게
하소서.
저는 가족을 깊이 이해할 것을 선포하노라!
저는 무심함을 버릴 것을 선포하노라!
저는 가정의 중심이 될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 아픔을 함께 느끼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말없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웃고 있어도 속으로는 눈물 흘리고,
무엇인가 열심히 해내고 있지만
마음 깊은 곳은 지쳐 있습니다.
아버지, 그 고통에 제가 무관심하지 않게 하소서.
나는 모든 무관심과 냉담함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가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와 병든 자, 소외된 자들의 아픔을 몸소 안고 우셨듯이
저도 그런 마음을 갖게 하소서.
눈물 흘리는 이들을 향해 가볍게 위로하지 않게 하시고,
속단하거나 해결책을 말하기보다
조용히 곁을 지키는 동행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나는 모든 자기중심적 위로를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 제가 오늘 누군가의 아픔을 보게 하시고
그 마음에 예수님의 온기가 닿을 수 있도록
제 말과 표정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의 고통을 안다"는 아버지의 음성을
제 삶을 통해 전달하게 하시고,
공감의 기도가 회복의 시작이 되게 하소서.
저는 아픔을 함께할 것을 선포하노라!
저는 동행의 사람이 될 것을 선포하노라!
저는 아버지의 위로를 전할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 공감으로 연결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이며
서로 돌아보고 중보하는 거룩한 가족임을 믿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서로가 서로를 모른 채 오해하고 다투
고,
격려보다 판단이 앞서게 될 때
공동체의 본질을 잃어버리곤 합니다.
나는 모든 공동체의 분열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우리 공동체 안에 공감의 마음이 회복되게 하소서.
성도들의 말 없는 기도를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새가족의 어색한 눈빛 안에 외로움을 읽게 하시며,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침묵 속에서 사라져 가는 존재감의 아픔을 느끼게 하소서.
나는 모든 무심함과 무관심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제게 지혜를 주셔서 위로의 말을 적절히 하게 하시고,
눈물 흘릴 땐 함께 울 수 있는 마음의 넉넉함을 주소서.
교회 안에서 공감이 살아날 때 그곳에 치유가 있고,
그 공감 안에서 아버지의 사랑이 드러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 교회 안에
공감으로 연결된 지체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세상이 감동하는 공동체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소서.
저는 공감의 공동체를 세울 것을 선포하노라!
저는 서로를 품을 것을 선포하노라!
저는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낼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5
인도기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서
올바른 길을 걸어가게 하시길 기도

1. 제 길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지금 어느 길 위에 서 있는지 정확히는 모릅니다.
때로는 확신이 들다가도, 어느 날은 두려움이 찾아오고,
어느 날은 혼란스러움 속에 한 걸음도 떼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기도 시간, 주님 앞에 제 길 전체를 내어놓습니다.
눈앞의 선택뿐 아니라 저의 인생 전부를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주님, 제가 걷는 이 길이 사람의 말이나 내 감정이나 눈에 보이는 형편에 의해 결정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뿌리내려 견고하게 서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 저의 판단력을 정결케 하시고,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분별하게 하소서.
저의 귀를 열어 주셔서 말씀 속에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게 하시고,

제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순종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지금 당장은 이해되지 않아도, 나중에 돌이켜보면 주님의 인도하심이 완벽하셨음을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나는 모든 의심과 불신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는 길이신 예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우회로를 만들지 않고, 억지로 길을 뚫지 않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묵묵히 걷겠습니다.
제 인생 전체가 주님의 손 안에 안전하게 거하길 원합니다.
나는 주님을 완전히 신뢰할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주님의 인도를 따를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주님 앞에 온전히 항복할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 선택의 기로에서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저는 인생의 갈림길 앞에 서 있습니다.

한쪽은 익숙하고, 한쪽은 낯설며, 어느 쪽도 완전한 확신은 들지 않습니다.
주님, 이런 선택의 순간마다 저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감정에 끌리고, 사람의 조언에 의지하고,
결국엔 스스로 결정을 내리고 후회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렇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쪽, 주님이 함께하시는 길,
내 마음이 아니라 주의 마음이 향하는 길을 선택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 제 안의 소란을 잠재워 주시고
말씀을 통해 주님의 방향을 보게 하시며,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느끼게 하소서.
사람의 눈에는 그 길이 평탄해 보여도
주님이 함께하시지 않는다면 그 길은 결국 헛된 길임을 깨닫게 하시고,
비록 험한 길일지라도 주님이 인도하신다면
그곳이 가장 안전한 길임을 확신하게 하소서.
나는 모든 불안감과 의심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 결정을 내리는 순간에도 두려움이 아닌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저의 걸음을 내딛게 하소서.
이 선택이 하나님의 뜻과 완벽히 부합하길 믿습니다.
나는 담대하게 나아갈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주님의 인도를 따를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올바른 길을 선택할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 흔들리는 삶 속에서 나침반이 되어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살다 보면 나침반을 잃은 배처럼 방향을 잃고 떠도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삶의 바다는 넓고, 풍랑은 거세고, 내 안에는 확신이 사라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이 말씀을 붙잡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주님, 지금 제 명철이 아무 도움이 되지 않을 때

주님만이 저의 나침반이 되어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방향을 알려주시고, 기도할 때 감동으로 이끌어주시고,
성령의 음성으로 작은 결정 하나까지 주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나의 북극성이 되어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시고
내가 돌아갈 수 있도록 빛을 비추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제가 주님을 더 깊이 의지하게 하시고
길이 아닌 주님을 따르며 방향이 아닌 주님의 손을 붙들게 하소서.
나는 모든 방향감각 상실과 절망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흔들리는 삶 속에서 주님이 저의 중심이 되어 주시고,
그 동행 안에서 제 삶이 다시 견고히 세워지게 하소서.
저는 주님을 나침반 삼을 것을 선포하노라!
저는 주님의 손을 붙들 것을 선포하노라!

저는 흔들리지 않을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 세상의 유혹에서 벗어나 주의 길을 걷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끊임없이 제게 속삭입니다.
더 빨리, 더 높이, 더 많이… 이 길이 편하다고,
이 길이 이득이라고, 이 길이 모두가 가는 길이라고.
하지만 주님, 세상의 길이 다 옳은 것이 아니며
다수가 선택했다고 해서 그 길이 진리의 길이 아님을 압니다.
나는 모든 세상의 유혹과 거짓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수많은 유혹의 갈래 앞에서 제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저는 주님의 길을 걷고 싶습니다.
좁고 협착할지라도, 사람들이 조롱할지라도
예수님이 앞서 가신 그 길을 기꺼이 따라가게 하소서.
성령님, 제 안에 있는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망,

안정만을 바라는 이기심, 편한 길을 선택하려는 유혹을
주님의 능력으로 다스려 주소서.
나는 모든 이기심과 육신의 욕망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길은 때론 외로울 수 있지만
그 길의 끝엔 주님이 계시고
생명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담대함,
그리고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분별력을 제 안에 부어주소서.
저는 세상의 유혹을 거절할 것을 선포하노라!
저는 주님의 길을 따를 것을 선포하노라!
저는 진리 위에 설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 마지막까지 바른 길을 걷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는 종종 시작보다 끝이 어렵다는 말을 실감합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온 시간이 길어질수록

자칫 익숙함에 젖어 처음의 간절함과 순수함을 잃어
버릴까 두렵습니다.
주님, 제게 끝까지 바른 길을 걷는 믿음을 주소서.
나는 모든 영적 태만과 식어버린 신앙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처음엔 뜨겁게 시작했으나 중간에 식어버리고
종착지에 도달하지 못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지 않게
하소서.
말씀 안에 끝까지 서게 하시고,
기도의 무릎을 놓지 않게 하시며,
성령의 음성에 민감한 영혼으로 늘 주님의 인도하심
을 따라 살게 하소서.
나는 모든 냉담함과 영적 나태를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모든 계절 속에서도 제가 한결같이 주님의 길
위에 서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젊을 때든, 가정을 세우는 때든, 삶의 황혼에 이르러
서도
주님과 함께 걷는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소서.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 호흡을 다할 그날
"내가 너의 길을 지켰다"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음성

을 듣게 하소서.
저는 끝까지 주님을 따를 것을 선포하노라!
저는 바른 길 위에 설 것을 선포하노라!
저는 주님과 동행할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6
승리기도

마귀의 모든 유혹과 시험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의 승리로 덧입혀 주시기를 기도

1. 오늘도 유혹 앞에서 승리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조용히 그러나 집요하게 제 영혼을 미혹합니다.
화려함으로, 편안함으로, 욕망으로 저를 끊임없이 흔들며
죄의 문턱까지 이르게 합니다.
주님, 오늘도 제 앞에 놓인 수많은 유혹 가운데
제 눈이 어두워지지 않게 하소서.
순간의 쾌락에 진리를 팔지 않게 하시고,
잠깐의 만족을 위해 영원한 기쁨을 잃지 않게 하소서.
사탄은 제 약점을 너무 잘 압니다.
제 감정을 건드리고, 생각을 어지럽히며,
상황을 왜곡하여 죄로 이끄는 함정을 놓습니다.
나는 모든 영혼의 미혹과 사탄의 기만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주님, 저는 그 계략을 꿰뚫어 보게 하시고
주의 말씀의 검으로 대적하게 하소서.
"기록되었으되…" 주님께서 광야에서 말씀으로 승리하신 것처럼
저도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유혹을 이기게 하소

서.
성령님, 저의 마음을 지켜 주옵소서.
생각을 정결하게 하시고, 눈을 바르게 하시며,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제 발걸음을 거룩함 가운데 이끌어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의 시작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승리로 덧입혀 주시고,
어떤 시험이 와도 무너지지 않도록 하늘의 권세로 저를 붙들어 주옵소서.
저는 이 승리를 믿고 선포합니다.
나는 모든 유혹을 이길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할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이 하루를 승리로 지낼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 마귀의 속임수를 분별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악한 자는 늘 속임수로 다가옵니다.
진리처럼 보이지만 진리가 아니고,

사랑처럼 보이지만 이기심이며,
자유처럼 보이지만 결국 죄의 결박으로 이끕니다.
주님, 오늘도 마귀의 교묘한 계략이 제 삶에 스며들지 못하도록
성령의 지혜와 분별력을 부어 주옵소서.
겉모습이 그럴듯한 기회, 말로는 옳아 보이는 제안,
남들도 다 한다는 핑계 속에 숨어 있는 죄의 미끼를
꿰뚫어 보게 하소서.
나는 모든 거짓과 마귀의 속임수를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그 어떤 유익도 주님 앞에서 죄라면 단호히 거절하게 하시고,
사람의 칭찬보다 주님의 인정을 택하게 하소서.
시험은 고통스럽지만 그 안에 주님이 주시는 훈련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시험을 이길 때마다 제 믿음이 더 강해지는 줄 믿게 하소서.
사탄의 속삭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묵살하게 하시고,
오늘도 제 마음과 생각을 말씀과 기도로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유혹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기는 믿음을 주세요.
피하지 않고 대면하되, 두려워하지 않고 싸우되,
주님의 권능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나는 마귀의 모든 속임수를 간파할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지혜와 분별력으로 무장할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주님 앞에서 승리할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 영적 전쟁에서 끝까지 견디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제 영혼은 전쟁 중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끊임없이 유혹과 거짓이 저를 공격합니다.
무기력함, 미움, 질투, 낙심, 음란, 탐욕…
이 모든 것이 제 심령을 흔들며 믿음의 기초를 무너뜨리려 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 싸움은 혼자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싸우는 전쟁임을 믿습니다.
나는 모든 약함과 절망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주님, 오늘도 제가 가만히 있지 않게 하시고
전신 갑주를 입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적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게 하소서.
기도로 무릎을 꿇을 때 하늘의 군대가 저를 위해 싸우는 것을 보게 하시고,
찬양할 때 마귀가 도망치는 능력을 경험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제가 이길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승리를 오늘 제 삶에 선포합니다.
나는 주님의 승리로 덧입은 자입니다!
나는 싸우되 패하지 않을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유혹받되 무너지지 않을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시험을 지나며 더 단단해질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끝까지 견딜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 죄를 이기는 은혜를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는 달콤하게 다가와 제 마음을 슬며시 사로잡습니다.
생각을 타고 마음에 스며들고 마음에서 태어나 행동이 됩니다.
그렇게 저는 너무 자주 죄 앞에서 무기력하게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은 그 죄를 이기고 싶습니다.
아니, 죄를 이겨야만 합니다.
죄는 저를 죽음으로 이끄는 독이며,
주님과의 관계를 끊는 칼날임을 진심으로 깨닫게 하소서.
나는 모든 죄의 유혹과 미혹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 제 내면에 경고등이 켜질 수 있게 하시고
죄의 문 앞에서 도망치게 하시며
죄가 아름답게 보일 때 그 끝의 추악함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소서.
제가 유혹의 순간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게 하시고,

"이 죄 때문에 주님이 피 흘리셨다"는 사실 앞에
마음이 무너지고 회개가 터지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거룩은 선택이 아니라 순종의 길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은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함
을 고백합니다.
성령님, 제 안에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의로움과 거룩함을 사모하게 하소서.
죄를 이긴 자만이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음을 믿
고
오늘도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나는 죄를 이길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거룩함을 추구할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자유 속에 설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 예수님의 승리로 날마다 옷 입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의 승리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 승리는 단지 역사 속 사건이 아니라
오늘, 지금, 제 삶 속에 적용되길 원합니다.
주님, 제 스스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의 승리를 입을 때 유혹을 이기고,
시험을 지나며, 사탄의 공격 앞에 담대히 설 수 있음
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침을 열며 주님의 승리로 옷 입기를 원합니
다.
그 승리가 저의 생각을 덮고, 마음을 덮고,
입술과 발걸음까지도 보호하게 하소서.
어둠의 권세는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질병도, 불안도, 시험도, 사탄도 그 이름 앞에 물러갑
니다.
그 이름의 능력으로 저는 오늘 승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작은 유혹 앞에서도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사탄의 속임수 앞에서도 주의 말씀을 선포하며,
기도하는 무릎으로 하늘의 군대와 연결된 자로 서겠
습니다.
주님, 오늘도 승리를 선포합니다.
이 기도가 저의 선언이 되게 하시고,

이 선포가 삶으로 열매 맺게 하소서.
나는 주님의 승리로 옷 입을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모든 어둠을 이길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예수님 안에서 승리자가 될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7

강건기도

육체적, 정신적으로 강건하게 되어 모든 일이
평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

1. 제 몸과 마음을 강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제 몸과 마음이 지쳐 있음을 고백합니다.
생활의 무게, 감정의 소용돌이,
쌓여가는 책임과 의무 속에서 제 안에 피로가 가득합니다.
그러나 주님, 저는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십니다.
제 몸이 약해도 주님의 능력은 강건함을 공급하시기에 오늘도 기도합니다.
육체적인 연약함을 치유하여 주시고,
근육과 관절, 신경과 혈관, 숨 쉬는 호흡 하나까지
주님의 손으로 만져주시옵소서.
불면과 피로, 통증과 질병의 짐에서 자유케 하시고
건강한 에너지로 주어진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새 힘을 부어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정신적으로도 강건하게 하소서.
불안과 우울, 혼란과 스트레스에 눌리지 않게 하시고
생각의 방향이 항상 주님의 말씀을 향하게 하소서.
성령님, 제 마음을 지켜주시고
염려가 마음에 뿌리내리지 않게 하시며
언제나 평안과 감사가 저의 중심이 되게 하소서.

나는 모든 피로와 연약함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강하게 하시면 저는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몸과 마음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강건함으로 덧입혀 주소서.
나는 몸과 마음의 강건함으로 무장할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모든 일에 강건함으로 서 있을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 연약한 이 육체에 새 힘을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를 버티는 일이 점점 힘들어지는 날들이 있습니다.
몸은 무겁고, 일은 많고, 마음은 지쳐 있습니다.
주님, 육체가 연약하면 영혼도 쉽게 눌리게 되기에
이 시간 주님 앞에 육체의 강건함을 간구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제 몸 하나하나를 지으신 그 손으로
지금도 회복시키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세포마다, 뼈마다, 장기마다 주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소서.
제 몸이 주님의 성전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건강을 관리하게 하
시고,
게으름과 무절제를 멀리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피곤이 누적되지 않게 하시고,
휴식 속에서도 진짜 안식을 누리게 하시며,
자연을 통해 공급하시는 회복의 능력을 온몸으로 경
험하게 하소서.
또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이나 지체들에게도
하늘의 치유가 임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다시 일어나 주님을 섬기게 하소서.
나는 모든 피로와 질병의 영향력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연약한 육체에 날마다 새 힘을 더하사
주님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하소서.
제 몸의 세포 하나까지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로 회복
될 것을 믿습니다.

나는 육체의 강건함을 경험할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새 힘으로 충만할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건강한 육체로 주님을 섬길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 마음을 강건하게 하셔서 평안케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체의 피로보다 더 무거운 것은 마음의 눌림입니다.
겉으론 멀쩡해 보여도 속으론 무너지고 있는 사람들
을 주님은 아십니다.
오늘은 저의 마음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드립니다.
두려움, 염려, 분노, 자책…
그 모든 마음의 짐을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제 마음에 강한 의지와 담대한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상황에 눌리지 않게 하시며,
성령의 위로와 평안으로 가득 채워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강건한 마음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생

긴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 저의 시선을 언제나 주께 고정하게 하시고
믿음의 눈으로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 마음이 상하면 몸도 병들고 관계도 무너지며 삶이 어그러진다는 것을 경험했기에
먼저 이 마음을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모든 두려움과 염려를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으로 제 마음을 감싸 주시고,
깊은 내면에서부터 회복과 자유, 기쁨과 생명이 흘러나오게 하소서.
오늘도 주님의 평안이 저의 생각과 감정을 주장하게 하소서.
나는 마음의 강건함을 얻을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할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이겨낼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 일상의 모든 일에 강건함을 허락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일상의 반복입니다.
직장과 가정, 교회와 사회 속에서 수많은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데
가끔은 그 일상 자체가 큰 부담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주님, 오늘도 제가 맡은 일들 위에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집안일이든, 직장 일이든, 사역이든, 공부든,
그 무엇이든 불평 없이 감당할 수 있는 체력과 집중력,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주소서.
하나씩 마무리해 가는 과정 속에서 주님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일이 많아도 조급하지 않고, 복잡해도 지혜롭게 처리하며,
무거워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강건함을 더하여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일상이 주님과 동행하는 훈련의 장이 되게 하시고,
작은 일에도 정직하고 성실하게 반응하게 하소서.
그 강건함이 내 이름을 위한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충성으로 연결되게 하소서.
나는 모든 부담과 무거움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맡겨진 하루를 강건함으로 살아낼 수 있게 하소서.
각각의 일에 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고,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완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나는 모든 일에 강건함으로 임할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주님 나라를 위해 충성할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기쁨으로 일을 감당할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 강건함으로 평안을 누리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강건함은 단지 힘이 넘치는 상태가 아니라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며 주님의 평안을 누리는 상태임을 믿습니다.
몸이 아프지 않고, 마음이 무너지지 않으며,
영혼이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것이 진짜 강건함임을

알게 하소서.
주님, 오늘도 이 세 영역-몸, 마음, 영혼이 주님 안에서 온전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삶의 모든 방향을 정돈해 주시고
엉킨 생각들을 풀어 주시며
균형 잡힌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정을 절제하게 하시고 말을 삼가게 하시며
행동 하나하나가 주님의 사람답게 맑고 단단하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주의 평안이 흘러넘치게 하소서.
강건함은 곧 평안의 열매입니다.
나는 모든 불균형과 혼란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분주해도 흔들리지 않고, 문제가 있어도 무너지지 않으며
고난 중에도 노래할 수 있는 주님의 강건한 자가 되게 하소서.
주님 안에서 오늘도 평안하게 살겠습니다.
나는 몸과 마음, 영혼의 완전한 강건함을 누릴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주님의 평안 속에 거할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강건함으로 설 것을 선포하노라!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8
치유기도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치유하셔서 온전한
건강과 회복을 누리게 해 달라고 기도

1. 병든 육체 위에 주의 손을 얹어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제 육체가 연약함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알 수 없는 통증, 지속되는 피로,
질병의 이름이 붙은 진단서 앞에서 마음이 무너지고,
용기를 잃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는 오늘 그 어떤 약보다, 그 어떤 시술보다,
더 먼저 주님의 손을 갈망합니다.
주님, 병든 곳에 손을 얹어 주옵소서.
그 손은 죽은 자도 살리셨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으며,
나병 환자의 피부를 깨끗하게 하신 능력의 손인 줄 믿습니다.
나는 모든 절망과 무기력함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육체는 제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성전임을 다시 고백합니다.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무너지지 않도록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하늘의 치료의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의사의 손도, 약도, 시술도 도구일 뿐,

모든 치유의 근원은 오직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저의 몸을 주님 앞에 올려 드리오니
치유의 강이 흘러들게 하시고,
온 세포마다 주님의 생명력이 스며들게 하소서.
주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리하여 이 육체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도구가 되게 하소서.
나는 주님의 치유의 손을 경험할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완전히 회복될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 상한 마음을 치유하여 평안으로 이끄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체의 병보다 더 깊은 병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의 병입니다.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사람의 외면에 낙심하며,
과거의 아픔이 현재를 가로막고
보이지 않는 통증으로 삶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주님, 저의 상한 심령을 고쳐 주옵소서.
다른 사람은 모를지라도 주님은 제 마음 구석구석을 아시며
그 눈물의 의미를 아시는 줄 믿습니다.
거절당한 기억, 실패의 경험, 사랑받지 못했다는 상처,
외로움과 무가치함 속에서 움츠러든 마음을
주님, 품어 주시고 싸매어 주옵소서.
나는 모든 상처와 절망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사람은 위로하지 못할지라도 성령님은 깊은 위로의 영이시기에
지금 이 시간, 제 안에 임재하셔서 저를 껴안아 주옵소서.
말씀으로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평안을 회복하게 하시며
무너진 자존감과 상한 감정 위에 주의 긍휼과 사랑을 부어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의 영혼이 회복되게 하소서.
다시 웃게 하시고, 다시 감사하게 하시며, 다시 사랑하게 하소서.

나는 마음의 깊은 치유를 경험할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평안과 기쁨으로 회복될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사랑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날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 가족 중 병든 이를 고쳐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제 사랑하는 가족 중 누군가가 육체의 고통으로 병상에 있습니다.
그의 신음 소리는 저의 마음까지 찢어놓고,
도움이 되지 못하는 무력감은 기도 외엔 할 수 없음을 다시 깨닫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 그 기도 하나면 충분한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응답하시면 병은 물러가고,
주님이 손 대시면 절망은 회복으로 바뀝니다.
주님, 지금 병상에 누워 있는 그 영혼에게 하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옵소서.
몸의 세포가 살아나고, 신경과 장기들이 회복되며,
면역력과 체력이 다시 일어나게 하소서.
나는 모든 질병과 약함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치료받는 과정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함께하게 하시고
좋은 의료진, 좋은 환경, 좋은 타이밍을 허락하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소서.
또한, 돌보는 가족들에게도 지치지 않도록 힘을 주시고,
염려와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붙들 수 있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소서.
그리고 이 아픔의 시간이 가족 안에 더 깊은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심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나는 우리 가족의 온전한 회복을 선포하노라!
나는 주님의 치유 손이 임할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이 고난이 축복으로 바뀔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 만성적인 고통에서 자유케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짧은 고통은 견딜 수 있지만
끝이 보이지 않는 고통은 사람의 마음을 무너뜨립니다.
오랜 병, 반복되는 통증,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며
육체는 지치고 마음은 낙심되며 기도마저도 메말라 버릴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런 나날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이 기도의 자리에 나아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구합니다.
만성적인 통증, 병명조차 알기 힘든 상태,
의학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고통 속에 있는 이 육체를
주님의 손으로 자유케 하소서.
나는 모든 만성적 고통과 낙심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나아게 하시고, 고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 말씀이 오늘 제 삶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치유가 시작되게 하소서.
단지 통증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아픔이 간증이 되며 고통이 은혜로 바뀌는 역사를 허락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늘도 다시 믿고 기도합니다.
그 믿음 위에 기적이 임하게 하소서.
나는 만성적 고통에서 완전히 자유할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주님의 놀라운 치유를 경험할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회복된 건강함 속에서 주님을 증거할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 온 영과 혼과 몸이 온전해지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람은 단지 몸만으로 이루어진 존재가 아님을 고백합니다.
영과 혼과 몸이 균형을 이룰 때 비로소 참된 건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는 너무 오랫동안 몸만을 생각하거나,
영만을 강조하며 삶 전체의 조화를 놓쳤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온전함을 구합니다.

주님, 제 영혼이 먼저 깨어 있게 하소서.
주의 말씀에 민감하고 기도로 날마다 호흡하며
주의 뜻에 순종하는 거룩한 영혼으로 회복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제 마음이 새롭게 되게 하소서.
상처와 쓴뿌리를 제거하시고
용서와 자비, 사랑과 기쁨이 제 감정과 생각을 다스리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제 몸을 고쳐 주소서.
지속된 피로, 질병의 증상, 불균형한 습관들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건강한 리듬을 회복하게 하소서.

나는 모든 불균형과 분열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영·혼·육이 온전하게 세워질 때
제 삶 전체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온전한 회복을 오늘도 기대하며,
나는 영육간 완전한 회복을 경험할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몸과 마음과 영혼이 온전해질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주님의 온전한 회복의 기적을 증거할 것을 선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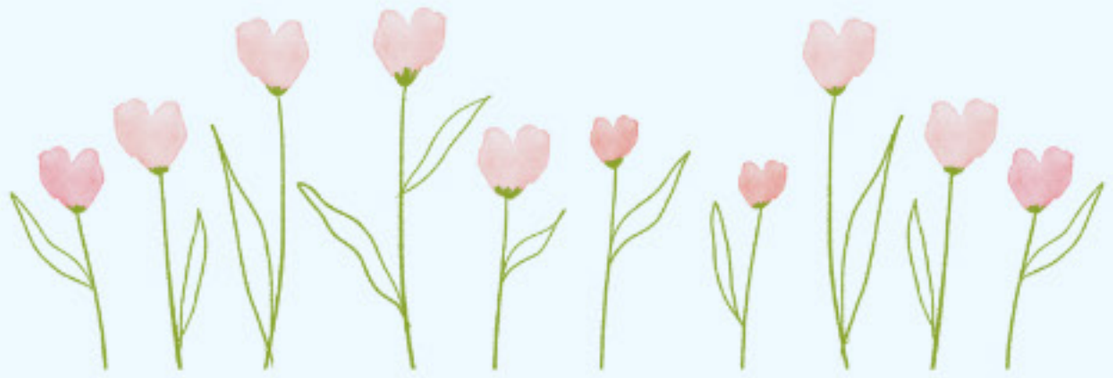
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9

의뢰기도

하나님께 모든 걱정과 염려를 맡기고, 그분의
의도와 계획을 신뢰하며 따를 수 있는 기도



1. 내 모든 염려를 맡깁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 마음에 가득한 염려를 주님의 발 앞에 내려 놓습니다.
생계에 대한 염려, 가족의 미래에 대한 불안,
내 안에 도무지 풀리지 않는 수많은 문제들로 인해
제 영혼은 눌리고, 지쳐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 모든 것을 붙잡고 있으면 저는 더욱 무너지고 맙니다.
그래서 오늘은 결단합니다.
이 짐들을 제 힘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고 주님께 맡깁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 말씀을 믿고, 하나씩, 하나씩,
마음 깊은 곳의 걱정까지도 다 드러내어 주님께 드립니다.
나는 모든 염려와 두려움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염려가 제 삶을 삼키지 못하도록 믿음으로 싸우게 하시고,
불안이 마음을 붙잡기 전에 주님의 평안이 임하게 하

소서.
제가 손 놓을 때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고,
제가 잠잠할 때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는 것을 경험하게 하소서.
이제는 제 인생의 주도권을 완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뜻이라면 멈추겠습니다.
주님 음성이라면 따르겠습니다.
제 삶의 모든 부분 위에 주님의 완전하신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나는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길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주님의 돌보심을 신뢰할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평안 속에서 의뢰할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 제 계획보다 주님의 뜻을 신뢰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는 나름의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이 잘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인생은 제 뜻대로 흘러가지 않고

때로는 전혀 예상치 못한 길로 저를 데려가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저는 혼란스러워하고, 낙심하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조차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이 기도에서 저는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의 뜻이 제 계획보다 완전합니다."
주님은 처음과 끝을 다 아시는 분이시고,
지금 이 순간도 주님의 섭리 안에서 모든 것이 움직이고 있음을 믿습니다.
나는 모든 자기 계획과 자기 의지를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제가 보기에 막힌 길도 주님 보시기엔 가장 안전한 길일 수 있고,
제가 포기하고 싶은 상황도 주님의 계획에는 기적의 시작일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 제 계획이 무너질 때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문이 닫힐 때 새로운 문을 기대하게 하소서.
내가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주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게 하시고,
내가 원하던 대로 되지 않아도 결국 주님의 길이 최선이었음을 고백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온전히 주님을 의뢰하게 하소서.
나는 주님의 계획을 완전히 신뢰할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주님의 선하심을 고백할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주님의 길이 최선임을 증거할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 흔들리는 현실 앞에서 믿음으로 걷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요즘 제 삶은 너무나 많은 불확실성 속에 있습니다.
경제의 불안정함, 삶의 여러 갈등, 예측할 수 없는 문제들 속에서
제 마음은 자주 흔들립니다.
그럴수록 저는 눈에 보이는 것에 의지하려 하고,
내 손으로 뭔가를 붙잡으려 하지만
결국 그것은 더욱 큰 혼란으로 저를 몰아넣을 뿐임을 깨닫습니다.
주님, 이 흔들리는 현실 속에서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자가 되게 하소서.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주님의 손길을 신뢰하게 하시고,
결과가 아닌 과정을 믿음으로 걷게 하소서.
나는 모든 불확실성과 두려움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서도 뒤따라오는 애굽의 군대 앞에서도
주님의 구원을 믿고 순종했던 것처럼
저도 주님의 기적을 신뢰하며 오늘 이 현실 앞에 믿음으로 서겠습니다.
주님이 앞서 가신다면 저는 따르겠습니다.
주님이 멈추라 하신다면 기꺼이 멈추겠습니다.
흔들릴수록, 더욱 주님을 붙들게 하소서.
불확실할수록, 더욱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제 발걸음이 믿음 위에 놓이게 하시고
하루하루가 주님께 의뢰하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나는 보이지 않는 주님을 신뢰할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믿음으로 현실을 이겨낼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주님 안에서 굳게 설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 결과보다 주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는 늘 결과에 집착합니다.
기도의 응답이 오지 않으면 마음이 불안하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듯 느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기도를 통해 다시 마음을 바로잡기 원합니다.
주님, 저는 결과가 아니라 주님 자신을 신뢰하겠습니다.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주님이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주님이 여전히 선하시며
저를 사랑하신다는 진리를 붙들게 하소서.
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집착과 의존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제가 원하는 방식이 아닐지라도
주님은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엎드려 기도하며 응답이 없어도,
길이 보이지 않아도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소서.

주님, 제 기도의 방향을 바꿔주세요.
"이걸 주세요"에서 "주님 뜻대로 하소서"로 바뀌게 하시고,
"이걸 하게 해주세요"에서 "주님이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로 바꾸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기도하는 이유가 내 뜻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임을 언제나 기억하게 하소서.

주님, 결과보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소서.
나는 결과가 아닌 주님을 신뢰할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응답이 없어도 기도할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주님 자신을 사모할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 전심으로 주님께 의지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의지한다는 것은 내 손을 놓는 것입니다.
내 경험, 내 판단, 내 계획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뜻에 따라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 고백은 쉽지만 삶으로 살아내기는 어렵기에 오늘도 다시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전심으로 주님을 의지하게 하소서.
두 마음을 품지 않게 하시고,
한 손으로 세상을 잡고 한 손으로 주님을 붙들려 하지 않게 하소서.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이 말씀을 오늘 저의 삶의 좌표로 삼고
생각보다, 감정보다, 주님의 음성을 더 신뢰하게 하소서.
나는 모든 이중 의존과 불완전한 신뢰를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어떤 일이 생기든 주님께 먼저 여쭈어보게 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지체 없이 순종할 수 있는 온전한 마음을 주옵소서.
의뢰는 결국 사랑과 신뢰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기에
오늘도 주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있게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도 제 마음을 아시는
친밀한 의탁의 관계 안에 살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내일을 걱정하지 않고 오늘을 감사하게 하시고,
주님을 신뢰하며 담대히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나는 전심으로 주님을 의지할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두 마음을 품지 않을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주님과 친밀한 의탁의 관계 속에 살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60
재정기도

하나님께서 재정적으로 필요한 것을 채워 주시고,
재정의 관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는 기도

1.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 제 재정을 맡깁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제 삶의 실제적인 부분인 재정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주님, 저는 지금 생활비, 월세, 자녀 교육비, 채무, 예기치 못한 의료비와 같은 여러 가지 현실적인 필요 속에서
마음이 눌리고, 염려로 가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기도를 통해 제가 붙들어야 할 분은 돈이 아니라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제 모든 필요를 아시며, 이미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저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나는 모든 재정 염려와 불안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셨던 하나님,
사르밧 과부의 가루통을 채워주신 하나님,
오병이어로 수천 명을 먹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심을 믿고
제 가정의 재정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부족함이 아니라, 주님의 공급하심으로 말미암아

넉넉함을 누리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살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주님이 준비하신 방법으로
가장 좋은 때에 공급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필요할 때마다 하늘의 창고를 여시고
신실하게 채우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공급 위에 완전히 의지할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감사함으로 풍성함을 누릴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주님의 신실하신 돌보심을 경험할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 재정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관리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재정은 단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 믿음의 문제임을 오늘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 지금 제게 주어진 재정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

는지
정직하게 성찰하게 하소서.
낭비하고 있지는 않은지, 탐욕으로 사로잡혀 있지는 않은지,
불필요한 소비로 인해 정작 나눔과 헌신의 기회를 놓치고 있진 않은지
돌아보게 하소서.
나는 모든 탐욕과 낭비를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제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는 단지 청지기일 뿐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에 맞게 분별력 있게 재정을 관리하게 하소서.
매달의 수입과 지출 가운데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게 하시고
무엇보다 주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신뢰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재정의 흐름 속에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저의 지출과 저축, 나눔과 섬김이 복음의 열매를 맺는 도구가 되게 하소서.

재정을 다루는 방식 안에서도 예배가 흐르게 하소서.
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지혜롭게 관리할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청지기의 책임을 다할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재정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 부요함보다 주님의 임재를 더 사모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부자가 되라고 말하고,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높이 올라가야 성공이라고 외치지만
주님, 저는 부요함보다 주님의 임재를 더 사모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물질이 곧 능력이 되어버린 시대 속에서
제 마음이 돈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돈보다 더 신뢰하는 삶의 중심을 붙들게 하소서.
물질은 도구일 뿐이며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나는 모든 물질주의와 탐욕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제가 가진 것이 적어도 주님이 함께하시면 풍성합니다.
반대로 아무리 많이 가져도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공허할 뿐임을 깨닫게 하소서.
욕심이 제 삶을 끌고 가지 않게 하시고
감사와 만족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하시며
재물을 추구하기보다 주님을 추구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주님,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들은 부족하지 않게 채워주시고
또한 남을 도울 수 있을 만큼의 여유도 허락하여 주소서.
무엇보다 부유한 마음, 풍성한 믿음, 후한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나는 주님의 임재를 최고의 부요함으로 누릴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감사와 만족 속에 살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주님을 가장 귀한 것으로 사모할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 재정의 시험에서 믿음을 지키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재정은 때로 시험이 됩니다.
돈이 없을 때 믿음이 흔들리고, 돈이 많아질 때 교만이 스며듭니다.
주님, 저는 그 어느 때에도 재정의 시험에서 믿음을 잃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불평보다 감사하게 하시고
부족할수록 더 기도하게 하시며
넘칠 때는 더욱 겸손하게 하소서.
나는 모든 탐욕과 교만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 물질로 인해 사람과의 관계가 어그러지지 않게 하시고
돈의 유혹 앞에서도 정직과 청결을 지키게 하소서.
불의한 재물의 길이 열려 보여도 그 문을 스스로 닫게 하시고,
힘들고 좁은 길일지라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

택하게 하소서.
물질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거짓 없이 살게 하시고, 빚지지 않고 살게 하시며,
주님 앞에 떳떳한 삶을 살게 하소서.
주님, 저를 테스트하시는 이 시즌을 믿음으로 통과하게 하시고
훈련의 시간으로 삼아 성숙한 청지기가 되게 하소서.
나는 어떤 시험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정직과 청결 속에 살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성숙한 신앙의 청지기가 될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 나눔과 복음의 통로가 되는 재정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기도를 통해 제가 받기만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주는 기쁨을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게 주신 재정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이웃을 위한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재정을 통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가난한 자를 돌보게 하시고, 사역자를 후원하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는 기초가 되게 하소서.
나는 모든 이기주의와 탐욕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작은 정성일지라도 주님은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렙돈을 드린 과부처럼, 자기 것을 다 드리는 헌신을 저도 배우게 하소서.
주님, 나눌 수 있을 만큼 넉넉하게 채워주시되
채움의 이유가 '섬김'이 되게 하소서.
제 삶이 통로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재정이 머무는 곳마다 예수님의 사랑이 흐르게 하시고,
제가 쓰는 돈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후한 자, 나누는 자, 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소서.
나는 나눔과 헌신의 기쁨을 알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복음의 통로가 될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하나님 나라 확장의 도구로 쓰임받을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61

열정기도

하나님의 일에 대한 열정을 주셔서 지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에 충실히
따를 수 있는 기도

1. 처음 부르셨던 그 감격을 회복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처음 주님께서 저를 부르셨던 그 순간을 이 시간 다시 떠올립니다.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고,
내 모든 것을 드리고도 부족하지 않을 만큼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으로 가득했던 그날,
그 감격이 지금도 살아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시간이 지나면서 바쁨 속에 열정을 잃고,
실망 속에 마음이 식고, 사람의 말과 환경에 지치며
처음의 그 뜨거움을 잃어버렸습니다.
나는 모든 식어버린 열정과 잃어버린 감격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 엎드려 다시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다시 처음의 순전함으로 돌아가게 하소서.
다시, "주님이라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라고 말했던
그 고백이 심령 깊은 곳에서 솟아나게 하소서.
성령님, 제 안에 잠들어 있던 사명의 불꽃을 다시 일

으켜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주님의 눈빛만을 따라 달려갈 수 있는 열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 이 손과 발, 입과 마음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이게 하시고,
한 생명이라도 더 살리는 데 기꺼이 들여지게 하소서.
나는 처음의 열정과 감격으로 다시 불태워질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처음처럼 주님을 사랑할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다시 헌신의 불을 태울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 성령의 불로 지친 심령을 다시 살려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때는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며 기쁨으로 섬겼지만,
언젠가부터 지치고, 의무감으로만 움직이고 있는 제

모습을 봅니다.
주님, 열정이 사라지고 루틴이 되어버린 신앙의 자리에
성령의 불을 다시 부어 주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흐르던 그 은혜를
말씀을 읽을 때마다 심령이 떨리던 그 감동을 다시 되살려 주옵소서.
나는 모든 영적 피로와 의무감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 제 안에 지치지 않는 에너지를 부어 주소서.
사역에 파묻혀 주님을 잊는 것이 아니라,
사역 속에서 더욱 주님을 깊이 만나는 거룩한 불씨가 살아나게 하소서.
피곤할수록 무릎을 꿇게 하시고,
실망할수록 주님의 음성을 더 간절히 구하게 하시며,
사람이 아닌 주님으로부터 새 힘을 얻는 법을 배우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열정은 성령의 선물입니다.
그 열정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늘의 기름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의 심령 위에 하늘의 불을 내려주소

서.
지쳐 있는 심령이 깨어나고,
다시 주님의 일을 감당할 힘이 솟아나게 하소서.
나는 성령의 불로 다시 살아날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거룩한 열정으로 충만할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사명 속에서 주님을 만날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사명을 따라가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제게 주신 사명이 분명히 있음에도
현실의 벽 앞에서 마음이 자주 흔들립니다.
재정의 부족, 건강의 문제, 사람들과의 오해,
때로는 성과 없는 사역 속에서 의욕이 꺾이고 지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 사명은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감당하는 것임을 오늘 다시 고백합니다.
나는 모든 상황의 벽과 절망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의 눈을 사명에서 떼지 않게 하시고,

그 부르심의 영광을 잊지 않게 하소서.
열정은 변할 수 있지만 부르신 주님은 변하지 않기에
오늘도 순종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환경에 휘둘리지 않는 강한 심령을 주시고,
다른 이들의 반응에 얽매이지 않는 담대한 열정을 허락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조용히 격려해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야 할 이유를 매일 새롭게 알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내가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한 주님은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나는 상황을 이기고 사명을 따를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환경에 굴하지 않을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담대하게 주님의 길을 갈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 나를 통해 세상이 변화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어둡고 혼란스러우며 진리 없이 방황하는 영혼들로 가득합니다.
그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이 시간 제 안에 부어주소서.
주님, 세상을 향한 거룩한 열정이 제 심령을 사로잡게 하시고
눈앞에 보이는 편안함보다 보이지 않는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기꺼이 헌신하게 하소서.
나는 모든 이기심과 안락함의 욕망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의 기도로 도시가 변화되고,
한 사람의 열정으로 가정이 살아나며,
한 사람의 순종으로 민족이 회복되었음을
성경을 통해, 역사를 통해 보았습니다.
그 '한 사람'이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거창한 일이 아니더라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작은 자리에서
뜨거운 마음으로 섬기게 하시고,
진심으로 말하게 하시며, 진리를 전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을 통해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내 열정의 중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소서.
주님, 이 세상을 변화시킬 열정으로 저를 다시 불태워 주옵소서.
나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도구가 될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영혼 구원의 열정으로 살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한 생명을 위해 헌신할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 끝까지 충성하는 자로 살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신앙의 여정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끝까지'라는 단어입니다.
시작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끝까지 가는 사람은 많지 않음을
삶을 통해 배워왔습니다.
주님, 저는 끝까지 가기를 원합니다.
그 길이 좁고, 험하고, 고독하고 눈물겨워도
끝까지 주님의 부르심에 충성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모든 나약함과 포기하려는 마음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열정은 한순간의 불꽃이 아니라 지속적인 불이어야 하기에
주님, 매일 성령의 기름을 제 안에 부어주소서.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고,
말씀의 감동이 메마르지 않게 하시며,
헌신의 결단이 흐려지지 않게 하소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결과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님이 보신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루하루 충성하며, 매일매일 열정을 담아
주님 앞에 살아가게 하시고
마지막 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음성을 듣는 자가 되게 하소서.
끝까지, 주님과 함께 열정으로 걷게 하소서.
나는 끝까지 충성할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지속적인 열정으로 살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마지막까지 주님을 따를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62

용기기도

어려움과 도전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도

1. 두려움보다 믿음을 선택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제 앞에 놓인 문제들은 커 보이고, 제 자신은 너무 작게만 느껴집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두려움이 아닌 믿음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상황이 어렵고 앞이 보이지 않아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그 약속을 붙들게 하소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말씀이 오늘 저의 방패가 되게 하시고,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 음성이 저를 붙들어 일으키게 하소서.
나는 모든 두려움과 절망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두려움이 몰려올 때 그 앞에 무릎 꿇지 않게 하시고,
도망치기보다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소서.
주님, 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는 할 수 없다"는
절망이 들려올 때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담대한 믿음으로
응답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 믿음의 담대함을 부어주시고
주저하지 않는 발걸음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순종으로 걸어가게 하소서.
나는 두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할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주님의 동행을 신뢰할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담대하게 나아갈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 거절과 실패 앞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의 평가에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거절당하고, 실패하고, 노력한 만큼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
자존감이 흔들리고 담대함이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이 기도의 자리에서 다시 고백합니다.
사람이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셨고

주님 안에서 나는 실패자가 아님을 믿습니다.
나는 모든 거절감과 실패의식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거절당했지만 주님께는 받아들여졌고,
넘어졌지만 주님은 여전히 저를 일으키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사람의 말보다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세상의 기준보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제 정체성을 세우게 하소서.
주님, 저를 다시 담대하게 하소서. 도전할 용기를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의 뿌리를 제 안에 내려주소서.
실패는 끝이 아니라 성숙을 향한 훈련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거절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라는 초대임을 알게 하소서.
주님, 다시 용기를 내겠습니다.
나는 실패를 극복할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다시 도전할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주님 안에서 강해질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 말씀이 담대함의 근원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끊임없이 불안을 심고, 문제는 거대하게 보이는데
제 마음은 자주 흔들리고 무너집니다.
그러나 오늘도 변하지 않는 말씀 앞에 서며 저는 담대함을 되찾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들이 오늘 저의 가슴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삶의 근거가 되게 하소서.
나는 모든 불안과 절망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저를 붙들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그 말씀이 들리게 하시며,
결정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선택을 하게 하소서.

주님, 상황은 바뀌지 않아도 말씀이 살아 역사하면
저는 능히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펴는 손이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묵상하는 마음이 식지 않게 하시며
말씀으로 충만해진 자가 세상 앞에 담대히 서는 것을
보여주소서.
성경 속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말씀을 따라 승리했
던 것처럼
저도 말씀 위에 세워진 자로 주님의 길을 걷게 하소
서.
나는 말씀으로 무장할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말씀 위에 설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말씀으로 담대해질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시선, 사람의 말, 사람의 평가에 얽매여
제 마음이 작아질 때가 많습니다.

사람이 무서워 해야 할 말을 하지 못하고,
해야 할 일을 주저하며 하나님의 뜻을 외면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모든 사람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기준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사람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칭찬을 더 사모하게 하소서.
베드로가 사람 앞에서 주님을 세 번 부인했지만
성령 충만 이후에는 죽음을 무릅쓰고도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저도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리 속에 섞이지 않고, 진리를 지키며,
소리 높여 주님의 이름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를 세워 주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모든 담대함의 근원이 됨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세상 앞에 당당히 서게 하소서.
나는 하나님만 두려워할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진리 위에 설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담대하게 증거할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 모든 상황 속에서 담대함을 잃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삶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움이 아닌 담대함으로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고난이 와도, 불확실한 내일이 기다려도
제 발걸음이 멈추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명하신 사명의 길을 꾸준히 걸어가게 하소서.
모든 상황이 말하길 "안 된다" 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선택하게 하소서.
나는 모든 절망과 포기하려는 마음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광야의 백성이 불평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다" 고백했듯이
오늘도 그 고백이 제 입에서 터져나오게 하소서.

주님, 제가 가야 할 길에 험한 골짜기나 높은 언덕이 있어도
주님의 손을 붙잡고 두려움 없이 걷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담대함은 상황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가까이 하며 그 친밀함에서 거룩한 용기가 솟아나게 하소서.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할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주님과의 친밀함을 지킬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모든 상황을 이기고 나아갈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63
수호기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 일터에서
보호하시고 수호해 주셔서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지켜주시길 바라는 기도

1. 우리의 가정을 주님의 날개 아래 숨기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장 먼저 주님께 우리의 가정을 올려드립니다.
이 가정은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시작된 은혜의 집입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날 가정을 공격하는 세상의 문화,
무너진 질서, 서로를 향한 상처와 오해들이
이 거룩한 울타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가정 위에 당신의 강한 날개를 펼쳐주소서.
나는 모든 악한 영의 공격과 파괴를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끊임없이 가정을 무너뜨리려는
악한 영의 역사로부터 우리의 마음과 생각, 관계를
지켜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영혼을 지켜주소서.
거짓된 가르침, 혼란한 가치관, 음란과 폭력의 영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주님의 천군천사를 보내어 밤낮으로 둘러진 진을 치
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부의 마음이 서로를 향하게 하시고
부모의 기도가 자녀를 감싸며
예배가 살아 숨 쉬는 거룩한 장소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가정을 수호해 주십시오.
이 땅이 아무리 악해져도 가정에서 말씀과 사랑이 살아 있다면
그 민족은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나는 우리 가정이 주님의 이름으로 안전할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평강으로 다스려질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모든 악한 영들이 떠나갈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 교회를 향한 악한 계획들을 꺾어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위하여 오늘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교회는 이 세상의 희망이며
어둠 속에 빛을 비추는 등대입니다.
그러기에 사탄은 교회를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분열시키며 무너뜨리려 합니다.
주님, 이 시간 교회 위에 하늘의 불성을 쌓아주소서.
나는 모든 분열과 파괴의 영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보이지 않는 악한 세력들이 주의 교회를 흔들지 못하도록
하늘의 권능으로 성전을 지켜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영, 찬양을 흐리게 하는 영,
말씀을 흐리게 만드는 영,
공동체를 이간질하는 비방과 수근거림의 영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단 위에 선 주의 종들을 보호하시고,
진리만을 전하게 하시며
거룩한 분별력과 지혜로 양떼들을 바르게 인도하게 하소서.
성도들 간의 관계 위에 화평의 영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능력으로
교회가 하나 되어 복음과 기도, 사랑으로 굳게 서게 하소서.
나는 교회가 보호받을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성도들이 하나 될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주님의 이름이 높임받을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 일터 위에 하늘의 보호막을 세워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은 우리의 일터와 생업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일터는 단순히 돈을 버는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에서 빛을 발하는 사명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세상 속 일터는 정직이 조롱당하고,
불의가 판치며, 경쟁과 스트레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주님, 제 일터에 주의 손을 얹어 주옵소서.
나는 모든 불의와 악한 분위기를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거짓과 음모, 불의와 부당한 공격들로부터 저를 보호하시고
동료들과의 관계 안에 은혜와 화평이 흐르게 하소서.

불필요한 실수와 사고로부터 보호하시고,
상사의 부당한 질책이나 동료의 모함에도
주님의 지혜로 온유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담대한 심령을 부어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악한 영향력, 음란한 분위기, 타협을 강요하는 문화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주님의 강한 팔로 감싸주소서.

제 손으로 하는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작은 일이라도 정직하게,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루하루를 이끌어 주소서.
나는 일터에서 보호받을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믿음을 지킬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정직과 성실 속에 일할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 악한 자의 계획이 우리 삶을 넘보지 못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악한 자는 우리를 무너뜨리려
끝없이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우는 사자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하셨듯이
사탄은 우리의 틈을 노리고 관계, 건강, 재정, 자녀, 믿음을 공격합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모든 계략 앞에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보호하신다!"
나는 모든 악한 계획과 사탄의 속임수를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제 삶의 모든 영역에 보혈의 담을 세워 주시고,
악한 자가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시며
모든 간계와 속임수는 미리 끊어주시고 꺾어주소서.
우연인 줄 알았던 사고, 작은 유혹인 줄 알았던 죄,
익숙한 사람을 통해 들어오는 미혹도
성령님께서 조명하여 단호히 대적하게 하시고
주님의 보호 아래 피할 길을 열어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지켜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어느 순간
이라도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압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 편이시라면 우리는 결코 패하지 않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루의 시작과 끝을 주님의 수호 아래 두며
주님의 능력으로 평안을 누리게 하소서.
나는 모든 악한 자의 계획을 이겨낼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보혈 아래 안전할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주님의 보호 아래 평안할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 우리의 삶 전체에 천군천사를 보내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 저는 오직 주님의 보호를 구합니다.
저의 능력이나 계산, 준비로는 이 시대의 악한 세력들 앞에
제 가정과 교회, 일터를 온전히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하늘의 군대, 주의 천군천사를 보내셔서
우리의 삶 전 영역을 지켜주시옵소서.
나는 모든 약함과 부족함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밤낮으로 지키시는 자,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이
문설주에 피를 바른 이스라엘처럼
우리의 삶에 주님의 보혈을 덧입히시고
그 어떤 사망의 권세도 건드리지 못하게 하소서.
여러 가지 사고, 질병, 공격, 저주, 불의와 악한 마음
들,
미혹과 영적 나태함으로부터 우리를 철저히 보호하
시고
기름부음이 떠나지 않게 하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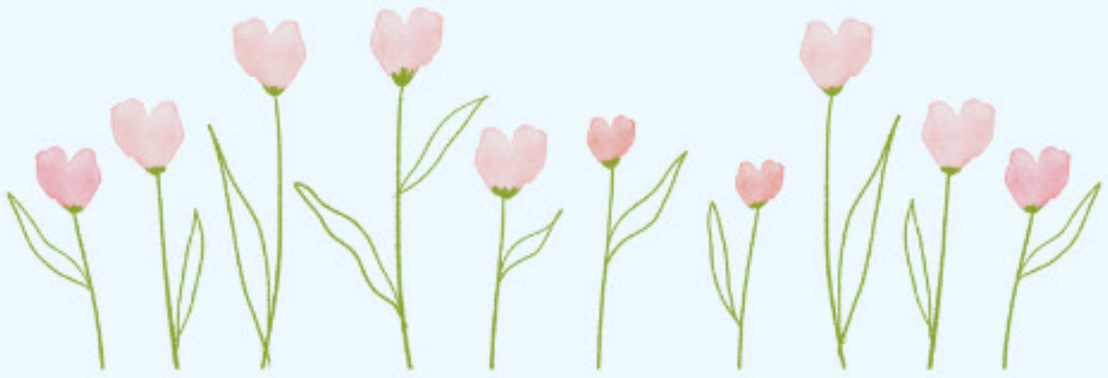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발걸음마다 천사가 앞서가며 인도하게 하시
고,
위기의 순간마다 성령께서 내적 음성으로 경고하시
며
가장 선한 길로 피하게 하소서.
오늘도 하늘의 보호가 내게, 내 가족에게, 교회 공동
체 위에 온전히 임하게 하소서.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는 그 약속을 오늘
도 신뢰하며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나는 천군천사의 보호를 받을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보혈의 안전 안에 있을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모든 영역에서 보호받을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64
결혼기도

결혼 생활에서 하나님 중심의 사랑이 넘쳐나게
하시고,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기도



1. 우리 부부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부부로 한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며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사랑보다 책임이 앞서고,
설렘보다 의무감이 커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순간에 우리 부부의 중심에 주님이 계시게 하소서.
나는 모든 의무감과 식어버린 사랑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말 속에 주님의 사랑이 흐르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 속에 말씀의 기준이 뿌리내리게 하시며
우리의 감정 속에 성령의 인내와 극률이 거하게 하소서.
아내의 말에 귀 기울이는 남편이 되게 하시고,
남편의 마음을 이해하는 아내가 되게 하시며
서로가 서로의 기쁨이자 안식처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는 다르기에 부딪히지만

다름 속에서도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게 하소서.
우리의 결혼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서로를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하소서.
나는 우리 부부 안에 주님을 모실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주님의 사랑으로 배우자를 사랑할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영혼의 짝으로 함께 나아갈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 배우자에게 먼저 사랑을 선택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부 관계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다가 실망하거나
상처받는 일이 생길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은 닫히고, 말은 날카로워지며,
사랑보다는 감정이 앞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이 기도를 통해
제가 먼저 사랑을 선택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모든 상처와 실망감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먼저 사랑하셨듯이,
내 배우자에게도 기다리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안아주는 사랑을 행하게 하소서.
상처받지 않으려 움츠러들기보다 사랑으로 다가가게 하시고,
기대하기보다 주는 기쁨을 먼저 누리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배우자의 연약함을 정죄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기도로 감싸 안게 하소서.
오늘도 배우자를 위해 중보하며, 사랑으로 말하고 행동하며
작은 것에서부터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소서.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결단임을 믿습니다.
나는 배우자에게 사랑을 먼저 선택할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섬길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주님의 성품을 닮아갈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하는 부부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부가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서로를 깊이 알게 되는 것이고
때로는 그 깊이만큼 더 많이 부딪히고 상처받는 것이기도 합니다.
주님, 저희 부부에게 용납과 용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소서.
상처받았던 말들, 무시당한 감정들, 기대에 못 미쳤던 행동들 앞에서
원망하고 마음을 닫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눈물로 풀어내며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소서.
나는 모든 원망과 마음의 담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내 입술로 "괜찮다"고 말하면서 마음 깊은 곳에 쌓아두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의 진실을 만져주셔서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게 하소서.
주님, 서로의 연약함을 볼 때 실망하기보다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비난하기보다 품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용서를 기억하며 나도 용서받은 자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은혜로 배우자를 품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 안에서 회복과 화해의 능력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나는 배우자를 온전히 용서할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상처 위에 사랑을 덮을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화해의 능력을 경험할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터전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결혼은 단지 둘이 행복하게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이루는 하늘의 연합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결혼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사명의 기반이 되게 하소서.

가정 안에 말씀과 기도가 살아 있게 하시고
아이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며
이웃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작은 교회가 되게 하소서.
나는 모든 이기주의와 세상의 가치관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물질이 아니라 믿음으로, 자랑이 아니라 섬김으로
우리 가정을 세워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앞에 날마다 순종하게 하소서.
가정 안의 작은 결정 하나에도 기도와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시고
우리 부부가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일을 함께 이루어가는 동역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하는 대화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담기게 하시고,
우리가 쓰는 시간과 재정 안에도 주의 영광이 흐르게 하소서.
우리의 결혼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나는 가정이 주님의 나라를 확장할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부부가 동역자가 될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우리 가정이 선한 영향력이 될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 성령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결혼 생활은 날마다의 선택이고
하루하루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쉽게 지치고 식어버리는 줄 압니다.
그러나 성령님, 오늘도 저희 부부의 삶에 깊이 개입해 주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 감정과 생각 속에 살아 계셔서 역사해 주소서.
주님, 날마다 기도의 자리에서 부부가 함께 엎드리게 하시고
기도가 우리 가정을 지키는 방패가 되게 하소서.
나는 모든 피로와 식어버린 감정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부부가 함께 웃고, 서로를 위해 축복하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 감사로 안아주는
하나님 중심의 사랑이 계속 흐르게 하소서.
성령님, 상한 감정을 만져주시고
지친 마음에 새 힘을 주시며
우리 안에 매일매일 처음의 사랑을 새롭게 불붙여 주
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이 결혼을 흔들려 해도
우리는 말씀 위에 세워진 반석 같은 가정으로 살아가
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 가정에 주님이 계시고,
그 사랑이 흐르며, 그 은혜가 넘치게 하소서.
나는 날마다 새로워질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성령 충만 속에 살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처음의 사랑을 지켜낼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65
긍정기도

모든 상황에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극복하게
해 달라는 기도

1. 내 마음의 시선을 밝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는 종종 눈앞의 현실만을 바라보며 불평하고,
낙심하며, 삶의 무게에 눌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이 기도 가운데
제 마음의 시선을 세상이 아닌 주님께로 돌리기를 원합니다.
빛이신 주님, 제 내면의 어둠을 밝히시고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 스스로 만든 한계들을
말씀의 진리로 깨뜨려 주소서.
나는 모든 부정적 사고와 어둠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하셨으니
지금의 이 상황도 결국은 나를 위한 주님의 계획임을 믿습니다.
성령님, 제 안에 긍정의 영을 부어주소서.
감사할 줄 아는 마음, 기대를 품는 시선,
가능성을 보는 믿음을 허락하소서.
작은 일 속에서도 기쁨을 발견하게 하시고
사람들 속에서 선한 것을 먼저 보게 하시며
제 자신의 부족함보다 하나님의 가능성을 먼저 바라

보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날마다 긍정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제 삶을 통하여 주님의 빛이 드러나게 하소서.
나는 밝은 마음으로 나아갈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가능성을 보며 살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주님의 빛이 될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 낙심의 감정을 이기고 기쁨을 선택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삶을 살아가며 크고 작은 문제들 앞에
때로는 마음이 낙심되고, 감정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라는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르고 제 삶 전체를 어둡게 물들이곤 합니다.
그러나 주님, 그 어둠을 이길 수 있는 힘은
환경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믿음 안에 있음을 믿습

니다.
나는 모든 낙심과 부정의 감정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 낙심을 몰아내고 내 안에 기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이 제 감정을 다스리게 하시고
감정에 끌려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부정적인 말이 입에 오르기 전에 감사의 고백이 먼저 나오게 하시고
실망의 눈물보다 믿음의 눈물로 주님을 찾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쁨은 조건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믿음에서 오는 것임을 믿고
오늘도 그 기쁨을 선택하게 하소서.
나는 감정을 극복할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기쁨을 선택할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주님 안의 평안을 누릴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의 눈을 갖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는 종종 주신 것보다 가지지 못한 것에 초점을 맞추며
감사를 잃어버린 채 살아갑니다.
하지만 주님, 감사는 긍정의 문을 여는 열쇠이며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가는 가장 단순하고도 위대한 믿음의 고백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아침,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주님께서 날마다 베푸시는 은혜를 새롭게 깨닫게 하소서.
나는 모든 불만족과 비교의식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내가 기대한 방식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옳으며
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이유는 반드시 있음을 보게 하소서.
감사를 잃으면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보이지만,
감사를 회복하면 어둠 속에서도 빛이 보이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제가 감사를 선택할 때
제 마음의 색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고, 삶의 분위기가 바뀌게 하소서.
오늘도 주님의 손길에 감사로 반응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나는 감사의 마음을 지킬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축복을 볼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감사 속에서 변화될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 생각을 새롭게 하셔서 긍정의 사람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고
생각이 곧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줄 압니다.
그러나 저는 자주 불신과 두려움, 원망과 비교 속에서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올바른 길을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제 생각을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빛으로 제 마음을 비추시고
염려와 걱정 대신 소망과 믿음이 자라게 하소서.
나는 모든 부정적 사고와 자기 한계를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생각을 무장하게 하시고
부정적인 사고방식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교체되게 하소서.
"무엇이든지 참되며, 경건하며, 사랑받을 만한 것을 생각하라" 하셨듯
생명의 생각, 긍정의 생각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는 제 생각을 통제할 수 없지만
성령님은 저의 생각을 지배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긍정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해석하며 축복의 길을 걷게 하소서.
나는 생각을 갱신할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긍정의 사람이 될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새로운 마음으로 살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 부정적인 분위기 속에서도 빛을 발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점점 더 어둡고, 사람들의 말은 비판과 불만으로 가득하며,
뉴스는 불안과 두려움을 전파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 부정적인 분위기 한가운데서
주님의 자녀답게 긍정의 향기를 발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통해 기쁨이 전해지고, 소망이 퍼지고,
믿음이 전달되게 하소서.
나는 모든 어둠의 영향력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불평이 가득한 자리에서도 감사로 말하게 하시고,
낙심하는 사람들 속에서도 희망을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주님, 제가 어떤 자리에 있어도 그 자리를 밝히는 등불이 되게 하소서.
사람들이 저를 통해 주님의 따뜻함과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긍정의 빛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생명이 제 안에서 흘러넘치게 하소서.
오늘도 긍정의 마음으로 살아 있게 하시고,
살리는 말을 하게 하시며, 살아 있는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게 하소서.
나는 어둠의 빛이 될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희망을 전할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갈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66
대속기도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그 사랑을
더 많이 깨닫고 나누는 삶을 살게 해 달라는 기도

1.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깨닫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갑니다.
그 고통의 길, 그 피 묻은 언덕을 다시 마음에 새기며
주님이 나를 위해 대신 치르신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합니다.
주님, 저는 너무 쉽게 이 놀라운 은혜를 잊어버리고
마치 당연한 것처럼 여길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십자가는 단 한 순간도 가볍게 여겨질 수 없는 사랑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모든 무감각함과 영적 태만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못에 박히신 두 손, 가시관에 찔리신 머리, 채찍에 찢기신 등,
그 하나하나가 모두 저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성령님, 제 마음에 십자가의 감격을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그 사랑에 반응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대속을 잊지 않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소서.
나는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깨달을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그 감격으로 살아갈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 나를 대신하신 그 사랑 앞에 무릎 꿇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죄가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제 죄 때문에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주님이 침 뱉음 당하고, 모욕을 견디고, 십자가에서 외면당하셨을 때
그 모든 자리에 있어야 할 이는 바로 저였습니다.
그런 저를 대신해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 앞에
제가 무엇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이 사랑은 이해를 초월하고, 상상조차 할 수 없

는 희생입니다.
나는 모든 자기 의와 영적 교만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그 희생 앞에 오늘 무릎 꿇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교만을 버리고, 자기 의를 내려놓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만을 붙들게 하소서.
대속은 단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아니라
내 삶 전체가 변화되어야 할 거룩한 부르심임을 깨닫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를 대신하신 그 사랑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하루하루를 감격 속에 살아가게 하소서.
나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겸손 속에 살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주님의 은혜로만 살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 대속의 은혜를 삶으로 드러내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는 이 놀라운 복음을
저는 믿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 복음이 제 삶에 어떤 열매로 드러나고 있는지
묵상할 때 부끄러움이 앞섭니다.
말로는 십자가를 이야기하면서도 삶으로는 그 은혜를 살아내지 못했던
저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나는 모든 말과 행동의 불일치를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제는 말뿐이 아니라 행동으로,
고백뿐이 아니라 삶의 모습으로 대속의 은혜를 드러내게 하소서.
가정을 향한 섬김에서, 이웃을 향한 용서에서,
연약한 자를 향한 긍휼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시고,
제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나오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살리기 위해 죽으신 그 사랑이 다른 이들을 살리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이 복음이 삶 전체에 새겨지는 참된 제자 되게 하소서.
나는 말과 행동이 일치할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낼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참된 제자로 살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 십자가의 사랑을 나누는 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는 그 사랑을 받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받은 사랑을 나누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대속이 단지 나 하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한 사랑이었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 사랑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그 사랑을 전하는 도구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모든 이기심과 무관심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나의 말과 행동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는 통로

가 되게 하시고
상처받은 이들에게는 위로가 되며
죄책감에 눌린 이들에게는 복음의 자유를 전하게 하소서.
십자가의 사랑은 결코 말로만 머무를 수 없음을 알기에
실천으로 살아내고, 삶으로 설득하며, 행동으로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세상이 대속의 은혜를 더 깊이 알게 하시고
제가 그 통로가 되게 하소서.
나는 십자가의 사랑을 나눌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그 사랑의 통로가 될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 십자가의 흔적을 품고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다"고 고백

했습니다.
그 고백처럼 저도 예수님의 십자가 흔적을 제 삶에 품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는 십자가 없는 믿음을 말하고, 희생 없는 신앙을 추구하며
대속의 의미를 가볍게 여기는 때입니다.
그러나 주님, 저는 십자가의 무게를 기억하며
그 사랑의 깊이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게 하소서.
나는 모든 타협과 세상 속의 타락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편함보다 순종을 택하고, 유익보다 거룩을 택하며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소서.
고난이 올지라도, 사람들의 비난이 있을지라도
예수님께서 걸으신 그 길 위에 한 발 한 발 순종으로 내딛게 하소서.
대속은 구원의 시작이며 삶 전체의 기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기준이 흔들리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로 붙들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 흔적을 자랑으로 여기며 살아가게 하소서.
나는 십자가의 흔적을 지닐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그 길을 따를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67

동역기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교회와 사회 안에서
서로 동역하며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협력할 수 있도록 기도

1. 함께 일할 동역자를 보내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사역은 결코 혼자 감당할 수 없는 공동체의 사명임을 믿습니다.
모세에게 아론을 붙여주시고, 바울에게 디모데와 누가를 붙여주셨듯이
주님, 제게도 함께 걸어갈 동역자를 보내주소서.
혼자서는 지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지만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를 격려하며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그리스도 안의 관계 속에서
주님의 뜻은 온전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나는 모든 자기중심과 고립의 영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나와 마음이 맞는 사람만이 아니라
때로는 생각이 다른 자와도 존중과 이해로 함께 일할 수 있는
겸손함과 지혜를 주소서.
서로의 장점을 발견하게 하시고
서로의 약점을 품을 수 있는 영적 유연함을 허락하소서.

혼자가 아닌 함께 걸어가는 이 길에서
주님의 나라가 더욱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나의 삶에 주님의 사역을 함께 이룰 동역자를
만나게 하소서.
나는 동역자를 만날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겸손함으로 함께 일할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주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갈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 교회 안에 하나됨의 마음을 허락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각 지체가 서로 연결되고 연합하여
주님의 몸을 이루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현실 속 교회 안에서는 서로의 다름을 받아들
이지 못하고
의견의 차이로 인해 분열과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봅
니다.
주님, 그 안타까운 모습이 결코 주님의 뜻이 아님을

압니다.
오늘 이 기도를 통해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됨의 영을 부어주소서.
나는 모든 분열과 갈등의 영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 서로를 향한 미움과 오해는 녹여주시고
다툼보다 화해를, 비난보다 중보를, 경쟁보다 겸손을 허락하소서.
각자의 은사를 주님의 몸을 세우는 데 사용하게 하시고,
서로를 경쟁자가 아닌 하나님의 동역자로 받아들이게 하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될 때 세상은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동역이 곧 복음의 증거가 되게 하소서.
우리의 섬김과 협력이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게 하소서.

나는 교회 안에서 하나되어질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화해와 중보의 역할을 할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교회의 동역을 위해 기도할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 사회 속에서도 동역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은 교회 안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동역으로 이어져야 함을 믿습니다.
제가 속한 직장과 사회, 학교와 지역 안에서도
나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나타내며
사람들과 건강한 협력의 관계를 맺게 하소서.
나는 모든 세상과의 단절과 이기주의를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세상은 자기 이익을 먼저 추구하지만
저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 뜻을 실현하는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이해와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
서로 협력하며 선을 이루는 믿음의 실천을 이어가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지 않는 자들과도 예수님의 향기를 풍기며
사랑과 진리로 소통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일어나게 하소서.
세상 속에서의 동역이 복음의 확장이 되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시작이 되게 하소서.
나는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건강한 협력의 관계를 맺을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세상 속 믿음의 동역자가 될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 섬김으로 동역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동역은 단지 함께 일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섬기는 삶의 방식임을 깨닫습니다.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무릎을 꿇고,
먼저 양보하며 주님이 보여주신 섬김의 본을 실천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나는 모든 자존심과 권위욕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섬김 없는 동역은 언젠가 이기적인 계산으로 바뀌고
갈등과 실망으로 무너집니다.
그러나 섬김이 기초가 되는 동역은 끝까지 견디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 서로의 짐을 함께 지고, 지친 이를 세워주며,
눈물 나는 자 곁에 서서 말없이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진정한 동역자로 저를 세워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이름을 드러내기보다 주님의 영광을 높이고,
나의 유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을 구하는
섬김의 자세로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 이 섬김의 동역을 통해 세상이 주님의 사랑을 보게 하시고
주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소서.
나는 섬김의 자세로 동역할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타인의 짐을 나눌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겸손한 종으로 살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 끝까지 함께 걷는 동역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작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끝까지 함께 가는 것은
정말 귀한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는 단기적인 협력에 그치지 않고
끝까지 함께 걷는 신실한 동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실수와 연약함도 품을 수 있는 넉넉한 사랑을
허락하시고,
불편함 속에서도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용서와 인내
를 부어주소서.
나는 모든 단절과 포기하려는 마음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주님, 교회 사역 속에서 서로 다름을 인정하
며
하나님께서 주신 다양한 은사를 통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소서.
주님이 저를 친구로 부르셨듯이
저 또한 누군가의 믿음의 친구, 사명의 친구, 기도의
친구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혼자만의 사역이 아니라 함께 눈물 흘리고, 함께 기뻐하며,
함께 주님 앞에 달려가는 동역자의 삶을 끝까지 걷게 하소서.
그리고 마지막 날 주님 앞에서 "함께 잘 달려왔다"는 고백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곁에 있기를 기도합니다.
나는 신실한 동역자가 될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끝까지 함께 갈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믿음의 친구가 될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68

전도기도

하나님께서 전도에 대한 열정을 주시고,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돕는 기도

1. 전도에 대한 열정을 제 안에 다시 불태우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날, 제 마음속에는
이 기쁨을 누구에게든 전하고 싶다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열정은 점점 식어가고,
현실의 바쁨과 두려움 앞에 전도의 자리는 뒷전이 되어버렸습니다.
주님, 다시 그 열정을 회복하게 하소서.
나는 모든 영적 냉담함과 식어버린 열정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한 영혼이 지옥으로 향하는 것을 보며 마음이 아파울 수 있는 심령을 주시고,
한 생명이 예수 안에서 살아나는 것을 꿈꾸며 기도하고 준비하게 하소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거절당할까 두려워 물러서지 않게 하시며,
말이 부족해도 사랑으로 전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 제 심령 안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뜨거

운 중보의 불을 다시 피워주소서.
전도는 사명이 아니라 사랑의 표현임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오늘 하루도 복음을 품고 살아가게 하소서.
나는 전도의 열정을 회복할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영혼을 향한 사랑으로 불탈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담대히 복음을 전할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입술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이토록 두렵고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거절당할까 두렵고, 어색한 침묵이 부담스럽고,
말을 잘 못할까 걱정되며, 내 삶의 부족함 때문에
복음을 전할 자격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복음은 나의 말솜씨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선포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나는 모든 두려움과 자기 의심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담대한 믿음을 주소서.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을 받고 사람들 앞에서 담대히 복음을 선포했듯이
저도 주님의 권능으로 말하게 하소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진리 앞에 주저하지 않게 하시며,
사랑으로, 지혜로, 인내로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말할 때 주님이 함께 말씀하시고, 내가 전할 때 성령님께서 마음을 움직이시며,
그 영혼이 주님의 사랑에 반응하게 하소서.
오늘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용기와 기회를 허락하여 주소서.
나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성령의 권능으로 말할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 한 영혼을 향한 사랑을 품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도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한 영혼을 향한 사랑임을 믿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이유는 바로 그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고
그 구원이 저에게도 임했던 것처럼 이제는 그 사랑을 전해야 할 차례임을 압니다.
주님, 제 마음에 한 영혼을 품을 수 있는 사랑을 주소서.
나는 모든 냉담함과 무관심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가족 중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직장 동료, 친구, 이웃…
그들의 이름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그 영혼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게 하소서.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전할 수 없습니다.
정죄가 아니라 긍휼의 마음으로, 지적이 아니라 중보의 자세로,
그 영혼을 바라보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내게 참으셨던 것처럼 저도 오래 참고 기다리며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말보다 더 깊은 사랑으로 그들의 마음에 다가서게 하소서.
오늘도 한 영혼을 위한 주님의 사랑으로 제 삶을 들이기를 원합니다.
나는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할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사랑으로 그들에게 다가갈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중보의 자로 서 있을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은 말로 전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더 강력한 복음은 삶으로 살아내는 것임을 믿습니다.
주님, 제 말보다 제 삶이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소서.
사람들이 제 삶을 보며 "그 사람 안에는 무엇인가 다르다" 느끼게 하시고,
그 다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임을 고백하게 하소서.
나는 모든 위선과 말과 행동의 불일치를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정직함으로, 섬김으로, 겸손과 온유함으로 예수님의
성품을 나타내게 하시고
삶의 태도 자체가 복음이 되게 하소서.

주님,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 밖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보다 행동으로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침묵할 때조차 예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삶의
향기를 품게 하시고,
삶 전체가 복음의 증거가 되게 하소서.
나는 삶으로 복음을 증거할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예수님의 성품을 나타낼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행동으로 사랑을 보여줄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 전도하는 공동체를 세우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도는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감당해야 할 하늘의 사명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 소그룹과 목장이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전도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나는 모든 개인주의와 고립된 신앙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서로의 전도 대상자를 위해 기도하며 중보하게 하시고,
같이 가고, 같이 돕고, 함께 눈물 흘리며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소서.
주님,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처럼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는" 역사가
우리 안에서도 일어나게 하시고,
복음을 향한 열정이 공동체 전체에 불붙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게 하시고, 은혜 안에서 훈련되게 하시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영혼을 위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주님, 우리 모두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전도하는 공동체로 살아가게 하소서.
나는 공동체를 세워갈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함께 전도할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초대교회의 열정을 회복할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69

언약기도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확인하고, 그 언약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

1. 당신의 언약을 다시 붙잡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저는 당신과 맺은 언약을 다시 기억합니다.
구약의 아브라함, 모세, 다윗과 맺으신 언약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저와도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그 신실하심 앞에 엎드립니다.
저는 그 언약을 쉽게 잊고, 세상의 소리에 마음을 빼앗기며
때로는 순종하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나는 모든 영적 건망증과 세상의 유혹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주님은 결코 약속을 저버리지 않으셨고 늘 한결같이 기다리셨습니다.
오늘 다시 언약 앞에 섭니다.
주님, 제 마음 깊은 곳에 그 약속을 다시 새겨 주소서.
제가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그 언약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소서.
믿음으로 시작된 이 길을 끝까지 신실하게 걸어가게 하시고,
어떤 시험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붙드는 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당신의 언약은 영원하며 그 언약의 성취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가게 하소서.

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그 약속 위에 서 있을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영원한 언약의 백성이 될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 언약을 망각하지 않는 영적 민감함을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의 기적을 경험하고도
광야에서 주님의 언약을 쉽게 잊었던 것처럼
저 또한 기적과 은혜를 경험한 후에도
순간의 유혹에 흔들리고 약속을 저버릴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저의 영적 기억력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나는 모든 영적 기억상실과 언약 망각의 영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의 언약을 날마다 묵상하게 하시고
그 언약을 따라 제 모든 선택과 삶의 방향을 결정하게 하소서.
세상이 주는 달콤한 제안 앞에서 언약을 가볍게 여기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영원한 것을 위하여 당장의 편안함을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소서.
말씀이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게 하시고,
언약이 내 삶의 나침반이 되게 하시며,
성령님께서 매 순간 그 약속을 기억나게 하여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걷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는 약하지만 주님은 신실하시기에
오늘도 주의 언약을 의지하며 다시 이 길을 걷겠습니다.
나는 언약을 기억할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영적으로 깨어있을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언약 위에 견고히 설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 언약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언약은 단지 말의 약속이 아니라 삶 전체를 주님께 드리는 헌신임을 믿습니다.
주님, 저는 당신의 언약 백성으로 하루하루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시면 듣겠고, 명하시면 따르겠고,
이해되지 않아도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나는 모든 불순종과 자기고집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이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조차도 언약을 따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도 그 믿음을 회복하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에 즉시 반응하게 하시고,
나의 생각보다 주님의 뜻을 앞세우게 하시며
하나님의 언약에 기꺼이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순종은 때로 고통이 따르지만
그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의 성취가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언약을 지키는 자로 오늘도 순종의 걸음을 걷게 하소서.
나는 즉시 순종할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전심으로 따를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언약에 충성할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 언약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너무나 쉽게 약속을 깨고 조건에 따라 관계를 바꾸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신실하신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천지가 없어질지라도 주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주님, 저 또한 그 언약을 붙들며 언약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모든 불신실과 언약 위반의 죄를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말의 책임을 지는 성실함을 갖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드린 헌신을 시간이 지나도 지켜내는 믿음을 주소서.
특별히 가정, 교회, 사역의 자리에서 언약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소서.
가정은 주님과의 연합의 언약이며,
교회는 몸 된 그리스도와의 동역 언약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제가 있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언약의 성실함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언약을 지키는 자는
결국 하나님께서 높이신다는 것을 믿고 오늘도 충성되게 살아가겠습니다.
나는 성실한 언약의 사람이 될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모든 관계에서 신실할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언약을 지키는 자로 높임받을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의 삶을 살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율법의 규칙이 아닌 십자가의 사랑으로 맺어진 새 언약입니다.
주님, 이 은혜의 언약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감사하며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나는 모든 은혜 거부와 신약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를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죄로부터의 자유, 율법 아래의 정죄로부터의 해방,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가능케 한 이 언약은 제 인생 최고의 선물입니다.
주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서 정결한 마음, 변화된 삶,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게 하시고
이 언약을 전하는 사명자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찬을 받을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언약의 피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 언약 안에서 항상 새로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

소서.
주님, 새 언약의 사람으로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며 살게 하소서.
나는 그리스도 안의 새 언약의 삶을 살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은혜 안에서 성장할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그 언약을 전하는 사명자가 될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70

간구기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속 깊은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도록 도와주실 것을
간구하는 기도

1. 내 마음 깊은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이 마음의 무게를 안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사람에게는 도무지 꺼내기 어려운 이야기,
눈물로만 말할 수 있는 이 아픔을
주님 앞에서는 감출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 영혼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오는 간절한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모든 침묵과 표현할 수 없는 아픔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말이 아니라 눈물로 드려지는 이 기도를 받아 주소서.
언제 응답하실지 알 수 없어도 기다리게 하시고,
응답이 늦는 듯 보여도 믿음의 인내로 견디게 하소서.
주님, 제 간구가 헛되지 않음을 믿습니다.
기도는 하늘의 보좌를 흔들고, 하나님의 때를 당기며,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게 하는 거룩한 능력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는 부르짖습니다. "주님, 이 기도를 들으소서."
나는 주님이 내 부르짖음을 들으실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이 간구가 응답될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주님의 능력을 신뢰할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 침묵 중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기다릴 때 당신의 침묵이 제 마음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아무런 변화도 없는 현실, 점점 더 멀어지는 듯한 응답...
그러나 주님, 당신은 침묵 중에도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그 순간 하늘에서는 움직임이 시작되었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손길은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나는 모든 불안감과 의심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 기도의 응답보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하시고
눈앞의 상황보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더 의지하게 하소서.
제 기도에 응답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오늘도 나아갑니다.
하나님, 들으셨다면 반드시 행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꺾이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침묵도 응답의 한 과정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 속에서 더 깊은 신뢰를 배우게 하소서.
나는 주님을 신뢰할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침묵 속에서도 견디어낼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반드시 응답받을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 작은 소리도 들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게 외치는 기도만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라
속삭이는 작은 한숨도 들으시는 분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아도, 무심하게 지나쳐도
주님은 제 마음속 작은 떨림까지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작고 조용한 간구를 올려드립니다.
나는 모든 작음의 무시함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내 자녀를 위한 기도, 가정을 위한 눈물, 미래를 향한 염려,
주님, 하나도 흘려보내지 마시고 하늘의 기억 속에 간직해 주소서.
그리고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지혜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내가 드리는 이 작은 기도가 하늘 보좌를 움직이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귀에 닿게 하소서.
가장 작은 것도 하나님의 귀에서는 크고 소중함을 믿습니다.

나는 작은 기도의 능력을 믿을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주님이 내 한숨을 들으실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그 기도가 응답될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 나의 기도가 주님의 뜻 안에 머물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는 간구하며 무언가를 얻기 원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 그 간구가 주님의 뜻 안에 있기를 기도합니다.
내 뜻을 이루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가 되게 하소서.
내 욕심이 아니라 하늘의 계획이 이 땅에 나타나기를 원하며
내 감정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에 따라 기도하게 하소서.
나는 모든 자기중심적 기도와 욕심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간구는 나의 권리지만 응답은 주님의 권한임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기도의 자리에서 겸손히 머물며
주님과 더 깊이 연결되는 것이 무엇보다 큰 복임을
깨닫게 하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며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
도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기도가 주님의 뜻 안에서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할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겸손한 기도자가 될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주님의 뜻 안에 머물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 응답의 문이 열릴 때까지 기도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응답은 속도보다 방향이며
결과보다 과정을 통해 저를 변화시키는 줄 압니다.
그러기에 저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두드리고, 찾고, 구하며 끝까지 무릎 꿇는 자리에 있
겠습니다.
응답이 당장 눈앞에 없을지라도 주님이 듣고 계신다

는 믿음 하나로
오늘도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나는 모든 포기와 낙심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응답을 더 기다리겠습니다.
눈물이 마를 때까지가 아니라 하늘 문이 열릴 때까지
기도하게 하소서.
그리고 주님, 그 응답이 올 때 제가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시고
그 응답 앞에 감사로 반응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응답은 반드시 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
시기 때문입니다.
그 확신으로 오늘도 간구하며 믿음으로 기다리게 하
소서.
나는 끝까지 기도할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응답을 기대할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반드시 응답받을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71
구원기도

가족을 구원해 달라는 기도

1.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며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가장 먼저 저를 구원의 자리로 이끄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저를 불러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여전히 어둠 가운데 방황하며 죄의 무게에 짓눌려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주님의 빛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사함의 은혜, 영원한 생명의 확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누리며 살게 되었으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나는 모든 영적 무관심과 자기중심성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 이 기쁨을 혼자 누릴 수 없습니다.
저의 부모님, 배우자, 자녀들, 형제자매들…
저의 피붙이들이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제 마음 깊은 곳에 슬픔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세상의 소리에 익숙해지고, 복음의 진리에는 무감각해져 버린 이 시대 속에서

그들의 영혼이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이름을 오늘도 불러봅니다.
제 어머니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생명 주신 그 분들의 남은 인생이
허무한 세상의 끝자락에서 끝나지 않도록,
그들의 삶이 십자가 아래에서 해석되고 정리되게 하여 주옵소서.
젊은 날 교회에 나아가던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어릴 적 들었던 주님의 이름을 다시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가족의 구원을 간절히 소망할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기도를 멈추지 않을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주님의 약속을 붙들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 절망 속에 있는 가족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는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이 인생,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숨 쉴 수 없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된 이후,
저는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일에 인생을 걸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너무나도 더딥니다.
기도해도 바뀌지 않는 가족의 마음, 복음을 전하면 거부하는 냉담한 표정,
그리고 오히려 믿는 저를 조롱하고 멀리하는 말과 행동들.
그 앞에서 저는 얼마나 많이 무너졌는지 모릅니다.
나는 모든 절망과 낙심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 이 절망이 저를 멈추게 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히려 이 절망을 믿음으로 껴안고,
더 깊은 눈물로, 더 뜨거운 사랑으로 중보하게 하소서.
아버지, 제 가족이 지금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은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말로는 바꿀 수 없는 마음이지만
하나님의 성령은 단 한 순간에 돌같은 심령을 녹이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어느 날, 절망이 삶을 덮는 듯 보였지만
그 고통이 곧 은혜로 가는 문이었다는 것을 알게 하소서.
나는 끝까지 기도할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주님의 능력을 신뢰할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가족의 구원을 목격할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 돌이킬 수 없는 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
제가 사랑하는 가족이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한 채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다는 사실에 제 심장은 무너질 듯 아픕니다.
그들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성공하고, 평안해 보인다 해도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라면, 그 삶은 결국 사망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임을

저는 알기에 견딜 수 없습니다.
나는 모든 무관심과 영적 건망증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돌이킬 수 없는 날이 오기 전에 제 가족을 불러주시옵소서.
후회도, 변명도 통하지 않는 영원의 날이 오기 전에
그들을 건져 주시옵소서.
오늘,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저하지 않고 주님께로 나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다시 용기를 내겠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은 주님께 맡기되
감당해야 할 중보는 결코 놓지 않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금식하겠습니다. 울겠습니다.
나는 끝까지 중보할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용기 있게 증거할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기적을 기대할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 나의 무능함을 주 앞에 내려놓으며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무력함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가족의 마음은 단단하고,
그들의 삶은 세상의 재미와 안락함 속에 갇혀 있으며
하나님을 향한 관심조차 보이지 않을 때, 저는 주저앉고 싶습니다.
나는 모든 무력감과 자기의심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하나님, 그런 저의 마음까지도 주께서 아시는 줄 믿습니다.
주께서 지금 이 기도를 받으시고,
저의 절망 속에서도 믿음을 일으키시며,
저의 한숨 속에서도 은혜의 씨앗을 심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의 무능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의 은혜에 모든 소망을 겁니다.
저의 작은 기도가 하늘 보좌를 움직이게 하시고

성령의 불이 저의 가정에 임하게 하소서.
나는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기적을 믿을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 가문을 구속의 통로로 세우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의 가정을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믿음의 족장이 되었고,
그 후손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처럼
오늘 저의 순종과 기도가 저의 후손들과 가문 전체를
구속의 흐름 안에 세우는 시작이 되게 하소서.
나는 모든 세습적 영향력과 불신앙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제 가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상 숭배와 세상적인 성공만을 추구하던 이 집안의
흐름을 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가문에 뿌리내리게 하옵
소서.

오늘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집안에 단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지 않게 하소서.
마지막 날에 함께 천국의 잔치에 들어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소서.
나는 가문이 구속될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세대가 전환될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증거가 될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72
희망기도

절망과 낙담 가운데 희망을 갖게 해달라는 기도

1. 어둠의 끝에서 새벽을 기다리며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 마음에는 깊은 어둠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한꺼번에 덮쳐와
마치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안개 속을 걷는 것 같습니다.
희망이라는 단어조저 멀게만 느껴지고,
한 줄기 빛도 보이지 않는 터널 속에 갇힌 듯한 이 시간 속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나는 모든 절망과 어둠의 영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희망을 잃지 않도록,
내 영혼이 절망에 삼켜지지 않도록
제 마음 중심을 지켜 주옵소서.
사람들은 괜찮다고 하지만
하나님, 저는 괜찮지 않습니다.
겉으론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에게 다시 희망을 허락해 주십시오.
당장 상황이 변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내 마음으로 믿게 하소서.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저를 위한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나는 어둠을 이겨낼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희망을 회복할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새벽을 맞이할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 나의 깊은 한숨 속에도 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지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한숨만 내쉬는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지 모르는 이 삶의 실타래 속에서
하나님, 제가 점점 지쳐가고 있습니다.
나는 모든 피로와 영적 나태를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하지만 주님, 그 한숨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내 마음 깊은 곳의 탄식을 들으시는 분이시며
내 말 없는 눈물마저 헤아리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피곤한 인생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다 타버린 등잔같은 내 믿음에
다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꺼져가던 희망의 불꽃에
다시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삶이 끝난 것처럼 느껴질 때
하나님은 시작을 준비하고 계시고,
모든 것이 무너진 것처럼 보일 때
하나님은 새 기초를 세우고 계심을
제가 믿게 하소서.
나의 현재가 아무리 무너져 있어도
하나님은 나의 미래에 대한 완전한 그림을 갖고 계신
분이심을
믿음으로 붙잡게 하소서.
나는 고통을 이겨낼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눈물 후의 웃음을 경험할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위로받을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 버려진 듯한 마음 속에서 희망을 외치며

하나님 아버지,
가끔은 이 세상에 홀로 남겨진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조차 저를 잊으신 듯한 그 침묵의 시간 속에서
제 마음은 점점 메말라갑니다.
나는 모든 버려짐의 감정과 절망의 거짓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 그 침묵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믿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약속은 지연될지언정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고백합니다.

하나님, 절망의 감옥에 갇혀 있는 저에게
희망의 열쇠를 쥐어 주시옵소서.
눈물의 시편 가운데서도 소망을 노래한 다윗처럼
오늘 저도 믿음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상황이 아무리 캄캄해도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그 한 줄기 믿음으로 오늘을 견디게 하소서.
내가 보지 못해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며
내가 느끼지 못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제 영이 기억하게 하소서.
나는 버려지지 않을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심을 선포하노라!
나는 회복될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 지나온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 서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는 다시 뒤를 돌아보며
지나온 길에 있었던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합니다.

절망의 깊은 구덩이에서도
한 줄기 희망의 밧줄이 되어 주셨던 하나님,
잊고 있었던 그 은혜들을 떠올립니다.
나는 모든 건망증과 감사 부족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고비마다 하나님은 저를 놓지 않으셨고,
눈물의 골짜기에서도 기쁨의 샘을 터뜨리셨던
주님의 손길을 지금 다시 붙잡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지금 이 절망을 이겨내고 싶습니다.
내 앞에 놓인 문제들은 크지만
지금까지 도우셨던 하나님은 더 크시기에
다시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나온 은혜를 떠올릴수록
내일도 인도하실 주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과거를 돌아보며 오늘을 견디게 하시고,
오늘의 인내가 내일의 소망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눈물로 엎드릴지라도
그 끝에 웃음으로 일어서는 은혜를 맛보게 하시고
슬픔으로 시작된 기도가 희망의 고백으로 마무리되
게 하옵소서.

나는 은혜를 기억할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다시 설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감사하며 나아갈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 다시 노래하게 될 그날을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저는 찬송할 수 없습니다.
입술로 노래하려 해도
마음이 메말라 말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나는 모든 침묵과 중단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다시 찬양하게 될 그날을 바라봅니다.
고난이 끝나는 날이 아니라,
고난 중에도 찬양하게 되는 그날을
소망으로 기다립니다.
하나님, 저의 시선을 지금의 문제에서
하늘의 보좌로 옮겨 주시옵소서.
세상은 소리치고, 사람들은 조롱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부르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약속은 희망이며,
주님의 말씀은 내 영혼의 닻입니다.
바람이 거세도 배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말씀이 저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하루도 버텨낼 힘이 되게 하옵소서.
저는 반드시 다시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찬양을 회복할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기쁨으로 노래할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주님을 높일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73
화합기도

모두가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

1. 서로를 품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를 돌아보면
너무나 많은 분열과 다툼이 존재함을 봅니다.
가정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사회 안에서도
서로의 다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신의 입장만을 고수하며 다투는 모습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가 멀어지고 있음을 느낍니다.
주님, 당신의 마음은 분열이 아니라 화합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함이었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막힌 담을 허물기 위함이었습니다.
나는 모든 분열과 자기중심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그러기에 오늘 저는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서로를 품고 용납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다름이 틀림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하시고,
다른 의견 앞에서도 귀 기울일 줄 아는

넉넉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말이 서로를 찌르는 칼이 되지 않게 하시고,
생명을 살리는 말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서로를 판단하기보다, 이해하려 하고
비난하기보다, 중보하게 하시며,
함께 기도하며 손을 잡을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특별히, 교회 안에서 사랑이 회복되게 하시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는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나는 화합의 중보자가 될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이해와 용납의 자가 될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해 기도할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 하나 되게 하신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에서
제자들이 하나가 되기를 간구하셨던 그 장면이 떠오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의 그 간절한 기도가
오늘 우리 삶 속에 현실이 되게 하소서.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녀가 하나가 되게 하시고,
형제자매가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게 하옵소서.
나는 모든 단절과 갈등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교회 안에서도 직분과 연령, 배경을 뛰어넘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 되게 하시며,
오직 복음을 위해 연합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서로 다름이 있지만
그 다름이 오히려 풍성함이 되게 하시고,
상처보다는 용서가 흐르게 하시며,
불신보다는 믿음이 자라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며,
함께 웃고 울 수 있는 아름다운 동역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그 뜻을 따라
각자의 자리에서 화해하고 회복하며,
연합의 도구로 쓰임 받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나는 하나님의 뜻에 연합하는 자가 될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용서와 회복의 중보자가 될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예수님의 하나되게 하심을 실천할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 다툼보다 평화를, 경쟁보다 협력을 선택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점점 경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서로를 짓밟고 올라서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다툼과 시기 속에서 갈등이 반복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늘의 방식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다툼이 일어날 때 먼저 피스메이커가 되게 하시고,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 기도로 반응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나는 모든 시기와 경쟁의 영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말이 앞서기보다, 사랑이 앞서는 자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협력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안에 협력이 사라지고,
각자의 유익만을 구하는 이기심이 자리잡을 때
성령께서 근심하시며 떠나시는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회개하며
주님의 마음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손이 되게 하시고,
무너질 때 함께 붙잡아 일으키는 사랑의 지체가 되게 하옵소서.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같은 비전을 품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손에 손을 맞잡고 달려가는

복된 동역자가 되게 하소서.
나는 평화의 중보자가 될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협력과 연대의 영으로 나아갈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주님의 평강을 전할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 공동체의 중심에 주님이 계시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공동체가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는
그 중심에 주님이 아닌 '나'가 있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사람마다 자신의 생각, 고집, 방식만을 앞세우며
주님보다 자신을 드러내려 할 때
사랑이 무너지고, 연합은 깨지고,
결국 분열과 상처만 남습니다.
나는 모든 자기중심과 영적 완고함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저 자신부터 회개하게 하시고,
공동체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계시도록
모든 시선을 다시 주님께로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낮아지셨기에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었고,
예수님께서 섬기셨기에 우리는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공동체가 섬김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누가 앞서나가는지가 아니라
누가 더 많이 사랑하는지를 고민하게 하소서.
예배의 중심, 기도의 중심, 사역의 중심
모든 것의 중심에 주님만이 계시게 하시고
그 중심을 놓치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중심이 되실 때
우리 모두는 자연스레 하나가 되는 줄 믿습니다.
나는 주님을 중심에 모실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섬김의 종이 될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공동체의 영적 중심 회복에 기여할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 민족과 세대, 교회를 하나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분열은 단지 개인이나 공동체를 넘어서
민족과 세대, 교회의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음을 봅니다.
세대 간의 갈등, 지역 간의 차별, 교단 간의 경쟁과 정죄…
하나님, 당신의 마음이 아프실 줄 믿습니다.
나는 모든 큰 분열과 조직적 이기주의를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르다고 틀린 것이 아니고,
우리가 떨어져 있다고 멀어진 것도 아니며,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 한국 교회가 하나 되게 하옵소서.
정치적, 신학적 입장을 넘어서
복음의 본질로 돌아오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임을 고백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와 기성 세대가 단절되지 않게 하시고,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품으며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게 하옵소서.
지역 간, 세대 간, 계층 간 모든 장벽이 무너지게 하시고,
십자가 앞에서 모든 무릎이 꿇게 하소서.
주님, 당신의 몸 된 교회가 다시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열방을 위해
함께 나아가는 하나 된 몸이 되게 하옵소서.
나는 민족의 하나됨을 위해 중보할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세대를 잇는 다리가 될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한국 교회의 연합을 위해 기도할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74

민족기도

대한민국과 열방을 위한 기도

1. 이 민족 위에 긍휼을 베푸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 대한민국을 당신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 땅은 전쟁과 억압, 분단과 가난의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로 보호받았고,
수많은 성도들의 눈물과 기도로 지금까지 걸어왔음
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또다시 위기의 시대를 지나고 있
습니다.
진리가 짓밟히고, 정의가 무너지고,
생명보다 이익이 앞서는 세상 속에서
이 민족은 방황하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나는 모든 불의와 영적 타락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온 교회,
하나님의 음성보다 사람의 소리를 좇아온 백성,
불의한 재판과 부패한 정치를 용납한
이 사회의 모든 죄를 주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한국 교회에 다시 회개의 영을 부어주소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말씀에 대한 갈망이 다시 불붙게 하시고,
기도하는 영혼들이 밤낮으로 주의 뜻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두려움을 주시고,
공직자들에게는 정직과 청렴을 부어주소서.
가정은 회복되게 하시고,
학교는 생명의 말씀으로 가르치게 하시며,
언론과 문화 속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기운들이 꺾이게 하소서.
특히 이 땅의 청년들을 붙드소서.
미래를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부어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열방을 향해 달려가는 선교의 세대가 되게 하시고,
민족의 새벽을 여는 예레미야 같은 젊은이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 이 민족을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일으켜 주소서.
열방을 품고 섬기는 제사장 나라로 세워주소서.
우리의 교만을 꺾고 무릎 꿇게 하시며,

겸손히 하나님만을 찾게 하소서.
나는 민족의 영적 회복을 위해 기도할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청년 세대의 영혼을 위한 중보자가 될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제사장 민족의 사명을 전할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 열방이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늘과 땅, 모든 민족의 주인이신 당신께 엎드립니다.
당신의 마음은 열방을 향하고 있고,
그 어떤 민족도, 어떤 나라도 당신의 구원에서 제외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수많은 나라와 민족이
여전히 우상과 거짓된 신앙에 묶여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땅,
성경 한 권 없는 마을,
예배를 드릴 수 없어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존재하는 곳들…

나는 모든 우상 숭배와 거짓 종교의 권세를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 열방이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그 땅에 복음이 들려지게 하시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 예배가 회복되게 하소서.
죽어가던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그 민족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세대가 일어나게 하소서.
한국 교회가 다시 열방을 품게 하소서.
자신의 편안함에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선교를 위해 다시 눈물 흘리게 하시며,
우리의 자녀들이 선교의 대열에 서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중국, 인도, 중동, 북아프리카, 유럽, 미대륙, 남미, 동남아시아…
모든 대륙에서 찬양이 터져나오게 하시고,
박해 속에서도 주님을 붙드는 교회들이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하나님, 지금도 땅끝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소서.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외로움을 위로하시며,

물질의 필요를 채우시고, 복음을 전할 문을 열어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열방이 주를 예배하는 날,
모든 입술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그 날을
소망하며
오늘도 우리가 무릎 꿇습니다.
나는 열방의 영혼들을 위한 중보자가 될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선교적 사명에 헌신할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영혼이 될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 대한민국을 제사장 나라로 세워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당신은 이 민족을 특별한 부르심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우리 민족은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고,

아시아와 열방을 섬기는 나라로 일어섰습니다.
이제 다시, 이 나라를 제사장 나라로 세워주소서.
정치가 진실을 말하게 하시고,
경제가 정직 위에 서게 하시고,
언론이 정의를 말하게 하시며,
교육이 거룩을 가르치게 하소서.
나는 모든 거짓과 불의의 체계를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세상의 조롱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목회자들이 권세보다 겸손을 택하게 하소서.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게 하소서.
이 민족이 한반도라는 지정학적 축소판을 넘어서
열방의 무대 위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복음을 전하고, 평화를 이루며,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히 북한을 기억합니다.
복음이 사라진 그 땅에 주의 영광이 다시 임하게 하시고,
억압받는 백성들이 자유를 얻고,

십자가를 높이는 예배의 물결이 다시 흐르게 하소서.
한국이 남북을 하나로 묶는 통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 통일이 오직 복음 위에 세워지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이 더 이상 분열이 아닌
치유와 회복, 평화의 상징이 되게 하소서.
나는 제사장 나라의 사명 위에 설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열방을 섬기는 종이 될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한반도의 통일과 복음화를 위해 기도할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 민족의 죄악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민족을 대표하여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 땅은 주님의 은혜를 받았으나,
그 은혜를 저버리고 세상과 타협했습니다.
불의한 재판과 조작된 진실,

정치적 야망과 권력 싸움,
교회의 타락과 무관심,
부모와 자녀 사이의 단절,
생명의 경시와 자살 문화…
주여, 이 땅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는 모든 죄악과 영적 타협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한국 사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돈과 성공과 명예를 우상 삼았음을 회개합니다.
교회가 복음을 잃고,
자기 유익을 위해 말씀을 팔았던 죄를 회개합니다.
아버지, 이 민족이 다시 회개하게 하소서.
예레미야처럼 울게 하시고,
느헤미야처럼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게 하소서.
공동체적 회개가 일어나게 하시고,
세대 간에 서로 용서와 화해가 있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을 심판하지 마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윗이 회개했을 때 주님께서 긍휼을 베푸셨듯,
이 민족이 무릎 꿇을 때 용서하시고 다시 세워주소서.

이 민족이 회개 위에 일어서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그릇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불순종과 완고함을 버리고,
철저히 회개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세상의 심판보다 하나님의 심판을 더 두려워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는 민족이 되게 하소서.
나는 민족적 회개의 중보자가 될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용서와 화해의 역사를 위해 기도할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회개의 문화 회복에 헌신할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 복음통일을 준비하는 민족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은 하나였으나, 전쟁과 분열로 갈라졌습니다.
70년이 넘도록 북한은 고립되었고,
자유를 빼앗겼으며,
하나님의 이름조차 금기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당신은 북한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억압된 그 땅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남겨두셨고,
지하교회와 남한의 교회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중보하게 하셨습니다.
주님, 북한의 억눌린 백성들을 자유케 하소서.
나는 모든 억압의 권세와 독재의 영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그 땅의 정치 체제가 무너지게 하시고,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소서.
인권이 존중되고, 예배가 회복되며,
십자가가 다시 세워지게 하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그 통일을 준비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영적 통일, 복음 통일, 교회 통일, 마음의 통일을 준비하게 하소서.
경제나 제도보다 먼저,
사랑과 회개로 통일을 준비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북한을 정죄하지 않게 하시고,
사랑으로 품고 섬기게 하소서.
우리가 준비된 그릇이 되게 하시고,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평양을 지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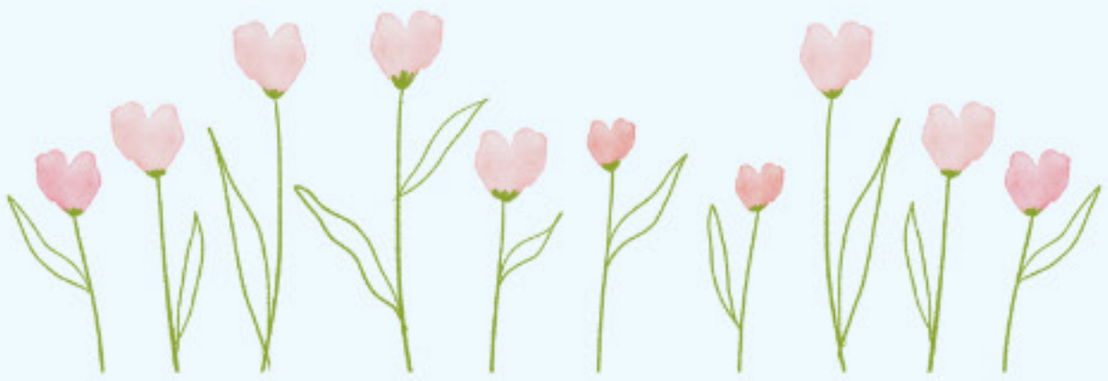
다시 땅끝까지 흐르게 하소서.
복음으로 통일된 민족,
그 민족이 세계 선교의 마지막 물결을 이끌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 교회가 이 사명 앞에 다시 무릎 꿇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의 모든 차이와 다툼을 내려놓고,
통일과 복음 위에 연합하게 하소서.
나는 복음통일의 중보자가 될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북한 주민들의 자유와 해방을 위해 기도할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통일된 한반도를 통해 복음이 열방에 흐르는 그 날을 위해 준비할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75
분별기도

선과 악, 진리와 거짓을 영적으로 분별하게
해달라는 기도



1.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분별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대는 선과 악의 경계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거짓이 진리인 양 포장되고, 악이 미화되고,
사람들은 진실을 외면한 채 자신의 욕망을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나는 모든 거짓과 혼란의 영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혼란의 시대 속에서
제가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소서.
세상의 소리보다 크고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내 마음의 기준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운동력이 있어
영과 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하셨으니,
말씀의 검으로 모든 판단을 분별하게 하소서.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감정이나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주의 말씀에 비추어 옳고 그름을 분별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제 마음이 말씀에서 멀어지지 않게 하소서.
잠시의 유행이나 인기 있는 흐름에 속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말씀을 삶의 뿌리로 삼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미디어와 SNS, 세상의 문화 속에서
거짓과 왜곡에 속지 않고
말씀의 눈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고 주의 마음을 품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묵상하고 암송하며
진리를 기준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소서.
나는 말씀을 따라 분별할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진리의 기준으로 살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말씀의 빛으로 나아갈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 성령의 민감함으로 분별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며,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장래 일을 말씀해 주시는 분
이심을 믿습니다.
나는 모든 무지와 혼란의 영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저는 종종 내 생각과 감정, 그리고 내 경험을 기준 삼
아
성령님의 음성을 놓치고, 분별력을 잃은 채 결정했던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주님, 저에게 성령의 민감함을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귀에 들리는 소문으로 움직이지 않게 하시며,
성령께서 주시는 내적인 감동과 평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해석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겉모습에 속지 않게 하소서.
사람의 말에 감동하기보다 성령의 감동에 귀를 기울
이게 하시고,
혼의 충동이 아니라 영의 평강 가운데 살아가게 하소

서.

하나님 아버지,
특히 중요한 결정 앞에 있을 때,
성령님과 충분히 교제하게 하시고
기도와 말씀 가운데 조용히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경건을 주소서.
성령님, 저의 길을 비추시고 보이지 않는 악의 흐름
을 분별하게 하시며,
겉으로는 선해 보여도 파멸로 이끄는 것들을 미리 피
하게 하소서.
나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진리의 영을 따라갈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성령의 평강으로 분별할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 미혹의 시대를 꿰뚫는 눈을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대는 마지막 때의 미혹이 가득한 시대임을
고백합니다.
적그리스도의 영이 세상에 퍼져 있고,

가짜 복음, 가짜 신앙, 거짓된 기적들이 난무합니다.
사람들은 참된 믿음보다, 자기 기호에 맞는 종교를
찾고 있습니다.
나는 모든 미혹과 거짓의 영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런 미혹의 시대를 살아가는 제가
진리를 꿰뚫는 눈을 갖게 하소서.
표면이 아닌 본질을 보고, 말이 아닌 열매를 보고,
감동이 아닌 진리를 기준으로 분별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유튜브와 방송, 책과 강연, 무수한 정보 속에서
무엇이 주님의 말씀인지 분별하게 하시고,
거짓된 영, 거짓 선지자의 소리에 속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교회를 보호하소서.
거짓 교사들이 무너뜨리려는 거룩한 성을
성령의 방패로 지켜주시고, 성도들에게 분별력을 부
어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미혹이 강할수록, 주의 백성들은 더 깊이 기도하고

더 말씀 앞에 서야 함을 깨닫게 하소서.
제가 그 기도의 선두에 서게 하시고, 믿음의 파수꾼이 되게 하소서.
나는 미혹을 꿰뚫을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진리의 파수꾼이 될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지킬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 거짓을 이기고 진리를 따르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분별이 중요한 이유는, 선택이 곧 삶의 열매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길을 가느냐에 따라 생명의 길이 될 수도 있고,
파멸의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는 모든 거짓과 욕망의 영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저는 자주 거짓된 것에 이끌렸습니다.
내 욕심을 합리화하며, 거짓된 소망을 붙들고,
진리보다 달콤한 말에 기울었습니다.
그 결과는 항상 후회와 눈물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제는 거짓을 이기게 하소서.
진리를 사랑하게 하시고,
비록 진리의 길이 좁고 험할지라도
그 길을 따르는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분별한 것에 머무르지 않고,
분별한 대로 순종하게 하시고,
진리를 따른다는 이유로 고난이 있다 해도
주님을 더 의지하며 걸어가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로 하여금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분별한 진리를 삶으로 실천하는 참된 제자가 되게 하소서.
나는 거짓을 이길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진리의 길을 따를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순종의 삶을 살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 분별의 은사를 따라 삶으로 열매맺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분별은 단지 지식이 아니라 삶의 열매로 이어져야 함을 고백합니다.
보는 눈이 열리고, 듣는 귀가 열리는 것이 끝이 아니라
그것에 반응하여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분별임을 깨닫습니다.
나는 모든 무지와 정죄의 영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제게 분별의 은사를 주시되
그 분별을 통해 공동체를 살리고
가정을 세우며
세상 가운데 진리를 나타내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만 알고, 나만 판단하는 분별이 아니라,
사랑으로 충만한 분별이 되게 하시고,
정죄하지 않고 품을 줄 아는 지혜도 함께 허락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교회가 거짓 교훈을 분별하게 하시고,
주의 성도들이 악한 영향력에 속지 않게 하시며,
교회 지도자들이 깨어서 바른 영적 흐름을 분별하도록 이끌어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분별이 예언보다 더 귀하고,
행위보다 더 강력한 성령의 도구임을 깨닫고
저로 하여금 분별의 영을 항상 사모하며 그 안에 머물게 하소서.
분별의 은혜가 말에서 멈추지 않고
삶에서 열매로 드러나게 하시고,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밝히 드러내는 빛의 자녀로 살게 하소서.

나는 분별의 은사를 사모할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사랑으로 분별할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진리의 열매를 맺을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76
중보기도

다른 사람의 필요를 위해 마음을 다해
간구하게 해달라는 기도

1. 예수님처럼 중보자의 마음을 품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그 사랑, 그 눈물, 그 간절함으로
오늘 제 마음도 채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나는 모든 이기심과 자기중심의 영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저는 자주 제 문제만 가지고 기도해왔습니다.
내 아픔, 내 소망, 내 필요만을 앞세우며
다른 사람의 고통에 귀 기울이지 못했던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고 싶습니다.
십자가 위에서도 다른 이들을 위해 기도하신
그 사랑을 제게도 부어주시옵소서.
중보는 내 삶의 여유가 있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짊어지는 십자가임을 깨닫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 주위의 사람들을 위해

정말 마음을 다해 기도하게 하소서.
그들의 얼굴을 떠올리게 하시고,
그들의 눈물을 내 가슴에 새기게 하시며,
그들의 간절한 필요를 나의 기도로 품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대신하여 울고,
대신하여 아파하고, 대신하여 무릎 꿇는
사람으로 저를 빚어주소서.
나는 중보의 마음을 품을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사랑으로 기도할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예수님의 간구를 따를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 아픔을 공감하며 눈물로 중보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중보는 단순한 요청의 반복이 아니라
누군가의 고통을 함께 느끼는 사랑의 통로임을 압니다.
나는 모든 무관심과 형식적인 기도의 영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저는 너무 자주 기도를 말로만 드렸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마음으로 품지 못한 채
입술로만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기적인 기도의 틀을 깨뜨려주시고
이웃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되게 하소서.
친구의 외로움, 가족의 질병,
지체의 가난과 낙심을 내 마음에 깊이 새기고
울며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중보는 울음을 삼키는 기도입니다.
내가 무릎을 꿇을 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긍휼이 그 영혼에게 흘러가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오늘 제 마음에 떠오르는 그 사람,
말은 하지 않았지만 고통받고 있는 이웃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무릎 꿇을 수 있는
믿음의 친구가 되게 하소서.

주님, 저의 기도가 그 사람에게 하늘의 위로가 되고,
마음의 치유가 되고, 삶의 전환점이 되게 하소서.
나는 공감의 눈물로 기도할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이웃의 아픔을 품을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중보의 사랑을 실천할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 가정과 공동체를 위한 중보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중보는 공동체를 세우는 기도임을 믿습니다.
가정이 깨어지고, 부부가 다투며,
자녀들이 믿음에서 멀어져가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나는 모든 분열과 단절의 영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제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불화가 있다면 화해하게 하시고,
소통이 막혀 있다면 마음을 열게 하시며,
서로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저의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연약한 성도들, 낙심한 지체들,
섬기다 지친 일꾼들, 교회의 모든 리더들이
주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서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공동체는 기도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내가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숨은 곳에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등불 같은 중보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손의 기도가 가정을 회복시키고,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며,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되게 하소서.
나는 가정을 위한 중보자가 될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교회의 회복을 위해 기도할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해 헌신할 것을 선포하노
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 교회와 지도자들을 위한 중보기도자로 서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을 맡은 주님의 신부가
세상의 비난 앞에 서 있고,
주님의 뜻보다 사람의 인기와 조직의 안정을 좇고 있느
현실을 주님은 누구보다 아프게 보셨을 것입니다.
나는 모든 거짓과 타협의 영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위한 중보자로 서게 하소서.
내 교회, 내 목회자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나라의 모든 교회와 지도자들을 위해
깊이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안에 거짓이 떠나가고,
진리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시며,
목회자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깨어나게 하소서.
섬김이 권세보다 앞서고,

사랑이 프로그램보다 앞서는
초대교회 같은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기도 없이 목양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 없이 회중을 이끌지 않게 하소서.
지도자들이 먼저 무릎 꿇게 하시고,
성도들이 그 무릎 위에 축복을 입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해 매일 기도하는 중보자,
그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무너진 교회를 위해 울고 무릎 꿇는 자로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는 교회의 부흥을 위해 기도할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지도자들의 영적 회복을 위해 중보할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하나님의 신부를 위해 헌신할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 열방과 미전도 종족을 위한 중보의 무릎을 세워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은 나 하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이스라엘을 넘어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한 주님의 사랑이 담긴 사건입니다.
나는 모든 억압과 복음의 장벽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지금도 수많은 민족과 나라에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고,
예배를 드릴 수 없으며,
성경 한 권 없이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열방을 위한 중보의 무릎을 제게 허락하소서.
지도 없이도 그 민족을 마음에 품게 하시고,
언어가 달라도 그 영혼을 위해 울게 하시며,
국경을 넘어 그 땅을 향해 손을 들어 기도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미전도 종족을 기억합니다.

복음을 들을 기회조차 없는 그 땅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부어주소서.
그들을 향해 달려가는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사역을
지켜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열방은 주님의 것입니다.
내 삶은 비록 이 땅에 있지만,
내 기도는 열방을 향하게 하소서.
나의 기도가 하늘 보좌를 움직이고,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며,
복음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게 하소서.
나는 열방을 위한 중보자가 될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미전도 종족의 구원을 위해 기도할 것을 선포하
노라!
나는 복음의 문이 열리는 그날을 위해 헌신할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77
언어기도

말로 다른 사람을 세우고 축복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는 기도

1. 나의 말이 생명을 전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다른 사람의 삶에 생명을 불어넣는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당신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고 계신 분이십니다.
나는 모든 상처와 파괴의 말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하지만 저의 말은 너무 자주
사람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의욕을 꺾고,
공기마저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농담이라며 던진 말이 누군가의 가슴에 상처가 되었
고,
지적이라며 내뱉은 말이 누군가를 죄책감에 빠뜨렸
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의 말을 다시 다듬어 주소서.
한 마디 말이 사람을 살릴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사용하는 단어 하나, 말투 하나까지도
성령님께 묻고 의지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내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칭찬이 되고, 격려가 되고, 축복이 되게 하소서.
불필요한 말은 삼키게 하시고,
해야 할 말을 용기 있게 전하게 하시며,
말이 행동과 삶으로 이어지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 말이 누군가의 어둠 속에 빛이 되게 하시
고,
지친 마음에 위로가 되게 하시며,
막혀 있던 관계에 다리가 되게 하소서.
나는 생명의 말을 전할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축복의 언어를 사용할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로 전할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 무너뜨렸던 말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저의 입술로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나는 모든 험담과 비난의 영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지나간 날들 속에서 얼마나 많은 말을 후회했고,
얼마나 많은 말을 돌이킬 수 없게 흘려보냈는지 모릅니다.
사람을 웃기기 위해, 또는 내가 더 우월해 보이기 위해,
무심코 뱉은 말들이 누군가의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누군가의 마음에 깊은 흠집을 남겼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제 입술을 정결케 하소서.
이사야가 "입술이 부정한 자"라 고백하던 그 심정을
오늘 저도 고백합니다.
성령의 불로 제 입술을 만지시고,
다시는 그 불결한 말들이 나오지 않도록 막아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험담과 비난, 조롱과 풍자,
그 모든 죄악된 말들을 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진실하고 신실한 말만 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이 바뀌면 사람이 바뀐다는 것을 오늘도 믿습니다.
제가 바뀌는 첫 걸음이 바로 이 입술의 회개에서 시작되게 하소서.
나는 정결한 입술로 말할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회개의 말을 전할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술로 선포할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 축복의 언어로 사람을 살리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은 씨앗이고, 그 말은 심겨진 사람의 마음에서 결국 열매를 맺는 줄 믿습니다.
나는 모든 저주와 상처의 말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제 말이 축복의 씨앗이 되게 하소서.
어린 자녀에게는 정체성을 심어주고,

부부 사이에는 사랑을 견고히 하며,
공동체 안에서는 연합을 이루는
축복의 언어가 끊임없이 흘러나오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제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들의 장점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들의 가능성을 말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잠재력을
말로 격려하며 깨워주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축복의 말 한 마디가
낙심한 이에게는 일어날 힘이 되게 하시고,
지친 이에게는 쉼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며
"사랑하는 자야, 내 기쁨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음성을 기억하며
나도 누군가에게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하게 하소서.
나는 축복의 말을 심을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사람을 살리는 언어를 사용할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로 전할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 말을 멈추고 경청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때로 말은 말하지 않을 때 더 큰 힘을 가지게 됨을
이제서야 깨닫습니다.
나는 모든 경솔과 무례의 말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저는 너무 자주 말했고,
상대의 이야기를 듣기도 전에
나의 생각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제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침묵의 지혜를 주시며,
말보다 귀를 먼저 열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마음은 말을 통해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귀 기울이는 태도를 통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주님, 제가 먼저 들어주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공감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경청은 사랑임을 알게 하시고,
들어주는 그 마음이 곧 중보의 시작이 되게 하소서.
말하기보다 듣는 자가 되게 하시고,
속단하기보다 묵상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판단하기보다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나는 경청의 사랑을 실천할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침묵의 지혜를 배울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공감으로 사람을 세울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 예수님처럼 말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말씀 자체이셨고,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사람을 살리고, 고치고, 깨우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나는 모든 무례와 거짓의 말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 예수님의 말을 배우고 싶습니다.
예수님처럼 말하게 하소서.
책망하실 때에도 사랑이 묻어나게 하시고,
침묵하실 때에도 권위가 흐르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 한 마디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한 마디로 병자를 일으키셨던
그 능력과 권세가 저의 말에도 묻어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례하지 않게 하시고,
다정하면서도 진실하게 말하게 하시며,
웃기기보다 살리는 말을 선택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제 말이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말하는 자격도 생기는 줄
믿습니다.
먼저 기도로 내 마음을 다스리고
그 기도의 열매로 말을 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입술에서 흘러나왔던 생명의 말씀처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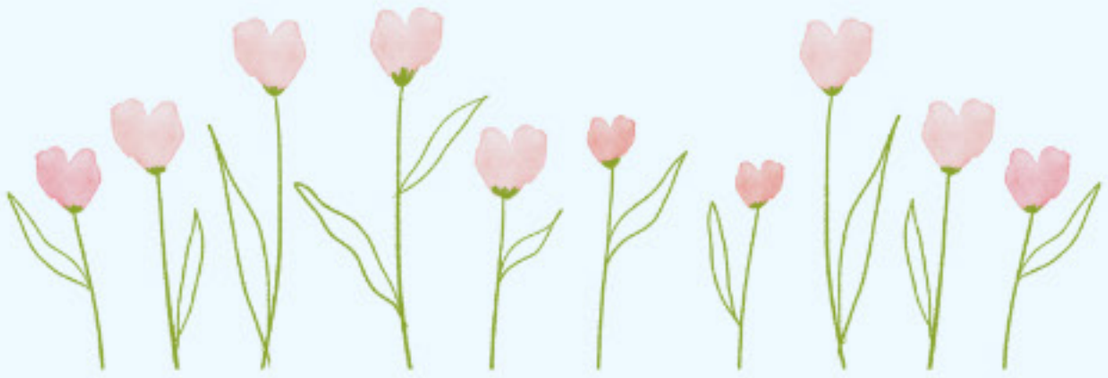
나의 입술에서도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말씀이 터져나오게 하소서.
나는 예수님처럼 말할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거룩한 언어를 사용할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생명의 말씀을 전할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78

침묵기도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면을 고요히 하게 해달라는 기도



1. 나의 내면을 조용히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는 말이 많습니다.
기도할 때조차, 내 생각과 요청, 감정과 계획으로
내 입술이 잠잠할 틈이 없습니다.
나는 모든 소란과 불안의 영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하지만 주님, 당신은 조용한 중에 말씀하시는 분이십
니다.
강풍 속에서도, 지진 속에서도, 불길 속에서도 아니
라
조용하고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오셨던 그 하나님을
이제는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제 안에 있는 소란스러운 생각들을 잠재워 주
소서.
불안과 염려, 걱정과 두려움이
내 마음을 휘감고 말씀이 뿌리내리지 못하게 했습니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세상의 소리에 휘둘렸고, 다른 사람의 말에 더 민감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잠잠히 주님 앞에 머물고 싶습니다.
말보다 눈물로, 행동보다 존재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나의 내면을 조용히 하소서.
영혼의 파도가 잔잔해지고,
마음의 바람이 멎어
하늘의 속삭임이 들리는 그 자리로 나를 이끌어주소서.
나는 고요함을 배울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주님의 음성을 기다릴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침묵으로 주님을 만날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 분주함을 내려놓고 고요함을 배우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시끄럽습니다.

끊임없이 울려대는 알람과 소식들,
사람들의 소리, 생각과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저는 점점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는 모든 분주함과 조급함의 영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분주함을 내려놓고 고요함을 배우게 하소서.
잠시라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뭔가를 해야만 마음이 편한 이 조급함에서
저를 자유케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요는 게으름이 아니라
주님과의 만남을 위한 자세임을
가슴 깊이 알게 하소서.
일의 성취보다, 말의 많음보다,
주님 앞에 잠잠히 머무는 시간을 더 귀히 여기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고요 속에서 진짜 나를 보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보게 하소서.
내가 가야 할 길이 아니라
주님이 이끄시는 길로 발걸음을 돌릴 수 있도록

침묵 속에서 인도해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고요함을 통해 내 영혼이 회복되게 하소서.
나는 분주함을 내려놓을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고요함을 품을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주님과의 만남을 사모할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당신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날마다 말씀하시고, 순간마다 감동을 주시며,
영 안에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오십니다.
나는 모든 무감각과 방해의 영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하지만 문제는 제 귀입니다.
들으려 하지 않았고, 들을 줄 몰랐고,
듣기보다 말하려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제 영혼의 귀를 열어주소서.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듣는 자가 되게 하시고,
분별의 귀, 순종의 귀, 민감한 귀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읽을 때에도, 자연 속을 거닐 때에도,
예배 시간의 찬양 속에서도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침묵 가운데서 주님을 듣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요한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의 부드러운 속삭임을 경험하게 하소서.
주의 음성은 내 영혼을 회복시키며
방향을 제시하고 지친 마음을 살리는 생수이기에
오늘도 그 음성을 기다립니다.
나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민감한 귀를 가질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하나님의 속삭임에 순종할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 내 생각을 멈추고 주님의 생각을 듣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 중에도 저는 제 생각을 멈추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내 계획을 말하고,
나의 고통을 설명하며, 내가 원하는 결과만을 구하고 있습니다.
나는 모든 계산과 소란의 영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주님, 이제는 멈추고 싶습니다.
내 생각보다 주님의 생각이 더 높음을 믿습니다.
나의 계산보다 주님의 계획이 더 완전함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의 생각을 멈추게 하소서.
내 마음속에 가득한 소란과 계산을 비우고
하나님의 생각을 들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의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사람으로
기도의 태도를 바꾸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생각은 평안이요, 미래요, 소망임을 믿습니다.
그 생각을 듣고 따라가는 인생이 가장 안전한 길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침묵하며 그 음성을 기다립니다.
나는 주님의 생각을 들을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내 뜻을 내려놓을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할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 고요히 주님 앞에 머무는 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장 깊은 기도는 말이 아니라
고요히 주님 앞에 머무는 것임을
조금씩 깨닫고 있습니다.
나는 모든 소란과 방해의 영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무 말 없이 그저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머물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말하지 않아도 주님은 아시고,
설명하지 않아도 당신은 들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진리를 알기에
저는 오늘 침묵으로 주님을 경외합니다.
내 존재 자체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눈물이 기도가 되고, 숨결이 예배가 되는
이 순간을 주님과 함께 누리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침묵의 시간 속에서
상처는 치유되고, 지친 마음은 회복되며,
혼란스러운 길은 밝아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고요히 주 앞에 머무는 자가 되게 하
소서.
세상이 아무리 바쁘고 시끄러워도
주님과 함께하는 이 침묵의 시간만큼은
놓치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나는 침묵으로 주님을 만날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고요함으로 예배할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주님 앞에 머무를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79
가정기도

가정 안에 믿음과 사랑과 화목이
충만하게 해달라는 기도

1. 믿음의 터 위에 세워지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은 하나님이 가장 먼저 세우신 공동체요,
천국을 이 땅에 맛보게 하시는 축복의 통로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바람과 사단의 공격 앞에
너무도 많은 가정이 흔들리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나는 모든 분열과 세상의 유혹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가정을 세상의 문화가 아닌
말씀 위에 세우게 하소서.
믿음이 기초가 되는 가정, 예배가 중심이 되는 가정,
기도가 숨결이 되는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가족 모두가 한 사람도 낙오하지 않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한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자라나게 하시고,

부모는 본을 보이며 말씀 안에서 훈계하게 하소서.
가정 예배가 살아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회복되며,
서로를 축복하는 말이 입술에 가득한 가정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는 가정을 무너뜨리려는 유혹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우리 가정은 주님의 반석 위에 세워질 줄 믿습니다.
믿음의 유산을 대대로 물려주는 거룩한 가문이 되게 하소서.
나는 믿음의 가정을 세울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말씀의 터 위에 설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거룩한 가문의 유산을 물려줄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 용서와 이해로 화해하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 안에서는 가장 깊은 사랑도,
가장 깊은 상처도 일어납니다.

때로는 말 한 마디, 무심한 태도 하나가
서로를 멀어지게 하고 오해와 갈등을 만들기도 합니다.
나는 모든 오해와 분노의 영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가정 안에 진심어린 용서와
깊은 이해가 회복되게 하소서.
상처 주고받은 기억보다 서로를 끌어안고
눈물 흘린 시간을 기억하게 하시고,
사랑이 미움보다 더 크다는 사실을 삶으로 증명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각자의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서로의 입장이 되어보는 겸손한 마음을 주소서.
분노를 누르고, 자존심을 꺾고,
화해의 손을 먼저 내미는 용기를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서로를 향한 기대보다
서로를 향한 기도가 먼저 나오게 하시고,
말보다 축복의 눈빛을, 지적보다 품는 마음을 갖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사랑이 가정 안에 흘러들게 하시고,
그 사랑이 다시 하나 되게 하소서.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용서하게 하시고,
용서할 수 없을 때에도 이해하게 하소서.
나는 화해의 가정을 세울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용서의 사랑을 실천할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하나님의 평화로 하나 될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 부모와 자녀가 복음으로 연결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모와 자녀는 피로 맺어진 관계이지만
신앙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서로 멀어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모든 단절과 반항의 영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부모와 자녀 사이에 복음의 끈을 놓지 않게 하소서.

자녀를 신앙 안에서 양육하게 하시고,
부모의 믿음이 삶으로 이어져 자녀에게 본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모는 자녀를 정죄하지 않고 축복하게 하시고,
자녀는 부모를 반항하지 않고 공경하게 하소서.
대화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기도가 이어지게 하시며,
서로를 위한 중보가 멈추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이 세상의 거짓된 말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진리 안에서 자라나게 하소서.
자녀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세우게 하시고, 이 세대를 이끌어갈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모도 자녀를 통해 더 깊이 하나님을 배우게 하시고,
자녀도 부모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하소서.

우리 가정이 세대와 세대를 이어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나는 복음으로 연결될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세대를 잇는 믿음을 전할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가정의 영적 유산을 세울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 사랑이 넘치는 부부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부는 서로 다른 두 사람이 하나 되어 살아가는
신비한 관계입니다.
때로는 그 다름이 갈등이 되기도 하고
서로를 이해하지 못해 마음의 벽이 생기기도 합니다.
나는 모든 갈등과 무관심의 영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부 사이에 사랑이 날마다 새롭게 부
어지게 하소서.
처음 만났을 때의 설렘이 존중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말보다 따뜻한 눈빛과 행동으로 사랑을 표현하게 하
소서.

하나님 아버지,
서로의 약함을 보며 정죄하지 않게 하시고,
서로의 아픔을 보며 무관심하지 않게 하시며,
서로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서로의 짐을 함께 지는 동역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부부의 대화가 회복되게 하소서.
감정을 쌓아두지 않고 솔직하게 나누되,
말의 칼로 찌르지 않게 하시고
위로의 말, 치유의 말, 축복의 말을 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서로를 주신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게 하시고,
함께 웃으며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룩한 동반자가 되게 하소서.
나는 사랑의 부부로 살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존중과 섬김으로 하나 될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하나님의 선물을 귀히 여길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 하나님 나라가 흘러가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가정이 단지 평안하고 행복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흘러가는 거룩한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모든 이기심과 세속적 욕망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이 이웃을 섬기게 하시고,
소외된 자들을 향한 손이 되게 하시며,
가정 안에서 이루어진 은혜와 회복이 밖으로 흘러가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중심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자녀들이 기도하는 법을 배우며,
부부가 서로 축복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다른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집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임재가 머무는 거룩한 땅이 되게 하소서.
들어오는 자마다 위로를 받고,
나가는 자마다 축복을 입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이 교회의 기초가 되게 하시고,
민족의 기초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늘의 집으로 세워지게 하소서.
나는 하나님 나라의 통로가 될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이웃을 섬기는 가정이 될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할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80
부모기도

부모로서 자녀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양육하게 해달라는 기도

1.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모로서 자녀를 키운다는 것이
얼마나 거룩한 사명인지, 또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날마다 깨닫습니다.
나는 모든 세속적 기준과 비교의 영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자녀는 하나님이 제게 잠시 맡기신 선물이며,
하나님의 목적 아래 태어난 존재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저는 자주 세상의 기준과 기대 속에서
아이를 판단하고 비교하며
하나님보다 내가 주인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게 하소서.
인간적인 조언보다 성경의 진리로
자녀에게 삶의 방향을 알려주게 하시고,
지식보다 경건을, 성공보다 순종을 가르치는
부모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제가 먼저 말씀을 사랑하게 하소서.

말씀을 가까이하는 부모가 될 때
그 향기가 자녀에게도 스며들 줄 믿습니다.
제 말보다 삶으로 본을 보이며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영적인 리듬을 가정 안에 세우게 하소서.
나는 말씀으로 양육할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믿음의 본을 보일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할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 부모됨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부모가 된 이후로 제 삶은
더 이상 제 것만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하루의 시간, 마음의 여유, 모든 생각과 판단의 중심에
자녀가 놓이게 되었습니다.

나는 모든 이기심과 피로의 영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 자녀는 나의 소유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라가야 할
하나님의 사람임을 늘 기억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모됨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단지 먹이고 재우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자라도록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돌보며 기다리는 일임을
잊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제가 지칠 때마다
당신이 나를 얼마나 오래 참으시며 양육하셨는지를
생각하게 하소서.
사랑과 훈계, 용서와 인내를 균형 있게 품은
부모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이의 모든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위에 쌓이는 열매임을 믿고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감당하게 하소서.
나는 부모됨의 사명을 감당할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기도로 자녀를 품을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양육할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 기도로 자녀의 인생을 준비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아무리 변화하고 빠르게 달려가도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자녀의 인생은 결국 하나님 손에 달려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모든 조급함과 불신의 영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제가 부모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
기도임을 잊지 않게 하소서.
말보다 기도가 앞서게 하시고,
책망보다 중보가 먼저 나오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침마다 자녀의 이름을 불러 기도하게 하시고,
저녁마다 그 하루를 축복하게 하소서.
진로와 친구, 성품과 믿음,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손이 이끄시기를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자녀가 사람의 눈보다
하나님의 눈 앞에서 살아가는 아이가 되게 하소서.
주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갖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자녀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심을 믿고
조급해하지 않게 하시며,
끝까지 자녀를 놓지 않는 믿음의 기도가 되게 하소서.
나는 기도로 자녀를 준비할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믿음의 중보자가 될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 세상의 유혹에서 자녀를 지켜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점점 더 자녀들에게
왜곡된 가치와 거짓된 유혹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나는 모든 거짓과 유혹의 영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자녀가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거짓이 진리처럼, 쾌락이 자유처럼,
죄가 권리처럼 포장되어 있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자녀가 자신을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사람들의 평가와 비교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을 살도록 영적 눈을 열어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유혹이 올 때 이길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혼자 있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믿음을 잊지 않게 하소서.
주님, 보호하시고 지키소서.
육체도, 정신도, 영혼도 온전히 거룩하게 보존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모인 제가 늘 기도하며 영적 경계에 깨어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무엇보다 자녀의 거룩함을 우선순위로 두는 삶을
살게 하소서.
나는 자녀를 지킬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거룩함을 위해 기도할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하나님의 보호를 구할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 다음 세대를 위한 영적 부모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는 단지 한 사람의 부모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세우는 영적 부모로 부름받았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모든 욕심과 세속적 계획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자녀 한 사람 안에 민족을 살릴 지도자,
세대를 변화시킬 사명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외모나 성적, 기질보다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가능성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가능성을 꺾지 않게 하시고,
기도로 이끌어 주님의 때에 꽃피우게 하소서.
제가 자녀의 장애물이 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욕심과 계획으로 아이를 끌고 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다리며
도움이 되는 영적 부모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주는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자녀의 삶을 해석하고

응원하며 축복하게 하소서.
제가 주님 앞에서 충성된 부모로 인정받고
제 자녀가 또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키워내는
영적 가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영적 부모로 설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할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하나님의 가능성을 믿을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81

자녀기도

자녀가 믿음 안에서 자라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해달라는 기도

1. 자녀가 믿음 안에서 굳건히 자라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의 자녀가 믿음 위에 굳게 서는 사람으로
자라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아이의 마음을 흔들고,
진리보다 감정과 유행을 따르도록 부추기지만
그 속에서도 변함없이 주님을 바라보는 아이가 되기
를 원합니다.
나는 모든 유혹과 거짓의 영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자녀가 어릴 때부터 주의 말씀을 가까이하게
하시고,
성경을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받게 하소서.
예배를 습관이 아닌 기쁨으로 여기게 하시고,
기도를 의무가 아닌 대화로 누리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눈길보다 주님의 눈길을 더 사모하게 하시고,
성공보다 순종이 더 귀하다는 사실을
삶 속에서 배우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제가 부모로서 믿음의 본이 되게 하소서.
말뿐이 아닌 행동으로, 책망보다 삶으로,
아이에게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삶을 살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강한 자가 되게 하시고,
시험이 와도 무너지지 않고,
믿음 안에서 다시 일어서는 아이가 되게 하소서.
나는 자녀의 믿음을 지킬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말씀으로 양육할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믿음의 본을 보일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 자녀의 인격이 예수님을 닮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의 자녀가 지식이나 기술 이전에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게 하소서.
나는 모든 무례와 자기중심의 영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겉모습보다 속사람이 중요함을 깨닫게 하시고,
겸손하고 온유하며, 진실하고 신실한 사람으로
자라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외모와 실력, 경쟁을 강조하지만
저의 자녀는 성령의 열매로 평가받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을 무시하지 않고 존중하게 하시며,
작은 자를 무시하지 않고 도우며,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리는 성숙함을 갖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례하지 않고, 자기중심적이지 않으며,
오직 사랑 안에서 사람들을 품는
영적 인격의 사람으로 자라게 하소서.
하나님, 제가 자녀의 인격을 빚는 데 있어서
성급하지 않게 하시고,
지적보다 칭찬과 기도로 인도하게 하소서.
나는 예수님의 인격을 전할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사랑의 성품을 심을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자녀의 성숙을 위해 기도할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 자녀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목적과 부르심이 있음을 믿습니다.
저의 자녀도 예외가 아님을 믿고,
그 부르심을 분별하며 살아가기를 간구합니다.
나는 모든 혼란과 세속적 욕망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자녀가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게 하소서.
자신이 왜 태어났는지, 어떤 은사를 받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주님 안에서 깨닫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직업이 아니라 사명을 따르게 하시고,
세상의 박수보다 주님의 음성을 좇게 하시며,
주어진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룩한 열정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모로서 제가 아이의 진로와 삶을
내 계획으로 정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도우미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녀의 인생이 주님의 계획 안에 놓이게 하시고,
그 길을 따라 한 걸음씩 나아가는
믿음의 여정이 되게 하소서.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전할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사명을 위해 기도할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자녀의 영적 여정을 축복할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 자녀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택하며 살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며

그 선택이 삶의 방향과 열매를 결정함을 압니다.
나는 모든 잘못된 선택과 유혹의 영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자녀가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결정하게 하소서.
사람의 말이 아닌 말씀을 따라,
감정이 아닌 믿음으로 결정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친구를 선택할 때, 배우자를 결정할 때,
진로를 정할 때, 그 모든 순간마다
주의 뜻이 먼저 떠오르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자녀에게 분별력을 주시고
세상의 소리보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민감한 영적 귀를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때론 손해를 보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믿음을 주옵소서.
제가 아이의 선택을 조급하게 재촉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함께 묻고 기다릴 줄 아는
신앙의 동반자가 되게 하소서.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분별의 지혜를 구할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자녀의 선택을 축복할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는 정체성을 흔드는 소리들로 가득합니다.
성별과 정체성, 삶의 의미와 목적이
왜곡되고 흐려지는 이 시대 속에서도
저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하게 정체성을 지켜가게 하소서.
나는 모든 거짓과 혼란의 영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누구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녀를 어떻게 부르셨는지를 기억하게 하시고,

세상의 기준과 틀에 얽매이지 않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자기다움을 발견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어진 존재임을
자녀가 마음 깊이 깨닫고
어떤 상황에서도 위축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녀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믿음의 깃발을 들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퍼뜨리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제가 부모로서 자녀의 자존감을 깎는 말이나
불신의 시선을 보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녀를 세워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정체성을 지킬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할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82
사역기도

맡겨진 사역을 성실히 감당하고
열매 맺게 해달라는 기도

1. 주님이 맡기신 사역 앞에 겸손히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주님의 일을 맡은 자로서
이 사역이 결코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임을 고백합니다.
그 무게와 책임을 생각할수록
감당할 수 없는 나 자신을 바라보며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붙들게 됩니다.
나는 모든 교만과 자기 중심의 영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제가 사역을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하지 않게 하소서.
내 이름을 드러내려 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저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때로는 열매가 없어 실망하고,
때로는 사람들의 평가에 흔들리고,
또 어떤 날은 사역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그 모든 순간에도
나를 부르신 주님이 여전히 이 자리에 계심을 믿게 하소서.
나를 통해 일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심을 잊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사역이 내 것이 아님을,
오직 주님의 사명임을 마음 깊이 새기고
항상 겸손하게 무릎 꿇는 일꾼이 되게 하소서.
나는 주님의 사역에 충성할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겸손으로 섬길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주님의 이름만 높일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역은 사람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임을 고백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전략과 계획이 있어도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그 모든 수고는 허공을 치는 것뿐임을 깨닫습니다.
나는 모든 자만과 연약함의 영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제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소서.
매 순간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게 하시고,
사역의 방향과 내용, 방법에 이르기까지
전적으로 주님께 묻고 의지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역이 되게 하시고,
결과보다 순종을, 성과보다 중심을 먼저 보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제 안에 두려움이 있다면
성령의 담대함으로 채워주시고,
나약함이 있다면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제 사역이 성령의 열매로 가득 차게 하시고,
그 열매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적 향기로 퍼져나가게 하소서.
나는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할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 지치지 않도록 날마다 새 힘을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역의 길은 아름답지만
때로는 외롭고 힘들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의 기대, 일정의 압박,
성도의 문제들, 책임의 무게 속에서
몸과 마음이 지치고
심지어 하나님과의 거리마저 멀어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나는 모든 피로와 낙심의 영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그럴 때 주님, 제게 날마다 새 힘을 주소서.
이사야의 말씀처럼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가는 힘,

지쳐도 곤비하지 않는 은혜를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사역 때문에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시고,
사역 때문에 예배를 놓치지 않게 하시며,
사역 때문에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쁠수록 더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힘들수록 더 기도의 무릎을 꿇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마다
'내가 너를 부르고 있다'는 그 확신으로
다시 일어나는 사역자가 되게 하소서.
나는 새 힘을 받을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기도로 다시 일어날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갈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 눈에 보이지 않아도 열매를 믿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는 때때로 열매를 찾습니다.
내가 한 만큼의 결과, 기도한 만큼의 변화,
수고한 만큼의 성장을 원합니다.
나는 모든 조급함과 불신의 영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하지만 주님, 열매는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뿌리의 시간도
하나님께는 소중한 열매임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보지 못해도, 수치를 낼 수 없어도,
주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그 믿음으로
사역의 자리를 묵묵히 지켜가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씨앗을 심는 날일 수 있습니다.
내일은 기다림의 날일 수 있습니다.
열매는 내가 아닌, 다음 세대가 거둘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런 모든 과정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속에서도 주님의 손길을 신뢰하며
끝까지 맡겨진 일을 감당하게 하소서.
나는 하나님의 열매를 믿을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묵묵히 씨를 뿌릴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주님의 때를 기다릴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 끝까지 충성하는 종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역을 잘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귀한 것은 끝까지 충성하는 것임을 알게 하소서.
나는 모든 익숙함과 나태함의 영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처음에 가졌던 그 눈물,
처음에 품었던 그 사명,
처음에 들었던 그 음성을 잊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함이 열정을 삼키지 않게 하시고,
성과와 비교가 내 마음을 굳게 만들지 않게 하시며,
환경의 변화가 내 순종을 멈추게 하지 않도록 붙드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역은 내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께 맡기는 순종의 여정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내가 맡은 이 자리에서 작아도, 숨어 있어도,
주님 앞에만 충성된 종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언젠가 주님 앞에 설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그 음성을 듣게 하소서.
나는 끝까지 충성할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주님의 부르심을 따를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이 될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83
인터넷기도

온라인 세상에서 말과 행동을 정결히 하며
빛으로 살아가게 해달라는 기도

1. 온라인에서도 거룩을 지키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는 인터넷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세상입니다.
정보를 얻고, 사람과 연결되며, 세상을 읽어가는
모든 접점이 디지털 속에 녹아 있는 시대 속에서
저의 삶 또한 온라인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느낍니다.
나는 모든 유혹과 불결함의 영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주님, 그 공간이 너무나도 쉽게
죄의 길로 이끌고 눈과 마음을 유혹하며
정결을 무너뜨리는 통로가 되기도 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온라인에서도 거룩을 지키게 하소서.
혼자 있는 방 안에서도 당신 앞에서 살아가는
의식을 놓지 않게 하시고,
내가 누르는 한 번의 클릭, 머무는 시간,
댓글 하나조차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행동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가면을 쓴 익명 속에서
자유롭다고 속지 않게 하시고,
늘 나를 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두려워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결을 지키기 어렵다는 이 시대에
온라인 속에서도 거룩한 흔적을 남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나는 온라인에서도 거룩할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하나님의 시선을 따를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정결한 삶을 살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 내 온라인 언어가 축복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람은 한 마디 말로 살릴 수도,
한 줄의 글로 무너뜨릴 수도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그 말은 인터넷이라는 공간에서
수천, 수만 명에게 곧바로 전달되는 강력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나는 모든 비난과 조롱의 영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의 언어를 지켜주소서.
댓글 하나, 메시지 하나, 게시물 하나에도
생명을 담게 하시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세워주는 축복의 도구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비난과 조롱, 풍자와 냉소가 일상이 된 세상 속에서
제가 감정 따라 쓰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고 말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공감과 격려, 위로와 믿음이
제 언어를 통해 흘러나오게 하시고,
진리를 말하되 사랑 안에서 말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이 사람을 만들고
글이 문화를 만든다는 것을 매 순간 잊지 않게 하시고,
제가 쏟아내는 온라인의 언어가
천국의 향기를 품게 하소서.

나는 축복의 언어를 사용할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사랑으로 말할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생명의 말을 전할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 소셜 미디어 속에서도 빛의 자녀로 살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SNS와 유튜브, 블로그와 카톡 등
우리는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고,
사람들의 눈 속에서 살아갑니다.
자기 자랑, 비교, 허세, 허위, 과장…
이 모든 것들이 온라인 공간을 덮고 있지만,
나는 모든 허영과 거짓의 영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는 그 안에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드러내기보다 하나님을 나타내게 하소서.
사람들의 칭찬을 쫓기보다 하나님의 미소를 갈망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올리는 사진과 글, 좋아요를 누르는 기준,
공유하는 콘텐츠까지도 주님의 기준에 맞게 걸러지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람을 따르지 않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팔로워 수보다 주님과의 친밀함을 더 귀하게 여기는 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두운 콘텐츠는 멀리하고,
정결한 영을 품으며,
온라인 속에서도 거룩함을 지키는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나는 빛의 자녀로 살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하나님을 나타낼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거룩한 흔적을 남길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 디지털 중독과 탐닉에서 자유케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는 때로 스스로도 모르게
인터넷에 붙잡힌 채 살아갑니다.
짧은 영상, 끝없는 스크롤,
새로운 소식과 자극에 이끌려
기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온라인에 허비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모든 중독과 탐닉의 영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를 자유케 하소서.
디지털 도구들이 삶의 우상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루를 통제하는 것이 알림과 피드가 아닌
말씀과 기도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극보다 침묵을, 즉흥보다 성찰을,
소비보다 묵상을 선택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인터넷은 필요하지만 주님보다 앞설 수는 없습
니다.

제가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주님을 붙드는 시간을 더 사랑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스스로를 절제하고
온라인 세계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소서.
나는 디지털 중독에서 자유로울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말씀과 기도를 우선할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절제의 삶을 살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 디지털 세대에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디지털 세계는 타락의 도구만이 아니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이기도 함을 믿습니다.
나는 모든 방해와 타협의 영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영상, 글, 음악, 메시지, 모든 온라인 자원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제 삶도 그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제가 올리는 콘텐츠마다
예수님의 향기가 나게 하소서.
묵상 하나, 말씀 한 구절, 간증 하나가
누군가의 심령에 씨앗이 되게 하시고,
복음이 전해지는 매개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디지털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지혜와 창의력을 주시고,
그 시대를 분별하는 눈과
그 사람을 품는 마음도 함께 허락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라인 안에서도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며
진리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흩어진 영혼들이 그 작은 콘텐츠 하나로 인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소서.
내 계정과 디바이스, 내 플랫폼과 팔로워 수까지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드립니다.
나는 복음의 통로가 될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예수님의 향기를 전할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디지털 선교를 감당할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84
직장기도

직장(일터)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자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

1. 직장에서도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은 직장을 생계의 수단이라 말하지만,
저는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있는
사명임을 믿고 기도드립니다.
나는 모든 세속적 욕망과 나태함의 영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나의 일터가 단순한 직무 수행의 장소가 아니
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드러내며,
하늘의 원칙을 실천하는 거룩한 사역의 현장임을
잊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매일 아침 출근할 때, 피곤한 몸보다 더 먼저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사람의 기준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먼저 의식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직장 속에서도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

무엇을 위해 일하고 있는지,
누구를 위한 인생을 살고 있는지를 잊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터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는 직장에서 부르심을 따를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하나님의 질서를 드러낼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 성실과 정직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직장에서 저는 평가받고 감시받으며
성과와 결과로 살아갑니다.
나는 모든 거짓과 타협의 영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사람의 눈보다 하나님의 눈을
먼저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작은 일에도 충성하게 하시고,
아무도 보지 않는 일에도 성실하게 하시며,
정직이 손해처럼 느껴지는 순간에도
끝까지 정직을 지키는 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회계의 정직함, 말의 정직함, 보고의 정직함,
시간과 관계, 업무 처리 하나하나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가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은 성과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단 한 번의 거짓도 묵인하지 않도록
양심의 거울을 맑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내가 맡은 일에서 주님의 사람답게 일하게 하
시고,
그 모습이 말없이 전하는 복음이 되게 하소서.
나는 성실과 정직으로 살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하나님의 기준을 따를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 직장 안에서 사람들과 바른 관계를 맺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직장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기쁨도 있지만 때로 갈등도 있는 곳입니다.
오해와 긴장, 다툼과 비교 속에서
나는 모든 분열과 갈등의 영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제가 사람보다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 되게 하소서.
주님, 먼저 이해하고 용납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감정보다 말씀을 따라 행동하게 하시며,
불편한 사람을 피하지 않고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담대함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상사의 권위에 순종하되 아부하지 않게 하시고,
동료들과 화목하되 신앙의 기준을 잃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랫사람에게는 친절과 존중으로 대하고,
경쟁이 아닌 협력의 정신으로 일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이
그리스도의 대사처럼 사람들을 살리는
통로가 되게 하소서.
나는 바른 관계를 맺을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사랑으로 섬길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화목의 통로가 될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 유혹과 스트레스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직장 생활은 때때로 너무나 지치고
영적으로 무기력해지는 시간을 만듭니다.
스트레스, 피로, 눈치, 압박, 유혹이
믿음을 흔들려 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모든 유혹과 피로의 영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런 순간에도 제 영혼을 깨우게 하소서.
바쁠수록 기도하게 하시고,
지칠수록 더 주님을 찾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유혹이 올 때 단호하게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편법이 이득처럼 보일 때에도 정직의 길을 선택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회사 내 회식, 술자리, 뒷말과 같은 환경에서도
내 신앙의 선을 지키게 하시고,
침묵할 때와 말할 때를 분별하며
끝까지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귀의 불화살 앞에 방패 되시며
마음과 입술, 시선과 손까지 지켜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나는 믿음을 지킬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정직의 길을 따를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 일터를 복음의 장으로 사용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직장은 단지 돈을 벌기 위한 공간이 아니라
내가 보낸받은 선교지임을 믿습니다.
나는 모든 세속적 목표와 방해의 영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내가 있는 이곳이 예배의 현장이 되게 하시고,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는 밭이 되게 하소서.
하루 종일 주님의 이름을 말하지 않더라도
내 말과 태도, 일하는 방식, 관계 속에서
사람들이 "그 안에는 뭔가 다르다"고 느끼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제가 먼저 정결하게 하시고,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나를 통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작은 통로가 되게 하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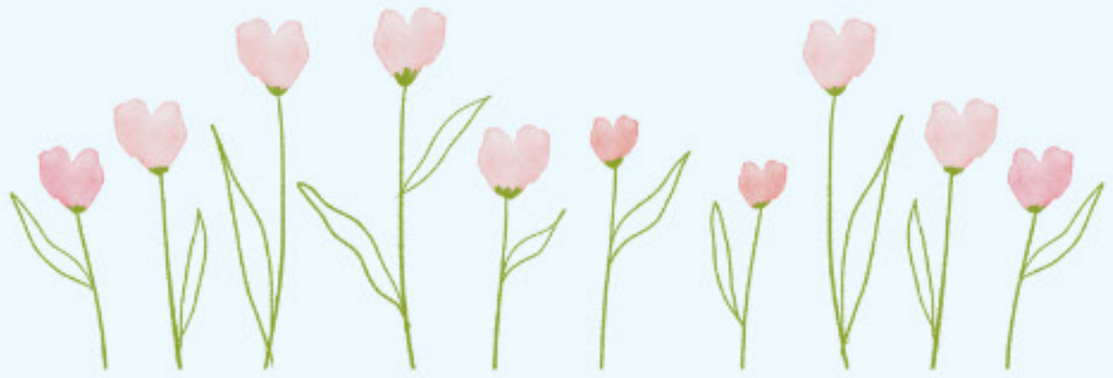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의 변화가 부서를 바꾸고 회사를 변화시키며
일터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제 일터를 통해 복음의 열매가 맺히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를 보게 하소서.
나는 일터에서 복음을 전할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85
공부기도

배우는 일에 성실하며 지혜와 인내로
감당하게 해달라는 기도



1. 배우는 자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임을 깨닫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공부할 수 있는 환경과 시간,
그리고 배움의 기회를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모든 게으름과 무기력의 영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교육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기억하며
이 시간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소서.
세상은 성적과 결과만을 말하지만
저는 이 공부의 시간 속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담겨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공부는 단순한 지식 축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치기 위한 준비임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 오늘도 제가 책상 앞에 앉을 때
지루함과 게으름을 이기게 하시고,
'왜 공부하는가'라는 질문 속에서 분명한 사명감을
품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단순히 높은 점수나 성취를 넘어
배움을 통해 사람을 섬기고,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기 위한 준비의 시간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공부의 자리를 주님의 부르심으로 여기며
성실히 감당할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배움의 사명을 품을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하나님의 뜻을 위한 준비를 할 것을 선포하노
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 성실함과 꾸준함을 배우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공부는 하루 이틀로 완성되는 일이 아니기에
저는 자주 지치고 흔들리며
때로는 중간에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나는 모든 나태함과 포기의 영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하지만 주님, 작은 성실이 큰 미래를 만든다는 것을
다시 깨닫게 하시고,
오늘 하루, 지금 이 순간의 태도가
내일을 결정짓는 씨앗임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루에 얼마를 했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진심으로 최선을 다했는지가
하나님 앞에서 중요함을 기억하게 하시고,
남들이 보지 않아도 혼자 있을 때 더욱 성실한 사람
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집중력을 주시고
게으름과 핑계를 이겨내게 하시며,
루틴을 지키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지혜로운 공부 습관을 갖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과정에 충실하며 매일 성실히 걸어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성실함을 배울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꾸준함으로 나아갈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하나님께 과정과 결과를 맡길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식은 세상에서 배울 수 있지만
지혜는 오직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믿습니다.
나는 모든 무지와 혼란의 영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와 명철,
총명과 분별력을 제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읽고, 이해하고, 암기하고, 응용하는 모든 과정에서
머리가 아닌 영으로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단순히 외우는 공부가 아니라
깨닫고 통찰하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공부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제가 읽을 때 눈을 밝히시고,

들을 때 귀를 여시며,
쓸 때 손과 마음에 은혜를 부어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험과 과제, 발표와 토론 속에서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안에서 배움의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혜를 사랑하게 하시고,
지혜 있는 자들과 동행하게 하시며,
배움을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는 영적 민감함을 부어
주소서.
나는 지혜를 구할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하나님의 총명을 받을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배움의 기쁨을 누릴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 인내와 집중력을 주셔서 끝까지 감당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공부는 때로 지루하고

끝이 보이지 않는 여정처럼 느껴집니다.
수많은 유혹이 있고,
나태함과 비교, 자기 비하의 소리에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나는 모든 유혹과 낙심의 영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럴 때마다 저를 다시 세워주소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보다 견디는 믿음을 주시고,
피하고 싶은 마음보다 집중하는 의지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공부가 단지 지식을 위한 일이 아니라
인격과 태도, 삶의 자세를 훈련하는 과정임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잠깐의 휴식은 취하되,
게으름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잠시의 유혹은 이기되,
끝까지 성실함을 유지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작은 집중이 큰 결과를 만든다는 사실을
매일의 시간 속에서 체험하게 하소서.
나는 인내로 공부할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집중력을 유지할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끝까지 감당할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 모든 배움의 열매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배우는 모든 지식과 기술,
연습과 수고의 결과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모든 자만과 세속적 욕망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공부가 나의 영광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수단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결국 내가 쌓은 지식이 누군가를 살리고,
어두움을 밝히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빛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제가 배우는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가치와 원칙을 따르게 하시고,
경쟁보다 섬김을, 지식보다 사랑을 우선시하는
믿음의 공부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좋은 결과를 얻게 하실 때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실패를 경험할 때 낙심하지 않게 하시며,
항상 하나님만을 중심에 두는 겸손한 배우는 자가 되
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배움의 열매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섬김으로 배울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겸손한 마음으로 공부할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86
선택기도

인생의 중요한 선택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게 해달라는 기도

1. 선택의 두려움 앞에서 주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는 지금 제 인생에 중요한 선택 앞에 서 있습니다.
한 걸음이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도 있다는 생각에
두려움과 망설임, 걱정이 마음을 가득 채웁니다.
나는 모든 두려움과 불안의 영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내 마음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결정의 순간에 불안보다 믿음을 선택하게 하시고,
주님의 손이 나와 함께하신다는 확신 속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의 말과 상황의 분위기보다
주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나의 길을 여시는 분임을
날마다 고백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제 앞에 열려 있는 문이 어디로 통하든
그 안에 주님이 계시기를 소망합니다.

목표보다 방향이, 결과보다 주님의 동행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믿고
오늘 이 선택의 길에서도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주님을 신뢰할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믿음으로 선택할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만을 판단하지만
주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때로 합리성과 조건, 감정과 주변의 설득에 따라
선택하려는 저를 봅니다.
나는 모든 혼란과 세속적 기준의 영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제 눈을 밝혀주소서.

진짜 옳은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 가운데 빛을 비추어주시고,
성령께서 제 마음에 감동을 주시며,
기도 중에 명확한 방향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불분명할 때에는
먼저 멈추고 기다릴 줄 아는 용기를 주시고,
분명한 사인을 보여주실 때에는
순종하여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결과만 보지만
하나님은 그 선택 안에서 무엇을 믿고,
누구를 따르며 어떻게 순종했는지를 보시는 분임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말씀의 빛을 따를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순종의 길을 걸을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 조급함을 내려놓고 기다리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결정을 앞둔 저는 너무 조급합니다.
시간은 부족하고, 사람들의 압박은 무겁고,
내 마음은 불안합니다.
나는 모든 조급함과 불신의 영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하지만 주님, 이럴수록 조급함을 내려놓고
잠잠히 주님의 뜻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기다림은 낭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가장 깊은 시간임을 기억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기다리지 못해
자기 방법을 선택했던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지 않게 하시고,
요셉처럼 억울해도, 다윗처럼 기회가 보여도
하나님의 때를 끝까지 믿고 기다리는 자가 되게 하소

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시간이 흘러도 응답이 없을 때
제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침묵 중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심을 신뢰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라는
그 음성을 오늘 마음 깊이 새깁니다.
나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침묵 속에서도 신뢰할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주님의 뜻을 따를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결정을 앞두고 너무 많은 말들이 들려옵니다.

친구의 조언, 부모님의 의견, 세상의 기준…
어느 말이 맞는지도 헷갈리고
점점 더 마음은 혼란스러워집니다.
나는 모든 혼란과 세상 소리의 영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모든 소리 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소서.
사람의 생각보다 높고, 사람의 계획보다 완전한
하나님의 뜻이 제 안에 들려지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엘리야가 세미한 음성을 들은 것처럼,
주님과 단둘이 있는 시간 속에서
저도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음성 하나로 충분한 결정을 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보기엔 어리석어 보여도
하나님의 뜻이면 따르게 하시고,
사람이 환영해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으면
뒤돌아설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한 자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길 위에서 가장 큰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를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순종의 길을 걸을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주님의 말씀에 민감할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 선택 후에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선택을 하고 난 후에도 제 마음은 종종 흔들립니다.
'이게 맞았을까?', '다른 길을 택했어야 했나?'
후회와 비교, 불안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나는 모든 후회와 불안의 영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하지만 하나님, 제가 선택한 그 길 위에
주님이 함께하신다면 그 모든 걸음은 복된 걸음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결정 이후에도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길을 바꿀 수 없다면 시선을 바꾸게 하소서.
불평 대신 감사, 불안 대신 기도,
후회 대신 소망으로 선택한 길을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때로 잘못된 길이라 해도 그 속에서도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다시 주님을 붙들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선택이 끝이 아니라 믿음의 여정의 시작임을 기억하며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나는 주님을 바라볼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감사와 소망으로 걸을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할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87
감정기도

분노, 우울, 불안 등 감정을 하나님 안에서
다스리게 해달라는 기도

1. 감정을 정직하게 마주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 마음속에 솟구치는 다양한 감정들 앞에 엎드립니다.
분노와 우울, 불안과 초조함,
때로는 설명할 수 없는 막연한 두려움까지,
이 모든 감정들이 저를 지배하고 휘둘러
제 영혼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나는 모든 혼란과 무기력의 영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저는 이 감정들이 어디서부터 왔는지조차 모른 채
그냥 무기력하게 눌리고 지치고 멍하니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 저의 이 감정을 억누르거나 외면하지
않고
정직하게 마주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편 기자처럼 저도 [시 42:5] “내 영혼아 네가 어찌
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라고 제 영혼을 다
그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느끼는 이 감정들은 죄가 아니며,
오히려 저를 당신 앞으로 이끄는 도구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분노할 때, 그 분노가 타인을 향한 정죄가 아니라
불의에 대한 거룩한 분별로 변화되게 하시고,
우울할 때에는 그 침묵 속에서도 주님의 따뜻한 음성을 듣게 하시며,
불안할 때에는 이 모든 불확실함을 주님의 손에 맡기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정은 인간의 일부이지만 그 감정이 저를 지배하지 않게 하소서.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 제 감정 위에 주님의 주권이 세워지게 하소서.
나는 감정을 정직히 마주할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하나님 앞에 고백할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성령의 주권을 따를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 분노를 인내로, 두려움을 담대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저는 제 속에서 일어나는 분노와 두려움의 감정을 다
스리지 못해
말로 상처를 주고, 행동으로 실수하며,
마음으로 무너져 내리곤 합니다.
나는 모든 분노와 두려움의 영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분노는 때로 억울함과 상처에서 비롯되어
정의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지만,
결국 죄의 문을 여는 도구가 됩니다.
두려움은 미리 일어나지 않은 일을 상상하게 만들고,
그 상상이 현실을 삼켜버리며 저를 무력하게 만듭니
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강하시고, 저를 변화시키시는 분이
십니다.
저의 분노를 인내로 바꿔 주시고,

저의 두려움을 담대함으로 변화시켜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는 인간이기에 감정을 느끼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 감정에 끌려가지 않고, 오히려 그 감정을 통해
더 깊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잠 16:32] "노하기를 더디 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
으니라"고 하신 주님,
저의 감정도 말씀으로 훈련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절제되고 정돈되게 하소서.
나는 인내와 담대함을 선택할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말씀으로 훈련될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 감정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마음은 바람처럼 변하고,

감정은 파도처럼 흔들리며
때로는 이유 없이 슬프고, 기분이 가라앉기도 하고,
어떤 날은 아무 이유 없이 모든 것이 싫어질 때도 있습니다.
나는 모든 변덕과 불안정의 영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 저는 더 이상 감정의 노예가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감정이 오늘은 이렇고, 내일은 저렇다 하여
그에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 위에 굳게 선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정은 느껴지지만, 믿음은 선택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나는 믿음을 선택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진리를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기분이 바닥일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며
내가 흔들릴 때에도 주님의 손은 흔들리지 않음을 믿

습니다.
[사 26:3]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하셨사오니,
저의 마음이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고정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정을 억누르거나 무시하지 않되
그 감정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소서.
나는 믿음으로 살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을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주님의 말씀을 따를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 우울의 그림자를 거두시고 빛을 비추소서

하나님 아버지,
때로 마음에 짙은 그림자가 드리웁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마음이 무겁고,
모든 것이 의미 없어 보이며,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도, 무언가를 하는 것도
힘겨운 나날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나는 모든 우울과 공허함의 영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것이 바로 우울이라는 감정의 실체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저의 연약함을 아시고,
마음속 깊은 어두움까지도 이해하시는 분이시기에
이 어두운 터널 속에서도 저는 당신께 손을 내밉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제 안에 있는 상처와 공허함을
주님으로 채워 주소서.
외로움이 쌓여 무거워진 마음을,
사랑으로 감싸 주시고, 주님의 따스한 손으로 안아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는 혼자가 아니고, 이 우울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시 34:18]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하신 말씀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울함을 이길 힘은 내게 없지만
당신의 은혜는 모든 감정보다 크고 능력 있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의 빛이 제 마음에 비추어
우울의 그림자가 사라지게 하소서.
나는 하나님의 빛을 받을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주님의 사랑을 의지할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은혜로 채워질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 감정 위에 주님의 평안을 세우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는 감정이라는 바다 위에 떠 있는 작은 배와 같습니다.
바람이 불면 휘청이고, 파도가 치면 요동하며
어떤 날은 맑고 고요하지만, 어떤 날은 폭풍이 몰아치듯
내면이 소란스럽습니다.

나는 모든 소란과 불안의 영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의 이러한 감정들을 이해해주시고,
그 위에 하나님의 평안을 세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감정은 실재하나, 그것이 진리는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제 감정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불안한 마음엔 "[빌 4:6]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셨고,
그 결과 "[빌 4:7]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말씀이 지금 제게 실제가 되게 하소서.
감정이 흔들려도, 생각이 무너져도
하나님의 평강은 변치 않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평강을 제 내면 깊숙이 받아들이고,

감정이라는 파도를 넘어 믿음과 진리의 항구로 닿게 하소서.
나는 하나님의 평안을 받을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말씀 위에 설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주님과 동행할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88
문화기도

세상 문화를 분별하고 거룩한 문화로
살아가게 해달라는 기도

1.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온 세상은 크고 빠른 소리로 저를 유혹합니다.
화려한 영상, 중독적인 음악, 자극적인 말과 이미지들이
끝없이 몰려와 저의 생각과 감정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나는 모든 유혹과 세상 소리의 영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는 이 세상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화에 물들지 않고, 분별하며 살아가기란
너무나 어려운 시대에 제가 서 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유행이 진리처럼 여겨지고,
대중의 목소리가 기준처럼 들리는 이 시대에
저는 하나님 한 분만을 따르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롬 12:2]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

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하셨으니, 이 말씀이 제 삶의 기준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음란한 것인지,
무엇이 우상숭배인지, 무엇이 교묘한 타협인지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눈을 열어 주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문화,
말씀을 기준 삼은 거룩한 삶을 선택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말하는 자유는 방종이요,
세상이 말하는 표현은 탐욕이요,
세상이 말하는 개성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교만일 수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말씀 안에 있고, 참된 기쁨은 거룩 속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소서.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를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거룩한 삶을 선택할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말씀의 기준으로 살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 대중문화 속에 거룩한 영향력을 흘려보내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는 이 땅 위에 살고 있는 한 사람의 시민으로
TV를 보고, 영화를 즐기며, 음악을 듣고, 인터넷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문화적 소비 가운데
내가 무뎌지고, 혼탁해지며, 죄에 대해 둔감해질까 두렵습니다.
나는 모든 타협과 무딘 영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의 문화는 너무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게 만들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 타협하게 하고 길들여 버립니다.
하나님, 제가 거룩함을 잃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문화가 곧 사람들의 생각이 되고,

사람들의 생각이 세상을 움직이게 되는데,
그 흐름 속에서 나도 모르게 악을 정당화하고,
죄를 낭만화하며, 거룩을 비웃는 자리에 앉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제가 문화의 소비자로만 남지 않게 하시고
그 문화를 재창조하며, 거룩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문화의 선한 창조자가 되게 하소서.
나의 SNS 한 줄, 유튜브에서 누르는 '좋아요' 하나,
내가 쓰는 단어, 듣는 음악, 보는 콘텐츠 하나하나가
주님의 빛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 5:14]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사오니
세상 속에서 묻히는 존재가 아니라
문화 속에서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빛의 사람으로 서게 하소서.
나는 거룩한 영향력을 흘릴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주님의 빛을 드러낼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문화의 창조자가 될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 말씀의 거울로 문화를 분별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가 살아가는 세상은 문화라는 이름 아래
모든 것을 허용하고, 모든 것을 아름답다고 포장하고,
모든 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해도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모든 방종과 혼탁함의 영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주님, 저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고,
모든 것이 자유라고 해서 모든 것이 거룩하지는 않음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제가 말씀의 거울을 항상 품게 하시고
그 거울에 비추어 이 세상의 문화를 분별하게 하소서.
사람들이 좋다고 해도 말씀과 어긋난다면 단호히 거절하게 하시고,
사람들이 따분하다고 해도 말씀에 부합된다면 기쁘

게 선택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아 내 눈이 보는 것을 절제하고,
내 귀가 듣는 것을 조심하고,
내 입술이 말하는 것을 정결하게 하소서.
[시 119:105]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라고 하셨사오니
어두운 문화의 골목마다 말씀의 빛을 들고 나아가게 하시고,
모든 유혹 앞에서 말씀이 나의 방패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거룩은 소극적인 도피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적극적으로 살아내는 능력임을 믿습니다.
말씀의 힘으로 이 문화를 이기고,
문화의 중심에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자로 세워 주소서.
나는 말씀으로 분별할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거룩함을 선택할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하나님 나라를 드러낼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 거룩한 습관이 나의 문화를 바꾸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람은 자신이 만든 문화를 따라 살아간다고 합니다.
작은 습관이 쌓여 하나의 분위기를 만들고,
그 분위기가 곧 문화가 되어
우리의 가치관과 삶을 지배하게 됩니다.
나는 모든 세속적 습관과 우상의 영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의 습관을 돌아보게 하소서.
하루에 가장 오래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자주 사용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의지하는 것과 위로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혹시 그 안에 하나님보다 더 가까운 세상의 것이 있다면,
그것을 과감히 끊을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묵상하는 습관, 감사하는 언어를 쓰는 습관이

저의 문화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습관들이 모여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만들
어가게 하시고,
그 문화가 제 가정과 교회, 공동체, 사회에
거룩한 영향력을 퍼뜨리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갈 5:22-23] 성령의 열매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저의 일상 안에서 흘러나오게 하소서.
나는 거룩한 습관을 쌓을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만들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 다음 세대에게 거룩한 문화를 물려주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비단 나 혼자만이 아

닙니다.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 아직 믿음을 선택하지 않은 이들도
지금의 문화 속에서 가치관을 형성하고 살아갑니다.
나는 모든 음란과 폭력의 영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제가 지금 어떤 문화를 따라 사느냐에 따라
다음 세대가 무엇을 배우고,
어떤 방향으로 자라나는지가 결정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음란과 폭력에 노출시키고
하나님의 질서를 거부하는 내용을
자유와 표현의 이름으로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때에 깨어 있는 어른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을 하나님 나라의 문화로 채우게 하시고,
말씀의 가치관을 중심에 두고 자녀를 양육하게 하소서.
교회 안에 세상의 유행이 아닌,
거룩한 경건의 문화가 살아 숨 쉬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신 6:6-7]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지니라” 하신 명령처럼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 속에서 말씀의 문화를 전수하게 하소서.
나는 다음 세대에 거룩을 전할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말씀의 문화를 물려줄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하나님의 생명력을 드러낼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89

연합기도

교단과 교회를 넘어 하나 되게 해달라는 기도

1.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불려진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서로 다른 교단과 신학,
다른 전통과 예배 방식으로 인해
서로를 오해하고, 비판하며,
때로는 분열되어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모든 교만과 분열의 영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은 찢겨 있지 않는데
우리의 교회는 갈라져 있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할 이 시대에
우리는 내 편, 네 편을 나누며 논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먼저 우리 안의 교만과 이기심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옳다고 주장하기에 앞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묵상하게 하소서.
우리의 관점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게 하시고,
우리의 전통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더 소중히 여기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앞두고 [요 17:21]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
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
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기도의 마음이 오늘 저희에게도 흘러들게 하소서.
교단의 이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
모두가 다시 모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다시 하나 되어
세상에 참된 연합의 증거가 되게 하소서.
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 될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복음으로 연합할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세상에 증거가 될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 서로 다름을 이해하고 존중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각기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어떤 이는 손을 들어 찬양하고,
어떤 이는 조용한 묵상으로 기도하며,
어떤 교회는 뜨겁고, 어떤 교회는 질서 정연합니다.
나는 모든 비판과 비교의 영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다양한 모습이 틀린 것이 아니라
다름임을 깨닫게 하소서.
우리의 시선이 비판이 아닌 이해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비교가 아닌 존중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지체가 각각 다르되 하나의 몸을 이루는 것처럼
교회마다 받은 은사와 사명이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려는 동일한 목적 안에서
연합의 은혜가 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른 교회에 대해 험담하거나 조롱하지 않게 하시고,
서로의 부족함은 덮어주며
서로의 강점은 배우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전 12:25-26]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으니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
느니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의 몸임을 기억하게 하소서.
나는 다름을 존중할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연합의 은혜를 구할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하나됨을 실천할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 연합하여 세상을 감동시키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세상은 교회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서로 갈라져 싸우는 모습을 보고
복음의 능력을 의심합니다.
나는 모든 분열과 불신의 영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연합해야 세상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어 사랑할 때,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교회들이 연합하게 하소서.
지역을 넘고, 교단을 넘고, 이해관계를 넘어서
오직 복음 때문에, 오직 예수님 때문에
마음을 합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예배하고, 함께 섬기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사명을 감당하며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진정한 연합의 모습을 이루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 133:1]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말씀처럼, 연합은 주님의 기쁨이요,
연합은 성령께서 일하시는 통로임을 믿습니다.
나는 세상을 감동시킬 연합을 선포하노라!

나는 복음으로 하나 될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 십자가 앞에서 모든 벽을 무너뜨리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앞에서는 모두가 죄인이며
모두가 은혜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을 볼 때에는
자꾸만 차이를 먼저 보고,
배경과 교단, 스타일과 표현을 보며
판단하고 거리를 두려 합니다.
나는 모든 판단과 벽의 영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는 모든 벽을 무너뜨렸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의 벽, 남자와 여자의 벽,
종과 자유인의 벽, 지식과 무지의 벽,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만들어 놓은 교단과 전통의 벽
까지도
십자가는 모두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십자가 앞에 다시 서게 하소서.
우리가 지닌 자부심과 신념,
전통과 교리의 차이마저도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다 녹아지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엡 2:14]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 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며
그 담이 지금 이 시간 무너지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이름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소서.
그리고 그 이름 아래 하나 되어
복음을 위하여 다시 손을 맞잡는 은혜의 연합을 이뤄
가게 하소서.
나는 십자가로 하나 될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모든 벽을 무너뜨릴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복음의 연합을 이룰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연합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분열된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맙니다.
나는 모든 분열과 이기심의 영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 연합하지 않는다면
세상은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지 못하며
교회는 힘을 잃고 맙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합은 단순히 좋은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것임을 다시 깨닫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서로를 살리고 세우는 연합,
복음을 위해 함께 헌신하는 연합,
세상을 향해 함께 나아가는 연합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시작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요 13:35]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연합은 가장 강력한 복음의 증거입니다.
교회가 교회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목회자가 목회자를 축복하게 하시며,
성도가 타 교회를 위해 섬기게 하소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연합을 선포하노라!
나는 복음의 증거가 될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섬길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90
은혜기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누리게 해달라는 기도

1. 받은 은혜를 잊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숨 쉬고 있음이 은혜입니다.
아침에 눈을 떠 햇살을 보게 하시고,
말할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음이 다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나는 모든 불평과 무감각의 영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이 은혜들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왔던
지난 날을 회개합니다.
작은 불편함에는 쉽게 원망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불평했으며,
정작 주님의 풍성한 은혜에는 무감각했던
저의 메마른 영혼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제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게 하소서.
과거의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지금 이 순간도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 103:2]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신 말씀처럼,
날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숨 쉬고,
은혜로 생각하고, 은혜로 걸어가게 하소서.
나는 은혜를 기억할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감사로 살아갈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 은혜에 익숙해지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장 무서운 것은 은혜를 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은혜에 익숙해져서 더 이상 감격하지 않는 마음임을
압니다.
나는 모든 무딘 마음과 의무적 신앙의 영을 파쇄하노
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는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어느샌가 그 은혜들이 습관처럼 느껴지고,
감격보다는 의무로, 감사보다는 의심으로 채워질 때
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무뎌진 제 마음을 깨우소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더 이상 낯익은 이야기로 들리지
않게 하시고,
그 사랑이 여전히 저를 눈물짓게 하게 하소서.
예배의 자리에서 감동이 식지 않게 하시고,
기도의 시간이 피곤한 시간이 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히 4:16]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신 말
씀처럼,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에 무릎 꿇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는 지식이 아니라 경험이고,

체험이 아니라 인격의 만남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매일의 삶 가운데 느끼게 하소서.
나는 은혜에 감격할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새롭게 예배할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하나님과 동행할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 은혜로 살고 은혜로 전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오늘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내 힘으로 아무것도 이뤄낼 수 없으며,
모든 열매의 시작도, 결실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음을 인정합니다.
나는 모든 자만과 이기심의 영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는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흘러가는 생명임을 믿습니다.
나를 통해 누군가가 위로받고,

나를 통해 누군가가 살아나며,
나를 통해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받은 자답게 말하게 하시고,
은혜 받은 자답게 행동하게 하소서.
은혜 받은 자는 쉽게 판단하지 않고,
쉽게 정죄하지 않으며,
용서하고 감싸주고 참을 수 있음을 삶으로 드러내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가 얼마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나의 가족과 이웃이 느낄 수 있게 하시고,
나의 존재가 곧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전하는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전 15:10]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제 고백이 되게 하소서.
나는 은혜로 살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은혜를 전할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복음의 통로가 될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은혜는 언제나 넘치고 풍성합니다.
마르지 않는 샘처럼, 고갈되지 않는 강물처럼
하루하루 저의 삶을 적셔 주셨습니다.
나는 모든 이기심과 탐욕의 영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그 은혜를 혼자만 누리고,
나만 살고자 움켜쥐려 했던
제 좁은 마음을 용서해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내가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 누군가가 소망을 발견하게 하시고,
나의 격려 한 마디, 나의 작은 기도,
나의 손 내밂 하나하나가
주님의 은혜로 전해지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가 받은 사랑만큼,
누군가에게 베푸는 사랑도 커지게 하시고
내가 받은 용서만큼,
누군가를 품는 자비도 깊어지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 10:8]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하셨사오니,
나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흘려 보내시는
은혜의 강줄기 되게 하소서.
나는 은혜의 통로가 될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사랑과 자비를 베풀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흘릴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 날마다 새롭게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는 한때 받은 감격이 아니라
날마다 새롭게 누려야 하는 생명의 양식임을 고백합니다.

나는 모든 무감각과 반복의 영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어제의 은혜로는 오늘을 살 수 없기에
오늘도 새로운 은혜를 간구하며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벽의 기도에 임하시는 은혜,
말씀 속에 비추어지는 은혜,
조용한 묵상 속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까지
저의 하루하루가 은혜로 시작되고
은혜로 이어지며 은혜로 마무리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분주하고, 삶은 반복되고,
마음은 지치고, 현실은 고되지만
그 모든 속에서도 은혜를 발견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애 3:22-23]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므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

도소이다."

이 말씀이 오늘 제 하루의 고백이 되게 하소서.

나는 날마다 새 은혜를 누릴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감사로 하루를 채울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91

절제기도

탐욕과 쾌락을 이기고 자제하며
주님을 따르게 해달라는 기도

1. 마음의 욕망을 다스리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제 마음 속 깊은 곳에는 끊임없이 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더 갖고 싶고, 더 누리고 싶고,
더 인정받고 싶은 욕망들이
마치 파도처럼 밀려오며 저를 삼키려 합니다.
나는 모든 탐욕과 욕심의 영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는 때로 그 욕망이 저를 살아가게 하는 동력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는 힘이 아니라,
내 힘으로 살아보려는 욕심의 덩어리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제 마음의 욕망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필요 이상의 것을 구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을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잠 30:8-9]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고백했던 말씀처럼,
저도 탐욕도 가난도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삶을 선택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절제는 힘없는 자의 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절제의 은혜로 조급한 마음을 다스리고,
경쟁심을 내려놓고, 나 자신을 훈련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나는 욕망을 다스릴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절제로 살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 눈과 귀의 문을 지켜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는 유혹이 너무나 많고,
저의 눈과 귀는 너무나 쉽게 더러운 것에 노출됩니다.
보고 싶지 않아도 보게 되고,
듣고 싶지 않아도 들리는 쾌락과 자극의 문화 속에
살고 있기에 저는 절제하지 않으면 쉽게 무너지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나는 모든 유혹과 더러움의 영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제 눈을 지켜주소서.
음란한 영상, 거짓된 화려함,
질투를 일으키는 비교의 이미지 앞에서
눈을 돌릴 수 있는 은혜를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제 귀를 지켜주소서.
험담과 불평, 세상의 소음과 유혹의 목소리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더 깊이 듣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 101:3]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하리니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것이 내게 붙어 있지 못하게 하리이다"
고백했던 시편 기자처럼,
저 또한 비천한 것을 내 삶에서 몰아내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절제는 단순한 금욕이 아니라 영혼의 자유를 누리는
길임을 깨닫게 하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깨끗한 눈과 귀를 가진 자로 살아가게 하소서.
나는 눈과 귀를 지킬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영혼의 자유를 누릴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 말과 행동을 절제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이 많아질수록 죄도 많아지고,
행동이 앞설수록 실수도 커지는
연약한 제 모습을 아버지 앞에 올려 드립니다.
나는 모든 경솔함과 분노의 영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한마디 말로 누군가를 살릴 수 있지만,
또 한마디로 누군가를 찌르기도 하고
감정 따라 휘두른 행동 하나로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너무나 많이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제 입술을 절제하게 하소서.
말해야 할 때와 침묵해야 할 때를 알게 하시고,
말을 뱉기 전에 그 말이 누군가에게 은혜가 될지를
먼저 생각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제 행동을 절제하게 하소서.
즉흥적인 반응이 아니라 기도 후에 움직이는
믿음의 결단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약 1:19-20]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하며 성내기도 더디 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말씀하셨사오니,
분노보다 인내를, 비난보다 축복을 택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나는 말을 절제할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행동을 다스릴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하나님의 품격을 드러낼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 음식과 쾌락을 이기는 절제를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육신의 욕구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먹고, 자고, 쉬고, 즐기는 것들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나는 모든 탐식과 쾌락의 영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그것에 지배당할 때, 그것을 우상처럼 여길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보다 우선될 때
그것은 죄가 되고, 영혼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무기가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음식 앞에서 절제하게 하소서.

필요 이상의 탐식이 내 육체와 마음을 망치지 않게 하시고,
감정의 허기를 음식으로 달래려 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쾌락 앞에서 절제하게 하소서.
게임, 드라마, 유튜브, 세상 재미가
제 영혼을 잠식하지 않도록,
내 영적 예민함이 무뎌지지 않도록 성령으로 저를 지켜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전 9:27]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고백했던 바울의 고백처럼,
저도 제 몸을 훈련하게 하시고 절제로 거룩을 지켜가는 삶을 살게 하소서.
나는 음식과 쾌락을 이길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성령으로 지켜질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거룩한 삶을 살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 성령의 열매로 절제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절제는 제 의지로만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잠깐은 이기고, 하루는 버티지만,
언젠가 다시 무너지는 것이 저의 한계이고, 저의 민낯입니다.
나는 모든 연약함과 자기중심의 영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며 절제의 능력을 부어 주신다면
저는 비로소 이기며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갈 5:22-23]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열매가 내 안에 맺히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절제는 성령의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열리는 열매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할수록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줄어들고
자기 통제가 가능해지며
유혹 앞에서도 주님의 뜻을 붙잡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내 삶을 다스려 주소서.
내 마음, 생각, 습관, 말, 행동, 모든 영역에서
성령께서 주도권을 갖게 하시고
절제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소서.
나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주님의 뜻을 붙잡을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92
간증기도

내 삶의 모든 여정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간증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

1. 삶 자체가 간증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는 말로만 하나님을 증거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 삶의 걸음 하나하나, 매일의 선택과 태도,
사람들과의 관계와 시간의 사용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살아 있는 간증이 되게
하소서.
나는 모든 형식과 위선의 영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누군가가 저를 바라볼 때
설교보다 강한 메시지가 전해지게 하소서.
"저 사람의 인생엔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다"
이런 고백이 타인의 입에서 흘러나오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난 중에도 낙심하지 않고,
축복 중에도 교만하지 않으며,
늘 주님을 향해 걸어가는 그 걸음이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증명하는 통로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 34:8]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

다" 하신 말씀처럼
제가 만난 하나님, 제가 경험한 하나님,
제가 의지한 하나님을 삶 전체로 맛보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이 많아질수록 진심은 흐려지고,
설명이 길어질수록 감동은 약해지기에
제 존재 자체가 주님을 담는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삶으로 간증할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하나님을 드러낼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주님의 그릇이 될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 나의 약함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자랑할 것이 없고, 내세울 만한 것도 없으며,
오히려 부끄러운 과거와 실수가
제 삶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는 모든 자만과 부끄러움의 영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 바로 그 약함이 간증이 되게 하소서.
넘어졌던 자리에서 일어났고,
눈물 흘렸던 골짜기에서 위로받았으며,
절망의 끝에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았던
그 모든 여정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야기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후 12:9]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 주
님의 말씀처럼,
나의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빛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은 성공담에 귀를 기울이지만,
주님은 회복의 이야기로 영광 받으십니다.
내 실패가 은혜의 무대가 되게 하시고,
내 눈물이 구원의 씨앗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약함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 드리며 그분의 일하심을 자랑하는

간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약함으로 하나님을 자랑할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은혜의 무대가 될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 고난의 시간을 간증으로 바꾸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는 고난이 싫습니다.
어려움과 눈물, 고통과 외로움,
그 어떤 것도 기쁘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인간임을 고백합니다.
나는 모든 원망과 낙심의 영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하지만 주님, 돌아보면 제 인생에서
가장 하나님을 가까이 만난 시간이
바로 고난의 때였음을 고백합니다.
그 시간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깊은 위로도 몰랐을 것이고,
진정한 믿음의 고백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어떤 고난이 닥쳐오든
그 시간이 그냥 흘러가지 않게 하소서.
그 눈물의 순간을 꿰어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로 엮어가게 하시고,
결국 간증의 열매로 맺히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롬 8:28]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
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셨듯,
고난까지도 선을 이루는 재료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을 원망으로 흘려보내지 않고
기도로 흡수하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로 제 삶을 채워주소
서.
나는 고난을 간증으로 바꿀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하나님의 위로를 전할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희망의 간증이 될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 말보다 삶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말로만 되는 줄 알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말보다 삶으로 전해질 때
더 깊은 울림과 감동을 준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나는 모든 형식적 전파와 위선의 영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외치기 전에,
내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라는 말을 듣게 하소서.
나의 태도, 인내, 친절, 용서, 정직, 감사…
이 모든 것이 복음의 편지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후 3:2-3]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먹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 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라"
고백한 말씀처럼 제가 살아 있는 복음의 편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은 금세 잊혀지지만 삶은 기억됩니다.
사람들은 설교보다 태도를 기억하고,
말보다 눈빛과 미소에서 진심을 느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제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닮은 향기로 가득하게 하시고,
그 삶을 통해 누군가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소서.
나는 삶으로 복음을 전할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예수님을 닮을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하나님의 향기가 될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 끝까지 믿음을 지켜 간증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증은 단지 한순간의 감동 이야기가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지켜 나아가는
한 사람의 전 인생에서 드러나는 영광임을 믿습니다.
나는 모든 흔들림과 포기의 영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처음의 감격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지막까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고 걷는 길
임을 압니다.
하나님, 저의 평생이 간증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젊을 때에도, 중년이 되어도,
노년에 이를 때에도,
한결같이 주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환경이 변해도, 건강이 약해져도,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져도
주님을 향한 믿음만큼은 변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딤후 4:7]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
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의 마지막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는 끝까지 믿음을 지킬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평생 주님을 높일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할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93
공동체기도

교회와 소그룹 공동체가 하나 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해달라는 기도

1.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당신은 우리를 혼자가 아닌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신앙은 개인적인 선택이지만,
그 열매는 공동체 안에서 맺어지고 자라납니다.
나는 모든 이기심과 분열의 영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와 소그룹 안에
당신의 마음이 흐르게 하소서.
개인의 생각이 앞서기보다 하나님의 뜻이 중심이 되게 하시고,
내가 옳다고 주장하기보다 서로를 이해하고 품는 사랑이 우선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골 3:14-15]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이 말씀처럼, 우리 공동체가 사랑으로 묶이고, 평강으로 인도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공동체는 서로 다른 이들의 만남입니다.
성격이 다르고, 삶의 배경이 다르고,
신앙의 깊이도 각기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 우리가 하나 되는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공동체 안에 갈등이 있다면 화해의 길을 열어 주시
고,
오해가 있다면 대화의 문을 열게 하시며,
소외된 자가 있다면 따뜻한 손길로 품게 하소서.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사랑과 평강을 따를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하나됨의 기쁨을 누릴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 공동체 안에 서로를 세우는 사랑이 있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공동체는 나에게 주신 선물임을 믿습니다.
내가 힘들 때 기도해 주는 이들이 있고,

내가 기뻐할 때 함께 웃어주는 이들이 있으며,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며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바로 공동체임을 감사합니다.
나는 모든 비교와 무관심의 영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 서로를 세우지 못한 채
비교하고, 판단하고, 무관심하게 바라보았던
제 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공동체 안에 진짜 사랑이 회복되게 하소서.
말 한 마디로 격려하고, 기도 한 문장으로 서로를 붙들며,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그리스도의 몸된 가족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롬 12:10]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이 말씀처럼
내가 먼저 존경하고,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 나눔이 형식이 되지 않게 하시고,
기도의 시간이 짐이 되지 않게 하시며,
모임이 단지 일정이 아닌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나는 서로를 세울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사랑으로 섬길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하나님의 집을 지을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 공동체 안에 성령의 하나됨이 흐르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공동체가 외적으로는 모였으나
마음으로는 흩어져 있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닌 모임일 뿐임을 고백합니다.
나는 모든 분열과 자존심의 영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와 소그룹 안에
성령의 하나됨이 흐르게 하소서.

성령님이 중심이 되시고, 그분의 음성을 함께 듣고,
그분의 뜻에 함께 순종하는 영적인 일치가 이뤄지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엡 4:3]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을 힘써 지키라"
하신 말씀처럼 하나됨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성령이 이루시는 것이기에,
우리가 그 하나됨을 지켜가는 데 힘쓰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편견을 걷어내시고,
우리의 자존심을 꺾으시고,
겸손과 온유로 서로를 섬기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의 임재 안에서 기도가 터지고,
말씀이 살아 움직이며,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살아나는
참된 공동체로 자라가게 하소서.
나는 성령의 하나됨을 구할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겸손으로 섬길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살아나는 공동체를 선포하노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 공동체가 세상의 빛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공동체는 단지 내부의 위로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선교적 사명을 지닌
빛과 소금의 통로임을 믿습니다.
나는 모든 이기심과 내향적 태도의 영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세상 앞에
당당히 빛을 비추는 존재가 되게 하소서.
서로 사랑하는 모습으로 세상이 교회를 바라볼 때 감동하게 하시고,
함께 섬기며 나누는 손길로 주님의 마음을 전달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 5:16]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하신 대로, 우리 공동체의 사랑과 섬김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도구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교회를 향해 많은 질문을 던지지만,
우리는 말이 아닌 삶으로 답하게 하시고,
소그룹 모임 하나하나가 이웃에게 열려 있는 축복의
문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교회를 위해 존재하지 않고
세상을 위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 시작이 되게 하소서.
나는 세상의 빛이 될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사랑으로 섬길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 공동체 안에 은사가 조화롭게 사용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공동체 안에는 각기 다른 은사가 있음을 믿습니다.

누군가는 말씀을 전하고, 누군가는 섬기며,
누군가는 기도하고, 누군가는 조용히 눈물로 헌신합니다.
나는 모든 경쟁과 서열의 영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다양한 은사가 서로 충돌하지 않고
서로를 존중하며 조화롭게 사용되게 하소서.
누군가가 더 앞서 보이거나 누군가는 덜 드러난다고
해서
서열을 만들지 않게 하시고,
모두가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귀하고 소중한 지체임을 인정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전 12:4-6]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id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이 말씀처럼,
모든 은사가 하나님의 뜻 아래 사용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공동체가 경쟁이 아닌 협력이 되게 하시고,

비교가 아닌 격려가 되게 하시며,
누군가가 넘어질 때 함께 일으키는 은혜의 연결망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몸으로 연결된 우리는 서로의 약함을 덮고,
서로의 강점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나는 은사를 조화롭게 사용할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협력과 격려로 섬길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94

세대기도

한국 교회의 다음세대가
믿음을 잃지 않도록 기도

1. 믿음의 계보가 끊어지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조상들은 눈물로 복음을 지켰고,
핏값으로 교회를 세우며,
기도의 골방에서 나라와 자녀 세대를 위해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나는 모든 무관심과 세속의 영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지금 이 시대는 한국 교회의 다음세대가
점점 사라지고 있음을 고통스럽게 바라봅니다.
주일학교가 비어가고, 청소년 예배가 줄어들고,
대학 청년들은 교회를 떠나며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에 물들어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다음세대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이 땅의 교회는 조용히 무너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음세대를 위해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 6:6-7]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지니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말씀을 삶으로 가르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에서, 교회에서, 학교와 일터에서
다음세대에게 하나님을 전하게 하소서.
우리의 말과 태도와 예배가 그들에게 살아 있는 간증
이 되게 하소서.
나는 믿음의 계보를 이어갈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말씀으로 가르칠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다음세대를 위한 간증이 될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 세상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세대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믿음을 유지하기에는 너무나 치열하고

신앙을 고백하기에는 너무나 조롱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나는 모든 두려움과 세속의 영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학교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심지어 온라인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이 이상하게 여겨지고,
외면당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 속에서도 담대하게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다음세대가 되게 하소서.
세상 문화에 휩쓸리지 않도록 말씀으로 기준을 세우게 하시고,
거짓과 음란, 세속과 타협을 거부하며
오히려 진리 위에 굳게 선 하나님의 사람들로 자라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딤후 3:14-15]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 말씀처럼, 어릴 때부터 받은 믿음의 씨앗이
절대 사라지지 않도록 지켜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자랑하는
용기 있는 다음세대가 되게 하소서.
나는 믿음을 지킬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진리 위에 설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하나님을 자랑할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 다음세대를 위한 기도의 세대가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세대가 무너지는 이유는 기도가 멈췄기 때문입니다.
이전 세대가 누렸던 부흥은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아버지, 기도하는 교사와 목회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모든 무관심과 바쁨의 영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하지만 지금 우리는 바쁨과 무관심 속에
자녀 세대를 위해 울지 않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 금식하지 않고,
세상의 성공만을 위해 달려가는 어른이 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다시 기도의 세대가 일어나게 하소서.
다음세대를 위한 눈물의 기도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예배당 구석에서 다시 터져 나오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애 2:19] "밤 초경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네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네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야로 손을 들고 부르짖을지어다"
이 말씀처럼, 다음세대의 생명을 살릴 기도의 손이
이 땅 곳곳에서 올라오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부모가 되고, 기도하는 교사가 되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그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서 반드시 이 땅의
다음세대를 다시 살리실 줄 믿습니다.
나는 기도의 세대가 될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다음세대를 위해 울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부흥을 구할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세대가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예배가 그들의 삶과 무관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나는 모든 형식과 무감각의 영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음세대의 예배가 형식이 아니라
생명이 되게 하소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을 경험하
게 하시고,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시며,
기도를 통해 살아 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

서.

하나님 아버지,
수련회에서, 캠프에서, 혹은 일상의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실재하심을 만나는 감격이
그들의 삶에 새겨지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 27:4]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
하는 그것이라"
이 고백이 다음세대의 입술에서 진심으로 흘러나오
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다음세대가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게 하소
서.
그래서 어떤 유혹이 와도 예배의 감격을 떠올리며 돌
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떠날 수 없는 거룩한 세대로 자라나
게 하소서.
나는 생명의 예배를 드릴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하나님을 만날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거룩한 세대가 될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 다음세대를 위한 하나님의 비전을 품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세대는 결코 희망 없는 세대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새 일을 이루실
거룩한 군대요, 하나님 나라의 미래입니다.
나는 모든 절망과 좌절의 영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 세대가 진로와 학업,
인간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세상 성공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더 귀하게 여기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의사가 되어 환자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
교사가 되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
예술가가 되어 하나님을 노래하는 사람,

정치인이 되어 공의를 세우는 사람,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자라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욜 2:28]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하신 말씀처럼 다음세대 안에 하나님의 비전이 부어지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그들을 세우는 데 집중하게 하시고,
부모가 그들의 사명을 함께 발견해주게 하시며,
공동체가 그들의 믿음을 응원하는 영적 배경이 되게 하소서.

나는 하나님의 비전을 품을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다음세대를 세울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복음의 불길을 일으킬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95
희생기도

남을 위해 희생하는 자가 되게 해 달라는 기도

1. 나의 삶을 들여 누군가를 살리는 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기적인 마음으로 살았던 제 삶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언제나 내가 편한 길, 내가 유익한 방향만을 택했고
다른 사람의 고통에는 눈감고 외면하며 살아왔습니다.
나는 모든 이기심과 무관심의 영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며
진정한 사랑은 희생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 15:13]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 말씀처럼,
제가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내 시간과 마음과 물질,
심지어 내 삶까지도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은 말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 것이고,
희생은 감정이 아니라 행동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내 삶이 누군가의 회복과 위로가 되게
하소서.
내 존재 자체가 기쁨과 생명, 소망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희생으로 사랑할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누군가를 살릴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소망의 도구가 될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 예수님의 희생을 본받아 살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아무 죄 없으셨으나
저를 위해 조롱과 침뱉음과 채찍을 받으시고
끝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 희생으로 내가 살았고
그 피로 내가 용서받았고
그 사랑으로 오늘도 살아갑니다.

나는 모든 인색함과 자존심의 영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저는 여전히 누군가를 위해
조금이라도 손해 보려 하지 않고,
내 것을 나누는 데 인색하며
자존심 하나 꺾지 못한 채 이기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예수님의 희생을 묵상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본받아 저도 작은 희생이라도
기꺼이 드릴 수 있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빌 2:5-7]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이 말씀처럼, 자기 자신을 낮추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오늘 저도 품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예수님의 희생을 본받아
겸손과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나는 예수님을 본받을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낮아질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사랑으로 섬길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 내 희생이 누군가의 소망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자기 이익을 좇으며
자기만을 위하고 희생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압니다.
진짜 빛은 자신을 태워 어둠을 밝히는 촛불과 같고,
진짜 사랑은 자신을 낮추어 남을 세우는 것임을.
나는 모든 이기심과 세상적 가치의 영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 작은 섬김과 헌신,
내 수고와 눈물의 기도가
누군가의 삶을 붙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후 4:10-11]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음을 몸에 짊어 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
라…
죽음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서 죽어지는 일이
누군가 안에 생명으로 자라나게 하소서.
내 희생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군가에게 복음이 되어 흘러가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희생이 누군가의 소망이 되도록
하나님의 손길로 이끌어 주소서.
나는 소망을 주는 희생을 선포하노라!
나는 복음의 통로가 될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생명을 전할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 희생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희생이라는 말은 언뜻 무겁고 슬프게 느껴지지만
그 안에는 사랑의 깊은 기쁨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담겨 있음을 믿습니다.
나는 모든 불만과 억지의 영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내가 드릴 때 주님은 채우시고,
내가 낮아질 때 주님은 높이시며,
내가 흘려 보낼 때 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주님,
오늘도 기쁨으로 희생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억지로가 아닌 감사함으로,
불만이 아닌 감동으로 드리는 희생이 되게 하시고,
작은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처럼
성실히 감당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히 13:16]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

지 말라
이러한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이 말씀처럼, 내 희생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쁨으로 희생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내가 드리는 모든 것이 주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되게 하소서.
나는 기쁨으로 희생할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영광의 통로가 될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 희생하는 삶을 통해 예수님을 전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삶으로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이
더 강력한 전도임을 믿습니다.
나는 모든 형식과 위선의 영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내가 누군가를 위해 기꺼이 희생할 때
그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저를 통해 그리스도의 마음을
발견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 5:16]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하신 주님, 내 희생이 빛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누군가를 위해 한 걸음 더 걷고,
한 마디 더 품고, 한 번 더 섬기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나의 희생을 통해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그들이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는
복음의 열매가 맺히게 하소서.
나는 희생으로 예수님을 전할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빛이 될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복음의 열매를 맺을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96
부르심기도

하나님께서 주신 부르심과 사명을 깨닫고
순종하게 해달라는 기도

1.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는 귀를 열어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당신은 아무 목적 없이 저를 이 땅에 보내지 않으셨고,
어느 날 갑자기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영원 전부터 당신의 계획 속에 지으신
하나님의 작품임을 믿습니다.
나는 모든 소음과 무감각의 영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저는 바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을 귀를 잃어버리고,
세상의 소리에 묻혀 하나님의 뜻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제 내면의 귀를 열어 주소서.
말씀이 말씀으로 들리게 하시고,
성령의 미세한 음성에도 순종할 수 있는
영적 민감함을 회복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 30:21]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네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이 말씀이 오늘 제 삶의 현실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그 음성에 다시 예민해지게
하시고,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당신이 가리키시는 그 길을 분명히 알게 하소서.
나는 부르심을 들을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말씀에 귀 기울일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순종하는 자가 될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많은 이들이 "나는 누구인가?" "왜 살아야 하는가?"를
묻습니다.
저 또한 그런 질문을 안고 살아가며
때로는 의미 없이 방황하고,

어떤 길이 내 길인지 혼란스러워합니다.
나는 모든 혼란과 방황의 영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하지만 하나님, 당신은 저를 목적 없이 지으신 분이 아니시며,
분명한 뜻과 계획을 가지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렘 29:11]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저를 향한 선한 계획을 품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부르심을 발견하게 하소서.
내가 일하는 자리가 사명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겪은 고난과 아픔조차 당신의 계획 속에서

간증이 되게 하시고, 지금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소서.
나는 하나님의 계획을 찾을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사명의 자리를 지킬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르심을 깨닫는 것도 은혜이지만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것은
더 큰 은혜요, 싸움임을 고백합니다.
나는 모든 자만과 태만의 영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당신이 저를 부르신 것은 그저 구원받고
천국에 가라는 부르심이 아니라
이 땅에서 당신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라는 거룩한 사명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엡 4:1]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이 말씀대로, 부르심에 걸맞는 삶을 살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받은 직분, 위치, 재능, 배경 모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임을 깨닫고
그것을 정직하고 충성스럽게 사용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기 자랑이 아닌 하나님을 높이며,
자기 의가 아닌 예수님의 십자가를 드러내는
겸손한 삶을 살게 하소서.
나는 부르심에 합당할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하나님을 높일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충성스럽게 섬길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 부르심 앞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제 계획과 맞지 않거나,
제가 기대했던 방향과 다를 때가 있습니다.
나는 모든 망설임과 이익 추구의 영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그럴 때마다 저는 망설이고,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안정과 이익을 먼저 생각합니다.
하나님, 그런 저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처럼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고백이 제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삶의 실천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히 11:8]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갔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 말씀처럼,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을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결과를 보지 않아도, 확신이 들지 않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예"라고 답할 수 있는
담대함과 결단을 주옵소서.
나는 온전히 순종할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믿음으로 나아갈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 평생을 주님의 부르심에 헌신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르심은 한때의 감동이 아니라
평생을 걸어가야 할 사명의 길임을 고백합니다.
나는 모든 식어짐과 낙심의 영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처음 은혜받았을 때의 결단이
시간이 지나면서 식어지지 않게 하시고,
환경과 감정의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어떤 자리에서 어떤 일을 하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거룩하게 이어지는 삶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빌 3:14]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 말씀처럼, 부르심을 향해 평생 달려가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치고 낙심할 때에도,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에도,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그 사실 하나로
다시 일어나 달려가는 자가 되게 하소서.
나는 평생 헌신할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부르심을 붙잡을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할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97
고백기도

감추어진 마음과 죄, 상처를
하나님께 솔직히 털어놓는 기도

1.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나아가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당신 앞에서는 감출 것이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으면서도
저는 여전히 제 진짜 마음을 숨기고, 감추고, 포장하며 살아갑니다.
나는 모든 가면과 두려움의 영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 앞에서 괜찮은 척하고, 스스로도 괜찮다고 믿으려 애쓰지만
사실 제 내면은 두려움과 상처, 죄책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모든 가면을 벗고 그저 있는 그대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이 불안함,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모를 이 외로움,
하나님께조차 꺼내기 어려웠던 기억들까지
이제는 주님 앞에 솔직히 드러내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 139:1-2]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나이다"
이 말씀처럼, 저를 누구보다 깊이 아시는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마음을 다 아시는 하나님, 숨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주님 품 안에 제 영혼을 온전히 내려놓게 하소서.
그때 참된 자유와 치유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나는 솔직히 나아갈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주님 앞에 드러낼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자유와 치유를 받을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 내 안의 죄를 정직히 고백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를 범하고도 종종 그것을 죄라 인정하지 않고
합리화하거나, 감추거나, 혹은 잊으려 애쓰며 살아왔

습니다.
나는 모든 합리화와 죄책감의 영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하지만 죄는 사라지지 않고 내 안에 흔적으로 남아 양심을 무디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며
결국 내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제 더 이상 피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지은 죄를 하나님의 빛 아래 꺼내어 고백합니다.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
주님을 의식하지 못한 채 스스로의 욕심과 감정대로 살아왔던 날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 32:5]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 말씀처럼 죄를 고백할 때 용서가 시작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정직한 고백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덮어 주옵소서.
다시는 그 죄가 나를 정죄하지 못하도록 은혜의 옷으로 덧입혀 주소서.
나는 죄를 고백할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용서를 받을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은혜로 덧입혀질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 치유되지 않은 상처까지 고백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지금껏 숨기고 감춰왔던 상처들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 믿었던 사람의 배신,
불공평한 상황에서 느꼈던 분노와 좌절,
그 상처들을 제대로 다루지 못한 채 억누르고 덮어두며 살아왔습니다.
나는 모든 억압과 상처의 영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덮인 상처는 결코 사라지지 않고,
삶의 반응으로, 감정의 폭발로 다시 모습을 드러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그 아픈 상처들까지 주님 앞에 솔직히 꺼내놓고 싶습니다.
누군가에게 말할 수 없었던 가장 깊은 내면의 고통까지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 147:3]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하신 말씀처럼, 제 안에 아직도 회복되지 않은 마음들을
주님이 싸매주시고, 부드럽게 어루만져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상처로 인해 굳어진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부드러워지게 하시고,
닫혀버린 내 마음의 문이 다시금 은혜로 열리게 하소서.
나는 상처를 고백할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치유를 받을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 미움과 용서하지 못한 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누구에게 상처받았을 때 그 사람을 용서하기보다
내 마음 깊이 미움과 원망을 품으며 스스로를 가두어 버렸습니다.
나는 모든 미움과 원망의 영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겉으로는 웃고 지내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그 일을 떠올릴 때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감정이 올라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의 이 용서하지 못한 마음을 고백합니다.
저도 용서받은 자이기에 누군가를 용서해야 함을 알지만,

그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기에
오늘 이 무거운 마음을 그대로 들고 나아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 6:14-15]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처럼 용서는 내가 먼저 자유를 얻는 길임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 힘으로 용서할 수 없기에
성령께서 그 사람을 놓을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나의 상처도, 그 사람의 잘못도 십자가 아래 맡기게 하소서.
나는 용서할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자유를 얻을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십자가를 붙잡을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 나 자신에 대한 정직한 고백을 드리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는 때로 하나님보다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주님을 위한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은 내 만족과 인정,
성공을 추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나는 모든 위선과 자기기만의 영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겉으로는 신앙 좋은 사람처럼 보이고 싶고,
남들보다 더 의로운 척하며 스스로를 속이며 살아온 적이 많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의 이 자기기만을 내려놓고
오늘은 주님 앞에 정직하게 서고 싶습니다.
말로는 "하나님 뜻대로"라고 하지만 마음은 "내 뜻대로"를 바랐던
이중적인 모습, 겉과 속이 다른 신앙생활, 회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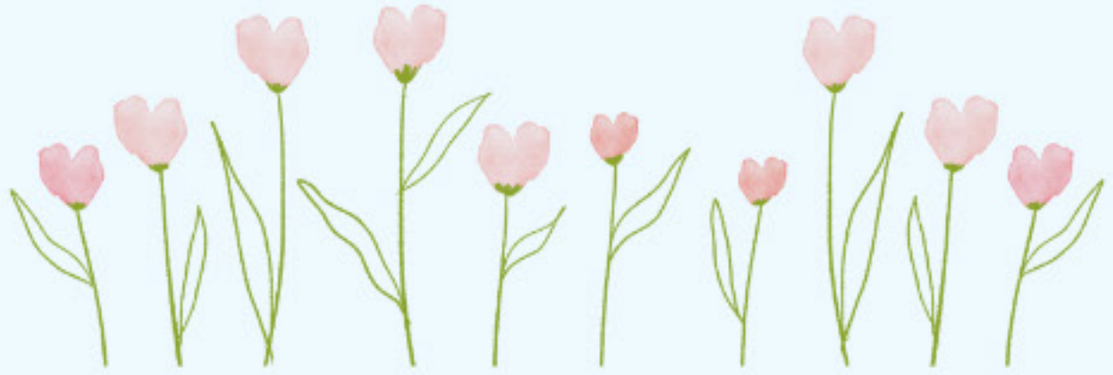
하나님 아버지,
[시 51:6] “주께서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 속에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하신 말씀처럼 중심이 진실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식 없이, 변명 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와
나 자신을 다시 돌아보게 하소서.
그리고 내 안의 위선을 벗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소서.
나는 정직하게 고백할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진실한 자가 될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하나님의 빛을 누릴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98
성전기도

내 몸과 삶이 거룩한 성전이 되어
주님께 드려지게 해달라는 기도



1. 내 몸이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는 제 몸을 나의 것이라 여긴 채
마음대로 사용하며 살아온 날들이 많았습니다.
나는 모든 육체의 정욕과 죄의 영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말씀은 분명히 말합니다.
[고전 6:19-20]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
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내가 소유한 몸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진 성전임을
깨닫게 하소서.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움직이는 모든 행위가
거룩한 제사와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 저를 지배해 주소서.
죄에 이끌리지 않게 하시고, 육체의 정욕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제 몸과 삶을 성령의 전으로 드리오니
주께서 기뻐 받으시고 사용하여 주소서.
나는 내 몸을 성전으로 드릴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 마음과 생각이 성전처럼 정결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전은 단지 외적인 건물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이 머무는 내면의 공간이기도 함을 믿습니다.

나는 모든 욕심과 불평의 영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제 마음은 욕심과 시기, 비판과 불평으로 더

럽혀져 있고,
생각은 거짓과 불신앙, 불안과 자책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마음을 정결하게 씻어주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내면의 깊은 죄를 씻어주시고,
생각의 구조 자체가 변화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성전의 향기처럼 주님의 거룩함이 퍼지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 51:10]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고백이 오늘 저의 기도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곧 성전입니다.
성전은 깨끗해야 주께서 거하시고, 주의 임재가 머무는 처소가 되기에
오늘도 제 내면의 성전을 청소하게 하시고,
주의 평강과 진리가 그 안에 거하게 하소서.
나는 정결한 마음을 가질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말씀으로 채워질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 삶 전체가 주의 성전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당에 있을 때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제가 살아가는 일상의 모든 시간이
주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모든 세속과 분리된 삶의 영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출근길도 예배가 되고, 식사 시간도 성결함이 흐르며,
사람들과의 대화, 일터의 수고, 심지어 쉬는 시간조차도
주님께 드려지는 성전의 향기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롬 12:1]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신 말씀처럼 삶 전체가 예배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일만이 아닌 매일, 예배당뿐 아니라 가정과 일터와 골방에서
내 삶이 성전의 거룩함을 담아내게 하시고,
사람들이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삶을 따로 떼어 놓지 않고 전부를 드리는
성전된 존재로 살아가게 하소서.
나는 삶 전체를 드릴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매일 예배할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낼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전은 단지 거룩한 건물이 아니라,

성령께서 거하시는 임재의 처소임을 믿습니다.
나는 모든 혼란과 근심의 영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제 안은 너무 자주 죄로 더러워지고,
근심과 세상 욕심으로 채워져
성령님이 편히 거하실 수 없는 혼란스러운 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제 안의 성전을 정돈하길 원합니다.
불신을 몰아내고, 의심을 내쫓으며
성령께서 기뻐 머무시는 평안과 믿음의 처소로 바꾸어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전 3:16]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이 내게 실상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 제 안에 오셔서 다스려 주옵소서.
모든 결정, 판단, 관계, 감정에 이르기까지

성령의 흐름과 질서가 머무르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 안에 사는 삶을 배우게 하소서.
나는 성령의 성전이 될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평안과 믿음을 선택할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를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 세상 가운데 성전된 삶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들을 따르지만,
하나님은 마음의 성전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나는 모든 타협과 불의의 영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세상 속에서도 내가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으며,
무너진 가치 속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는
성전으로 존재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이 내 안에서 하나님을 보고,
내 말에서 진리를 느끼며,
내 행동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맡게 하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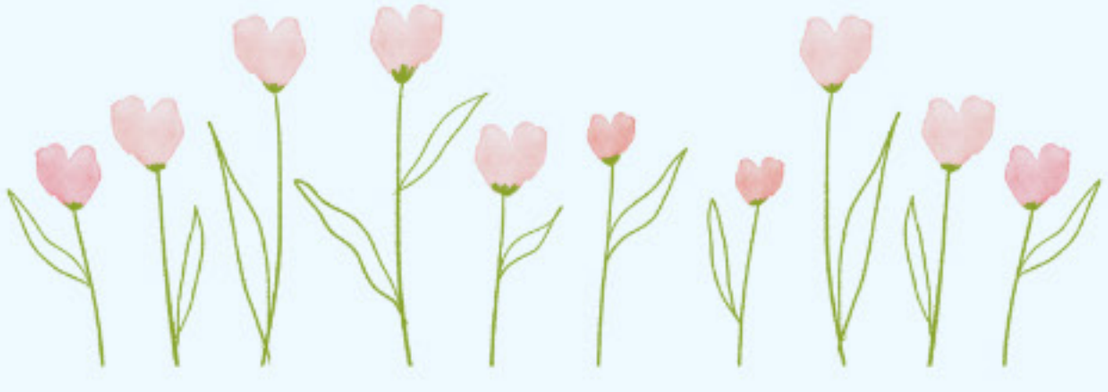
하나님 아버지,
[마 5:16]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씀처럼, 성전된 삶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
내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안에서만 빛나는 신앙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견고히 설 수 있는 진짜 성전의 모습
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나는 거룩한 성전으로 살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세상 속에서 빛날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99
자족기도

가진 것에 만족하고, 비교와 탐욕에서 벗어나
감사로 살아가는 기도



1. 비교의 눈을 감고 은혜의 눈을 뜨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제 안에는 끊임없는 비교의 눈이 있습니다.
남의 집, 남의 자녀, 남의 성공을 바라보며
내 삶을 초라하게 여기고, 감사보다 불만을 품고 살아갑니다.
나는 모든 비교와 불만의 영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비교의 눈을 감게 하소서.
사람을 통해 나를 재지 않고,
세상의 잣대에 내 가치를 맞추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빌 4:11-12]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 말씀처럼, 형편을 따르지 않고,
주님을 따라 만족하는 법을 배우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가진 것들이 결코 작지 않으며,
하나님의 손에서 받은 귀한 선물임을 깨닫게 하시고
남과 비교할수록 불행해지는 마음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의 눈으로 내 삶을 해석하게 하시고,
자족의 눈으로 오늘 하루를 걸어가게 하소서.
나는 은혜의 눈을 뜰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감사로 살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하나님의 선물을 누릴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 탐욕이 아니라 감사로 채워지는 마음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욕망은 채울수록 더 허기지고,
소유는 늘어날수록 더 불안해집니다.
세상은 “더 가지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지금으로 만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모든 탐욕과 불안의 영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의 마음을 탐욕이 아닌 감사로 채우게 하소서.
없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이미 받은 것들을 세어보게 하시며,
부족한 것이 아니라 넘치는 은혜를 매일 깨닫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딤전 6:6-8]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 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매
또한 아무 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
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대로 자족은 단순한 체념이 아니라
하늘의 복을 아는 지혜임을 깨닫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소유가 아니라 평안이,
성공이 아니라 주님의 임재가 진짜 복이라는 진리를

삶으로 고백하게 하소서.
나는 감사로 채워질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주님의 임재를 고백할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 있는 그대로의 나를 감사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는 종종 "내가 더 예뻤다면, 더 똑똑했다면, 더 잘났다면…"
하는 생각에 빠져 지금의 나를 부정하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존재를 스스로 하찮게 여겼습니다.
나는 모든 자기 부정과 비교의 영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오늘은 다르게 고백합니다.
주님, 이 모습 이대로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 주신 성격, 환경, 모습, 가정,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믿고
그 사실 앞에 고개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 139:14]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이 말씀대로, 나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솜씨임을 기억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의 기준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나의 가치를 발견하게 하시며,
스스로를 자족하는 마음으로 대하게 하소서.
나는 있는 그대로 감사할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하나님의 솜씨를 찬양할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내 가치를 발견할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삶은 언제나 뜻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예기치 않은 어려움, 예상 밖의 실망,
이해할 수 없는 손해와 상처가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릴 때가 많습니다.
나는 모든 불평과 낙심의 영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 그 속에서도 자족을 배우게 하소서.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환경이 어렵더라도 감사를 선택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살전 5:18]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대로, 감사는 감정이 아니라 결단임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좋을 때만 감사하지 않고, 힘들어도 감사하는
성숙함을 허락해 주시며,
자족의 뿌리가 믿음 위에 내려지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를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일상의 순간마다 감사의 제목을 찾아내게 하시고,
불평이 떠오를 때마다 입술에 감사를 먼저 올리게 하
소서.
나는 범사에 감사할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믿음으로 자족할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감사의 삶을 살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끝없는 부족함과 영원히 채워지지 않는 결
핍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나는 모든 결핍과 세상적 욕망의 영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저의 영혼은 오직 예수님으로만 만족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게 다른 것이 없어도 예수님 한 분이 계시기에
모든 것이 있다고 고백하는 믿음을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 73:25-26]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
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고백이 제 영혼의 노래가 되게 하소서.
사람이 아닌 주님으로, 성공이 아닌 주님으로,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닌 누구와 함께하느냐로
삶의 가치를 정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계시면 그 어디나 천국임을 믿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더 이상 바라지 않게 하소서.
나는 예수님으로 만족할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주님을 사모할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천국의 삶을 누릴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00
열방기도

전 세계 열방과 선교지를 위해 중보하는 기도

1. 열방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당신은 온 땅의 창조주시며
민족과 언어, 문화와 국경을 뛰어넘어
모든 나라 가운데 주권을 가지신 열방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나는 모든 분열과 어둠의 영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나라와 민족은
전쟁과 기근, 정치적 억압과 종교적 탄압 속에 신음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의 이름조차 듣지 못한 채
생명을 잃고, 영혼은 멸망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복음이 국경을 넘어 도시와 농촌,
강대국과 오지까지 속히 전파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 24:14]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말씀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기도와 재정, 헌신과 삶을 드리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먼 나라의 고통을 내 고통처럼 느끼며
기도의 손을 들어 올리게 하소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복음을 전파할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열방을 품을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 선교지마다 복음의 빛이 비추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들고 떠난 선교사들의 발걸음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소서.
나는 모든 방해와 두려움의 영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언어가 통하지 않고, 문화가 다르고,

때로는 목숨의 위협 속에 있는 그 현장마다
하나님의 보호와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선교지에 세워진 교회마다 영적으로 견고히 서게 하시고,
그 땅의 사람들이 복음을 스스로 전하게 되는
자생적 부흥이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 60:1-3]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
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네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네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이 말씀이 선교지마다 실제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듣지 못한 미전도 종족에게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게 하시고,

방해하는 영적 어둠이 물러가며 하나님의 빛이 찬란히 임하게 하소서.
나는 복음의 빛이 비출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선교지의 부흥을 구할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전할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 박해받는 나라에 믿음을 지킬 힘을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감옥에 갇히고, 직장을 잃고, 가족에게 버림받고,
심지어 생명을 잃는 이들이 전 세계 곳곳에 있습니다.
나는 모든 박해와 억압의 영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북한과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와 이란,
중동과 아프리카, 아시아의 여러 나라에서
눈물로 믿음을 지키고 있는 성도들을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믿음을 굳건히 세우시고,
그들 안에 예수님의 위로와 영광이 더 크게 나타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히 10:34]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앎이라"
이 말씀처럼, 그들의 고난이 헛되지 않고
하늘의 영광으로 바뀌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또한 그들의 아픔에 눈감지 않게 하시고,
기도로 함께 싸우게 하시며 물질과 관심과 목소리로
함께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나는 박해받는 이들을 위해 기도할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믿음을 지킬 힘을 구할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하나님의 위로를 전할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 다음세대 선교 자원이 준비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는 점점 선교지보다 선교사가 부족해지고 있고,
복음 전파의 문은 열려 있으나
그 문을 들어갈 일꾼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나는 모든 부족함과 태만의 영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한국 교회 안에서 다음세대 선교 자원이 일어나게 하소서.
어릴 때부터 열방을 품는 기도를 가르치게 하시고,
청년들에게는 헌신의 용기를 주시며,
중장년들에게는 재정과 기도의 후원자로 세워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 9:37-38]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
이 말씀처럼, 우리가 열방을 향한 인재를 보내는 통로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목숨보다 복음을 더 귀히 여기는 담대한 세대가 일어나게 하시고,
한 사람의 결단이 수많은 영혼의 구원으로 이어지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 청년들, 교사들, 목회자들이
다음세대 선교를 감당할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게 하소서.
나는 선교 자원이 일어날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헌신의 용기를 구할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복음의 일꾼이 될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 내 삶이 열방을 위한 중보의 제단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열방을 위한 기도는 특별한 사람만의 몫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모든 자녀의 사명임을 믿습니다.
나는 모든 무관심과 이기심의 영을 파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열방을 위한 중보자가 되게 하소서.
비록 직접 갈 수 없어도 기도로 가게 하시고,
시간을 드려 무릎 꿇게 하시며,
마음을 드려 함께 울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겔 22:30]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내 앞에 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이 말씀이 저의 소명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열방을 위한 기도의 제단이 내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작은 골방 안에서 매일마다 세워지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품는 기도, 민족을 살리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자가 오늘 저로부터 시작
되게 하소서.
나는 중보의 제단을 세울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열방을 위해 기도할 것을 선포하노라!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말

이 책을 읽는 동안,
당신은 기도의 무릎 위에 성령의 불이 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책을 따라 기도하는 순간,
닫혔던 하늘문이 열리고, 멈췄던 응답이 다시 흐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기도할 줄 몰랐던 이가
눈물로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될 것이며,
지친 심령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살아나게 될 것입
니다.

이 책을 붙잡고 드리는 기도는
무너진 가정을 회복시키고, 끊긴 관계를 연결하며,

불가능의 벽을 허무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기도 중에
당신은 자신도 몰랐던 상처의 뿌리가 치유되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기도를 멈추지 않은 당신 앞에
하늘의 기적이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도착해 있을
것입니다.

기적의 기도

초판발행 2025. 5. 5
지 은 이 데이빗리 목사
펴 낸 이 홀리타임즈
등 록 제C-3913-988595
주 소 서울시 송파구 마천2동 175-1
전 화 010-3280-7689(데이빗리목사)
홈페이지 www.RevivalForChurch.com
이 메 일 inourlove@gmail.com

BEST SOLUTION FOR SUCCESS LIFE

초강추! CHANCE

참영성 참목회자 양성기관

World Spiritual Leadership Seminary

국제 신학교

강력한 능력으로 강력한 목회를 하고 싶습니까?
영성과 신학을 겸비한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까?
성령의 은사를 겸비한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까?
지금 바로 신청하면 **학비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역학 과정

사역학 학사과정

고졸생으로 졸업후
사역자로 섬기고 싶은 분

사역학 석사과정

대졸생으로 졸업후
사역자로 섬기고 싶은 분

접수 수시 접수

합격자발표 개인 면접 후 통보

목회학 과정

목회학 학사과정

고졸생으로 졸업후
교회를 개척하고 싶은 분

목회학 석사과정

대졸생으로 졸업후
교회를 개척하고 싶은 분

접수 수시 접수

합격자발표 개인 면접 후 통보

최고의 실력과 영성 능력을 겸비한 **훈련과정**

국제신학교는 성경과 성령 두 날개를 달고서 보다 강력한 목회를 할 수 있는 목회자와 사역자를 양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설립되었습니다. 국제신학교를 통해 당신도 강력한 목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셔서 세계 최상의 신학훈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데이빗리 학장

University of Arizona 석사
University of Hartford 석사
Gordon-Conwell 신학교 목회학석사
한국교회부흥운동본부 대표

국제신학교
서울시 송파구 마천로 51길 25
www.WSLseminary.com / 010-3280-7689